

육아가구의 삶의 질 제고 방안

김지현·권미경·차승은·김문정



육아가구의 삶의 질 제고 방안

저자

김지현, 권미경, 차승은, 김문정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지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차승은 (수원대학교 부교수)

공동연구원 김문정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연구보고 2024-09

육아가구의 삶의 질 제고 방안

발행일 2024년 11월
발행인 황옥경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육아정책연구소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세일포커스 02-2275-6894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6865-091-6 9359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전세계적으로 낮은 출산율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23년 합계출산율 0.72로 심각한 인구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6월 일·가정양립 지원, 돌봄·교육 지원, 결혼·출산·주택 지원 등의 3대 주요 분야에 집중한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여, 결혼, 출산, 양육을 하는 실수요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에서 육아가구의 어려움을 돌봄이나 일·가정 양립 등의 관점으로 논의를 해 왔다면, 본 연구에서는 육아를 하는 가구와 육아를 하지 않는 가구의 비교, 육아가구 중에서도 자녀 연령별 육아가구의 삶의 질 전반과 시간사용, 행복감, 부모됨에 대한 인식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육아를 하는 가구에서 느낄 수 있는 삶의 행복과 가치, 육아를 하면서 유지하기 어려운 삶의 질 요소를 살펴보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도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이 출산 장려보다는 삶의 질 제고로 전환되어 구조적 원인 파악과 해결을 통해 육아가구의 삶의 질 제고를 추구하고 있듯이, 육아하는 가구의 삶의 질을 검증된 지표를 통해 측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부모님들의 삶의 다양한 영역 속에서 삶의 질을 추구하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가 육아를 하면서 놓치고 있거나 어려운 측면을 파악하여 지원해주고 자녀의 성장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부모님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개발에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본 연구과정에 참여하여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부모님들, 전문가 분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2024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황 옥 경

요약	1
I. 서론	11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3
2. 연구내용	15
3. 연구방법	16
4. 연구범위	27
5. 연구진행 절차	27
II. 이론적 배경	29
1. 부모됨 및 자녀에 대한 가치 관련 선행연구	31
2. 삶의 질 관련 선행연구	37
3. 육아가구 삶의 질 측정 요소	54
III. 육아가구 생활시간분석	59
1. 육아가구 생활시간분석 개요	61
2. 육아가구의 생활시간분석: 비육아가구와의 비교	70
3. 육아가구의 시간 사용분석	82
4. 소결	101
IV. 삶의 영역별 육아가구의 삶의 질	107
1. 삶의 질 지표로 본 육아가구의 삶의 질	109
2. 육아가구 삶의 질 영향 요소	170
3. 육아가구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주요 영역	182
4. 소결	201

V. 부모됨 가치와 육아가구 양육지원 요구	207
1. 육아가구의 양육현황	209
2. 부모됨과 자녀에 대한 가치	227
3. 부모로서의 삶과 정책적 지원요구	238
4. 소결	251
VI. 육아가구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257
1. 결과 및 요약	259
2. 기본방향	262
3. 육아가구의 삶의 질 제고방안 세부과제	264
참고문헌	275
Abstract	281
부록	283
부록 1. 설문조사 질문지	283
부록 2. 심층면담 질문지	318



표 목차

〈표 Ⅰ-3-1〉 설문조사 표본구성	17
〈표 Ⅰ-3-2〉 육아가구 표본추출: 수도권/광역시/도지역 지역별 아동 분포	18
〈표 Ⅰ-3-3〉 육아가구 실제 표본: 지역별 비례배분	18
〈표 Ⅰ-3-4〉 비육아가구 표본추출: 연령별 만1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 현황 ..	19
〈표 Ⅰ-3-5〉 비육아가구 표본추출: 해당 연령별 지역별 분포	19
〈표 Ⅰ-3-6〉 비육아가구 실제 표본: 연령별, 지역별 비례배분	20
〈표 Ⅰ-3-7〉 설문조사 내용	20
〈표 Ⅰ-3-8〉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인구학적 특성	21
〈표 Ⅰ-3-9〉 부모 심층면담 대상 구성	22
〈표 Ⅰ-3-10〉 심층면담 참여자 특성	23
〈표 Ⅰ-3-11〉 심층면담 대상별 조사내용	24
〈표 Ⅰ-3-12〉 전문가 자문회의 일정 및 내용	25
〈표 Ⅰ-3-13〉 KICCE 정책 공모전 개요	25
〈표 Ⅰ-3-14〉 KICCE 정책 공모전 수상작 및 내용	25
〈표 Ⅱ-1-1〉 부모됨 관련 주제와 개념 정의	33
〈표 Ⅱ-2-1〉 통계청 통계개발원 ‘국민 삶의 질 지표’	45
〈표 Ⅱ-2-2〉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	46
〈표 Ⅱ-2-3〉 통계청 ‘사회조사’ 조사내용	48
〈표 Ⅱ-2-4〉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 조사내용	49
〈표 Ⅱ-2-5〉 OECD 웰빙 프레임워크의 주요 지표	51
〈표 Ⅱ-2-6〉 유럽연합 유로스타트의 삶의 질 프레임워크	52
〈표 Ⅱ-3-1〉 삶의 질 측정 지표간 영역 비교	54
〈표 Ⅱ-3-2〉 육아가구 삶의 질 영역별 측정 요소	56
〈표 Ⅱ-3-3〉 육아가구 양육현황 및 부모됨 가치 관련 질문	57
〈표 Ⅲ-1-1〉 응답자 및 응답 가구 특성	66
〈표 Ⅲ-1-2〉 시간관련 변수 구성	69
〈표 Ⅲ-2-1〉 가구 유형별 생활시간배분 양상과 차이	71
〈표 Ⅲ-2-2〉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의 개인유지시간 분포: 평일, 주말	74
〈표 Ⅲ-2-3〉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의 의무시간 분포: 평일, 주말	75

〈표 Ⅲ-2-4〉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의 재량시간 분포: 평일, 주말	76
〈표 Ⅲ-2-5〉 육아/비육아가구의 식사, 교제, 여가활동에서 자녀와 함께한 시간	78
〈표 Ⅲ-2-6〉 육아/비육아가구의 긍정적 기분과 관련이 있는 활동 시간 분석표 ..	82
〈표 Ⅲ-3-1〉 자녀연령별 개인유지시간 영역에서 배분 차이	85
〈표 Ⅲ-3-2〉 자녀연령별 의무시간 영역에서 배분 차이	86
〈표 Ⅲ-3-3〉 자녀연령별 재량시간 영역에서 배분 차이	88
〈표 Ⅲ-3-4〉 자녀연령별 자녀와 식사, 교제, 여가시간에서 부와 모의 차이	91
〈표 Ⅳ-1-1〉 주관적 웰빙 지표(전체)	110
〈표 Ⅳ-1-2〉 주관적 웰빙 지표1(육아가구/비육아가구 비교)-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행복도	110
〈표 Ⅳ-1-3〉 주관적 웰빙 지표2(육아가구/비육아가구 비교)-근심/걱정, 우울 ..	111
〈표 Ⅳ-1-4〉 삶의 의미 및 인생 결정 자유(전체)	112
〈표 Ⅳ-1-5〉 삶의 의미 및 인생 결정 자유(육아가구/비육아가구 비교)	113
〈표 Ⅳ-1-6〉 건강관리 활동(전체)	114
〈표 Ⅳ-1-7〉 건강관리 활동(육아가구/비육아가구 비교)-아침식사	115
〈표 Ⅳ-1-8〉 건강관리 활동(육아가구/비육아가구 비교)-규칙적 운동	115
〈표 Ⅳ-1-9〉 건강관리 활동(육아가구/비육아가구 비교)-정기 건강검진	117
〈표 Ⅳ-1-10〉 주관적 건강상태 및 수면의 질(전체)	118
〈표 Ⅳ-1-11〉 주관적 건강상태 및 수면의 질(육아가구/비육아가구 비교)	118
〈표 Ⅳ-1-12〉 스트레스 정도(전체)	119
〈표 Ⅳ-1-13〉 스트레스 정도(가구간 비교)-전반적, 가정생활, 직장생활 스트레스 ..	120
〈표 Ⅳ-1-14〉 스트레스 정도(가구간 비교)-가족 내 관계/친구, 이웃, 지인관계에서의 스트레스	121
〈표 Ⅳ-1-15〉 학업수준 만족도 및 자신을 위한 배움(역량강화 등)에 대한 노력 정도(전체)	123
〈표 Ⅳ-1-16〉 학업수준 만족도 및 자신을 위한 배움(역량강화 등)에 대한 노력 정도(육아가구/비육아가구 비교)	123
〈표 Ⅳ-1-17〉 여가 시간에 주로 하는 일-주중(전체)	124
〈표 Ⅳ-1-18〉 여가 시간에 주로 하는 일-주말/휴일(전체)	125
〈표 Ⅳ-1-19〉 여가 시간에 주로 하는 일-주중(육아가구)	126
〈표 Ⅳ-1-20〉 여가 시간에 주로 하는 일-주말/휴일(육아가구)	127
〈표 Ⅳ-1-21〉 여가 활동을 함께 한 사람-주중(전체)	128
〈표 Ⅳ-1-22〉 여가 활동을 할 때의 감정-주중(전체)	129

〈표 IV-1-23〉 여가 활동을 함께 한 사람-주말/휴일(전체)	129
〈표 IV-1-24〉 여가 활동을 할 때의 감정-주말/휴일(전체)	130
〈표 IV-1-25〉 여가생활 만족도 및 여가시간 충분도(전체)	131
〈표 IV-1-26〉 여가생활 만족도 및 여가시간 충분도(육아가구/비육아가구 비교) ..	131
〈표 IV-1-27〉 여가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전체)	132
〈표 IV-1-28〉 여가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육아가구/비육아가구 비교) ..	133
〈표 IV-1-29〉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은 일-주중(전체)	134
〈표 IV-1-30〉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은 일-주중(육아가구)	134
〈표 IV-1-31〉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은 일-주말(전체)	135
〈표 IV-1-32〉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은 일-주말(육아가구)	135
〈표 IV-1-33〉 가족관계 만족도(전체)	136
〈표 IV-1-34〉 가족관계 만족도(육아가구/비육아가구 비교)	137
〈표 IV-1-35〉 부부의 가사 분담 정도(전체)	138
〈표 IV-1-36〉 부부의 가사 분담 정도(육아가구)	139
〈표 IV-1-37〉 부부의 가사 분담 정도(비육아 가구)	140
〈표 IV-1-38〉 부부의 가사 분담 만족도(전체)	140
〈표 IV-1-39〉 부부의 가사 분담 만족도(육아가구)	141
〈표 IV-1-40〉 인간관계 만족도(전체)	142
〈표 IV-1-41〉 인간관계 만족도(육아가구/비육아가구 비교)	143
〈표 IV-1-42〉 사회/집단에 대한 신뢰도(전체)	144
〈표 IV-1-43〉 사회/집단에 대한 신뢰도-사회전반, 가족/친척, 이웃 (육아가구/비육아가구 비교)	145
〈표 IV-1-44〉 집단별 신뢰도-개인적 친분 있는 사람, 낯선 사람 (육아가구/비육아가구 비교)	146
〈표 IV-1-45〉 사회적 관계망(전체)	147
〈표 IV-1-46〉 사회적 고립도(전체)	148
〈표 IV-1-47〉 사회적 고립도 평균(육아가구/비육아가구 비교)	148
〈표 IV-1-48〉 일자리 만족도(전체)	150
〈표 IV-1-49〉 일자리 만족도(육아가구/비육아가구 비교)	150
〈표 IV-1-50〉 기업의 육아친화적 환경(전체)	152
〈표 IV-1-51〉 기업의 육아친화적 환경(육아가구/비육아가구 비교)	152
〈표 IV-1-52〉 소득 및 소비생활 만족도(전체)	154
〈표 IV-1-53〉 소득 및 소비생활 만족도(육아가구/비육아가구 비교)	154

〈표 IV-1-54〉 비용 부담도(전체)	156
〈표 IV-1-55〉 비용 부담도(육아가구/비육아가구 비교)	157
〈표 IV-1-56〉 주관적 계층 의식 및 계층 이동(전체)	158
〈표 IV-1-57〉 계층 의식 및 계층 이동(육아가구/비육아가구 비교)	159
〈표 IV-1-58〉 주택 점유형태(전체)	161
〈표 IV-1-59〉 거주 주택 만족도(전체)	161
〈표 IV-1-60〉 주거환경 만족도(전체)	162
〈표 IV-1-61〉 주거환경 만족도-전반적인 주거환경, 교통인프라, 문화·체육시설 (육아가구/비육아가구 비교)	163
〈표 IV-1-62〉 주거환경 만족도-편의시설, 의료시설, 보육·교육 관련 시설 (육아가구/비육아가구 비교)	164
〈표 IV-1-63〉 생활환경 만족도(전체)	165
〈표 IV-1-64〉 생활환경 만족도(육아가구/비육아가구 비교)	166
〈표 IV-1-65〉 지역사회 내 양육환경 및 문화-전체(육아가구)	167
〈표 IV-1-66〉 지역사회 안전(전체)	167
〈표 IV-1-67〉 지역사회 안전(육아가구/비육아가구 비교)	168
〈표 IV-1-68〉 생활시간사용	170
〈표 IV-3-1〉 현재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	183
〈표 IV-3-2〉 현재 삶에서 가장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는 영역	185
〈표 IV-3-3〉 삶에서 개선이 필요한 영역	186
〈표 IV-3-4〉 각 영역별 자녀로 인한 삶의 질 변화	188
〈표 V-1-1〉 첫째자녀(영유아) 평일 이용 기관	210
〈표 V-1-2〉 첫째자녀(영유아) 평일 오후 이용 돌봄서비스 기관	211
〈표 V-1-3〉 첫째자녀(영유아) 기관 이용 시간	212
〈표 V-1-4〉 첫째자녀(영유아) 가정 내 돌봄 인력	213
〈표 V-1-5〉 첫째자녀(초등학생) 평일 이용 돌봄서비스 기관	214
〈표 V-1-6〉 첫째자녀(초등학생) 기관 이용시간	214
〈표 V-1-7〉 첫째자녀(초등학생) 가정 내 돌봄 인력	215
〈표 V-1-8〉 부모의 자녀 양육분담 정도	217
〈표 V-1-9〉 부모의 자녀 양육분담 만족도(전체)	218
〈표 V-1-10〉 부모의 자녀 양육분담 만족도(아버지/어머니 비교)	218
〈표 V-1-11〉 양육효능감 전체	219
〈표 V-1-12〉 부모역할부담 전체	220

〈표 V-1-13〉 부모역할부담 1)-6)	221
〈표 V-1-14〉 자녀양육정서 전체	223
〈표 V-1-15〉 양육 정서-긍정정서/부정정서	224
〈표 V-1-16〉 육아를 어렵게 하는 요인	225
〈표 V-2-1〉 자녀에 대한 가치관(전체)	227
〈표 V-2-2〉 자녀에 대한 가치관	228
〈표 V-2-3〉 부모됨에 대한 인식	229
〈표 V-2-4〉 부모책임 인식	230
〈표 V-2-5〉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지원정도	232
〈표 V-2-6〉 직장의 자녀 양육 지원 제도 이용 및 이용가능 여부(전체)	233
〈표 V-2-7〉 미디어의 육아 관련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234
〈표 V-2-8〉 부모가 된다는 것	235
〈표 V-3-1〉 육아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지원 분야	239
〈표 VI-1-1〉 육아가구/비육아가구별, 자녀연령대별 삶의 질(요약)	260
〈표 VI-3-1〉 영유아기 육아가구 지원 요구 내용 및 정책방안	265
〈표 VI-3-2〉 초등 저학년 육아가구 지원 요구 내용 및 정책방안	267
〈표 VI-3-3〉 초등 고학년 육아가구 지원 요구 내용 및 정책방안	268
〈표 VI-3-4〉 경력단절여성의 무급노동경력을 인정해주는 조례 예시	269
〈표 VI-3-5〉 부모됨의 긍정성 인식 확대	271
〈표 VI-3-6〉 양육친화적 인식확대 필요성	273



그림 목차

[그림 I-3-1] KICCE 정책 공모전 포스터	26
[그림 I-5-1] 연구진행 절차	28
[그림 II-2-1] 2023년 삶의 질 지표: 가족관계 만족도 연도별 추이와 연령별 차이	39
[그림 II-2-2] 2023년 삶의 질 지표: 스트레스 인지율 연도별 추이와 연령별 차이	39
[그림 II-2-3] 2023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중 전반적 행복감의 4년간(20~23년)의 추세	40
[그림 II-2-4] 2023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중 영역별 만족도 문항에 대한 4년간(20~23년)의 추세	41
[그림 II-2-5] 2022 한국의 사회지표 주요결과	42
[그림 II-2-6] 2023년 사회조사: 연도별 연령별 일과 가정의 우선도	43
[그림 II-2-7] 통계청 통계개발원 '국민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	44
[그림 II-2-8] OECD 웰빙 프레임워크	51
[그림 II-3-1] 본 연구에서 활용한 삶의 질 측정 프레임워크	55
[그림 III-2-1] 성별과 가구 유형에 따른 생활시간 배분 구조	72
[그림 III-2-2] 육아/비육아가구의 긍정적 기분 평균 차이	79
[그림 III-2-3] 육아/비육아가구의 삶의 만족도	80
[그림 III-3-1] 육아가구 자녀연령별 개인유지시간 배분	82
[그림 III-3-2] 육아가구 자녀연령별 의무시간 배분	82
[그림 III-3-3] 육아가구 자녀연령별 재량시간 배분	83
[그림 III-3-4] 부모가 자녀와 함께한 식사, 교제, 여가활동에서 행위자 비율: 주말과 평일	90
[그림 III-3-5] 육아가구 부모의 자녀돌봄시간 총량: 자녀연령대별 비교	93
[그림 III-3-6]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직접돌봄시간 및 자녀와 함께한 시간 차이: 자녀연령대별 비교	96
[그림 III-3-7]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직접돌봄시간 차이: 자녀연령대별 비교	97
[그림 III-3-8]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와 함께한 시간 차이:	

자녀연령대별 비교	98
[그림 Ⅲ-3-9]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직접돌봄시간 차이: 자녀연령대별 비교	98
[그림 Ⅲ-3-10]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와 함께한 시간 차이: 자녀연령대별 비교	99
[그림 Ⅲ-3-11]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직접돌봄 및 자녀와 함께한 시간 차이: 자녀연령대별 비교	100
[그림 Ⅲ-3-12]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직접돌봄 및 자녀와 함께한 시간 차이: 자녀연령대별 비교	101
[그림 Ⅳ-3-1] 현재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	182
[그림 Ⅳ-3-2] 현재 삶에서 가장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는 영역	184
[그림 Ⅳ-3-3] 삶에서 개선이 필요한 영역	186
[그림 Ⅳ-3-4] 각 영역별 자녀로 인한 삶의 질 변화	188
[그림 Ⅵ-2-1] 육아가구의 삶의 질 영역별 중요 영역/시간소요 영역/ 개선필요 영역	264

1. 서론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2023년 한국의 출생아 수는 약 23만 명으로 11년 전인 2012년의 48만 5천명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육아가구가 임신, 출산, 돌봄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사전적 의미대로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양육자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 삶의 다양한 영역 속에서 양육을 하면서도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함.

나. 연구내용

- 문헌연구를 통해 삶의 질의 정의와 구성요소, 부모됨 인식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함.
- 육아가구 삶의 질 분석을 통해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 육아가구 중에서도 자녀 연령별 시간사용차이를 살펴봄.
-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을 양육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자녀가 없는 무자녀 가구 남녀를 대상으로 삶의 질, 부모됨 가치 등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육아가구의 삶의 질을 파악해 봄.

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를 통해 부모됨 관련 및 삶의 질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봄.
- 육아가구 생활시간 분석을 통해 육아가구의 시간사용을 파악함.
- 육아가구 삶의 질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육아가구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비교군으로 육아가구와 동일 연령대의 비율을 할당하여 유자녀 가구 1,614명, 무자녀 가구 410명을 포함하여, 총 2,024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음.

〈표 1〉 설문조사 응답자 표본 구성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초등저	초등고	무자녀	사례수
부 양육자 (남성)	202	203	201	202	203	1,011
모 양육자 (여성)	200	203	201	202	207	1,013
전체	402	406	402	404	410	2,024

□ 육아가구 삶의 질 심층면담

- 자녀연령별로, 어머니 아버지 모두에 대해 그룹을 나누어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맞벌이, 다자녀 가구 2가구 이상 포함하였음.

〈표 2〉 부모 심층면담 대상 구성

단위: 명

영아		유아		초등저		초등고		전체
모	부	모	부	모	부	모	부	
5	5	4	4	5	5	5	5	38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정책공모전을 실시하였고, 11월 6일 정책토론회 실시할 예정임.

라. 연구의 범위

- 육아가구를 ‘초등학생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 정의하고, 육아가구의 삶의 질을 ‘0세에서 12세 자녀를 한 가구에서 주거하며 양육하고 있는 육아기 양육자(주로 부모) 개인이 인식하는 삶의 질’로 정의함.

2. 이론적 배경

가. 부모됨 및 자녀에 대한 가치 관련 선행연구

- 부모됨 인식 및 양육관 변화와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가치 등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봄.

나. 삶의 질 관련 선행연구

□ 삶의 질 정의, 삶의 질 지표로 본 한국인의 삶의 질, 삶의 질 지표 종류 등을 살펴보고, 육아가구 삶의 질 측정을 위해 사용할 내용을 도출함.

다. 육아가구 삶의 질 측정요소

□ 공통 영역으로서의 삶의 질 측정

- 선행연구 및 기존 지표에서 선별하고, 자문회의 및 연구진 회의 등을 거쳐 다음의 공통영역인 육아가구 삶의 질 측정 요소를 도출함.

〈표 3〉 육아가구 삶의 질 영역별 측정 요소

영역	구성요소	전반적 삶의 질 측정 요소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내면적 삶	주관적 웰빙		· 삶의 만족도 · 긍정정서(행복) · 부정정서(근심, 우울)
	의식과 가치		· 삶의 의미 · 인생 결정 자유 · 행복의 중요도
삶의 역량	건강	· 규칙적 운동, 아침식사 유무, 정기적 건강검진	· 객관적 건강상태(규칙적 식사, 운동, 건강검진) · 주관적 건강상태 · 수면의 질 · 전반적 스트레스 정도
	교육	· 교육	· 학업 수준 만족도 · 배움 노력
	여가	· 여가 활용, 여가 활동 동반자	· 여가생활 만족도 · 여가시간 충분도 · 여가생활 감정
사회적 삶	가족	· 맞벌이여부 · 가사 분담 실태	· 가족관계 만족도 ·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 · 자녀와의 관계, 자녀관련 인간관계 만족도(육아가구만) · 가사 분담 만족도
	공동체		· 계층이동-본인세대, 자식세대 · 집단별 신뢰정도 · 사회적 고립도 · 사회적 관계망

영역	구성요소	전반적 삶의 질 측정 요소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물질적 삶	고용·임금	· 월평균 임금(배경질문) · 주당근로시간 · 직업, 종사상의 지위(배경질문)	· 일자리 만족도 · 기업의 육아친화 정도 · 일·가정 양립 만족도 · 육아친화적 근로환경
	소득·소비·자산	· 가구소득 (배경질문) · 월평균 임금	· 소득·소비생활 만족도 · 계층의식(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 양육비·교육비 부담정도(육아가구만)
삶의 환경	주거	· 거처의 점유 형태 · 현 지역으로 이사 이유 (행복조사)	· 거주주택 만족도 · 주거환경 만족도
	환경		· 생활환경 만족도 · 소음 만족도 · 녹지환경 만족도
	안전		·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 육아가구 양육실태 및 부모됨 가치 관련 질문

- 삶의 질 지표 이외에 육아가구의 양육현황과 부모됨과 자녀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을 선정하였음.

〈표 4〉 육아가구 양육실태 및 부모됨 가치 관련 질문

영역	구분	부모됨 및 육아관련 질문	조사대상
육아가구 양육현황	돌봄 관련	· 자녀 돌봄기관 및 이용 시간, 돌봄 인력	육아가구만
	양육 인식	· 부부간 양육분담 정도와 만족도, 양육 효능감, 부모 역할 부담, 양육 정서, 육아를 어렵게 하는 요인	
	육아가구의 중요한 삶의 영역	· 현재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 현재 삶에서 가장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는 영역, 삶에서 개선이 필요한 영역	
부모됨과 자녀에 대한 가치	자녀/부모됨에 대한 인식	· 자녀에 대한 가치관, 부모됨에 대한 인식, 부모책임 인식,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지원정도	육아가구/ 비육아가구 전체
	육아가구를 위한 지원분야	· 육아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분야, 자녀 양육 지원제도 이용여부, 미디어의 육아 관련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3. 육아가구 생활시간 분석

가. 육아가구 생활시간분석 개요

- 통계청에서 수집한 총 8천여 가구, 2만여 명이 참여한 2019년 생활시간자료를

활용하여 육아를 하는 부모의 생활시간을 분석하였음(대조군: 비육아가구).

- 부모 연령 26-49세 사이 1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육아가구'로, 26-49세 사이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가구를 '비육아가구'로 추출함.
- 육아가구 중에서는 미취학 자녀, 초등 저학년 자녀, 초등 고학년 자녀가 있는 가구로 구분함.

나. 육아가구 생활시간분석: 비육아가구와의 비교

- 부모의 생활시간을 개인유지시간, 의무시간, 재량시간으로 나누고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의 시간배분 양상을 파악하였음.
 - 비육아가구가 육아가구보다 일평균 15.54분 더 많은 개인유지시간, 57.73분 더 많은 재량시간을 사용하며, 육아가구가 73.22분 더 많은 의무시간(돌봄은 의무시간 포함됨)을 사용함.
 - 생활시간 사용과 긍정적 정서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급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은 비육아가구, 육아가구 모두에게 긍정적 정서와 유의미한 부적관계를 보임.
 - 육아가구의 의무적 돌봄시간은 긍정적인 정서와 부적상관을 보이거나, 자녀와 함께한 시간은 긍정적인 정서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임.

다. 육아가구의 시간사용분석: 세부집단간 비교(학력/가구소득별)

- 자녀 연령을 미취학자녀,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으로 나누어 자녀 연령별 재량시간의 차이를 살펴보았음.
 -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가 교제활동, 종교활동, TV미디어시청시간이 그 외 그룹보다 더 길었음.
- 부모 간 자녀 직접돌봄시간 및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을 비교했을 때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이 미취학자녀의 경우 아버지보다 50분 이상 길었으나, 자녀가 성장하면서 점차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의 격차가 줄어들음.
- 아버지의 교육수준별 자녀와 함께한 시간을 보았을 때 미취학, 초등 저학년까지는 큰 변화가 없고 초등 고학년에서 크게 감소하는데, 저학력 아버지의 경우 함께한 시간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남.

- 어머니의 경우에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는데, 미취학, 초등 저학년까지는 학력에 따른 함께한 시간 차이가 없었으나, 자녀가 초등 고학년이 되었을 때, 저학력 어머니의 함께한 시간의 감소폭이 매우 크게 나타남.

4. 삶의 영역별 육아가구 삶의 질 분석

가. 삶의 질 지표로 본 육아가구의 삶의 질

- 육아가구의 삶의 질은 육아를 하는 부모의 삶의 질로 정의하고 측정하였으며, 삶의 질 영역을 내면적 삶, 삶의 역량, 사회적 삶, 물질적 삶, 삶의 환경으로 나누어 그 세부영역별로 삶의 질을 측정함.
- 내면적 삶은 주관적 웰빙 및 의식과 가치로 이루어져 있음.
 - 주관적 웰빙 중 삶의 만족도, 행복도는 영아가구에서 매우 높았으며, 근심걱정 정도, 우울 정도는 비육아가구에 비해 육아가구가 높았음.
 - 의식과 가치에서 삶의 의미에 대해 영아가구가 매우 높게 의식하고 있었으며, 비육아가구보다 육아가구가 다소 높게 나타남.
- 삶의 역량은 건강, 교육, 여가 생활로 나누어 살펴보았음.
 - 건강을 측정하는 영역 중 아침식사 비율은 육아가구와 초등 저학년 이후 부모의 경우 높았고, 규칙적 운동, 건강검진, 수면의 질, 전반적 스트레스 등은 육아가구가 비육아가구보다 부족함.
 - 교육 중 학업수준 만족도는 육아가구가 높았으며, 배움 노력은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 여가생활 만족도와 여가시간 충분도는 비육아가구가 육아가구보다, 초등학교 이상 자녀를 둔 부모가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보다 높게 나타남.
- 사회적 삶은 가족 생활, 사회적 관계로 나누어 살펴보았음.
 - 가족 생활 중 가족관계 만족도는 육아/비육아가구 사이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영아가구 부모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부의 가사 분담 정도는 비육아가구가 육아가구보다, 영아가구가 그 이후 자녀연령의 부모보다 높게 나타남.

- 공동체생활 중 인간관계 만족도의 경우 이웃에 대한 신뢰도와 처음 만난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육아가구가 비육아가구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
- 물질적 삶은 일 생활, 소득/소비생활로 나누어 살펴보았음.
 - 일 생활에서 일에 대한 만족도는 그룹별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일·가정양립 만족도에서는 비육아가구가 육아가구보다 높았으며, 육아가구 중에서는 초등 고학년 자녀 부모가 가장 높게 나타남. 또한, 육아친화적인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비육아가구가 더 낮게 평가하였음.
 - 소득/소비 만족도는 비육아가구가, 육아가구 중에서는 영아가구가 높았으며, 비용 부담도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육아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면,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육아가구가 비육아가구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었음.
- 삶의 환경은 주거, 환경, 안전 생활로 이루어져 있음.
 - 주거, 환경, 안전 생활에 대해서는 육아가구 비육아가구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비육아가구에서 동네가 자녀를 키우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육아가구보다 낮게 나타나, 자녀양육환경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것으로 보임.

나. 육아가구 삶의 질 영향 요소

- 육아가구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심층면담을 통해 파악한 결과를 담았음.
 - 육아를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아이의 성장에서 오는 행복, 가족, 자녀와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 부부간 시간을 누릴 때, 육아 중 짬을 내어 운동을 할 때, 일과 양육의 균형이 느껴질 때, 여행 등으로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 부부의 적절한 양육분담이 이루어질 때 등에서 행복과 삶의 질의 향상을 느낀다고 하였음.
 - 육아를 하면서 우울감을 느끼고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양육의 어려움과 육아에 대한 심리적 부담, 육아로 인해 사회적 관계에 변화가 올 때, 양육분담으로 갈등을 겪을 때, 부부가 함께 하지 못하는 등 개인시간이 부족할 때, 양육 효능감이 떨어질 때, 육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음. 이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특히 초등 고학년 어머니들의 경력단절에 대한 고민이 큼.

다. 육아가구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주요 영역

- 육아가구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주요 영역을 파악하기 위해서 ‘삶의 영역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 ‘가장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고 있는 영역’,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봄.
 - ‘가족 생활’, ‘건강 생활’, ‘내적 성숙’ 등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족 생활’과 ‘일생활’에 시간과 노력이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었으며, 개선하고 싶은 영역으로는 ‘여가 생활’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5. 부모됨 가치와 육아가구 양육지원 요구

가. 육아가구의 양육현황

- 자녀돌봄 및 이용기관을 살펴보았을 때, 첫째 자녀가 영유아인 경우 응답대상의 58.2%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으며, 21.8%가 기관 미이용, 유치원이 18.4%를 차지하였고, 기관이용시간은 평균 4시간 54분이었음.
 - 평일 오후 돌봄의 경우 어린이집 연장보육(40.1%)이나, 기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보육하는 경우(33.0%)가 많았으며, 가정 내 돌봄 인력으로는 부모(58.5%), 조부모 또는 친인척(36.3%)으로 조부모 도움도 높은 편으로 나타남.
- 첫째자녀가 초등학생일 경우는 하교 이후 학원 등의 사교육 기관 이용이 64.1%, 초등학교 내 돌봄이 48.4%로 대부분 방과 후 시간을 사교육 기관 및 초등학교 내 돌봄에서 보냄.
 - 초등학생의 경우 하교 후 기관(학교) 이용시간이 평균 2시간 48분으로, 방과 후에 사교육 이용이 높은 것과 연관이 있어 보임.
- 양육 분담 정도는 아버지의 경우 ‘본인: 배우자: 부부 외 타인’의 비율을 30.8: 60.6: 8.6로 인식하였고, 어머니의 경우 ‘본인: 배우자: 부부 외 타인’의 비율을 70.3: 22.3: 7.5로 인식하였음.
 - 부부간 양육분담 만족도는 0-10점 중 남성 6.5, 여성 5.2로 높은 편은 아니나,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나. 부모됨과 자녀에 대한 가치

- 설문 조사결과를 통해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에 대한 가치관, 부모됨에 대한 인식, 부모책임인식,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지원정도, 미디어에서의 육아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등을 알아보았음.
 - ‘부모가 된다는 것은 책임감을 동반하는 두렵고 부담스러운 일이다’,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등의 문항에서 비육아가구가 육아가구보다 높게 나타나, 비육아가구의 경우 부모됨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미디어에서의 육아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에서도 비육아가구의 경우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에 대해 행복한 일이라는 생각보다는 두려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지원 정도는 대학졸업 때까지가 43.5%로 가장 높았으며, 취업할 때까지 지원하겠다는 정도도 19.8%로 높은 편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60%이상이 대학졸업 또는 그 이후까지 자녀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응답함.
- 부모대상 심층면담에서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았는데, 대부분 성숙해질 기회, 어른이 되는 것, 책임감이 느껴지는 일 등 자녀를 양육하면서 스스로 성장할 기회가 된다는 느낌을 받음.

다. 부모로서의 삶과 정책적 지원 요구

- 육아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지원 분야를 물었는데, 1+2+3순위 기준으로 비용지원이 58.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시간지원(55.8%), 돌봄지원(47.8%), 주거지원(34.6%)이 높게 나타남.
 - 영아자녀일수록 시간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초등 저학년까지는 돌봄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초등 고학년은 교육정책에 대한 요구가 컸음.

6. 육아가구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가. 정책방향

- 정책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음.

- 기본방향 1: 변화하는 육아가구의 인식과 선호양육형태를 고려한 제도개선을 제안함.
- 기본방향 2: 육아가구의 삶의 질 현황에 근거하여, 육아를 하는 부모 개인의 삶의 개선 영역을 지원함.
- 기본방향 3: 육아하는 가구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고, 육아하지 않는 가구도 육아를 지지하는 사회전반의 변화와 배려를 도모함.

나. 육아가구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세부과제

□ 자녀 연령별 지원 요구 및 정책방안

- 영유아기 육아가구 대상으로는 육아기 전업 양육자에 대한 건강증진프로그램, 영유아 자녀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가사도우미 지원, 부모 초기 상담지원, 부모 초기 양육친화환경에 대한 안내 제공 등의 내용을 담았음.
- 초등학교 저학년 육아가구 대상으로는 초등 저학년 시기 시간지원 확대, 학교 돌봄의 내실화를 제안함.
- 초등학교 고학년 육아가구 대상으로는 아동수당 지원 대상 및 방과후 수업 지원대상 확대, 경력단절 여성의 돌봄 경력 인정 일자리 확대를 제안하였음.

□ 부모됨의 긍정성과 양육친화적 문화인식 확대

- 부모됨의 긍정성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미디어에서 육아의 긍정성에 대해 노출 확대, 육아가구 대상 문화 활동 지원 등을 제안하였음.
- 직장 내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 사이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직장문화 인식 개선이 필요함.

I

서론

- 0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02 연구내용
- 03 연구방법
- 04 연구범위
- 05 연구진행 절차

I.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023년 한국의 출생아 수는 약 23만 명으로 11년 전인 2012년의 48만 5천명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2024년 합계출산율도 0.72명(통계청 보도자료, 2024. 2. 28.)으로 2023년 합계출산율 0.78명보다도 0.06명 줄어든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였고, 2008년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하락한 이래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4년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 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를 통하여, 충분한 육아시간, 초등 이하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돌봄환경, 결혼·출산·양육이 메리트가 되도록 주거,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주요 저출생 극복 대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있는 육아가구가 임신, 출산, 돌봄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먼저,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치관의 변화, 개인주의적 성향이 확대되는 사회분위기 등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생애 과업으로 생각하고 나이가 되면 결혼하고 결혼을 하면 출산을 하는 생애과업 달성의 측면이 아닌 개인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선택을 하게 된 현상에 대해서 삶의 질 관점에서 바라보고 원인에 대해 다각도의 분석과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다양한 저출산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한 고용증가, 높은 주택가격,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돌봄 공백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혼인 연령의 증가 및 기혼 가구의 무자녀 비율 증가 등의 인구학적 요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서는 삶의 중심을 전통적 가족이 아닌 개인의 삶과 자신의 자기 발전 등을 위한 노동을 중시하는 가치관 변화를 들 수 있다(한성민·이준상·김영철·정완교, 2021: 22-23). 이러한 현상의 기

저에는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한 부모역할 책임을 크게 느끼고, 부모가 된다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것, 즉 삶의 질을 높이는 삶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암묵적으로 팽배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 출산이 선택이 된 이 시점에서 2024년 3월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만 25-49세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에서는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비율이 61.6%였던 반면 무자녀 응답자의 '자녀출산의향'은 29.7%에 불과했다(김지현·배운진·김문정, 2024: 35). 무자녀 남성의 41.0%, 무자녀 여성의 23.1%가 자녀를 낳을 생각이 있다고 응답하여 남녀 간의 인식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김지현 외, 2024: 35). 무자녀 응답자 중 출산 의향이 없거나 출산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로는 '임신, 출산 양육이 막연히 어려울 것 같아서'의 응답이 가장 높았다. 2016년에 실시한 조사(문무경·조숙인·김정민, 2016: 51)에서도 자녀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경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아이를 싫어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은 5.1%에 불과하였고, '경제적인 부담 및 준비 부족'이 43.3%, '부부간에 보다 많은 여가 향유'가 20.4%로 나타났다(문무경 외, 2016: 52).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미리 경제적인 준비가 되어야 하며, 부모가 됨으로 인해 부부간 여가 시간 등은 보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원인과 경로로 자녀를 양육하는 육아가구의 삶이 육아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스트레스, 돌봄의 어려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의 부정적 방향으로 인식되면서, 부모가 되면서 달라지는 삶, 육아기 부모의 삶의 질이 저평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식당 등에서 어린 자녀를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의 등장은 자녀를 식당 등의 장소에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경험하게 되고, 최근에 미디어에서 육아하는 과정을 다룬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방영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육아의 어려움을 주로 보여주고, 이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 '육아는 어렵고 힘들다'라는 인식을 심어준 측면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육아를 하면서 느끼는 보람, 행복, 육아를 함으로써 성장하고 향상된 삶의 측면들이 있고, 육아를 선택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자녀의 가치, 자녀의 존재로서의 기쁨, 다양한 관계성, 경험에서 오는 삶의 질 향상이 있음에도 이러한 측면이

드러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의 탐색을 통해 양육자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 육아로 인해 개인의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 삶의 다양한 영역 속에서 양육을 하면서도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의 자녀에 대한 가치, 부모됨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고, 육아하는 가구의 부모됨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이 출산장려에서 삶의 질 제고로 전환되어(관계부처합동, 2020: 6), 저출산으로 이어진 사회구조적 원인을 파악하여, 그 원인 해소를 통해 전체적인 삶의 질 제고를 추구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20: 6). 이에 현재 저출생 사회를 살아가는 육아가구, 즉 육아기 부모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파악하고, 육아기 부모의 삶의 패턴을 통하여, 중요성이 높은 부분, 시간의 제약으로 놓치고 있는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사회가 육아가구에 대해 부모로서의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모가 됨으로써 스스로에게 부과한 과한 책임과 의무, 역할로 인한 육아기 부모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등의 측면으로도 그 원인을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육아가구로써 육아를 하는 부모의 개인으로서 개인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파악하여 현황을 분석 후 육아가구의 삶의 질 제고에 있어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하고, 현재 부모들의 부모됨에 대한 인식,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 등 부모 역할로 인한 삶의 질 저해요소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삶의 질의 정의와 기존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하위 지표들을 검토하고, 육아가구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요소를 도출한다. 또한 육아가구의 부모됨 인식파악을 위하여,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 자녀 가치관, 부모 역할 부담 관련 요인들의 변화 양상 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둘째, 육아가구의 삶의 질 분석을 위하여,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육

아가구와 비육아가구간, 자녀 연령별 육아가구의 시간사용분석을 통해 집단 간 생활패턴을 파악한다.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의 생활시간을 비교함으로써 육아가구에서 필요 또는 부족한 시간사용 영역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또한, 육아가구 중에서도 자녀의 연령대에 따른 시간사용을 파악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인한 시간사용 차이 등을 분석한다.

셋째,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육아가구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무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삶의 질 공통지표를 통해 삶의 패턴 및 그 차이를 파악한다. 또한 육아기 부모에게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 육아기 부모에게 필요한 제도 및 인식을 통해 양육가구 내에서 자녀 연령별 삶의 질 영역별 비교를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한다. 육아가구에 대해서는 심층면담을 통해 자녀연령별로 삶의 각 영역에서의 요구, 육아로 인해 변화해온 긍정적인 부분들을 도출한다.

넷째, 이러한 연구내용의 결과와 정책토론회, 정책공모전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전문가와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육아가구에 대한 인식제고 및 자녀 연령별 육아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육아가구 삶의 질 제고방안을 도출한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문헌 연구를 통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고 있는 다양한 삶의 질 지표를 분석하여, 보고 삶의 질을 측정하고 있는 요소들과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의 변화 추세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부모됨 관련 선행연구를 찾아보고, 이전 연구에서의 부모됨 인식과 양육관의 변화 및 결혼과 출산관련 가치관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탐색하여 본 연구에서 육아가구의 삶의 질과 부모됨의 가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을 검토하였다.

나. 육아가구 생활시간 분석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간, 육아가구의

자녀연령별 생활시간사용 패턴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육아가구 삶에 있어서의 부모역할로 인한 시간사용 정도를 파악하고,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보완되어야 할 시간영역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다. 육아가구 삶의 질 설문조사

육아가구의 삶의 질을 살펴보기 위해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한 육아가구 삶의 질 측정요소를 통해 건강, 여가, 가족, 직장, 경제적 환경 등 육아기 부모의 개인의 삶의 질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KICCEIRB-2024-제05호).

비육아가구를 일부 표집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비육아가구에 비해 육아가구의 삶의 질이 어떤 영역에서 다른 지를 파악하였다. 또한 육아가구 중에서 자녀의 연령대별 삶의 질 인식정도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으로 자녀의 연령을 나누었다.

1) 조사대상 및 규모

본 연구에서 삶의 질은 육아가구의 양육자들이 인식하는 개인의 삶의 질이기 때문에 부와 모를 나누어서 표집을 하였고, 개인차원에서 자녀 유무, 자녀 연령에 따라 생활시간 사용의 형태와 삶의 질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영아 자녀, 유아 자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 무자녀 집단을 동일하게 구성하여, 육아가구 1,600가구, 비육아가구 400가구를 목표로 표집하였고, 최종 육아가구 1,614명, 비육아가구 410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때 부모는 첫째자녀의 출산으로 부모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는 측면에서 자녀는 첫째자녀 기준으로 한다.

〈표 I-3-1〉 설문조사 표본구성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초등저	초등고	무자녀	사례수
부 양육자 (남성)	202	203	201	202	203	1,011
모 양육자 (여성)	200	203	201	202	207	1,013
전체	402	406	402	404	410	2,024

2) 표본 설계

영아, 유아, 초저, 초고 각 연령별 비교를 목적으로 400가구씩 임의할당하였고, 어머니와 아버지에 따른 삶의 질 비교를 위해 자녀 연령 구분 안에서 5:5로 동일하게 할당하고, 층화 변수로 지역별(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비례할당하였다.¹⁾

가) 육아가구 표본 추출

본 연구에서는 육아기 부모의 전반적 삶의 질을 측정하는데, 환경 및 인프라 등이 도시의 규모 자체 보다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등에 따른 차이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역구분을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으로 구분하였다. 2024년 주민등록인구 현황 자료를 통해 지역별 아동분포를 파악하여, 비례 할당 수를 선정하였다.

〈표 I-3-2〉 육아가구 표본추출: 수도권/광역시/도지역 지역별 아동 분포

단위: 명

모집단	영아(0-2세)	유아(3-5세)	초저(6-8세)	초고(9-11세)	전체
수도권	387,136	460,950	593,230	678,837	2,120,153
광역시	140,203	175,170	239,567	273,959	828,899
도지역	202,950	255,707	343,372	404,014	1,206,043
전체	730,289	891,827	1,176,169	1,356,810	4,155,095

주: 1)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울산, 도지역: 충북, 충남,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강원

2)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연령별 인구현황)24년 5월 자료 <https://jumin.mois.go.kr/> (2024.6.15. 인출).

지역별 아동 분포에 비례하여 지역별, 자녀 연령별, 부모별 할당하여 표집목표를 세우고 실제 다음의 구성으로 표집하였다.

〈표 I-3-3〉 육아가구 실제 표본: 지역별 비례할당

단위: 명

구분	영아(0-2세)		유아(3-5세)		초저(6-8세)		초고(9-11세)		전체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수도권	106	106	106	106	101	101	102	101	829
광역시	40	38	40	40	41	42	40	42	323
도지역	56	56	57	57	59	58	60	59	462
전체	202	200	203	203	201	201	202	202	1,614

1)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광역자치단체로 공식 출범한 자치단체로, 정부직할 특별자치시임. 정부부처가 세종에 집중되어 도시의 성격을 지녀, 도지역으로 분류하지 않고, 광역시로 분류함.

나) 비육아가구 표본 추출

비육아가구의 조사 대상은 무자녀 기혼남녀로 하며, 육아가구와의 비교를 위해 만1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개인의 연령별 분포를 확인하여 <표 I-3-4>에 나타내었다. 표본 연구의 조사 대상인 만1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만25-49세 사이 비율이 95.2%를 차지하여, 조사 대상은 만 25-49세로 한정하였다(표 I-3-4 참고).

또한, 육아가구 표본추출에서처럼 지역별 변수도 고려하여, 층화 변수로 연령별, 지역별(수도권/광역시/도지역) 변수를 통해 비례할당 하였다.

<표 I-3-4> 비육아가구 표본추출: 연령별 만1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 현황

단위: 명, %

연령	빈도	비율
만25세 미만	18,924	0.3
만25-29세	149,113	2.6
만30-34세	735,459	12.9
만35-39세	1,949,121	34.2
만40-44세	1,642,925	28.8
만45-49세	945,857	16.6
만50세 이상	254,684	4.5
전체	5,696,085	100.0

주: 1) 2020년 가족실태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만 1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부모 연령별로 추정된 빈도와 비율을 도출하여, 비육아가구 표본추출시 해당 비율만큼의 비육아가구 표본을 추출하였음.

MDIS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자료이용>공공용 데이터 다운로드>사회일반>가족실태조사>2020 자료
https://mdis.kostat.go.kr/dwnlSvc/ofrSurvSearch.do?curMenuNo=UI_POR_P9240.

2) 단, 25-29세의 경우, 사례수가 적어서 별도 분석 및 해석은 어려움.

<표 I-3-5> 비육아가구 표본추출: 해당 연령별 지역별 분포

단위: 명

지역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전체
수도권	70,073	398,462	1,071,206	788,527	506,003	2,834,271
광역시	24,583	131,111	367,510	397,555	197,378	1,118,137
도지역	54,457	205,887	510,405	456,843	242,477	1,470,069
전체	149,113	735,460	1,949,121	1,642,925	945,858	5,422,477

주: 2020년 가족실태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만 1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부모 연령별로 추정된 빈도와 비율을 도출하여, 비육아가구 표본추출시 해당 비율만큼의 비육아가구 표본을 추출하였음.

MDIS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자료이용>공공용 데이터 다운로드>사회일반>가족실태조사>2020 자료
https://mdis.kostat.go.kr/dwnlSvc/ofrSurvSearch.do?curMenuNo=UI_POR_P9240.

부모 연령별 만 1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비율의 95.2%를 차지하는 만25-49세 사이의 부모 중 지역별 비율을 파악하여 할당하여 조사한 결과 최종 비육아가구의 연령별 지역별 표본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I-3-6〉 비육아가구 실제 표본: 연령별, 지역별 비례배분

단위: 명

지역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전체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수도권	3	3	15	15	42	41	29	29	18	19	214
광역시	1	1	6	5	14	14	14	14	7	7	83
도지역	1	3	7	9	20	21	17	17	9	9	113
전체	5	7	28	29	76	76	60	60	34	35	410

3) 조사내용

육아가구 삶의 질 조사의 조사내용은 크게 육아가구, 비육아가구 모두가 응답할 수 있는 삶의 질 측정내용과 부모됨 가치관 내용, 육아가구만 답할 수 있는 삶의 질 측정내용 및 부모됨 가치관 내용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지표들을 활용하여 추출한 내용들을 이용하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II장 3절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표 I-3-7〉 설문조사 내용

구분	내용	
	육아가구(영아, 유아, 초등)	비육아가구
삶의 질 지표	공통 영역별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요소 - 내면적 삶: 주관적 웰빙, 삶의 의미, 행복의 중요도, 삶의 패턴 등 - 삶의 역량: 신체적 건강, 정신적 스트레스 정도, 여가활동 여부 및 종류 등 - 사회적 삶: 사회적 관계망, 배우자와의 가사, 양육분담, 인간관계 만족도 등 - 삶의 환경: 주거환경 및 거주지역의 물리적환경, 안전, 육아친화적 환경 등 - 물질적 삶: 일자리 만족도, 기업의 육아친화적 환경, 소득/소비 만족도 등	
육아가구 양육현황	- 돌봄인력, 기관 이용후 돌봄, 기관 이용시간, 기관 이용 만족도 등	-
부모됨 및 육아 관련 특화 질문	- 결혼 및 육아에 대한 공통질문: 결혼, 이혼, 출산에 대한 일반적 인식, 자녀에 대한 가치관, 부모됨에 대한 인식, 부모역할 부담 등 부모로서 지원 정도 등 인식문항	
	- 양육효능감, 자녀양육정서 등 - 자녀 출산 후 삶의 영역변화, 삶의 질 변화 인식 등	-

4) 응답자 특성

조사 대상은 전체 2,024명 중 남성, 여성이 각각 50%로 구성되었다. 육아가구는 자녀 연령별(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약 25%로 할당하여 표집하였고, 비육아 가구는 대한민국 인구 기준 육아가구의 연령비율로 표집하여, 연령은 30대가 49.1%, 40대가 45.8%를 차지하였다. 맞벌이 비율은 64.5%로 높게 나타났고, 임금근로자가 62.6%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3.0%가 취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분포는 300만원 이상 450만원 미만이 25.8%, 45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이 22.5%, 750만원 이상이 21.7%로 많은 수를 나타냈다. 300만원 이하 가구 소득인 가구는 저소득 가구의 비교를 위해 소프트 할당으로 10% 이상은 확보되도록 하였다. 육아가구 중에서 자녀수로는 1명이 59.0% 2명 이상이 36.4%, 3명 이상이 3.8%의 비율을 차지했다.

〈표 I-3-8〉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구분	비율 (수)	구분	비율 (수)
성별		맞벌이 여부	
남성	50.0 (1,011)	맞벌이	64.5 (1,306)
여성	50.0 (1,013)	외벌이	30.4 (615)
연령		모두 일하지 않음	0.8 (16)
만29세 미만	2.6 (53)	배우자 없음(유자녀 가구)	4.3 (87)
만30-34세	16.4 (331)	종사상의 지위	
만35-39세	32.7 (662)	임금근로자(정규직)	62.6 (1,267)
만40-44세	34.0 (689)	임금근로자(비정규직/일용직)	9.5 (192)
만45-49세	11.8 (239)	자영업자	8.9 (180)
만50세 이상	2.5 (50)	무급가족종사자	1.0 (20)
	-	경제활동 하지 않음	18.0 (365)
최종학력		본인 취업여부	
고등학교 졸업 이하	11.2 (227)	취업중	73.0 (1,477)
전문대학(2·3년제) 졸업	19.3 (390)	학업중	1.5 (31)
대학교(4년제) 졸업	56.5 (1,143)	휴직중	9.0 (182)
대학원 재학 이상	13.0 (264)	미취업	16.5 (334)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거주지역		월평균 가구소득	
수도권	51.5 (1,043)	300만원 미만	12.9 (262)
광역시(세종포함)	20.1 (406)	300만원 이상~450만원 미만	25.8 (522)
도지역	28.4 (575)	45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22.5 (456)
육아가구 여부		600만원 이상~750만원 미만	17.0 (345)
육아가구	79.7 (1,614)	750만원 이상	21.7 (439)
비육아가구	20.3 (410)	응답자 전체	(2,024)
첫째자녀 연령		자녀수	
영아(만0~2세)	24.9 (402)	1명	59.8 (965)
유아(만3~5세)	25.2 (406)	2명	36.4 (588)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24.9 (402)	3명 이상	3.8 (61)
초등학교 고학년(만 9~11세)	25.0 (404)	육아가구 응답자 전체	(1,614)

라. 부모 심층면담

1) 부모 심층면담 대상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에 대해 첫째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부 또는 모를 구분하여 심층면담 대상을 모집하였다. 각 집단에서 부와 모 각각 4-5명을 모집하여 총 38명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에는 맞벌이인 경우를 50%이상이 되도록 하고, 2인 이상의 다자녀 부모의 비율은 한 그룹 당 1명 이상은 포함되도록 하였고, 실제 참여자의 가구 및 자녀 특성은 <표 I-3-10>과 같다. 본 심층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KICCEIRB-2024-제05호).

<표 I-3-9> 부모 심층면담 대상 구성

단위: 명

영아		유아		초등저		초등고		전체
모	부	모	부	모	부	모	부	
5	5	4	4	5	5	5	5	38

〈표 I-3-10〉 심층면담 참여자 특성

그룹	사례	연령	취업 상태	배우자 취업상태	자녀 수, 연령	배우자 외 도움 여부
영아 자녀 어머니	영아 모1	만36세	전일제	전일제	1명(만 2세)	없음
	영아 모2	만36세	시간제	전일제	2명(만2세, 쌍둥이)	없음
	영아 모3	만34세	미취업	전일제	1명(12개월)	있음
	영아 모4	만40세	육아휴직	전일제	1명(16개월)	있음
	영아 모5	만35세	미취업	전일제	1명(만2세)	있음
영아 자녀 아버지	영아 부1	만39세	전일제	전일제	1명(16개월)	없음
	영아 부2	만30세	전일제	미취업	2명(22개월, 3개월)	있음
	영아 부3	만40세	전일제	전일제	1명(만2세)	없음
	영아 부4	만36세	전일제	미취업	1명(만1세)	없음
	영아 부5	만37세	전일제	전일제	1명(만2세)	없음
유아 자녀 어머니	유아 모1	만32세	육아휴직	전일제	2명(만3세, 만0세)	있음
	유아 모2	만40세	미취업	전일제	1명(만5세)	없음
	유아 모3	만38세	미취업	전일제	1명(만3세)	없음
	유아 모4	만39세	전일제	전일제	1명(만3세)	있음
유아 자녀 아버지	유아 부1	만37세	전일제	미취업	2명(만6세, 만3세)	없음
	유아 부2	만39세	전일제	전일제	1명(만6세)	있음
	유아 부3	만36세	전일제	전일제	1명(만4세)	없음
	유아 부4	만42세	전일제	미취업	1명(만4세)	없음
초등 저학년 자녀 어머니	초저 모1	만43세	미취업	전일제	2명(초1, 7세)	없음
	초저 모2	만28세	시간제	전일제	2명(초1, 3세)	없음
	초저 모3	만39세	미취업	전일제	1명(초1)	있음
	초저 모4	만32세	전일제	전일제	1명(초1)	있음
	초저 모5	만39세	시간제	전일제	2명(초1, 쌍둥이)	있음
초등 저학년 자녀 아버지	초저 부1	만43세	전일제	전일제	2명(초3, 초1)	있음
	초저 부2	만45세	전일제	전일제	1명(초3)	있음
	초저 부3	만43세	전일제	전일제	3명(초3, 초1, 만3세)	있음
	초저 부4	만45세	전일제	미취업	1명(초2)	없음
	초저 부5	만43세	전일제	미취업	2명(초1, 만 4세)	없음
초등 고학년 자녀 어머니	초고 모1	만38세	시간제	전일제	2명(초4, 초1)	없음
	초고 모2	만39세	미취업	전일제	2명(초4, 초2)	있음
	초고 모3	만47세	전일제	시간제	2명(초5, 초1)	없음
	초고 모4	만42세	시간제	전일제	2명(초4, 초2)	있음
	초고 모5	만45세	미취업	전일제	2명(초6, 초3)	있음
초등 고학년 자녀 아버지	초고 부1	만45세	전일제	전일제	2명(초6, 초4)	없음
	초고 부2	만45세	전일제	전일제	1명(초5)	없음
	초고 부3	만43세	전일제	미취업	2명(초6, 초4)	없음
	초고 부4	만43세	전일제	미취업	3명(초4, 초2, 초1)	없음
	초고 부5	만42세	전일제	시간제	1명(초4)	없음

2) 부모 심층면담 내용

육아가구의 삶의 질에 대해 FGI를 통해 살펴보기 위해 모든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공통질문과 자녀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추가 질문들을 구성하였다. 공통 질문은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부분, 육아 전과 후를 비교하여 영향을 미친 요소, 자녀 및 부모됨의 가치, 일과 육아, 여가, 사회적 관계 등의 영역에서 삶의 질, 육아를 하면서 변화되거나 확장된 삶의 영역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영아기 질문에는 양육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느껴지는 시기로 가정 내에서 부부의 양육 부담, 가족이나 사회적 지원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였다. 유아기에는 유아의 사회적 관계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으로 확장되는 시기로 이로 인한 부모의 관계 확대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였다. 초등 저학년 시기는 초등 전이와 방과후 돌봄 공백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고자 한다. 초등 고학년 시기는 학업에의 지원, 자녀와의 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인 면담 질문은 부록2에 수록하였다.

〈표 I-3-11〉 심층면담 대상별 조사내용

구분	조사대상 및 규모	조사내용	
		공통	자녀 연령별
육아가구 자녀연령별	영아 부모	- 개인의 삶의 질-육아 전후비교, 영향을 준 것 요소 - 행복한 순간, 자녀의 의미, 부모됨이란? - 삶의 중요 영역별 삶의 질 (일, 육아, 여가, 사회적 관계 등) - 육아를 하면서 변화된/확장된 삶의 영역과 삶의 질 등 - 양육 부담 및 양육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분야	부부 양육부담 가족, 사회적 지지
	유아 부모		사회적 관계 확장
	초등저 부모		초등 전이 방과후 돌봄 공백
	초등고 부모		학업 지원 자녀와의 관계 형성

마.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연구방향과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정책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정책적으로 육아가구를 지원할 방안을 강구한다. 먼저 삶의 질 지표를 구성하기 위하여 고려할 내용에 대해 삶의 질 지표 전문가의 자문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육아가구 삶의 질 조사 및 심층면담을 위한 대상선정, 내용 논의 등 연구진행과정에서의 논의사항들을 두 차례에 걸쳐 유아교육, 아동학, 가족학 전문가에게 자문회의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였다.

〈표 I-3-12〉 전문가 자문회의 일정 및 내용

일정	회의	자문 내용	대상
3.26.화	자문회의1	생활시간조사 데이터 활용 육아가구 시간분석 관련 논의	시간데이터 활용전문가
4. 5.금	자문회의2	삶의 질 지표 구성에 대한 의견 수렴	삶의 질/행복 조사 선행연구자
5.22.수	자문회의3	육아가구 삶의 질 조사 대상 및 내용 논의1	유아교육, 아동학 교수
5.23.목	자문회의4	육아가구 삶의 질 조사 대상 및 내용 논의2	아동학, 가족학 교수
7. 9.화	자문회의5	부모의 역할 및 성향과 삶의 질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	삶의 질 연구 선행연구자
7.8-7.11	서면 자문	육아가구 삶의 질 설문지 서면 검토	아동학, 아동복지학 교수, 삶의 질 지표 연구 경험자

바. KICCE 정책 공모전

본 연구에서는 정책수요자가 제안하는 창의적인 육아정책 신규 발굴을 위해 ‘육아가구 삶의 질 증진 방안’에 대한 정책수요자 대상 육아정책 및 사업제안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이를 통해 육아가구 삶의 질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 공모를 받아 정책 제안에 반영하였다.

〈표 I-3-13〉 KICCE 정책 공모전 개요

구분	내용
신청대상	육아 정책의 수요자 또는 육아관련 신규 정책 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
공모기간	2024. 7. 15 ~ 2024. 8. 30.
공모 심사결과발표	2024. 9. 21.
시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시상함

〈표 I-3-14〉 KICCE 정책 공모전 수상작 및 내용

시상 구분	제목	내용
우수상	장애아동 육아가정의 놀 권리와 기회 제공	- 장애 아동 친화 놀이공간 환경 조성 - 공공형 실내놀이시설에 장애 아동이 놀이할 수 있는 요소와 공간을 갖추고 신체 및 인지 장애 아동을 위한 실내 놀이터를 제공함
장려상	돌 잡이! 행복 잡이! 공간 대여!	- 돌잔치를 위한 준비 및 장소대여를 위해 큰 비용이 드는 상황을 감안하여, 육아종합지원 센터 등에서 ‘돌잡이’ 용품 대여 사업과 공간 대여를 제공함
장려상	육아가구 행복지원 프로젝트: 라이프 업(Life Up)	- 육아가구의 양육 스트레스 및 가사 부담 등으로 인해 부모 대상의 육아 도움 및 부모교육, 정신택 지원 가사 도우미 서비스, 육아지원 인프라 강화 등

[그림 I-3-1] KICCE 정책 공모전 포스터

공모목적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체감도 높은 육아정책 신규 발굴
공모주제	1) 아동친화적인 공공장소의 조성과 지원 방안 2) 육아가구의 삶의 질 증진 방안 3) 기타 육아정책 전반
신청대상	육아 정책의 수요자 또는 육아관련 신규 정책 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
공모일정	제출기한: 2024년 7월 15일~2024년 8월 30일 공모전 심사결과: 9월 중순 ※ 공모전 심사결과는 개별로 연락 예정이며, 일정은 연구소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상식 및 수상자 간담회: 10월~11월 중
시상	최우수상 50만원(1명) 우수상 30만원(2명) 장려상 15만원(6명)
응모방법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홈페이지베로거기) 혹은 하단 붙임파일 1,2,3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policy23@kicce.re.kr)로 제출
양식	- 붙임1. 육아정책 및 사업 제안서 - 붙임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붙임3. 명상보고서 등 활용 동의서
공모전 결과 활용	공모전 수상작은 각 과제에서 활용 1) '아동에 대한 사회적배려의 실태와 대응 과제: 아동에 대한 혐오의 차별 인식의 진단을 중심으로', 2) '육아가구의 삶의 질 제고 방안', 3) '육아교육·보육(EDC) 정책 성과의 과제(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문의	policy23@kicce.re.kr

사. KICCE 정책 토론회 개최

연구결과 도출 후 11월 8일(금) '제4차 KICCE 정책토론회-육아가구 삶의 질 제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연구결과를 확산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전문가 토론을 통하여 정책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정책토론회는 '육아가구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시간분석'과 '삶의 질 지표를 통한 육아가구의 삶의 질 제고방안'의 2개의 주제발표에 대한 3명의 토론으로 이루어졌으며, 육아를 하는 부모의 삶의 질이 사회적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육아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4. 연구범위

가. 용어 정의

‘육아’는 아이를 기르는 것으로 좁게는 초등학생까지의 아이를 기르는 것에서 넓게는 자녀를 키우고 성장시키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좁은 의미로의 아이를 기르는 ‘육아’의 정의에 따르고자 한다. 정부의 지원정책에서도 육아휴직은 만 8세 아동까지,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만 12세 아동까지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등 돌봄이 필요한 연령의 기준에서도 지원마다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육아를 하는 부모의 삶의 질을 살펴보고자 하기에, 보다 큰 범위를 포함하고자, 육아가구를 ‘초등학생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 정의하고 이에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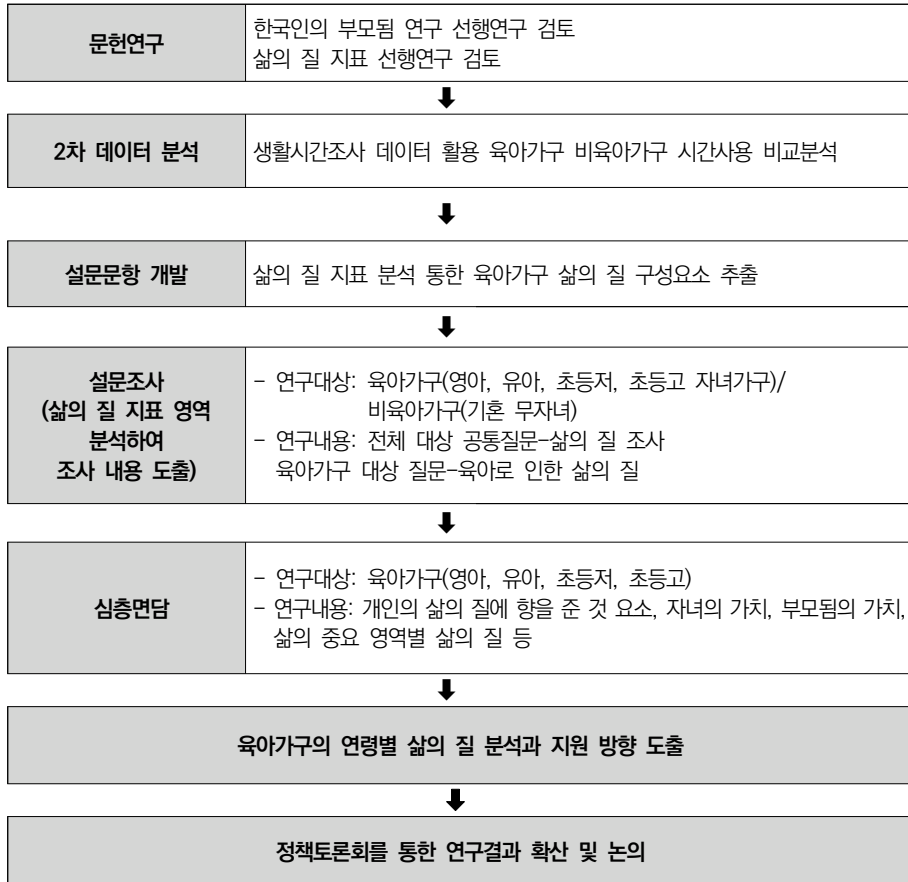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육아가구의 삶의 질’에서의 삶의 질을 주체를 ‘육아기 부모’로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를 통해 삶의 질을 측정할 예정이고, 이는 개인의 상황에서 객관적, 주관적 요소들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응답하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 육아가구의 삶의 질은 ‘현재 육아를 하고 있는 육아기 양육자(주로 부모) 개인의 삶의 질로 한정하여 살펴보되, 개인이 속한 가구를 둘러싼 가구구성원과의 관계 및 물리적 환경에 대해 개인이 인식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육아가구 삶의 질’이란 ‘0세에서 12세 자녀를 한 가구에서 함께 거주하며 양육하고 있는 육아기 양육자(주로 부모) 개인이 인식하는 삶의 질’로 정의하고자 한다. 단, 조사에서 포함하는 비육아가구의 경우 육아가구와의 비교를 위해 자녀를 키우고 있지 않는 동연령대의 가구의 개인의 삶의 질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며, 기혼이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연구진행 절차

연구의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1-5-1] 연구진행 절차



II

이론적 배경

- 01 부모됨 및 자녀에 대한 가치 관련 선행연구
- 02 삶의 질 관련 선행연구
- 03 육아가구 삶의 질 측정 요소

II. 이론적 배경

1. 부모됨 및 자녀에 대한 가치 관련 선행연구

가. 부모됨 관련 선행연구

1) 부모됨 인식 및 양육관 변화

자녀에 대한 기대, 자녀의 출산과 양육, '부모됨'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주목한 정책, 조사 연구들(김은설·최혜선, 2008; 문무경 외, 2016; 박종서·임지영·김은정·변수정·이소영·장인수 외, 2021)이 수행되었다.

김은설과 최혜선의 연구(2008)는 다소 오래된 연구로 간주될 수 있지만 한국인의 자녀양육관에 초점을 둔 실증적인 조사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선행연구로 고려할 수 있다. 부모와 예비부모를 대상(3,747명)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자녀에 대한 교육관, 양육철학 등을 조사하였고, 이를 토대로 육아정책의 방향 수립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미혼자의 결혼의향이 92.5%,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응답비율은 89.1%로 나타났고, 자녀 계획으로 2명의 자녀를 갖고자 한다는 응답이 59.5%로 조사되었다. 선호하는 자녀의 성별에 대해서는 선호성별이 없다는 응답이 69.2%로 가장 높았다. 또한 기혼자 대상 현재 자녀수는 평균 가구당 1.92명이었다. 자녀를 낳고자하는 이유로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86.9%로 가장 높았던 반면,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응답의 경우에 그 이유로는 '양육비와 교육비부담이 커서'라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 보다 엄격한 양육을 강조하며 훈육과 통제를 중요시하였고, '어릴 때 엄격하게 대해야 바르게 자란다'에 65%, '잘못하면 매를 들 수도 있다'에 89.5%가 찬성하였다.

문무경 외(2016)는 한국인의 부모됨과 자녀 양육이 가족의 변화, 인구학적 변화의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그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2008년 김은설 외의 연구결과와 비교를 통해 그 변화 양상을 도출하고 저출산 해

결을 위한 육아지원정책에의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자녀에 대한 인식, 부모됨에 대한 인식, 부모됨 준비에 대한 인식, 양육 신념 및 정서, 양육 시간과 비용, 양육 정보와 매체의 영향, 양육지원요구 등을 파악하였다. 특히 한부모 가족과 의도적 무자녀 가족을 연구대상으로 포함한 점이 차별성을 지닌다. 연구에서는 2016년 한국인의 자녀양육관의 특징을 성별과 세대별, 자녀수에 따른 특징으로 설명하였다. 먼저 남성은 주로 경제적 지원자로 주말에 양육에 참여하고, 양육정보를 수집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여성들은 양육에 대해 힘들다는 부정적 인식을 지녔으며, 자녀교육을 설계관리하고 일·가정 양립을 중시한다고 하였다. 세대별로 보면, 모든 세대에서 경제력이 자녀양육의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었고, 영유아가 양육 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로 인식하고 있었다. 20대는 부모역할에 대한 성취감이 높고,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았고, 50대에서는 희생적인 부모역할에 대한 가치관이 강하고 보수적인 성역할 인식을 지니며, 젊은 세대의 소비적 양육문화에 비판적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를 기준으로 자녀가 1명인 경우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고, 2명의 경우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체감하며 양육에서 혼란스러움을 경험하는 정도가 높다고 답하였다. 자녀가 3명인 경우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지출이 높고 양육비 부담이 컸다. 자녀양육관의 변화에 주목하여 2008년 연구와 비교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2008년에는 96.6%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나 2016년에는 84.5%로 그 응답 비율이 감소하였다. 자녀양육에서 부모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4.7%에서 57%로 증가하였고,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더 오래 해주어야한다는 인식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모 역할 중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경제적 지원'으로 변화가 없었다. 양육문화에 대해서는 변화하지 않는 점으로 교육열(58.5%)을 강조하였고, 변화한 점으로는 자녀교육 및 훈육방식의 다양화, 과열된 교육열 등으로 나타났다.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박중서 외, 2021)에서도 결혼과 가족, 자녀에 대한 태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출산과 결혼 행동의 이력을 파악하는 대표적인 조사로 주요 목적은 결혼과 출산 등 인구학적 행동을 중심으로 개인의 생애과정과 가족경로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박중서 외, 2021: 7). 그 결과 중 가치관과 인식을 조사한 부분에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 응답이 46%이고,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비율은 46.4%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결혼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고,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자녀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67.7%로 나타났지만 연령별 차이를 보여 꼭 있어야한다고 답한 응답은 19-24세(13.3%), 25-29세(21.1%)에서 낮고, 없어도 무관하다는 비율(19-24세 43.1%, 25-29세 36.3%)은 높아 저출생 현상 지속에 대한 우려를 제시하였다. 출산 결정 시 고려사항은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 가정의 경제적 여건, 주거여건, 본인의 안정된 직업 등의 순으로 그 평가가 높았다. 이상적인 자녀수 평균은 1.94명으로 응답자의 64.2%가 2명으로 답하였다. 집단차이를 보여 여성에 비해 남성이,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기혼의 경우, 취업집단의 경우 이상적인 자녀수의 평균이 다소 높았다. 자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자녀의 본질적 가치인 자녀 존재 자체의 즐거움과 유대와 애정, 성인의 역할 경험에 대한 동의가 높았고, 도구적 가치인 자녀를 통한 부모의 지위상승, 경제적 도움 등에의 동의는 낮았다.

이렇듯 선행연구에 나타난 부모됨 관련 인식의 변화는 자녀에 대해 존재에의 기쁨이나 정서적 유대감 등 본질적 부분에 가치를 두며, 이상적인 자녀의 수를 2명으로 생각하는 등 부모됨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 교육열에 대한 우려, 경제적 지원에의 부족감 등에 대한 동의가 증가하는 변화 경향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표현하는 부분으로 우리 사회의 저출생 현상을 설명하는 측면으로 보인다.

2024년 현재 선행연구에서 사용했던 문항을 다시 조사함으로써 그 변화를 파악하고 부모됨 지원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제시된 ‘부모됨’ 관련 주제에 대한 개념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 <표 II-1-1>과 같다.

<표 II-1-1> 부모됨 관련 주제와 개념 정의

연구	주제	개념 정의
'김은실, 최혜선 (2008)	자녀 양육관	- 자녀를 기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의 가치관, 철학, 신념, 태도 - 자녀양육관 하위요소 1) 자녀가치에 대한 의식 자녀에 대해 느끼는 만족과 대가의식, 자녀를 낳고 양육하려는 동기 2) 자녀에 대한 기대 자녀가 성장하면서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으로 성취하기 바라는 발달과업 및 능력에 대한 부모의 기대

연구	주제	개념 정의
		3) 양육에 대한 신념 양육에 대한 부모의 가치관, 이에서 비롯되는 양육 신념, 부모가 가진 양육과 관련한 태도, 의식, 가치관, 방법론
문무경 외 (2016)	부모됨	아이를 출산하여 부모가 되는 상태를 이르는 말 1) 부모됨의 개념 결혼 및 출산 경험을 통해 부부 중심에서 부모자녀 중심의 삶으로 변화하는 과정 2) 부모됨 의식 부모됨의 의미, 부모됨의 가치, 부모역할
	자녀 양육관	선행연구 등에서 사용하였던 개념(가치관, 양육태도, 양육 방식, 양육 실제)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양육관을 정의 1) 자녀가치 및 양육태도 자녀의 필요성, 자녀에 대한 가치, 자녀양육에 관련된 태도, 신념, 가치관 2) 양육 방식과 양육 실제 부모 양육의 실제적 행동적 측면, 훈육, 함께 보내는 시간, 상호작용 방식
박종서 외 (2021)	자녀 양육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함 - 분담: 육아와 가사 시간 분담, 만족도 - 미취학돌봄: 희망돌봄유형, 현재 유형, 주제, 만족도, 어려움 - 취학돌봄: 희망돌봄유형, 현재 유형, 주제, 만족도, 어려움 - 양육비: 돌봄기관, 공/사교육비, 돌봄인력비용, 기타
	가치관과 인식	- 성역할 태도와 가치, 자녀출산 태도, 사회 신뢰

주: 1) 김은설, 최혜선(2008). 한국인의 자녀 양육관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보고.
2) 문무경 외(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3) 박종서 외(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구)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 부모역할과 삶의 질

Roeters와 Gracia(2016: 2469)의 연구에서는 자녀양육 시간을 가치를 줌과 동시에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였는데, 이를 받아들이는 인식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를 나타냈다. 아버지의 경우 자녀 양육타임을 보다 의미있게 받아들이고, 모의 경우 스트레스로 인식하는 정도가 부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경우 어린 자녀에게 보다 의미를 부여하는 등의 부모 차이가 나타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인식하는 육아기 양육자의 삶의 질에 차이를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의 연구로 부모의 부모역할에서의 완벽성이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 예로 Brenning, De Clercq, 그리고 Soenens(2024: 1158)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완벽주의적 성향으로 인

한 근심과 정서적 조절의 어려움이 결국 일·가정 갈등과 부모역할의 번아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Yee Leung(2022: 3517)은 중국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자기중심적 부모역할 완벽주의는 부모의 삶의 질과 부정적 상관을 나타냄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부모로서의 역할 책임, 부모의 부모역할에서의 완벽성 등 육아를 하면서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가치 관련 선행연구

저출생 시대에 접어들면서, 결혼과 출산을 선택적으로 고려하는 상황 기저에는 사회구조는 물론 가치관의 변화가 함께 맞물려있다. 이에 저출생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동향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조성호, 변수정, 김문길, 김지민(2019)의 연구에서는 청년의 인생을 미혼기와 결혼이후로 나누어 미혼기에는 최종학교 졸업, 첫 일자리, 배우자와의 교제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였고, 결혼 이후 부분에 있어서는 배우자와의 결혼과 결혼 후 가치관 변화, 임신·출산, 양육 및 일·가정 양립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2020년에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조사(이윤경·변수정·김은정·진화영·주보혜·남궁은하 외, 2020)에서도 19세 이상 성인 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결혼 및 가족가치관, 결혼과 가족형성구성에 대한 가치관 등을 알아보기 위한 내용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1) 결혼 및 출산 관련

결혼으로 인해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의견은 남성의 경우 71.2%로 높았고, 지방일수록,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현재 소득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또한 맞벌이(71.4%)나 자녀가 없는 경우(71.7%)에 마음의 안정감을 느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조성호 외, 2019: 211). 반면 여성의 경우 그 비율이 68.2%로 3.0%p 낮게 나타났는데, 소득이 많을수록, 맞벌이(69.5%), 자녀가 없는 경우(71.9%)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성호 외, 2019: 211).

임신과 관련하여, 임신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은 남성 7.3%, 여성 9.6%로 나타

났고(조성호 외, 2019: 259), 향후 자녀출산 의향의 경우 남편은 37.6%가 '낳겠다', 아내는 35.3%가 '낳겠다'고 응답하였다. 낳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의 경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하여(32.6%)', '이미 원하는 만큼의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31.7%)', '경제적으로 자녀 양육이 어렵기 때문에(13.7%)',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8.8%)'의 이유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조성호 외, 2019: 292-293). 반면, 여성의 경우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하여(29.8%)', '이미 원하는 만큼의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29.0%)', '경제적으로 자녀 양육이 어렵기 때문에(13.6%)',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싶어서(10.4%)'의 순서대로 나타나(조성호 외, 2019: 294-295), 여성의 경우 자녀출산을 직장생활 지속여부와 연관하여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산시기의향에서 출산의향 시기를 지연한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여성의 경우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20.8%)', '자녀양육비용 때문에(20.6%)',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어서(10.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의 경우 '부부중심의 생활을 위하여(신혼생활을 즐기기 위해)'가 23.9%로 가장 높게 나타나 남녀의 차이를 나타냈다(조성호 외, 2019: 280-281).

2) 가족 기능 및 부모역할 관련

가족 기능 및 가족형성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았다. 가족의 기능으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질문한 결과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기능(정서적 기능)'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49.1%로 가장 많고, 자녀 양육과 교육을 통해 자녀가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사회화 기능)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6.2%로 다음으로 높았다. 그 다음이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다음 세대를 유지하는 기능(재생산 기능)'을 응답한 응답자가 10.1%로 다음으로 나타나, 정서적 기능의 가족기능을 가장 우선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윤경 외, 2020: 155). 또한 가족 내 성역할 및 책임 중에서 '육아는 여성이 주로 담당해야 한다는 생각은 현 시대에 맞지 않다'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80.9%로, '경제적 부양책임은 주로 남성이 담당해야 한다는 생각은 현 시대에 맞지 않다'에 동의한 경우(75.4%)보다 높게 나타났다(이윤경 외, 2020: 159-160).

미혼자녀 경제적 독립지원 영역에서 '부모는 미혼 자녀가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전까지 지원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 비율은 53.9%로 나타났고, 대도시 거주 경우(57.8%),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55.4%)가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는 자녀가 결혼한 후에도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야한다'에 동의한 비율이 15.6%로 나타나 결혼한 후에도 자녀에 대한 책임을 높게 느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윤경 외, 2020: 181-182).

2. 삶의 질 관련 선행연구

가. 삶의 질의 정의

삶의 질은 사전적 의미로 만족감, 안정감, 행복감 등의 주관적 평가의식을 규정하는 복합적인 요인을 말하며 예를 들어, 생활환경이나 환경적 요인과 관련된 의식적 요인, 물리적 요인이 복합되어 나타난다(고영복, 2000).

삶의 질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자들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Taylor와 Bogdan(1990)은 삶의 질을 '주관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삶에 대한 만족감'으로 표현하였으며(Park, 2001: 19에서 재인용), 세계 보건기구 삶의 질 그룹(The WHOQOL Group, 1998)에서는 삶의 질을 '개인이 자신이 속한 문화와 가치관 내에서 스스로 인식하는 자신의 삶의 위치'로 정의하고 이는 개인의 목표, 기대, 관심사 등과 관련된다고 하였다(Park, 2001: 19에서 재인용).

많은 기존의 삶의 질 척도는 개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Park(2001: 23)에서는 가족 삶의 질(Family Quality of life) 개념을 적용하여 가족의 삶의 질을 가족적 요소와 개인적 요소로 나누어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 개념에서 가족 요소로는 가족 상호작용, 일상생활, 양육, 재정적 웰빙 등이 포함되며, 개인적 요소에는 신념, 건강, 생산활동의 측면과, 감정적 웰빙, 물리적 환경, 사회적 웰빙 측면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각각의 측면들이 갖추어졌을 때, 가족의 삶의 질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또한, 많은 삶의 질 관련 연구문헌에서는 전반적인 삶의 질은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의 삶의 질의 총합으로 이루어진다는 연구결과들을 다루고 있다. 특히, Sirgy, Kim, Joshanloo, Lee, 그리고 Bosnja(2020: 2007)의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가족 생활(family life), 일 생활(work life), 레저 생활(leisure life), 친구 및 사회 관계(friends or social relationship), 이웃(neighbors), 재정상태(financial situation), 건강(health) 영역으로 나누었고, 구체적 영역에 대한 만족도는 각 영역에 대한 개인적인 주관적 표현으로 측정하였다.

나. 한국인의 삶의 질 측정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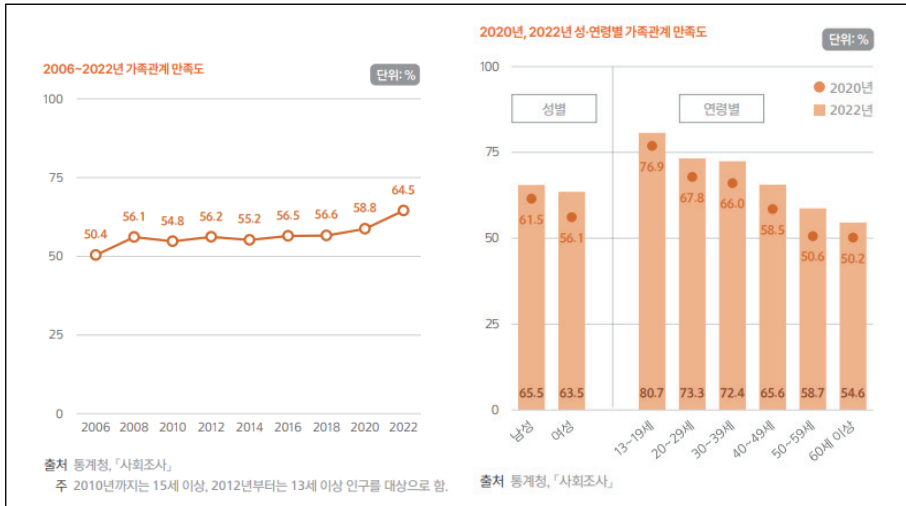
1) 2023 국민 삶의 질(통계청)

국민 삶의 질 측정결과를 개인, 사회적 관계, 환경적 조건이라는 3개 분야 11개 영역별 지표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심수진·남상민·김은아, 2024). 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는 가족·공동체, 건강, 교육, 고용·임금, 소득·소비·자산, 여가, 주거, 환경, 안전, 시민참여, 주관적 웰빙 영역으로 나누어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객관적지표(42)는 독거노인 비율, 기대 수명 등으로 사회전체 지표와 여가시간 사용 등 개별지표가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주관적지표(29)는 가족관계 만족도, 교육비 부담도, 여가생활 만족도 등 개인의 주관적 평가로 응답할 수 있는 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심수진 외, 2024: 14-15).

2023년 삶의 질 연구 중 일부를 살펴보면, 가족·공동체 영역의 주관적 지표인 가족관계 만족도는 2006년 후 점차 증가하여 코로나시기였던 2020년과 2022년 사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연령별로 보았을 때는 13-19세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76.9점으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낮아져서 60세 이상의 경우 50.2점으로 낮게 나타났다(심수진 외, 2024: 24).

이를 통해 삶의 질 지표 중 하나인 가족관계 만족도는 해가 갈수록 전반적으로는 높아지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이나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를 낮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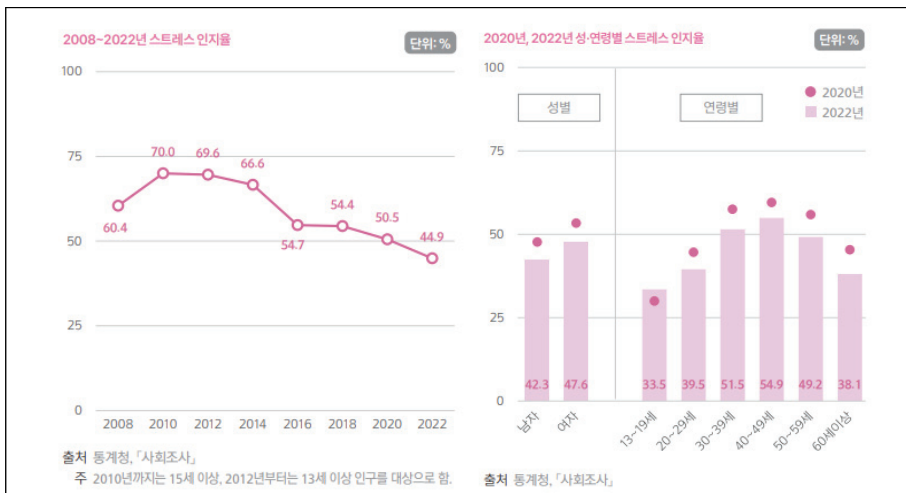
[그림 II-2-1] 2023년 삶의 질 지표: 가족관계 만족도 연도별 추이와 연령별 차이



출처: 심수진 외(2024). 국민 삶의 질 2023. 통계청 통계개발원. p. 24.

또한 건강 영역의 주관적 지표인 스트레스 인지율은 2014년-2016년 사이 극감한 후 점차 감소하고 있고, 연령별 스트레스 인지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아졌다가, 40대에 정점을 찍고 연령이 더 높아질수록 낮아졌다(심수진 외, 2024: 33).

[그림 II-2-2] 2023년 삶의 질 지표: 스트레스 인지율 연도별 추이와 연령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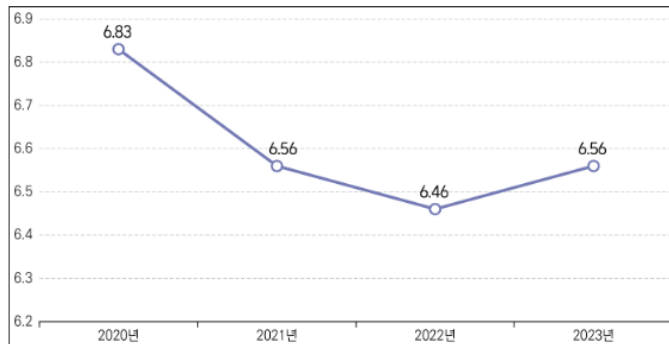
출처: 심수진 외(2024). 국민 삶의 질 2023. 통계청 통계개발원. p. 33.

이를 통해 삶의 질 지표 중 하나인 스트레스 인지율은 해가 갈수록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인 것은 긍정적인 결과이나, 30~49세의 중장년층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타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이 연령대가 주로 육아를 하고 있는 연령대인 것으로 나타나 삶의 질 제고를 할 수 있는 원인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2) 2023 한국인의 행복조사(국회미래연구원)

2023년도 한국인의 행복조사(허종호, 2024)에 따르면 2020년부터 4년간 한국인의 전반적 행복감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하락세를 보이다 2023년에 다소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허종호, 2024: 6).

[그림 II-2-3] 2023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중 전반적 행복감의 4년간(20~23년)의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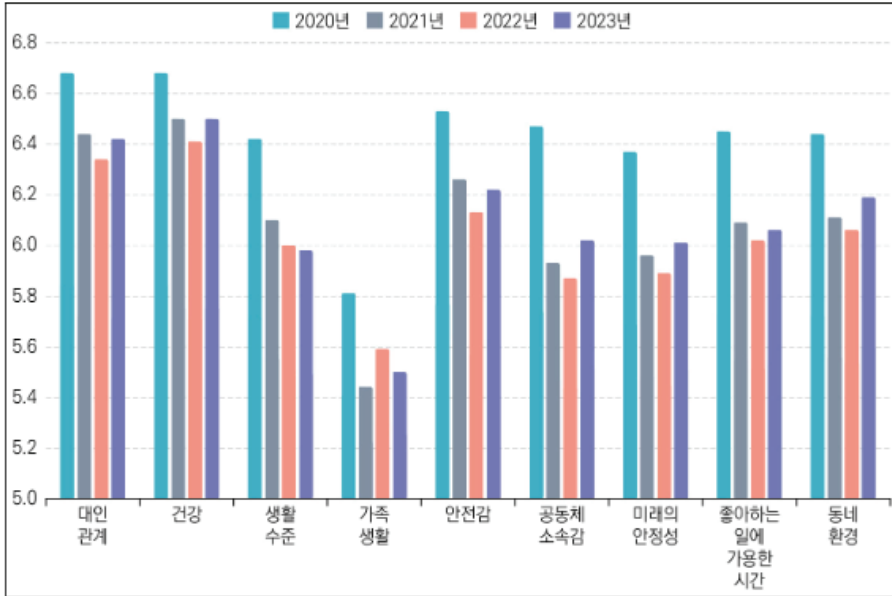


출처: 허종호(2024). 2023년 한국인의 행복조사의 주요 결과 및 최근 4년간 동향. 국회미래연구원. 국가미래전략. Insight 88호. p. 6.

2023 한국인의 행복조사(허종호, 2024)에서는 대인관계, 건강, 생활수준, 가족 생활, 안전감, 공동체 소속감, 미래의 안정성, 좋아하는 일에 가용한 시간, 동네환경으로 영역을 나누어 2020년에서 2023년까지 최근의 4년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코로나시기였던 2020년에 모든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감소하다 2023년에는 다시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였으나, 생활수준의 경우 2023년에도 다소 감소하였고, 가족 생활의 경우 2023년에 2022년에 비해 다시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또한, 전체 영역에서 가족 생활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허종호, 2024: 14).

[그림 II-2-4] 2023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중 영역별 만족도 문항에 대한 4년간(20-23년)의 추세



출처: 허종호(2024). 2023년 한국인의 행복조사의 주요 결과 및 최근 4년간 동향. 국회미래연구원. 국가미래전략. Insight 88호. p. 14.

3) 2022 한국의 사회지표

2022 한국의 사회지표(통계청, 2023a)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회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979년부터 지표를 구성하여 측정해오고 있고, 「2022 한국의 사회지표」는 총 12개 부문 50개 하위영역의 27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인구, 가구·가족, 건강, 교육·훈련, 노동, 소득·소비·자산, 여가, 주거, 생활환경, 범죄·안전, 사회통합, 주관적 웰빙으로 측정하였다. 주관적 웰빙은 삶의 만족도, 삶의 자유, 긍정적, 정서경험, 부정적 정서경험, 일의 가치 인식으로 측정되었다. 각 영역의 지표 수치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다.

[그림 II-2-5] 2022 한국의 사회지표 주요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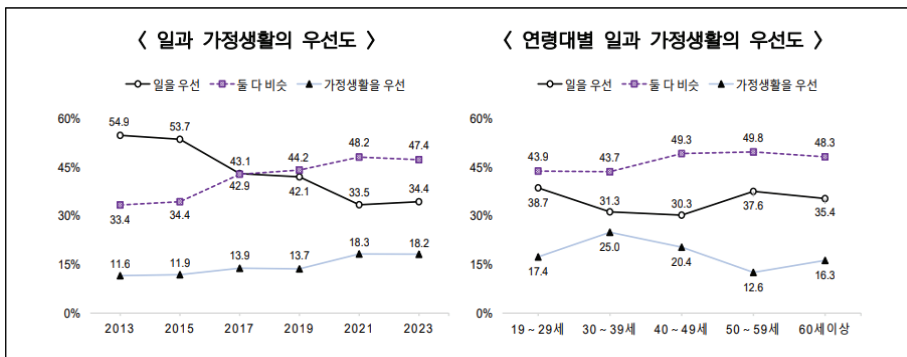
4) 2023 사회조사(통계청)

2023 사회조사(통계청, 2023b)의 조사대상 연령은 13세 이상 인구 대상으로 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사회참여 부분에서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 신뢰 등 주관적 만족도를 측정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 일 평균 교류자 수 등의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객관적 사회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사회적 관계, 직장안정감, 여가 등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19세 이상 인구 중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비중은 74.0%로 2년 전보다 1.2%p 증가하였고(통계청, 2023b: 50), 19세 이상 취업자 중 평소 가까운 미래에 직장을 잃거나 바꾸어야 한다는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54.6%로 2년 전보다 0.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3b: 50).

여가생활의 경우 평소 여가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은 34.3%로 2년 전보다 7.3%p 증가하였으며, 평소 여가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도시지역 거주자가 농어촌지역 거주자보다, 남자가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통계청, 2023b: 61). 또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평소 여가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낮았고,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 부담(50.2%), 시간 부족(23.1%) 순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3b: 61).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는 2013년도부터 10년간 일을 그 비율이 줄어들었으며, 연령별로는 30-49세의 일을 우선으로 하는 비율이 타 연령대보다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통계청, 2023b: 75).

[그림 II-2-6] 2023년 사회조사: 연도별 연령별 일과 가정의 우선도



출처: 통계청(2023b). 2023년 사회조사보고서: 복지·사회참여·여가·소득과 소비·노동. 통계청. p.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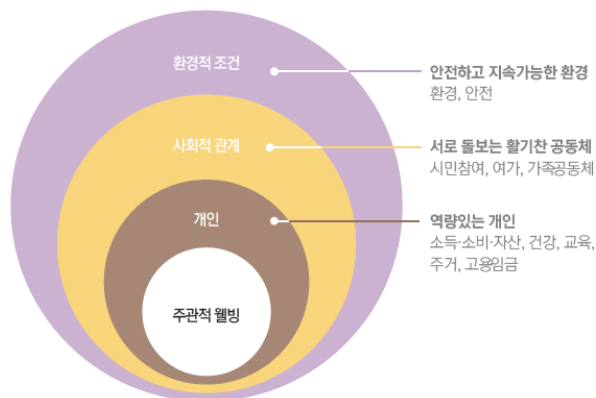
다.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지표 영역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 2011년 개발하고 2014년부터 측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국민 삶의 질 지표’, 통계청에서 1977년 구축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국의 사회지표’, 국회미래연구원에서 2020년부터 조사 및 발표하고 있는 ‘한국인의 행복조사’, 그리고 OECD에서 2004년부터 시작한 ‘How’s life?’의 ‘OECD 웰빙 프레임워크’와 유럽연합 유로스타트(Eurostat)의 삶의 질 지표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통계청 통계개발원 ‘국민 삶의 질 지표’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는 2011년에 ‘국민 삶의 질 지표’ 개발에 착수하였고, 2014년부터 측정 결과와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기 시작했다(심수진 외, 2024). 국민 삶의 질 지표는 국내적 상황과 국제적인 웰빙 측정 동향을 고려하여 구축되었으며 11개 영역의 7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심수진 외, 2024: 8, 14). 11개 영역은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동심원 형태로 구성되며 구체적으로 주관적 웰빙을 중심으로 동심원 안에는 ‘개인’, 중간에는 ‘사회적 관계’ 그리고 바깥 쪽에는 ‘환경적 조건’이 위치하고 있다(심수진 외, 2024: 11)(그림 II-2-8 참고).

[그림 II-2-7] 통계청 통계개발원 ‘국민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



출처: 심수진 외(2024). 국민 삶의 질 2023. 통계청 통계개발원. p. 11.

11개 영역의 71개 지표는 각 영역별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구성되며 세부 지표는 다음의 표와 같다. 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 활용되는 통계는 다양한 출처에서 작성되는 자료로, 분기별로 지표를 업데이트 하여 홈페이지에 반영하고 있다(심수진 외, 2024: 15).

〈표 II-2-1〉 통계청 통계개발원 ‘국민 삶의 질 지표’

영역	객관적 지표(42개)	주관적 지표(29개)
가족·공동체	독거노인 비율 사회적 고립도* 사회단체 참여율	가족관계 만족도 지역사회 소속감
건강	기대수명* 건강수명 신체활동 실천율 비만율 자살률*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인지율
교육	유아교육 취원율 고등교육 이수율 대학졸업자 취업률	학교교육의 효과 학교생활 만족도* 교육비 부담도
고용·임금	고용률* 실업률* 월평균 임금 근로시간 저임금근로자 비율*	일자리 만족도
소득·소비·자산*	1인당 국민총소득* 가구중위소득 가구순자산 가계부채비율 상대적 빈곤율	소득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여가	여가시간* 1인당 여행일수 문화여가 지출률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	여가생활 만족도* 여가시간 충분도
주거	1인당 주거면적 통근시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주택임대료 비율* 자가점유가구 비율	주거환경 만족도
환경	미세먼지 농도(PM2.5)*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기후변화 불안도 대기질 만족도 수질 만족도* 토양환경 만족도 소음 만족도 녹지환경 만족도

영역	객관적 지표(42개)	주관적 지표(29개)
안전	가해에 의한 사망률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범죄피해율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산재사망률* 화재사망자수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야간보행 안전도*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시민참여	선거투표율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정치적 역량감 시민의식 부패인식지수* 대인신뢰도 기관신뢰도
주관적 웰빙	-	삶의 만족도* 긍정정서 부정정서

주: *표시된 지표는 영역별 핵심지표임.
출처: 심수진 외(2024). 국민 삶의 질 2023. 통계청 통계개발원. pp. 14-15.

2)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²⁾

통계청에서는 국민 생활의 모습과 의식구조의 변화를 파악하고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1979년부터 매년 ‘한국의 사회지표’를 작성하고 있다. ‘2022 한국의 사회지표’는 2019년에 전면 개편된 제5차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이며 총 12개 부문 50개 하위영역의 27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통계청, 2023a).

〈표 II-2-2〉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

부문	하위영역	지표(270개)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인구 인구구성 출생 사망 인구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인구 시도별 인구, 성 및 연령별 인구 등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사망률 입출국자 수, 시도별 등록외국인 수 등
가구·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 및 가구구성 가족형성 가족생활 가족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수, 평균 가구원 수 등 초혼연령, 이혼연령 등 맞벌이 가구 비중, 가사분담률 등 결혼에 대한 인식, 이혼에 대한 인식 등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상태 건강영양요인 보건의료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대수명, 사인별 사망률 등 현재 흡연율, 월간 음주율 등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암 검진 수진율 등

2) 출처: 통계청(2023b). 2023년 사회조사보고서: 복지·사회참여·여가·소득과 소비·노동. 통계청.

부문	하위영역	지표(270개)
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훈련의 기회 및 자원 교육·훈련의 과정 및 활동 교육·훈련의 결과 및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교육 취원율, 취학률 등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등 학업성취도 국제순위, 기초학력 미달률 등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력 일자리 분포 노동시장 이행 고용의 질 노사관계 임금근로자 소득 근로시간 노동 비용 및 생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률, 실업률 등 전체 일자리 수, 공공부문 일자리 수 졸업자 취업 소요 기간 산재 사망률, 임금근로자 근속연수 등 노동조합조직률, 노사분규 건수 월평균 임금, 임금 5분위 배율 임금근로자 주당 취업 시간, 비임금근로자 주당 취업 시간 등 실질임금 및 노동생산성 증가율
소득·소비·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 자산 소득분배 소비와 물가 저축과 투자 조세와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 등 가구 순자산,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1인당 민간소비지출, 소비항목별 소비지출구성 등 총투자율, 가계 저축률 국민부담률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등
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가자원 여가활동 여가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10만 명당 예술행사 수, 문화예술 시설 수 등 시간사용, 여가활동 동반자 등 여가생활 만족도, 여가여건 충족도 등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수급 주택시장 주거지불 가능성 주거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1000명당 주택 수, 주택보급률 등 주택 매매가격 지수, 주택 중위 매매가격 등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 비정상 거주 가구 수,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등
생활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염물질배출 환경상태 환경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가스 배출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 미세먼지 농도, 수질 오염도 등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등
범죄·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 형사사법활동 사법정의 재해와 사고 안전 인식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율, 시도별 범죄율 등 공공안전 지출, 공공안전 인력 등 법률구조 건수,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건수 등 자연재해 사망자 수, 화재 사망자 수 등 야간보행 안전도, 범죄피해 두려움 등
사회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성과 거버넌스 연대 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투표율, 여성 국회의원 비율 등 사회단체 참여율, 자원봉사 참여율 등 여성 관리자 및 전문가 비율,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 등
주관적 웰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삶의 만족 정서경험 삶의 의미와 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삶의 만족도, 삶의 자유 긍정적 정서경험, 부정적 정서경험 일의 가치 인식

자료: 통계청(2023a). 2022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pp. 425-436.

지표 중에서 기존 통계에서 구할 수 없는 삶의 질과 관련된 국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는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회조사는

1977년 3월 시작하였고, 만1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 부문은 총 10개이며 매년 5개 부문씩 선정하여 조사를 하고 있다. 2022년에는 가족, 교육과 훈련, 건강,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 부문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고, 2023년에는 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부문에 대해 실시하였다. 2022-2023년 조사항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2-3〉 통계청 '사회조사' 조사내용

조사부문	조사항목
공통	주관적 만족도, 성취에 대한 만족도, 활동 제약 상태
개인 및 가구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성별, 생년월일, 가구주와의 관계, 혼인 상태, 다문화가족, 거처의 종류, 점유 형태, 가구 소득 • 2022년: 지난 1주일간 경제활동, 산업, 직업, 종사상의 지위, 배우자의 지난 1주일간 경제활동 상태 • 2023년: 교육 정도
가족(17개)	부모 생존 여부, 부모 동거 여부, 부모 생활비 마련 방법,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결혼,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결혼 문화, 결혼식 문화, 이혼, 재혼, 입양,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 가사 분담, 가사 분담 실태, 가족 관계 만족도,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 청소년의 고민 상담 대상
교육과 훈련(23개)	학생 여부, 초·중·고 재학생 여부, 초·중·고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학습 동기, 자아 존중감, 기대하는 교육 수준,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고 싶은 이유, 대학(원)생 여부, 대학(원)생 등록금 마련 방법, 교육 기회의 충족도, 대학(교) 및 특성화고 졸업 여부, 현재 및 과거 취업 여부,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학교 교육의 효과,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학습, 학생 자녀 유무, 부모의 자녀 학교 운영 참여도, 부모가 기대하는 자녀의 교육 수준, 자녀가 대학 이상의 교육 받기를 바라는 이유, 자녀의 유학, 자녀의 유학 희망 이유, 교육비 부담 인식, 가장 부담되는 교육비 항목
건강(12개)	건강 평가, 건강 관리, 흡연, 음주, 의료 서비스 만족도, 의료 서비스 불만족 이유, 유병 기간, 치료 방법, 스트레스 정도, 자살 충동, 자살 충동 이유, 암에 대한 두려움
범죄와 안전(10개)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 사회의 안전 상태 변화(5년 전), 사회의 안전 상태 변화(5년 후), 다른 사람들의 준법 수준, 자신의 준법 수준, 공공질서 준수 수준, 야간 보행의 안전도, 야간 보행이 불안한 이유, 재난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 수준
생활환경(9개)	현재 체감 환경, 생활 환경 상황 변화(5년 전), 생활 환경 상황 변화(5년 후), 환경 보호 비용 부담, 환경 문제, 환경 오염 방지 노력, 자동차 요일제 참여, 자동차 운전 여부, 친환경 운전 습관
복지(18개)	생활 여건의 변화,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 선호하는 징계 방법, 장애인과의 유대관계, 사회의 장애인 차별 정도, 장애인 관련 시설, 장애인 복지사업,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 노후 준비 방법, 노후를 위한 사회의 역할,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 노후 생활 방법, 생활비 마련 방법, 자녀 유무, 자녀와의 동거 여부, 자녀와 동거 의향
사회참여 (17개)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 신뢰, 사회적 관계망_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수, 사회적 관계망_일 평균 교류자 수, 단체 참여, 기부 여부 및 이유, 기부 내용, 기부문화 확산, 기부 의사, 유산 기부 의사, 자원봉사활동 여부 및 이유, 자원봉사활동 내용,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 자원봉사활동 의사, 계층의식, 계층이동 본인 세대, 계층이동 자식 세대

조사부문	조사항목
여가(10개)	독서,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레저시설 이용, 국내 관광여행, 해외여행 경험, 여가 활용, 여가 활동 동반자, 여가 활용 만족도, 여가 활용 불만족 이유, 하고 싶은 여가 활동
소득과 소비(6개)	주관적 소득수준, 소득과 부채의 변화, 내년 가구의 재정 상태, 건축 상황 지출 항목 변화, 소득 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노동(12개)	직업 선택요인,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장, 여성 취업에 대한 견해, 여성 취업 장애 요인, 지난 1주일간 경제활동,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 고용의 안정성, 산업, 직업, 종사상의 지위, 근로 여건 만족도, 배우자의 지난 1주일간 경제활동
코로나19(9개) *2022년 한시조사	자신의 방역수칙 준수, 다른 사람들의 방역수칙 준수, 일상생활 우울감, 일상생활 우울감 이유, 재택근무, 재택근무가 비효율적인 이유, 원격수업, 원격수업이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 코로나19 일상생활 변화

출처: 1) 통계청(2022). 2022년 사회조사보고서: 가족·교육과 훈련·건강·범죄와 안전·생활환경. 통계청. pp. 23-24.
 2) 통계청(2023b). 2023년 사회조사보고서: 복지·사회참여·여가·소득과 소비·노동. 통계청. pp. 19-20.

3)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

국회미래연구원은 국민의 행복에 대한 모니터링과 연구를 통한 입법 방향 제안을 수행하기 위해 2021년부터 ‘한국인의 행복조사’를 실시하고 있다(허종호·민보경·이상직·이재정, 2023: 3-4). ‘한국인의 행복 조사연구’를 통해 ① 한국인의 행복 수준 및 불평등 크기를 추적하고, ② 다양한 사회 현상을 예측하며 ③ 행복 수준과 불평등을 결정하는 다양한 결정요인을 밝히고, ④ 국민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발굴하고자 하였다(허종호 외, 2023: 4). 해당 조사는 만1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설문지는 크게 ① 행복 측정, ② 행복의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허종호 외, 2023: 5). 전자는 국제 비교가 가능한 문항을 활용하기 위하여 주관적 안녕감 측정 가이드라인의 권고에 기반하여 문항의 기본틀을 구성하였고(OECD, 2013, 허종호 외, 2023: 5 재인용), 후자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설문 영역을 구성하였다(허종호 외, 2023: 5). 구체적인 조사표의 구성 및 내용은 다음의 <표 II-2-12>와 같다.

<표 II-2-4>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 조사내용

구분	내용
행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 행복감 / 삶의 의미, 성취감, 인생 결정 자유 •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
정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제의 감정 / 행복감 / 미소·웃음
삶의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 5년 전 삶의 만족도 / 5년 후 삶의 만족도(예상)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생활 만족도 • 주변 환경 만족도 /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도
인식/가치관 및 사회적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가치관 / 집단 신뢰도 / 단체 활동 및 참여 / 타인에 대한 견해 •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 • 자원봉사활동 경험 / 기부 경험 / 개인 성향 • 시간을 보내는 방식 / 자유롭게 선택하며 원하는 인생 • 행복의 중요도 • 평등·불평등 인식 • 경제적 풍요 수혜자 / 우리 사회의 현실
여가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 시간에 하는 활동(1, 2순위) • 함께 한 사람 / 향후 여가 시간에 하고 싶은 활동(1, 2순위) • 일(학업, 가사노동 등)과 여가생활 간 균형 •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SNS) 사용
일상 재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제 가장 및 취침 시간 / 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 • 함께 한 사람 / 느낀 감정 • 해당 시간대 했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 / 함께 한 사람 / 느낀 감정
의료 및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2주 동안 증상 • 흡연 여부 / 음주 여부 / 체형 유형 • 고·중강도 스포츠 활동 여부 • 병의원 진료 받지 못한 경험 여부, 주된 이유, 진료서비스 • 병의원 진료 받기 위한 노력 여부
거주 및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 기간 / 현 지역으로 이사(이주)한 이유 • 향후 5년 이후 현 시도·시군구 거주 의향 • 거주 환경

출처: 허종호 외(2023). 2023년 한국인의 행복조사(3차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국회미래연구원. p. 7.

4) OECD 웰빙 프레임워크

OECD는 How's Life?를 통해 OECD 국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핵심 통계를 제공한다(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역, 2021: 22). OECD 웰빙 프레임워크는 현재의 웰빙을 측정하는 11개 영역과 미래의 웰빙을 뒷받침하는 네 가지 유형의 자본 유형으로 구성된다(그림 II-2-9 참고)(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역, 2021: 22). 11개 영역은 사람들의 경제적 옵션(소득과 부, 주거, 일과 일자리의 질)의 형태를 만드는 물질적 조건,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상태인지(그리고 그들이 느끼는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생활 장소가 얼마나 건강하고 안전한지(건강, 지식과 역량, 환경의 질, 주관적 웰빙, 안전)를 망라하는 삶의 질 요소와 관련되어 있다. 삶의 질은 또한 사람들이 어떻게 연계되고 관계를 맺는지, 그리고 누구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도 포괄한다(일과 삶의 균형, 사회적 연계, 시민 참여)(OECD 대한
민국 정책센터 역, 2021: 22).

[그림 II-2-8] OECD 웰빙 프레임워크



출처: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역(2021). OECD 저. How's Life? 2020: 웰빙의 측정(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 2020,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870c393-en>). 서울: 월드프린테크. p. 23.

11개 영역을 측정하는 세부지표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2-5> OECD 웰빙 프레임워크의 주요 지표

영역	라벨	지표
소득과 부	가구 소득	가계 순조정 가처분 소득
	가구 자산	중위 가구의 순 부
주거	주택 구매력	주거비 지출후 가처분 소득
일과 일자리의 질	고용률	고용률
건강	기대 수명	출생 시 기대 수명
지식과 역량	과학 분야의 학생 역량	15세 학생의 과학분야 인지 역량
환경의 질	녹지 공간에 대한 접근	녹지 공간에 대한 접근

영역	라벨	지표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안전	살인	폭행으로 인한 사망
일과 삶의 균형	휴식 시간	여가와 자기 돌봄에 할당된 시간
사회적 연계	사회적 상호작용	일차적 활동으로 친구 및 가족과 상호작용하며 보내는 시간
시민 참여	투표율	투표율

출처: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역(2021). OECD 저. How's Life? 2020: 웰빙의 측정(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 2020,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870c393-en>). 서울: 월드프린테크. pp. 58-59.

5) 유럽연합 유로스타트(Eurostat)의 삶의 질 지표³⁾

사회의 진보와 그들의 안녕을 더 잘 측정하는 방법과 미래에 삶의 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스티글리츠/센/피투시(SSF) 위원회 보고서(2009)와 유럽연합 위원회 ‘GDP를 넘어서(GDP and beyond)’ 커뮤니케이션(2009)을 포함한 몇 가지 중요한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사회가 GDP 수치로 제공되는 정보를 보완하기 위해 정보를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졌고, 유럽 통계 시스템은 구체적인 지표 세트를 개발하는 데 전념하는 ‘진보, 웰빙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측정하는 후원 그룹을 설립하여 보고서에 신속하게 대응했다. 2011년 11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보고서는 유럽통계시스템이 삶의 질을 정의하고 측정하려고 할 때 다차원적 접근법을 사용하고,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가계의 상황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국민계정에서 나오는 GDP에 대한 보완적인 지표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격년으로 만나 2017년 삶의 질 지표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유로스타트(Eurostat)는 웰빙 측정을 위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8+1가지 영역으로 정의하였다.

〈표 II-2-6〉 유럽연합 유로스타트의 삶의 질 프레임워크

영역	지표	
물질적 생활 조건	소득	순 국민소득, 가구 순 가처분소득 등
	소비	실질 개인 가구당 소비
	물질적 조건	빈곤, 주거

3) 출처: eurostat홈페이지_Quality of life indicators-measuring quality of life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Quality_of_life_indicators_-_measuring_quality_of_life#Framework_for_measuring_quality_of_life (2024.2.27.인출)

	영역	지표
생산 활동 또는 주요 활동	고용의 양과 질	근로시간, 일과 비근로적 생활의 균형, 고용의 안전성 및 윤리성
	기타 주활동(비활동 인구 및 무급 노동)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명 건강한 삶의 연수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 통계표 수명 기대치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활동 제한에 대한 자가 신고 변수를 결합한 것
	건강 결정요소	흡연, 음주, 과일과 채소의 섭취, 운동과 같은 건강적이고 비건강적인 행동 등
	의료 서비스 접근	
교육	인구의 교육 달성도	일찍 학교를 그만둔 사람의 수 포함
	자가 평가 및 평가된 기술	-
	평생 학습에 대한 참여 및 교육 기회(유치원 등록률)	-
여가 및 사회적 상호작용	여가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포츠 또는 문화 행사에서 사람들과 시간을 얼마나 자주 보내는지(양)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질) 자원이나 시설 부족으로 인한 이러한 유형의 활동에 대한 접근(또는 부재)
	사회적 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사람들과의 활동(사회적 접촉 빈도 및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만족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활동(비공식적인 맥락에서의 자원봉사) 사회적 지원(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잠재력 사회 응집력(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
경제적안전과 물리적(신체적) 안전	물리적(신체적) 안전	각 나라의 살인사건 수 및 거주지역에 범죄, 폭력 또는 공공 장소 파괴가 있다고 인지하는 사람들의 비율 등
	경제적 안전	예기치 못한 비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및 연체 여부, 자산
거버넌스와 기본 권리	기관 및 공공 서비스에 대한 신뢰	시민들이 나라의 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 공공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차별 부재
	차별과 평등 기회	미조정 임금 격차(SES를 기반으로 함) 및 성별 고용 격차, 이 민자의 고용 격차와 국민 인구와의 비교
	활동적 시민권	-
자연과 생활 환경	주관적 지표	개인의 소음 수준이나 주변 지역의 오염 및 더러움 존재에 대한 인식과 환경 및 지역의 녹지에 대한 만족도
	객관적 지표	대기 중에 존재하는 오염 물질의 양, 특히 기후 조건에 덜 의존적이고 따라서 더욱 비교 가능한 미립자의 값
삶의 전반적 경험	삶의 만족도	인지적 평가
	정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개인의 감정 또는 정서적 상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감정 모두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측정
	유테모닉스(유탄론)	자신의 삶에 의미와 목적을 느끼는 감정 또는 좋은 심리적 기능

출처: eurostat홈페이지_Quality of life indicators-measuring quality of life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Quality_of_life_indicators_-_measuring_quality_of_life#Framework_for_measuring_quality_of_life (2024.2.27.인출)

3. 육아가구 삶의 질 측정 요소

가. 공통 영역으로서의 삶의 질 측정

앞에서의 삶의 질 측정 선행연구와 삶의 질 지표를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요소들을 도출하였다. 2절 3항 ‘다.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지표 영역’에서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지표들을 살펴보고, 이를 영역별로 정리하면 <표 II-3-1>과 같다. 국회미래연구원의 ‘한국인의 행복조사’를 제외한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 ‘한국의 사회지표’, OECD의 ‘웰빙프레임워크’, 유럽연합의 삶의 질 인구에서는 11개 구성요소(가족·공동체, 건강, 교육, 고용·임금, 소득·소비·자산, 여가, 주거, 환경, 안전, 시민참여, 주관적 웰빙/삶의 만족도/정서/행복)로 이루어져 있었고, 본 연구에서도 이 11개 구성요소를 기본으로 각 구성요소를 측정하는 질문들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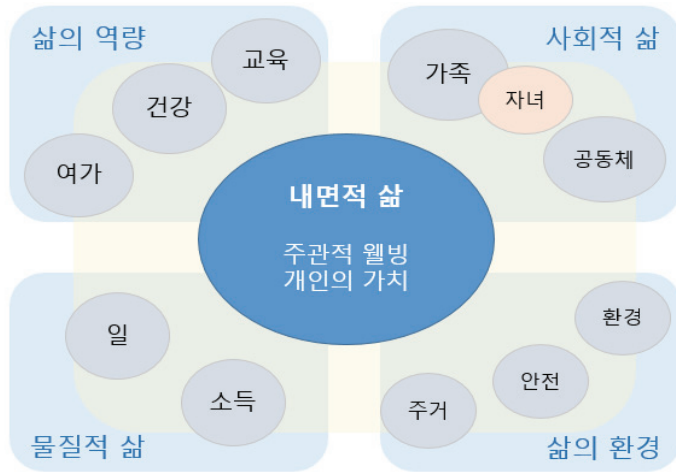
<표 II-3-1> 삶의 질 측정 지표간 영역 비교

영역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	OECD '웰빙 프레임워크'	유럽연합 '삶의 질 지표'
가족·공동체	○	○	○	○	○
건강	○	○	○	○	○
교육	○	○		○	○
고용·임금	○	○		○	○
소득·소비·자산	○	○		○	○
여가	○	○	○	○	○
주거	○	○	○	○	○
환경	○	○		○	○
안전	○	○		○	○
시민참여	○	○	○	○	○
주관적 웰빙/삶의 만족도/ 정서/행복	○	○	○	○	○
인구		○			
일상 재구성			○		

- 자료: 1) 심수진 외(2024). 국민 삶의 질 2023. 통계청 통계개발원. pp. 14-15.
 2) 통계청(2023a). 2022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pp. 425-436.
 3) 허중호 외(2023). 2023년 한국인의 행복조사(3차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국회미래연구원. p. 7.
 4)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역(2021). OECD 저. How's Life? 2020: 웰빙의 측정(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 2020,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870c393-en>). 서울: 월드프린테크. pp. 58-59.
 5) eurostat홈페이지_Quality of life indicators-measuring quality of life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Quality_of_life_indicators_-_measuring_quality_of_life#Framework_for_measuring_quality_of_life (2024.2.27.인출)

본 연구에서는 가족·공동체, 건강, 교육, 고용·임금, 소득·소비·자산, 여가, 주거, 환경, 안전, 시민참여, 주관적 웰빙/개인적 가치의 11가지 지표를 활용하여 육아가구의 삶의 질을 측정하고자 한다. 한준, 최슬기, 이도훈, 정인관, 그리고 권다은(2023)이 제시한 11개 지표를 내면적 삶, 삶의 역량, 물질적 삶, 삶의 환경, 사회적 삶의 5가지로 유목화하여 나타낸 틀을 바탕으로 지표를 구성하였다. [그림 II-3-1]에서는 육아가구의 경우 사회적, 관계적 삶에서 자녀의 영역이 생기며, 자녀로 인해 육아영역만 생기는 것이 아닌 개인의 삶의 다른 영역에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였고, 기존의 지표를 활용하면서도 각 영역에서 육아가구에서의 영역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그림 II-3-1] 본 연구에서 활용한 삶의 질 측정 프레임워크



자료: 한준·최슬기·이도훈·정인관·권다은(2023). 생애주기별 삶의 질 측정 프레임워크 구축 연구. 통계개발원, 한국삶의 질학회. p.74.의 모델을 기반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기존 지표는 국민의 삶의 질(심수진 외, 2024; 한준 외, 2023), 한국의 사회지표(통계청, 2023a), 한국인의 행복조사(허종호 외, 2023) 등의 지표 내용을 활용하면서도, 자문회의와 연구진의 논의를 바탕으로 육아가구에서 중요한 전반적 삶의 질(공통)의 구성요소를 추출하였다. 다음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설문지는 부록1에 수록하였다.

〈표 II-3-2〉 육아가구 삶의 질 영역별 측정 요소

영역	구성요소	전반적 삶의 질 측정 요소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내면적 삶	주관적 웰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삶의 만족도 긍정정서(행복) 부정정서(근심, 우울)
	의식과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삶의 의미 인생 결정 자유 행복의 중요도
삶의 역량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칙적 운동, 아침식사 유무, 정기적 건강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객관적 건강상태 (규칙적 식사, 운동, 건강검진) 주관적 건강상태 수면의 질 전반적 스트레스 정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업 수준 만족도 배움 노력
	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가 활용, 여가 활동 동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가생활 만족도 여가시간 충분도 여가생활 감정
사회적 삶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벌이여부 가사 분담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관계 만족도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 자녀와의 관계, 자녀관련 인간관계 만족도 (육아가구만) 가사 분담 만족도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층이동-본인세대, 자식세대 집단별 신뢰정도 사회적 고립도 사회적 관계망
물질적 삶	고용·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평균 임금(배경질문) 주당근로시간 직업, 종사상의 지위(배경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 만족도 기업의 육아친화 정도 일·가정 양립 만족도 육아친화적 근로환경
	소득·소비·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소득 (배경질문) 월평균 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소비생활 만족도 계층의식(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양육비·교육비 부담정도(육아가구만)
삶의 환경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처의 점유 형태 현 지역으로 이사 이유(행복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주택 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환경 만족도 소음 만족도 녹지환경 만족도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출처: 1) 한준 외(2023). 생애주기별 삶의 질 측정 프레임워크 구축 연구. 통계개발원, 한국삶의질학회. p. 74.
 2) 심수진 외(2024). 국민 삶의 질 2023. 통계청 통계개발원. pp. 14-15.
 3) 통계청(2023a). 2022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pp. 425-436.
 4) 통계청(2022). 2022년 사회조사보고서: 가족·교육과 훈련·건강·범죄와 안전·생활환경. 통계청. pp. 23-24.
 5) 통계청(2023b). 2023년 사회조사보고서: 복지·사회참여·여가·소득과 소비·노동. 통계청. pp. 19-20.
 6) 허종호 외(2023). 2023년 한국인의 행복조사(3차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국회미래연구원. p. 7.
 7) 한국행정연구원(2023).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p.362.

나. 육아가구 양육현황 및 부모됨 가치 관련 질문

육아가구의 양육자의 돌봄상황 및 양육에 대한 인식, 육아가구 삶의 질에 대한 인식들을 알기 위해서 육아가구 양육현황 및 부모됨 가치 관련 질문을 살펴보았다.

〈표 II-3-3〉 육아가구 양육현황 및 부모됨 가치 관련 질문

영역	구분	부모됨 및 육아관련 질문	조사대상
육아가구 양육현황	돌봄 관련	• 자녀 돌봄기관 및 이용 시간, 돌봄 인력	육아가구만
	양육 인식	• 부부간 양육분담 정도와 만족도, 양육 효능감, 부모 역할 부담, 양육 정서, 육아를 어렵게 하는 요인	
	육아가구의 중요한 삶의 영역	• 현재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 현재 삶에서 가장 많은 노력과 시간을 쓰는 영역, 삶에서 개선이 필요한 영역	
부모됨과 자녀에 대한 가치	자녀/부모됨에 대한 인식	• 자녀에 대한 가치관, 부모됨에 대한 인식, 부모책임 인식,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지원정도	육아가구/ 비육아가구 전체
	육아가구를 위한지원분야	• 육아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분야, 자녀양육 지원제도 이용여부, 미디어의 육아 관련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III

육아가구 생활시간분석

- 01 육아가구 생활시간분석 개요
- 02 육아가구의 생활시간분석: 비육아가구와의 비교
- 03 육아가구의 시간 사용분석
- 04 소결

Ⅲ. 육아가구 생활시간분석

본 장에서는 2019년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육아가구의 양육자인 부모의 생활시간의 구성을 파악하여,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와의 비교 및 육아가구 중에서 자녀 연령 간 비교를 통해 육아가구의 삶의 행태를 들여다보면서 우리사회에서 부모됨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1. 육아가구 생활시간분석 개요

이 장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일상생활을 시간 사용의 관점에서 포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자녀돌봄에 관한 연구, 특히 자녀돌봄시간을 초점으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자녀양육 행태를 ‘돌봄활동의 유형과 활동의 총합(시간)’을 중심으로 측정해 왔다(Cha & Park, 2021). 이는 부모됨의 경험을 구체적인 양육행위(예: 신체돌봄, 공부시키기, 책임어주기, 놀아주기) 중심으로 인식한 것이다. 그런데, 2010년대 이후에는 여러 연구에서 부모 역할이 ‘연속된 일련의 행위’가 아니라 그 속에 내포된 심리·사회적인 측면도 중요함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인종과 계층 그리고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 부모들이 자녀양육에 ‘몰입’(“intensive mothering”, Hays, 1996) 하는 현상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자녀양육에 대한 몰입 현상은 자녀중심적(child centered)이고, 노동집약적(labor intensive)이며, 부모의 정서를 자녀에게 쏟는 방식(emotion absorbing)으로 이뤄진다. 과거에는 이러한 ‘몰입육아’가 한 사회의 일부 계층(예: 중산층 계층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행태로 알려져 있었지만, 2010년대 부모됨에 대한 문헌고찰을 시도한 Nomaguchi와 Milkie(2020)에 따르면, 서구를 비롯한 여러 사회에서 이미 부모 계층에 따른 양육시간 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녀양육에 몰입이 전 계층에서 동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몰입육아와 관련해서는 자녀를 직접돌보는 시간(예: 신체적 돌봄, 대화하기, 책임어주기, 공부봐주기 등) 뿐 아니라 부모가 자녀 곁에 머무르고, 양육을 위해 고민

하고 책임지는 이른바 ‘멤도는 돌봄’도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한다. 멤도는 돌봄이란, 자녀를 동반한 다양한 활동(Craig & Mullan, 2012; Vagni, 2019)은 물론, 자녀와 함께 식사하고, 자녀를 기다리고, 감독하는 시간(Doucet, 2015, 2020; Folbre, 2023), 거기에 더해서 양육과 돌봄에 대한 걱정으로 잠 못 드는 시간(Venn, Arber, Meadows & Hislop, 2008)에 이르는 심리·사회적인 부모역할 영역을 포괄한다.

특히, 이 멤도는 돌봄 개념을 적용할 경우, 직접돌봄이 이루어지는 영유아기 이후에 부모의 양육 행동의 변모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Faircloth, 2023; Milkie & Wray, 2023). 실제로 양육의 내용이나 관점, 양육책임에 대한 인식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사회경제적 맥락에 따라 유동적이다(Doucet, 2023). 즉, 영유아기 이후에는 자녀가 학교, 또래, 지역사회로 생활 반경을 넓혀가면서 부모의 직접양육행동의 양(quantity)은 감소하지만,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행위나, 부모가 자녀를 맴돌면서 이루어지는 양육의 책임은 자녀연령과 무관하게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관련 연구들은 부모의 직접적인 양육시간에 더불어서 멤도는 돌봄의 시간까지 추가했을 때 부모의 돌봄 행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Budig & Folbre, 2004; Craig, 2016; Doucet, 2015).

멤도는 육아에 대한 인식은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생활세계가 자녀 양육의 차원을 넘어서 다양한 사회적 활동과 연계되어 있어 있음을 시사한다. 가족 생활이 ‘집’이라는 가족공간에서 주로 이루어지지만, 자녀가 자발성을 획득함에 따라 자녀의 생활공간은 지역사회(예: 학교, 교회 등의 사회적 관계), 더 넓게는 지역을 넘어선 공간차원까지(예: 산책, 여행, 쇼핑), 가족 생활의 장(field)이 확장하는 내용까지 탐색의 영역으로 포괄한다.

한편, 부모됨은 부모의 생애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Carr, 2018). 부모 역시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의 친구, 자녀 친구의 부모, 자녀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관계 속에 부모 역시 편입되고, 그러한 사회적 관계 경험이 성인의 생애과정에도 큰 자취를 남긴다. 서구의 최근 연구들은 이 ‘연결된 삶’(linked lives)의 관점을 호명하면서 부모의 삶의 경험과 ‘돌봄’의 맥락, 그리고 아동의 사회 문화적 자본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다(Kalil, Ryan, & Chor, 2014; Lareau, 2003; Oliveria, Martins & Carvalho, 2024; Wikle & Hoagland, 2020). 부모의 생활세계의 특성, 그리

고 생활세계가 자녀양육과 함께 변화하는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자녀돌봄의 총체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 부모들은 왜 자녀양육에 더 몰입하는 경향이 나타났을까? 그리고 그것은 부모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녀 양육을 바라보는 기존의 논의는 양육몰입(예: 독박육아) 되거나 혹은 경력단절과 같은 부모의 희생과 양육에 따른 기회비용이 부각되었다(Christopher, 2012). 그런데도 부모들은 왜 몰입육아를 멈추지 않는가? 전 계층적으로 몰입육아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서구연구들은 사회 불확실성(uncertainty)의 증가, 미래세대의 인적자원(investment in human resource)이 그들의 미래소득을 결정하는데 중요해진 부분, 그리고 사회 안전 문제(security)가 지역사회에서 부각된 점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Nomaguchi & Milkie, 2020). 자녀 양육에서 부모 개입이 자녀의 성취에 중요하다는 인식과 자녀의 미래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 역시 부각된다. 이 때문에 최근 연구들은 부모들이 자녀양육부분에서도 특히 어떤 부분에 특별히 투자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부모 역할에 몰입하는 것이 부모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Dotti Sani, 2022).

이상의 이론적 쟁점과 관점을 견지하면서 이 연구는 지금까지 기존 아동기 돌봄 시간 관련 생활시간 연구가 시도하지 않은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0-12세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생활세계를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경우(만 0-6세, 이하 미취학 자녀), 학동기 자녀를 키우는 경우(만 7-12세)로 구분했으며, 특히 학동기 자녀를 키우는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만 7-9세)과 고학년(만 10-12세) 자녀가 있는 경우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둘째, 부모의 일상생활을 개인유지, 의무시간, 재량시간의 세 개의 큰 영역으로 구분하여, 이러한 세 영역에서 시간 배분이 어린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이때, 세 개의 생활시간 영역 내에서 중요한 활동의 영역들 이를테면, 수면, 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돌봄, 여가시간의 특정한 측면들은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드러나는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셋째, 이 연구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있는 공유시간 역시 중요하게 다루었다. 특히 부모가 직접돌봄행위(씻기기,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외에도 부모가 자녀를 동반한 공유된 시간도 중요한 양육 시간으로 볼 수 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와 함께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을 만들어가게 된다. 자녀의 학교, 자녀의 방과 후 활동, 가족 행사 참여와 같은 활동은 자녀 양육과 연계되어 새롭게 형성하고 발전하는 사회적 관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식사시간, 부모의 교제시간, 부모의 여가시간에서 자녀를 동반(co-presence)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유된 시간을 부모의 간접돌봄 혹은 맴도는 돌봄이라고 보고, 직접돌봄과 비교해서 분석하였다.

넷째, 이 연구가 다른 연구와 다른 점은 이러한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일상생활을 ‘가구 내에 0-18세 이하 자녀가 없는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이하 비육아가구)와 비교한 점이다. 한국의 최근 저출산 추세는 자녀에 대한 가치가 변화한 2차 인구 변동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다. 특히 자녀의 존재가 성인의 시간활용에서 돌봄에 매몰되고 휴식과 자유시간의 희생을 요구한다는 식의 가치관도 팽배한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는 동일 연령대의 비육아가구의 성인남녀와 비교해서 양육하는 가구(자녀 연령 0-12세)의 생활시간을 비교하고, 실제 어떤 영역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하고, 육아가구를 지원하는 정책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다섯째, 주로 자녀양육이나 관련된 일상생활 시간 배분 연구들이 여성의 시간을 살펴봤지만, 이 연구는 아버지의 시간에도 관심을 둔다. 따라서 생활시간배분 양상을 파악하면서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도 중요한 분석 축으로 삼았다.

가. 연구 방법

1) 분석자료 소개

이 글에서는 앞서 언급한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2019생활시간자료⁴⁾를 활용하였다. 2019생활시간자료는 통계청에서 수집한 자료로 총 8천여 가구, 2만여 명이 이틀간 작성한 시간일지를 기반으로 한다. 시간일지는 0시부터 23시 50분까지 수행한 모든 활동을 10분 간격으로 활동 내용을 작성하게 되어 있다. 생활시간자료는 기본적으로 가구 자료로서, 가구 내에 있는 만 10세 이상 가구원은 모두 조사에 참여하였다.

4) 출처: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홈페이지(<https://mdis.kostat.go.kr/index.do>)

2) 대상자 추출 방법

부모의 연령 26-49세 사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육아가구'와 연령이 26-49세 사이의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비육아가구'를 추출하였다. 이 육아가구 중에서 0-12세 자녀가 있는 가구는 다시 미취학 자녀(만 0-6세)가 있는 가구,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만 7-9세)가 있는 가구,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만 10-12세)가 있는 가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결국 이 연구의 주요 비교 대상은 육아가구 대비 육아가구 그리고 육아가구 내에서는 막내 자녀 기준으로 자녀 연령상 영유아기(미취학),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가 있는 가구가 된다.

육아가구는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가 대부분이지만, 드물게 한부모가구(미혼, 이혼, 사별 포함)도 존재한다(N=236). 한편, 비육아가구는 부부가 현재 동거하고 있는 가구로 18세 자녀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생활시간자료에서는 출산 여부는 물어보지 않았고, 현재 사는 가구의 가구원 정보만 존재한다. 비육아가구에 0-18세 자녀가 함께 거주하지 않지만, 이들이 실제 출산을 수행하지 않은 무자녀가구인지, 혹은 출산은 하였으나 현재 0-18세 미만 자녀가 분거 상태인지 자료에서는 자료의 성격상 알아볼 수 없다. 적어도 분거 관련 정보로 본다면, 비육아가구 내에서도 10-18세 미혼자녀와 분거한 사례(N=478)가 존재하는 것을 파악하였다. 또한, 비육아가구 내에 19세 이상 미혼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예도 존재할 수 있다.

다만, 이 생활시간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시간 배분 현황이라는 점에서 출산 여부 자체보다는 0-18세 미만 자녀가 가구 내에 존재하는지가 더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육아가구'에 대한 해석 시에는 육아가구와 같은 연령대의 성인이 0-18세의 양육대상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시간 배분 경향을 보이는지 알아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응답자 특성

분석대상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III-1-1 참고). 한 사람이 이틀간 쓴 일지를 분석했기 때문에 분석한 일지의 수는 응답자 수의 거의 두 배에 이른다. 전체 분석 대상 일지 수는 10,910이고 일지를 쓴 사람의 수는 5,545명이다.

응답자 특성으로 본다면, 육아가구는 전체의 75%를 차지하였고, 비육아가구는

25% 수준이었다. 응답자 성별을 살펴보면, 대체로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은데, 육아가구는 성비가 2%p 차이가 있다면, 비육아가구에서 남성 응답자 비중이 여성보다 15%p 정도 적다. 육아가구 중에는 한부모가구 비중이 2.8% 정도 있으나 비육아가구의 응답자들은 모두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 응답자의 연령 구간은 26-49세로 같지만, 평균연령으로 보면 육아가구 응답자의 평균연령이 비육아가구 응답자보다 어린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수준 차이를 보면, 육아가구가 비육아가구보다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비율이 약 12%p 정도는 높았다.

거주지역은 두 가구 유형 모두 도시거주자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에서 취업자 비중은 비육아가구가 높았지만, 직종 비중에서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 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평소 시간 압박을 느끼는 응답 비중은 육아가구가 76%에 비해 비육아가구는 63%로 낮은 수준이었다.

〈표 III-1-1〉 응답자 및 응답 가구 특성

단위: %, 세, 만원

구분		육아가구 (일지 N=8,202) (사람 N=4,101)	비육아가구 (일지 N=2,708) (사람 N=1,354)
사회인구학적 특성	응답자 성별		
	남자	48.5	42.1
	여자	51.5	57.9
	혼인상태		
	배우자 없음	2.9	-
	배우자 있음	97.1	100.0
	평균연령(만 나이)	39.0	41.2
	교육수준		
	전문대 이하	50.7	62.9
	대졸 이상	49.4	37.1
거주지역	도시(동)	83.7	82.5
	농촌(읍면)	16.3	17.5
	직종		
취업 특성	취업여부		
	비취업	26.6	20.1
	취업	73.4	79.9
	평균주당노동시간(주업+부업)	44.9	44.4

구분		육아가구 (일지 N=8,202) (사람 N=4,101)	비육아가구 (일지 N=2,708) (사람 N=1,354)
가구 특성	임금근로자	80.8	81.1
	고용주	7.6	7.1
	자영업	9.8	9.9
	무급가족근로자	1.8	2.0
	평소 시간압박경험 비중 (%)	76.4	63.1
	총가구원수	3.9	2.5
	월평균가계소득 (만원)	499.4	506.1
	자녀연령		
	만0-6세 자녀 있음	59.8	-
	만7-9세 자녀 있음	3.1	-
만10-12세 자녀 있음	37.1	-	
요일 특성	반려동·식물 존재 여부		
	없음	96.6	87.6
	있음	3.4	12.4
	평소 시간압박경험 비중 (%)	76.4	63.1
요일 특성	요일		
	평일	61.0	58.3
	주말	39.0	41.7

가구 특성을 보면, 육아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3.93명으로 3-4인 가구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에 비해 비육아가구의 가구원 수는 2.45명인데, 이는 부부 외에 18세 초과 미혼자녀가 함께 거주하거나 그 외 가구원이 함께 사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구소득으로 보면, 양육-비육아가구 모두 월평균 500만 원 정도의 가계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육아가구 내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막내 자녀를 기준으로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가 전체에서 60% 비중을 가까이 차지하였고, 막내자녀 연령이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에 해당하는 가구는 37%로 파악된다. 이 자료에서 막내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는 가구는 전체 육아가구의 3%에 불과하였다. 아마도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영유아 자녀를 함께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영유아 가구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가구 내 반려동·식물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을 보면 육아가구가 3% 수준이었으나 비육아가구는 12%로 반려동·식물을 키우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비육아가구에서 더 높았다. 시간일지를 작성한 요일 특성을 보면 평일 비중이 60%에 비해 토요일이나 일

요일과 같은 주말 비중은 30%였고, 비육아기구가 주말일지를 쓴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생활시간일지는 자료 수집을 할 때, 이틀간의 일지를 작성해야 하므로 요일 특성에서도 적절한 배분이 필요하다. 생활시간일지 상에서 요일 특성은 다음의 7개 유형으로 구분해서 수집했다. ‘일월’, ‘월화’, ‘화수’, ‘수목’, ‘목금’, ‘금토’, ‘토일’ 때문에 평일 5일과 주말 2일의 배분보다 주말일지의 배분이 조금 더 많을 수 있다. 응답자 분포를 보면, 비육아기구 응답자들의 주말일지 작성 비중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 생활시간 관련 변수 구성

시간관련 변수는 2019생활시간자료 코드북의 코드를 참고하여 아래 <표 III-1-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활동 시간의 합을 통해 산출하였다. 각의 활동의 중분류행위를 다시 몇 개의 주 행동으로 합산하였고, 주 행동코드를 다시 합산하는 방식으로 세 개의 행위 영역(개인유지, 의무시간, 재량시간)을 구성하였다.

몇 가지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가 25-49세 성인에 맞추어져 있어서 의무시간에서 학습시간(study) 시간은 전체 대상자 평균이 거의 0분에 가까웠다. 해서 총 의무시간을 산출할 때는 학습시간을 고려했지만, 의무시간 영역별 시간을 제시할 때는 학습시간은 제외한 유급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돌봄시간, 이동시간 등만 제시하였다.

둘째, 2019 생활시간자료에서는 돌봄시간의 경우 10세 미만 자녀돌봄 행위목록은 각 행위 영역을 자세하게 측정하였다. 이에 ‘자녀직접돌봄’이라고 별도로 변수를 설정하였고, 표에 제시하였다. 자녀직접돌봄 시간은 다시 10세 이하 자녀 돌보기와 10세 이상 자녀 돌보기 행위를 합산한 값을 사용하였다. 10세 이하 자녀 돌보기에는 신체돌봄(예: 기저귀 갈기 및 씻기기, 옷 입히기 등), 간호하기(예: 아픈 아이 간호), 학습과 가르치기,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대화하기, 교육 관련 상담,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보기] 참조). 10세 이상 미성년자녀 돌보기 자녀 돌보기는 생활시간자료 코딩자료에 중분류로 묶여서 제시되어 있었고 구체적인 활동 영역이 나타나지 않았다. 의무시간 내 돌봄시간은 이러한 자녀직접돌봄시간과 성인돌봄시간이 포함된 수치이다.

〈표 III-1-2〉 시간관련 변수 구성

대분류	소분류	활동코드
개인유지시간	잠	수면+잠 못 이루고 뒤척임
	섭식	식사하기+간식 및 음료 섭취
	위생	개인 건강 관리+개인위생 및 외모 관리
의무시간	유급노동	유급 노동+무급가족일+일 중 휴식+일 관련 연수+구직 및 창업 활동
	공부	학교 활동(학교 수업+휴식)+학교 외 학습+교양강좌 수강
	가사노동	음식 준비+식사 준비+간식 및 비일상적 음식 만들기 +설거지+세탁 및 의류 관련 활동+청소 및 정리+주거 및 가정용품 관리+차량 관리
	반려동물 돌봄	반려동물·식물 돌보기
	쇼핑	상품 및 서비스 구매(매장, 온라인, 서비스 현장 구매, 서비스 온라인 구매 모두 포함)
	돌봄	10세 미만 아이 돌보기+10세 이상 미성년자 돌보기+장기 돌봄 필요 성인 돌보기+독립적인 성인 돌보기
	자녀직접돌봄	10세 이하 자녀 돌보기(신체적 돌보기+간호하기+훈육 및 공부 가르치기+책 읽어주기+대화하기+아이와 놀아주기+선생님과 상담 및 학교 등 방문)+10세 이상 미성년자 돌보기
	자원봉사 및 무급연수	자원봉사 활동 시간
	이동	출퇴근+학습을 위한 이동+가사를 위한 이동+돌봄을 위한 이동+여가를 위한 이동+그 외 모든 이동
	재량시간	교제활동
종교활동		개인적인 종교활동+종교집회 및 모임 참가+기타 종교 관련 활동
문화/관광		문화 및 여가활동+문화 및 관광 활동+취미활동+여가 교양 학습 활동
독서		책 읽기+신문+잡지
TV/미디어		TV 시청+비디오 시청+라디오 청취+음원 및 음악 듣기+기타 미디어 활동
운동		걷기 및 산책+달리거나 조깅+등산+자전거 및 인라인+개인 운동+구기 운동+낚시나 사냥+기타 스포츠 활동
게임/놀이		집단게임 및 놀이+온라인 게임+모바일 게임+기타 게임
아무것도 하지 않기		아무것도 하지 않음+담배 피우기

생활시간자료에서 수집한 ‘함께한 사람’ 정보는 특정 시간에 주행위(main activity)를 할 때 ‘응답자와 같은 공간(co-presence)에 함께 있었던 사람’으로 정의된다. 선행연구(Milkie, Wray & Boeckmann, 2021)에 따르면,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은 간접돌봄 시간으로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경을 쓰고, 관찰하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 모든 ‘함께 있는’ 행위 자체가 넓은 의미의 돌봄으로 본다. 또한, 자녀와 직접적인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같은 공간에서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 시간을 Folbre와 Yoon

(2007)은 ‘맴도는 돌봄(supervisory care)’으로 보고하고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시간의 하나의 차원에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Milkie와 Wray(2023)의 최근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동반한 다양한 활동 영역을 모두 ‘돌봄이 이루어진 시간’으로 측정하였다. 이렇게 함께한 사람 정보를 파악했을 때 부모가 자녀를 동반하는 행위의 대표적인 활동이 식사시간, 교제시간, 그리고 재량시간(그중에서도 여가활동 시간)이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한 시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식사와 교제, 그리고 재량시간을 구성하는 활동의 시간을 파악할 때 ‘함께한 사람’ 정보를 결합하여 ‘함께한 시간’을 산출하였다. 이 분석에서 ‘함께한 식사시간’은 응답자가 자녀와 같은 공간에서 식사한 시간을 말한다. ‘함께한 교제시간’은 부모가 교제 활동을 수행할 때 같은 공간에 자녀가 동석하거나 함께 있었던 시간의 총량을 말한다. ‘함께한 여가시간’ 역시 부모가 자녀를 동반하여 여가활동을 한 시간으로 같은 공간에서 여러 문화, 책 읽기, 레저, 스포츠 등의 야외 활동을 포함한 한 총시간을 산출하였다.

다만, 생활시간자료에는 이 ‘함께한 사람’ 정보의 경우 가구 내에 여러 자녀를 두었더라도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10세 미만 자녀와 10세 이상 자녀로 구분해서 코딩되었다. 따라서 10세 이상 자녀가 3명이라도 실제 일지에는 10세 이상 자녀가 함께했는지 아닌지만 알 수 있다. 또한, 10-12세 자녀와 그 이상 연령 자녀를 특정해서 코딩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 자료의 응답자 중에서 비육아가구의 경우 19세 성인 자녀가 동거할 수도 있고, 혹은 응답자가 10세 이상 자녀와 분거한 점도 자료에서 확인하였다(N=478). 따라서 비육아가구의 성인은 일상생활 속에서 ‘10세 이상의 미혼자녀와 함께한 시간(가령 기숙사 생활을 하는 대학생 자녀나 군대에 있는 자료)’이 존재할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2. 육아가구의 생활시간분석: 비육아가구와의 비교

가. 육아가구 비육아가구의 시간 사용 비교

1)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의 시간 배분 현황

〈표 III-2-1〉은 부모의 생활세계를 크게 개인유지(regenerating time), 의무시

간(obligatory time), 재량시간(discretionary time)의 세 개 차원으로 파악하면서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표 III-2-1>의 아래 단에는 전체적인 시간 배분 양상과 함께 요일과 응답자 성별에 따라서도 양육-비육아가구 간에 차이가 있는지 제시하였다.

<표 III-2-1> 가구 유형별 생활시간배분 양상과 차이

단위: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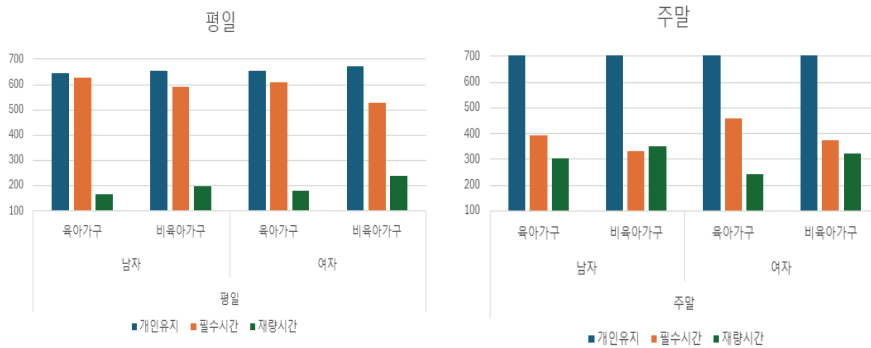
구분		개인유지	의무시간	재량시간
전체	육아가구(A)	689.48	543.44	211.01
	비육아가구(B)	701.03	470.22	268.74
	차이 (A-B)	-15.54	73.22	-57.73
요일 평일	육아가구(A)	649.81	618.46	171.63
	비육아가구(B)	666.40	552.41	221.17
	차이 (A-B)	-16.59	66.05	-49.54
토/일요일	육아가구(A)	741.49	426.07	272.63
	비육아가구(B)	749.45	355.27	335.27
	차이 (A-B)	-7.96	70.08	-62.64
성별 남자	육아가구(A)	684.38	536.12	219.36
	비육아가구(B)	698.97	478.61	262.41
	차이 (A-B)	-14.59	57.51	-43.05
여자	육아가구(A)	686.50	550.35	203.13
	비육아가구(B)	702.52	464.14	273.33
	차이 (A-B)	-16.02	86.21	-70.20

육아가구는 비육아가구보다 개인유지시간은 평균 15분가량 짧지만, 의무시간은 약 73분 정도 길고, 재량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짧다. 이는 육아가구가 비육아가구보다 생활시간 대체로 개인유지시간과 재량시간을 줄이면서 의무시간에 투여하는 시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무시간에 돌봄시간이 포함되어 있기에 육아-비육아가구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자녀돌봄시간에서 차이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육아-비육아가구의 차이를 요일별로 살펴보면, 특히 재량시간 배분에서 육아-비육아가구 간 시간 배분 격차가 두드러진다. 평일에는 육아가구가 비육아가구보다 개인유지시간이 17분가량 짧고, 재량시간은 50분가량 짧다. 그런데, 주말에는 모든 가구에서 개인유지와 재량시간이 늘어가는 하나, 육아가구는 의무시간이 늘면서 비육아가구와 재량시간에서 격차가 더 벌어지는 양상이다.

[그림 III-2-1] 성별과 가구 유형에 따른 생활시간 배분 구조

단위: 분



이번에는 성별로 구분해서 시간 배분 패턴의 양상을 살펴보면, 성별 격차보다도 육아-비육아가구 간 격차가 생활시간배분 구도를 좌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육아가구는 비육아가구보다 의무시간에 대한 시간 투여가 많고, 반면에 개인유지와 재량시간에서의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남녀가 거의 유사하다(그림 III-2-1의 평일 그래프 참고). 주말 그래프를 살펴보면, 육아-비육아가구 모두 의무시간이 각각 평균 426분과 355분으로 대략 6시간에서 7시간에 이르는 의무시간이 존재한다. 성별로 구분해 보면, 육아-비육아가구 여성의 의무시간 격차는 86분까지 벌어진다. 그에 비해 재량시간은 전체적으로 평균 203-262분으로 대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육아가구 여성의 재량시간이 가장 짧은 평균 203분 수준이다.

남성 집단 내에서 육아-비육아가구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여성 집단에서 드러난 것만큼 의무시간이나 재량시간 격차가 크지 않았지만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즉, 주말에는 육아가구 남성들이 의무시간에 투여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상대적으로 비육아가구보다 재량시간은 적은 양상이다. 육아가구에서 의무시간, 즉 돌봄 시간으로 추정되는 시간 투여가 비육아가구와 비교해서 재량시간이 개인유지시간을 잠식하는 구조라는 점을 알 수 있다.

2)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의 주요 생활영역별 시간 배분 현황

〈표 III-2-2, 3, 4〉에 걸쳐 육아-비육아가구의 생활세계를 활동의 주요 영역별(수면, 섭식시간, 위생 및 건강 관리; 유급노동, 가사노동, 자녀돌봄시간, 반려동·식물 돌봄시간, 이동시간; 교제시간, 문화 및 관광, 운동 및 스포츠 활동,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로 구분해서 활동에 소비한 시간을 살펴보았다. 이때, 앞서 살펴본 성별이나 요일 특성별 차이와 함께 육아-비육아가구 간 사회인구학적 특성(지역, 취업 여부, 교육수준과 가계소득 그리고 가구원 수)들은 통제하면서 생활시간 평균 값을 추정하는 ANCOVA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육아-비육아가구 간 개인유지시간을 살펴본 내용을 〈표 III-2-2〉에 제시하였다. 육아-비육아가구의 개인유지시간에 대한 분포는 수면, 섭식(음식, 음료, 간식 섭취), 위생 및 관리 세 가지의 차원으로 살펴본 결과를 제시하였다. ANCOVA 분석 결과에 따르면 평일 수면 시간은 육아가구가 비육아가구보다 약 6분가량 길고, 섭식 시간은 비육아가구가 육아가구보다 약 3분가량 길게 나타나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평일의 위생 및 관리 시간에서는 비육아가구가 육아가구보다 약 12분 정도 길다.

주말 수면 시간은 평일과 같이 육아가구가 비육아가구보다 약 15분가량 긴 양상이다. 주말의 섭식 시간은 비육아가구가 육아가구보다 약 1분가량 긴 시간을 확보하고 있다. 주말의 위생 및 관리 시간은 평일과 같이 비육아가구가 더 오랜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데, 비육아가구는 육아가구보다 평균 약 10분 정도 길었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한편, 주말에는 육아가구가 비육아가구보다 유의미하게 수면 시간이 길게 나타나지만, 위생이나 건강 관리 시간은 10분 정도 유의미하게 짧았다. 섭식시간에서 두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볼 때 개인유지시간에서 육아-비육아가구 간 차이는 예상과 달리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육아가구는 비육아가구보다 주말에는 오히려 잠자는 시간이 길다. 위생 및 건강 관리 시간은 육아가구가 비육아가구보다 평일과 주말 모두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

〈표 III-2-2〉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의 개인유지시간 분포: 평일, 주말

단위: 분

구분	평일			주말		
	잠	섭식	위생/관리	잠	섭식	위생/관리
육아가구(A)	467.09	110.83	73.67	546.17	128.13	70.19
비육아가구(B)	461.23	114.17	85.30	531.41	129.00	80.00
(A-B) 차이	5.86	-3.34	-11.63	14.76	-0.87	-9.81
Prob > F	.17	.13	.00	.04	.79	.00

주: 1) 육아/비육아가구 두 집단 간 평균과 그 차이를 관련 변수를 고려한 상태에서 산출함(ANCOVA 모델).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지역, 요일, 취업여부, 교육수준, 가계소득 그리고 가구원 수를 활용함.
 2) Prob > F값은 ANCOVA 분석 후 F값의 통계적 유의미도 수치를 나타냄.

〈표 III-2-3〉은 육아-비육아가구의 의무시간에 대한 분포를 유급노동, 가사노동, 돌봄, 이동, 반려동·식물 돌봄, 쇼핑으로 여섯 가지의 차원에서 비교한 것이다. 앞선 분석과 동일하게 요일별로 통제변수들을 반영한 ANCOVA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평일과 주말 모두를 포함하여, 육아-비육아가구의 의무시간 분포에서 가장 큰 격차가 두드러지는 것은 돌봄시간이다. 표에 주석 내용에 밝힌 바와 같이 여기서의 돌봄시간은 자녀돌봄과 성인 돌봄 시간을 모두 합한 수치이다. 평일 육아가구의 돌봄시간은 비육아가구보다 평균 약 75분가량 길고, 주말 육아가구의 돌봄시간은 비육아가구보다 약 65분가량 유의미하게 길다. 이는 예측한 바와 같이, 육아가구가 비육아가구보다 돌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비육아가구에서도 돌봄 활동에 주중에는 평균 15분, 주말에는 평균 25분 정도 소비하는 것으로 드러난 부분은 흥미롭다.

돌봄시간과 함께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의 차이가 드러난 활동 영역은 평일 유급노동과 반려동·식물 돌보는 활동에 투여한 시간이다. 중요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통제된 이후 육아가구보다 비육아가구의 평일 하루 유급 노동시간은 평균 19분 정도 더 길었다. 비육아가구가 평일에 일 지향적 생활세계를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그런가 하면, 이 의무시간 영역에 돌봄과 유급시간 외에 반려동·식물 돌봄시간 역시 두 집단 간 시간 투여 격차가 유의미하였다. 비육아가구는 육아가구보다 반려동·식물 돌보는 활동에 약 2분 정도 더 소비하고, 주말에는 이 격차가 두 배로 늘어서 하루 평균 4분 정도 소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III-2-3〉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의 의무시간 분포: 평일, 주말

단위: 분

구분	유급노동	가사노동	돌봄	이동	반려동·식물돌봄	쇼핑
평일 육아가구(A)	304.95	85.85	89.46	109.01	1.93	16.18
비육아가구(B)	323.26	83.01	14.79	105.37	3.84	14.70
(A-B) 차이	-18.31	2.84	74.67	3.64	-1.91	1.48
Prob > F	.01	.39	.00	.31	.01	.31
주말 육아가구(A)	91.88	103.27	89.64	97.49	2.53	29.67
비육아가구(B)	102.64	106.97	24.81	89.27	6.34	25.71
(A-B) 차이	-10.76	-3.7	64.83	8.22	-3.81	3.96
Prob > F	.31	.48	.00	.10	.00	.15

- 주: 1) 육아/비육아가구 두 집단 간 평균과 그 차이를 관련 변수를 고려한 상태에서 산출함(ANCOVA 모델).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지역, 요일, 취업여부, 교육수준, 가계소득 그리고 가구원 수를 활용함.
 2) Prob > F값은 ANCOVA 분석 후 F값의 통계적 유의미도 수치를 나타냄.
 3) 이 표에 제시한 돌봄시간은 자녀돌봄과 성인 돌봄을 모두 합친 수치임.

한편,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 간 차이가 드러나지 않은 의무시간 영역들은 가사노동시간과 이동시간 그리고 쇼핑 시간이었다. 실제 평일과 주말에 이 두 집단 간 가사노동, 이동, 그리고 쇼핑 활동에 소비한 시간은 다소간 차이가 있었으나 ANCOVA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예측된 평균값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구의 경우 가사노동시간이 비육아가구보다 상당히 길 것으로 예측되지만, 비육아가구와 차이가 없었다. 평일보다 두 집단 모두 주말에 가사노동시간이 유의미하게 길어지는 경향성(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의 가사노동시간이 평일에 각각 약 86분과 약 83분임에도 주말에는 각각 약 103분과 약 107분으로 증가함)이 있지만 두 집단 간 가사노동시간에 투여한 시간의 양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쇼핑 시간은 평일보다 주말에 쇼핑 시간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이동시간은 평일보다 주말에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평일과 주말 변화에서 두 집단 간 차이 역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의무시간으로 보면 육아가구가 비육아가구보다 돌봄시간이 길고 비육아가구는 유급노동, 반려동·식물 돌봄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지만, 그 외의 의무시간에서 차이는 두 집단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표 III-2-4〉는 육아-비육아가구의 재량시간에 대한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교제, 종교활동, 문화 및 관광, TV 또는 미디어 시청, 운동, 게임 및 놀이, 아무것도 하지 않기 일곱 가지의 차원으로 구분해서 ANCOVA 분석을 한 결과를 제시한 것

이다. 앞선 분석과 같이 요일을 구분하였고, 제시한 평균값은 성별과 연령, 지역과 취업여부, 교육수준, 가계소득 그리고 가구원 수를 통제한 이후의 추정된 평균값이다.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의 평일 재량활동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드러나는 영역은 교제시간과 TV 및 미디어 시청, 그리고 운동시간이다. 육아가구는 비육아가구보다 교제시간이 평균 약 5분가량 적었고, TV/미디어 활용 시간은 약 27분가량 적었다. 그런가 하면, 운동시간은 평균 8분가량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일 재량시간에 나머지 영역들, 가령, 문화/관광, 게임/놀이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등에서 큰 차이는 없었다.

〈표 III-2-4〉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의 재량시간 분포: 평일, 주말

단위: 분

구분	교제	종교 활동	문화/ 관광	TV/ 미디어	운동	게임/ 놀이	아무것도 하지 않기	
평일	육아가구(A)	38.21	2.97	4.00	78.62	16.22	14.65	9.79
	비육아가구(B)	42.85	2.91	3.78	105.43	24.37	15.30	11.35
	(A-B) 차이	-4.64	0.06	0.22	-26.81	-8.15	-0.65	-1.56
	<i>Prob > F</i>	.05	.95	.85	.00	.00	.75	.13
주말	육아가구(A)	43.58	9.99	14.52	136.74	19.66	26.61	11.20
	비육아가구(B)	53.42	20.66	9.28	170.18	32.11	25.02	8.93
	(A-B) 차이	-9.84	-10.67	5.24	-33.44	-12.45	1.59	2.27
	<i>Prob > F</i>	.00	.00	.05	.00	.00	.65	.10

주: 1) 육아/비육아가구 두 집단 간 평균과 그 차이를 관련 변수를 고려한 상태에서 산출함(ANCOVA 모델).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지역, 요일, 취업여부, 교육수준, 가계소득 그리고 가구원 수를 활용함.
2) Prob > F값은 ANCOVA 분석 후 F값의 통계적 유의미도 수치를 나타냄.

그에 비해 주말에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육아가구는 비육아가구보다 교제시간, 종교활동 관련 시간, TV/미디어 활용 시간과 운동시간은 짧았다. 재량시간 차원에서는 육아가구가 비육아가구에 비해 많은 활동에서 음(-)의 값을 보이는데 이는 육아가구가 비육아가구보다 재량시간 영역 시간활용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TV 및 미디어 활동 영역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비육아가구가 재량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량시간의 내용을 보면 수동적인 활동에 국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육아가구는 비육아가구보다 주말에 문화/관광 활동에 투여한 시간이 유의미하게 길었다. 즉, 육아가구가 주말에는 가족들과 나들이 등 야외활동 등 적극적 활동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평일이나 주말 게임 및 놀이 영역의 활동에는 컴퓨터나 모바일 등 인터넷 기반의 게임을 비롯해 각종 취미/교양 활동, 그리고 유흥활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활동에 투여한 시간이 두 집단에서 유사하다는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하지만 운동영역에 있어서는 육아가구가 비육아가구가 유의미한 차이로 시간활용이 낮게 나타난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육아가구의 부모들이 비육아가구 성인보다 취미생활도 못 하고 삶에서 재미를 느끼는 활동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미지로 인식되지만, 재량시간의 종류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3) 부모의 생활영역에서 자녀와 함께한 시간의 비중

다음에서는 육아-비육아가구를 중심으로 부모가 자녀와 함께한 시간의 비중과 행위 시간을 알아보았다. 이 함께한 시간은 부모가 자녀의 발달이나 신체돌봄을 수행하는 직접 돌봄시간과 별개로 존재하는 상호작용과 돌봄이 발생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비육아가구는 0-18세 자녀가 거주하지 않는 가구이기는 하나 거주하지 않는 자녀와 함께한 시간이 포착되었을 수 있다. 또한, 19세 이상 미혼자녀와 함께한 시간 역시 이 함께한 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비육아가구에서 '자녀와 함께한 시간'이 0분은 아님을 미리 밝혀둔다. 이렇게 육아-비육아가구에서 자녀와 함께한 시간을 비교함으로써 육아가구의 돌봄 상황을 조금 더 명료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분석 방법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모가 자녀와 함께한 시간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포착될 수 있겠지만, 생활시간자료에서 의미 있게 드러난 활동은 자녀와 함께한 식사시간(예: 식사 및 음료와 간식 섭취 시간), 자녀를 동반한 대면 교제 시간(예: 친구나 지인을 만날 때 자녀를 동반하거나, 자녀의 친구를 만날 때 동행하는 형태가 될 수 있음), 그리고 자녀와 함께한 여가활동이 가장 대표적이고 분석 상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생활시간자료에서 '함께한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을 지칭하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응답자가 주행동으로 가사노동을 할 때 한 공간(예: 집안)에 있던 경우 우선 이번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III-2-5〉에는 식사, 교제, 여가활동에서 함께한 시간을 산출한 후 그 시간을 행위자 비율과 행위 시간으로 구분해서 통제변수들을 고려한 ANCOVA 분석을 제

시하였다. 행위자 비율은 산출한 함께한 시간이 10분 이상인 사례의 비율을 말한다. 행위 시간은 실제 함께한 시간이 존재하는 사례에서 소비한 평균 시간을 말한다. 즉, 행위자 비율은 전체 섭식시간에서 자녀를 동반한 비중을 말하며, 행위 시간은 행위 시간 동안 자녀와 함께한 시간의 총량을 말한다.

〈표 III-2-5〉 육아/비육아가구의 식사, 교제, 여가활동에서 자녀와 함께한 시간

단위: %, 분

구분	자녀와 함께한 섭식		자녀를 동반한 교제		자녀와 함께한 여가	
	행위자 비율	행위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시간
육아가구 (A)	61.28	72.89	15.00	49.97	36.11	97.68
비육아가구 (B)	12.20	81.02	1.00	44.02	6.34	75.26
Prob > F	.00	.54	.00	.85	.00	.45

주: 1) 육아/비육아가구 두 집단 간 평균과 그 차이를 관련 변수를 고려한 상태에서 산출함(ANCOVA 모델).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지역, 요일, 취업여부, 교육수준, 가계소득 그리고 가구원 수를 활용함.

2) 여가활동: 문화/관광, 읽기 활동, TV 보기, 운동, 게임-놀이, 아무것도 하지 않기 외 기타 여가활동이다.

3) 행위자 비율이란 "함께한 사람"으로 자녀를 언급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4) 행위시간이란 자녀와 함께 한 행위의 평균 지속시간을 말한다.

5) Prob > F값은 ANCOVA 분석 후 F값의 통계적 유의미도 수치를 나타냄.

육아가구는 자녀를 동반한 비중을 볼 때 식사시간이 61% 수준으로 행위자 비율이 가장 높다. 그리고 다음이 여가활동(36%), 교제활동(15%) 수준으로 드러난다. 이는 부모 중에서 자녀와 함께 식사한 부모가 전체 응답자의 61%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식사한 경우,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식사한 시간은 하루 평균 약 73분이다. 교제와 여가활동에서 행위자 비율과 행위시간을 살펴보면, 부모가 자녀를 동반한 응답자는 전체의 15% 수준이었고, 이들이 자녀를 동반한 교제 평균 시간은 하루 평균 50분가량 된다. 여가활동에 자녀를 동반한 경우는 전체의 36% 수준이며, 이때 함께한 여가시간은 하루 평균 98분가량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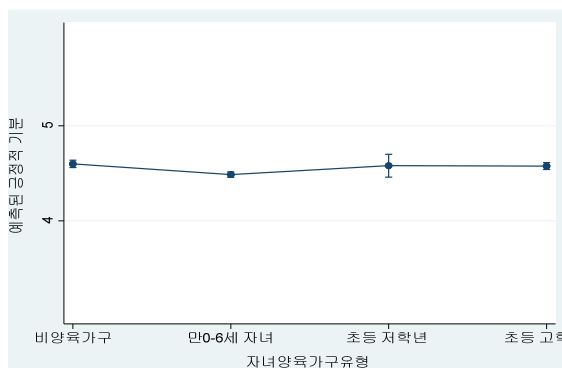
반면, 비육아가구는 식사, 교제, 여가에서 0-12% 행위자 비율을 나타내는데 이는 식사, 교제, 그리고 여가활동을 할 때 자녀를 동반한 개연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중에서도 식사를 함께하는 응답자는 12% 수준으로 교제(1%)나 여가활동(6%)에 비해 높다. 비육아가구가 자녀를 동반하는 확률은 낮지만, 일단 그러한 자녀 동반 행위가 존재하는 사람들이 투여한 시간을 나타내는 행위 지속시간을 살펴보면, 식사가 약 81분, 여가활동도 75분가량 잡힌다. 즉, 육아가구나 비육아가구 모두 식사시간이나 혹은 여가시간이 '가족이 함께하는 공유시간'임을 알 수 있다.

4) 육아/비육아가구의 긍정적 기분(positive mood)과 삶의 만족도

다음으로 2019생활시간자료에 드러나는 육아-비육아가구의 삶의 질을 비교하고자 한다. 생활시간자료에는 단일문항으로 전반적인 삶의 질을 묻는 문항과 시간일지를 쓴 당일 응답자가 느낀 기분을 측정하였다. 비육아가구와 육아가구(자녀연령 집단별)의 4개 집단의 삶의 질을 평가하였고, 이때 성별, 연령, 지역, 요일, 취업여부와 교육수준 및 가계소득 그리고 가구원 수를 통제한 ANCOVA 모형을 활용하여 삶의 질 수치를 예측하였다. [그림 III-2-2]와 [그림 III-2-3]에서 제시한 수치는 ANCOVA 모형 후 예측된 평균값(marginal means)이며, 각 집단 내의 표준오차를 신뢰구간으로 표시하였다. 예측된 평균값과 신뢰구간이 겹치지 않았을 때 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III-2-3]에서 긍정적 기분(positive) 문항은 하루 기분을 묻는 단일문항을 ‘매우 기분이 나쁘다(1점)’에서 ‘매우 기분이 좋았다(7점)’로 리코딩 한 것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시간일지를 작성한 당일 기분이 좋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분석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비육아가구보다 육아가구 응답자들의 긍정적 기분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비육아가구와 만 0-6세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 간 긍정적 기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지만, 비육아가구와 초등학생자녀 육아가구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전체 7점 척도로 보았을 때 육아-비육아 간 긍정적 정서에서 차이는 크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전체 7점 척도에서 4.5점 수준에 걸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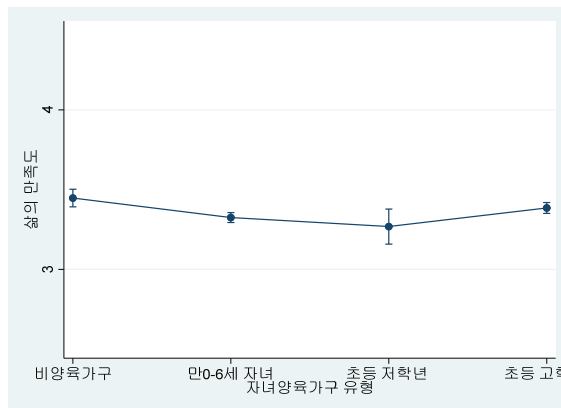
[그림 III-2-2] 육아/비육아가구의 긍정적 기분 평균 차이



주: 성, 연령, 요일, 지역, 취업여부, 교육수준, 가계소득 그리고 가구원 수를 통제한 후 산출한 평균값과 신뢰구간

다음으로 일반적인 삶의 만족도에서 네 집단 간 차이를 제시한 [그림 III-2-4]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번에는 5점짜리 단일문항인 삶의 만족도 문항에 대한 응답자들의 예측된 평균값 수치이다. 척도 중앙값이 2.5점인데, 응답자들은 대체로 3.5점 수준으로 응답해서 대체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보통 수준을 상회한다고 볼 수 있다. 비육아가구와 육아가구 3개 집단을 비교해 보면, 미취학 자녀(0-6세 자녀)가 있는 가구와 비육아가구 간 삶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는데, 신뢰구간으로 보면 매우 근소한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비육아가구와 초등 저학년 가구 응답자의 삶의 만족도는 평균값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오차값을 포함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처럼 삶의 질 관련 척도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육아가구가 삶의 긍정적인 면에서 비육아가구보다 삶의 질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 간 긍정적 정서나 삶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림 III-2-3] 육아/비육아가구의 삶의 만족도



주: 성, 연령, 요일, 지역, 취업여부 교육수준, 가계소득 그리고 가구원 수를 통제한 후 산출한 평균값과 신뢰구간

그렇다면, 육아-비육아가구의 삶의 질은 어떤 시간영역과 관련이 있을까? 과연 육아가구는 돌봄이나 자녀와 함께한 시간이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을까? 이를 추론하기 위해 의무시간(유급 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과 재량시간, 그리고 돌봄시간 및 자녀와 함께한 시간이 개인이 보고한 '일지를 쓴 날 하루 긍정적 기분'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회귀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때 기본

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일지 특성(성별, 연령, 지역, 요일, 교육수준, 가계소득)과 인지된 시간압박감을 통제하였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관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나 횡단자료를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인과적 관련성을 추론하기에는 무리이고, 변수들 간의 연관성으로 해석하는 한계가 존재함을 미리 밝혀둔다.

〈표 III-2-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비육아가구의 경우 유급 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은 유의미하게 그날의 긍정적 기분과 부(-)적인 관계를 갖는다 비육아가구의 돌봄시간은 자녀돌봄보다 성인이나 노인 돌봄시간의 합이다. 아마도 비육아가구의 돌봄시간은 주로 성인인 돌봄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돌봄시간 역시 긍정적 기분을 낮추는 방향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렇게 종합해 볼 때 대체로 의무시간으로 인식되는 시간은 긍정적 기분과 모두 부(-)의 관계를 보였다. 그에 비해 재량시간 즉, 개인유지시간과 의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의 시간 총량은 긍정적 기분과 정(+)의 관계를 보인다. 다만,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고려되자, 그러한 정적인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비육아가구가 육아가구와 비교해 재량시간이 많았지만, 그것이 그들의 하루 기분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한편, 육아가구의 경우 유급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은 긍정적 기분과 유의미하게 부(-)의 관계라는 점에서 비육아가구와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순수재량시간(재량시간에서 자녀와 함께한 시간을 제외한 재량시간)이 늘어날수록 긍정적 기분 수준도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육아가구에서 돌봄시간은 대체로 자녀돌봄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돌봄시간 역시 유의미하게 긍정적 기분을 낮추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녀와 함께한 시간 즉, 식사나 교제, 여가활동을 함께한 시간이 많을수록 육아가구 부모의 긍정적 기분 수준이 높아지는 방향이며 정(+)의 관계이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이 결과는 부모들이 수행하는 돌봄시간 총량은 분명 의무시간으로서 노동의 성격이 강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와 함께 밥을 먹고, 사람들을 만나며, 여가활동을 함께하는 것은 순수재량시간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육아가구의 돌봄은 분명 노동의 속성이 존재하지만,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심리적 회복도 함께 경험하는 양가적 면모가 있음을 말해준다.

<표 III-2-6> 육아/비육아가구의 긍정적 기분과 관련이 있는 활동 시간 분석표

독립변수	종속변수: 긍정적 기분			
	비육아가구	p value	육아가구	p value
유급 노동시간	-	.000	-	.000
가사 노동시간	-	.014	-	.001
재량시간	+	.669		
순수 재량시간			+	.113
(의무적) 돌봄시간	+	.861	-	.000
자녀와 함께한 시간			+	.000
R^2	.06		.05	

주: 제시된 수치는 부호는 비표준화계수 값의 부호를 나타냄. p value값은 비표준화계수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나타내는 수치임. 제시된 표는 요약표임. 순수재량시간은 육아가구에서만 도출한 수치로 전체 재량시간에서 자녀와 함께한 시간(자녀와 함께한 교제 및 자녀와 함께한 여가)을 뺀 수치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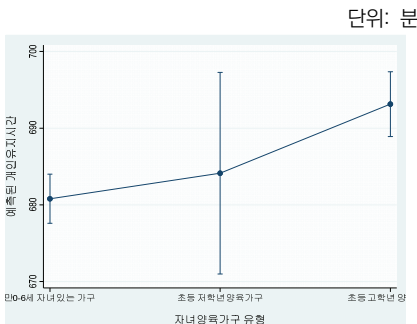
3. 육아가구의 시간 사용분석

가. 자녀연령별 부모의 시간 배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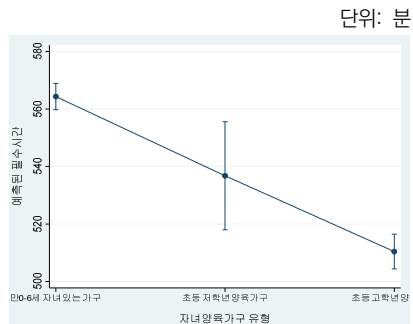
1) 자녀연령별 개인유지, 필수, 재량시간의 배분 차이

이번에는 육아가구의 자녀연령별 시간 배분 차이를 ANCOVA 분석한 결과이다. 이때 종속변수는 개인유지시간 배분, 의무시간 배분, 재량시간 배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III-3-1]부터 [그림 III-3-3]까지 제시하였다.

[그림 III-3-1] 육아가구 자녀연령별 개인유지시간 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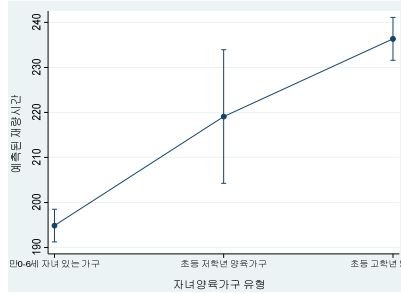


[그림 III-3-2] 육아가구 자녀연령별 의무시간 배분



[그림 III-3-3] 육아가구 자녀연령별 재량시간 배분

단위: 분



주: 제시된 Y축 수치는 ANCOVA 분석결과 예측된 개인유지, 의무시간 그리고 재량시간 도표는 유형별 평균과 신뢰구간 (95%)를 나타냄. ANCOVA 분석에는 육아가구 자녀연령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통제변수로 요일, 지역, 부모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그리고 취업여부를 투입하였음.

먼저 육아가구의 자녀연령별 하루평균 개인유지시간 배분의 결과의 값을 살펴보면, 영유아 자녀(혹은 미취학자녀 가구로 혼용해서 사용함)가 있는 가구의 개인유지시간이 약 680분가량이며 초등 저학년 양육가구의 경우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에 비해 약간 상승한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초등 저학년 양육가구는 최저 약 670분에서 최대 약 700분가량까지 분산의 폭이 크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의 평균값에 비해서 초등 저학년 양육가구의 개인유지시간의 평균값은 약간 상승하였지만, 신뢰구간 표시에서 드러나듯이, 표준오차의 분포가 상당히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초등 고학년 양육가구의 개인유지시간의 평균값은 약 695분 정도이다. 초등 고학년 양육가구의 개인유지시간 분산을 살펴보면 약 690분에서 약 700분 사이로 분산이 비교적 작고, 초등 고학년 양육가구의 개인유지시간은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와 비교하면 개인유지시간 평균값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인유지시간을 더 많이 시간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개인유지시간은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초등 저학년 양육 가족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상승하는 시간의 값보다 초등 저학년 양육가구에서 초등 고학년 양육가구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개인유지시간 증가 폭이 더 크다는 점에 주목할 부분이다. 과연 어떤 시간이 증가하는 것인지 추후 개인시간 영역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의무시간 배분 양상에서 육아가구 내 차이를 살펴보면,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와 비교해서 초등 저학년 양육가구, 그리고 초등 고학년 양육가구가 유의



미하게 의무시간의 양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선 <표 III-2-3>에서, 평일과 주말 모두 의무시간 중 육아가구의 돌봄시간이 확연히 긴 양상을 고려할 때, 자녀가 성장할수록 의무시간이 감소한다는 것은 양육가구의 의무시간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돌봄시간이 점차 줄어드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만0-6세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의무시간의 평균값은 약 560분가량이다. 초등 저학년 양육가구 의무시간의 평균값은 만0-6세 자녀가 있는 가구에 비해서 평균 약 20분 정도 감소한 540분가량이지만 초등 저학년 양육가구의 의무시간의 값은 약 520분에서 약 560분까지 큰 분산을 나타낸다. 이러한 분산의 결과를 통해 초등 저학년 양육가구이지만 만0-6세 자녀가 있는 가구의 의무시간과 비슷한 약 560분을 사용하는 가구도 존재한다. 그에 비해, 초등 고학년 양육가구의 의무시간은 대략 하루 평균 520분 정도인데, 이는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보다 평균 40분가량 줄어든 수치이다. 돌봄시간 외에도 어떤 시간에서 감소가 두드러지는지 자녀 연령 증가와 부모 의무시간 변모양상은 후속 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재량시간 배분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만0-6세 자녀가 있는 가구 재량시간의 평균값은 약 195분으로, 약 190분에서 약 200분 사이에 값이 분포하고 있다. 이후 초등 저학년 양육가구 재량시간의 평균값은 220분가량으로 만0-6세 자녀가 있는 가구의 평균값보다 25분 정도 상승했고, 값의 분산 정도를 확인하였을 때 약 205분에서 235분까지 분포하는 양상이다. 초등 저학년 양육가구 재량시간의 최저값이더라도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재량시간의 최솟값보다 크므로, 초등 저학년으로 자녀가 성장한다면, 영유아 자녀일 때보다 유의미하게 더 많은 재량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도출해낼 수 있다. 초등 고학년 양육가구의 경우 재량시간의 평균값은 약 235분, 즉 하루 4시간가량의 재량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표준오차가 크지 않은 것을 보면, 초등 고학년 부모 내에서 재량시간 분포 차이는 크지 않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초등 저학년 양육가구, 그리고 초등 고학년 양육가구로 자녀가 성장할 때 부모의 재량시간은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약하자면, 육아가구에서는 자녀의 연령별로 시간 배분에서 차이를 살펴볼 때, 자녀 연령이 높은 가구에서 유의미하게 개인유지시간이 길고, 의무시간은 짧으며

재량시간이 긴 패턴이 나타난다. 자녀의 성장으로 부모가 개인유지시간과 재량시간을 더 확보하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시간일지자료가 횡단자료이기 때문에, 자녀발달과 관련지어 부모 시간의 변화를 언급하기는 어려운 측면은 존재한다. 다만, 우리가 예상하는 바와 같이 육아가구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초등 고학년 시기에 부모의 의무시간 투여가 감소하면서 시간 자율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자녀연령별 개인, 필수, 재량시간 각 영역에서 시간 배분 차이

앞에서 육아가구 내에서 생활시간 배분 양상의 큰 그림을 살펴볼 수 있었다. 영유아 자녀를 둔 경우(이하 미취학 자녀로 병기) 다른 육아가구의 부모들보다 개인유지시간은 짧고, 의무시간은 길며, 재량시간은 더 짧은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긴 의무시간으로 인해 다른 생활시간배분에서 희생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양상도 자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빠르게 회복하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개인유지시간, 의무시간, 그리고 재량시간 영역 내에서 어떤 시간이 자녀연령 증가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III-3-1〉은 자녀 연령별 개인유지시간 영역에서 배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이다. 먼저 수면 시간은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약 496분, 초등 저학년의 자녀일 경우 미취학 자녀보다 약 4분 감소한 약 492분, 초등 고학년의 자녀일 경우 가장 높은 498분을 확보한다. 즉, 수면 시간 면에서 보면, 미취학 가구는 초등 저학년 가구와 초등 고학년 가구의 중간 수준으로 수면 시간이 적지 않다. 집단 간 수면 시간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표 III-3-1〉 자녀연령별 개인유지시간 영역에서 배분 차이

단위: 분

구분	평균	표준편차	p
수면	미취학	495.8	1.4
	초등 저학년	491.6	5.9
	초등 고학년	498.0	1.9
섭식시간	미취학	116.5	0.7
	초등 저학년	119.8	2.9
	초등 고학년	120.1	0.9
위생/의료	미취학	68.5	0.6

구분	평균	표준편차	p
초등 저학년	72.7	2.4	
초등 고학년	75.1	0.8	

섭식시간에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117분가량의 시간을 가지며, 초등 저학년의 자녀일 경우 약 120분, 초등 고학년의 자녀일 경우 하루평균 약 120분을 갖는다. 미취학 자녀 가구의 부모 섭식시간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고, 학동기 자녀에서 부모 섭식시간이 좀 더 늘어나는 경향이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마지막으로 위생/의료 분석을 통해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초등 저학년 양육가구와 초등 고학년 양육가구에 비해 낮은 69분을 위생/의료시간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약 73분,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약 75분을 소비하였고,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앞서 그래프에서 개인유지시간이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가 다른 학동기 부모보다 적게 나타난 원인의 상당 부분이 섭식시간과 개인위생/건강 관리에서 집단 간 격차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II-3-2〉 자녀연령별 의무시간 영역에서 배분 차이

단위: 분

구분	평균	표준편차	p	
유급노동	미취학	218.0	2.5	0.2
	초등 저학년	236.4	10.2	
	초등 고학년	219.4	3.3	
가사노동	미취학	94.8	1.1	0.8
	초등 저학년	92.4	4.6	
	초등 고학년	93.9	1.5	
돌봄	미취학	121.5	1.4	<.001
	초등 저학년	78.3	5.6	
	초등 고학년	54.1	1.8	
쇼핑	미취학	19.5	0.5	<.001
	초등 저학년	18.4	2.2	
	초등 고학년	23.9	0.7	
이동	미취학	102.5	1.1	0.1
	초등 저학년	103.9	4.6	
	초등 고학년	106.7	1.5	

그렇다면, 부모의 의무시간의 영역별 분포에서 자녀 연령별 차이는 어떠한가?

전체적으로 유급 노동시간, 가사노동, 자녀돌봄, 쇼핑, 이동시간을 의무시간으로 규정했을 때 자녀 연령별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낸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자(표 III-3-2 참고). 먼저, 유급노동의 경우 미취학 자녀 양육가구일 경우 중 가장 적은 218분, 초등 저학년일 경우 중 가장 높은 약 236분, 초등 고학년일 경우 219분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 간 유급 노동시간에서 이러한 차이가 여러 통제요인이 고려되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가사노동의 경우 미취학 자녀를 둔 양육가구와 초등 저학년 양육가구, 초등 고학년 양육가구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각각 약 95분, 약 92분, 약 94분의 시간을 사용하고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의 가사노동시간이 상당히 길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여러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한 후 예측한 가사노동시간에서는 세 그룹 간 가사노동시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앞서 분석한 육아-비육아가구에서도 가사노동시간에서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결과와 비교해도 유사한 결을 보여준다.

한편, 돌봄시간(자녀돌봄 및 성인돌봄까지 포함하는 총 돌봄시간)에서 분포를 살펴보면,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하루 평균 122분을 돌봄에 투자한다. 반면에, 초등 저학년의 자녀일 경우 돌봄시간은 하루 평균 약 78분, 그리고 초등 고학년의 자녀일 경우 돌봄시간은 하루 평균 약 54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별 돌봄시간 격차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여기에서 측정된 돌봄시간은 측정 도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모가 신체, 발달, 놀이, 대화 등 자녀를 직접 돌보거나 기타 성인 돌봄시간까지 포함한다. 다만, 자녀연령별 돌봄시간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것은 자녀돌봄에 소요한 시간 자체가 감소한 결과일 일 것으로 보인다.

쇼핑 시간(온라인, 오프라인 구매 활동 모두 포함)은 의무시간 중에서도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는 하루 평균 약 20분,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는 하루 평균 약 18분, 그리고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육아가구에서는 하루 평균 약 24분을 구매 활동에 투여하고 있고,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의무시간 영역에서는 자녀 연령 차이와 무관하게 소비하는 시간(유급노동, 가사노동, 이동시간)도 존재하며, 자녀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시간(쇼핑 시간)도 있고,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시간(돌봄 시간)도 존재한다. 이는 의무시간이 자녀 연령집단에 따라 감소하는 패턴은 의무시간

중에서도 돌봄시간의 감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동시간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미취학 자녀를 둔 양육가구와 초등 저학년 양육가구, 초등 고학년 양육가구가 각각 약 103분, 약 104분, 약 107분으로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의 이동시간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표 III-3-3〉은 자녀연령별 재량시간 영역에서 배분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표이다. 먼저 교제시간을 살펴보면, 미취학 자녀 양육가구일 때 38.8분, 초등 저학년 양육가구일 때 39.1분, 초등 고학년 양육가구일 때 하루 평균 43.3분을 사용하고 있어서, 자녀가 성장하면서 점차 교제활동의 시간도 증가하는 양상이 보인다. 이와 유사하게 종교 활동에 투여하는 평균 시간도 자녀 연령 차이가 유의미하게 드러났다. 미취학 자녀 양육가구는 약 5분, 초등 저학년 양육가구는 약 4분, 초등 고학년 양육가구는 8분으로 재량시간에 대한 분석 중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3-3〉 자녀연령별 재량시간 영역에서 배분 차이

단위: 분

구분	평균	표준편차	p	
교제활동	미취학	38.8	0.7	<.001
	초등 저학년	39.1	3.0	
	초등 고학년	43.3	1.0	
종교활동	미취학	5.2	0.5	<.001
	초등 저학년	4.2	2.2	
	초등 고학년	8.0	0.7	
문화/야외활동	미취학	7.3	0.5	1.0
	초등 저학년	7.6	2.0	
	초등 고학년	7.5	0.6	
TV 미디어	미취학	89.6	1.4	<.001
	초등 저학년	104.6	5.7	
	초등 고학년	113.2	1.8	
스포츠 관련	미취학	15.3	0.6	<.001
	초등 저학년	25.3	2.7	
	초등 고학년	22.1	0.9	
게임/놀이	미취학	20.9	0.7	0.1
	초등 저학년	16.6	2.9	
	초등 고학년	18.8	0.9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미취학	9.6	0.3	0.1
	초등 저학년	9.3	1.3	
	초등 고학년	10.8	0.4	

그에 비해, 문화/야외활동의 경우 미취학 자녀 양육가구일 때 약 7분, 초등 저학년 양육가구일 때 약 8분, 초등 고학년일 때 약 8분으로 비슷한 시간을 투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양육에 매몰되어 문화/야외활동에서 소외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성별이나 요일 특성 그리고 사회경제적 차이가 통제되자 자녀연령별 집단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재량시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TV/미디어 활용 시간을 살펴보면, 자녀가 미취학 시기일 때 약 90분, 초등 저학년 시기일 때 약 105분, 초등 고학년 시기일 때 약 113분으로 소비하는 것으로 드러나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였다. 즉, 자녀가 성장할수록 TV/미디어 활용 시간도 함께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운동과 같은 신체활동에 투여하는 시간의 경우 미취학 자녀 부모가 하루 평균 15분 투여하는 데 비해 초등 저학년 부모는 약 25분, 그리고 초등 고학년 부모는 약 22분 정도 운동에 시간을 배분하고 있었다. 신체활동 영역의 경우 자녀 연령집단 간 운동시간 투여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한편, 게임/놀이 시간에서 미취학 자녀 양육가구일 때 약 21분, 초등 저학년일 때 약 17분, 초등 고학년일 때 약 19분으로 이 또한 비슷한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고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서 미취학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하루 평균 약 10분, 초등 저학년 양육가구는 약 9분, 그리고 초등 고학년 양육가구는 약 11분을 소비하는데, 이러한 집단 간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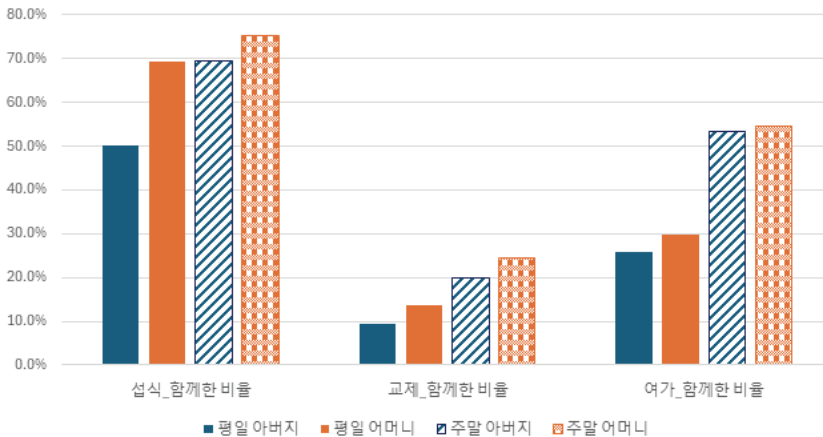
앞서 재량시간 총량으로 볼 때 미취학 자녀와 비교해 초등 고학년 부모의 재량시간 확보가 큰 양상을 보였는데, 이 분석 결과 이 증가분과 관련이 있는 활동은 교제, 종교활동, TV/미디어 활용, 그리고 운동임을 확인할 수 있다. TV/미디어 활용 시간을 제외한다면, 자녀 연령집단에서 차이가 드러난 재량시간 영역은 모두 사회적 관계/활동과 관련이 있다. 즉,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의 삶의 폭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취학 자녀를 키우면서 다소 위축된 사회적 관계와 활동이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반면에 자녀의 성장과 부모가 자녀를 동반한 사회적 관계들을 구축하고 있는 양상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예: 학부모 모임, 지역사회 활동, 친구와 이웃 만남 등).

3) 육아가구의 자녀와 함께한 시간

이번에는 육아가구 내에서 간접돌봄에 해당하는 자녀와 ‘함께한 활동과 시간’은 어떻게 분포하는지 살펴보았다. 부모의 성별과 요일별로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가 [그림 III-3-4]이다. 그래프에 따르면, 부모 모두 식사를 자녀와 함께한 비중이 평일에는 50-70% 그리고 주말에는 70% 수준을 넘는다. 특히, 평일과 주말을 비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한 식사시간 비중에서 부모 간 격차는 줄어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녀와 식사하는 비중이 주말에는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일 특성은 식사시간 외에도 자녀와 함께하는 교제시간이나 여가시간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다만, 교제에 자녀를 동반하는 경향은 평일이나 주말이나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여가활동의 경우 평일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를 동반한 행위자 비율이 높았지만, 주말에는 부모 간 차이는 거의 없다. 주말이라는 시간의 특성상, 부모가 자녀를 동반한 여가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차이가 없음을 말해준다.

[그림 III-3-4] 부모가 자녀와 함께한 식사, 교제, 여가활동에서 행위자 비율: 주말과 평일



주: 육아/비육아가구 두 집단 간 평균과 그 차이를 관련 변수를 고려한 상태에서 산출함(ANCOVA 모델).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지역, 요일, 취업여부, 교육수준, 가계소득 그리고 가구원 수를 활용함.

이번에는 부모의 자녀 양육시간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자녀직접돌봄 시간과 자녀와 함께한 시간, 즉 간접돌봄시간을 구분해서 비교해 보았다. 특히 여기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의 연령별로 자녀 양육시간을 산출하고 기술하였다. <표 III-3-4>에는 부모의 '자녀직접돌봄 시간'과 '자녀와 함께한 시간'을 병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부모의 자녀돌봄 맥락이 자녀 연령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제시하고 있다.

<표 III-3-4> 자녀연령별 자녀와 식사, 교제, 여가시간에서 부와 모의 차이

단위: %, 분

구분	자녀직접돌봄 시간		자녀와 함께한 식사		자녀를 동반한 교제		자녀와 함께한 여가	
	행위자 비율	행위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 시간
아버지								
미취학	69.4	93.1	69.0	68.77	16.8	46.4	44.8	99.9
초등 저학년	50.0	61.6	78.7	62.81	21.3	43.5	40.2	96.7
초등 고학년	22.0	51.5	36.2	66.82	7.2	47.5	22.1	110.6
어머니								
미취학	97.0	193.0	88.0	76.56	23.6	51.6	50.9	92.7
초등 저학년	90.0	111.5	88.3	73.53	17.2	55.5	44.5	88.4
초등 고학년	43.0	84.4	45.8	74.61	9.0	54.9	21.6	96.4

주: 1) 여가활동: 문화/관광, 읽기 활동, TV 보기, 운동, 게임-놀이, 아무것도 하지 않기 외 기타 여가활동이다.
 2) 행위자 비율이란 "함께한 사람"으로 자녀를 언급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3) 행위시간이란 자녀와 함께 한 행위의 평균 지속시간을 말한다.

자녀직접돌봄 행위에서 아버지의 경우 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 70%까지 행위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아버지의 경우 그 비율이 22%까지 감소한다. 어머니의 경우는 미취학과 초등 고학년까지 90%가 넘는 자녀직접돌봄의 행위자 비율이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는 43%로 거의 절반가량 감소한다. 즉, 자녀직접돌봄의 비중이 자녀 연령과 함께 크게 낮아진다는 것은 자녀의 자립성이 높아지는 패턴의 반대 현상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자녀직접돌봄의 행위자 비율과 함께 직접 양육 행위시간 역시 자녀 학령 증가와 함께 크게 그 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가 자녀 일상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돌봄을 제공하는 활동의 비중이나 행위시간이 감소하는 자연적인 발달적 특성을 보인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한 활동의 경우 자녀연령별 자녀직접돌봄 시간에서 발견되는 것과 조금 다른 패턴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자녀와 함께한 시간은 앞서 살펴본 패턴처럼 행위자 비율이 감소하지만, 행위시간은 유지되었다. 즉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혹은 자녀를 동반하는 기회는 줄어들지만, 자녀와 함께한 활동에 투여하는 평균 행위시간은 자녀 연령의 증가에도 감소하지 않았다. 특히, 부모의 성별로 구분해서 개별 함께한 활동의 영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모 성별에 따라서도 함께한 시간 패턴이 다르게 나타난다. 아버지의 경우 상대적으로 어린 미취학 자녀보다 초등 저학년 자녀와 함께한 행위 비중이 크게 나타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식사 시간에서 자녀와 함께한 행위자 비율은 미취학 자녀 아버지가 68%에 비해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아버지의 함께한 식사시간 행위자 비율이 79%에 이른다. 교제활동 역시 자녀를 동반한 경우, 21%로 미취학 자녀를 둔 아버지의 비중인 17%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아버지들의 경우 함께하는 식사, 교제활동 동반과 같은 맵도는 돌봄을 영유아기 자녀보다 초등 저학년 자녀에게 더 많이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경우, 자녀와 함께한 시간의 비중은 자녀가 어릴수록 그 비중이 높다. 가령 어머니가 미취학 자녀와 식사를 함께한 행위 비중은 88%에 이르고, 자녀를 동반한 여가활동 행위자 비율이 50% 수준이었다. 이는 어머니들이 초등 저학년까지 자녀 주변을 맵도는 돌봄을 수행하고 있고,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자녀와 함께한 행위자 비율은 식사, 교제, 여가에서 모두 감소하는 경향임을 말해준다. 이렇게 함께한 행위자 비율은 자녀 연령에 따라 감소하지만 함께한 행위 시간은 미취학 자녀 어머니와 비교해서 감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교제시간이나 여가시간은 평균 행위 시간이 더 길어지는 패턴을 보인다. 다시 말해서, 직접적인 양육 시간이 높게 감소하는 초등 저학년과 초등 고학년에 부모 모두 오히려 함께한 시간 비중이 크게 줄지 않았다. 부모의 직접 돌봄이 자녀연령과 함께 맵도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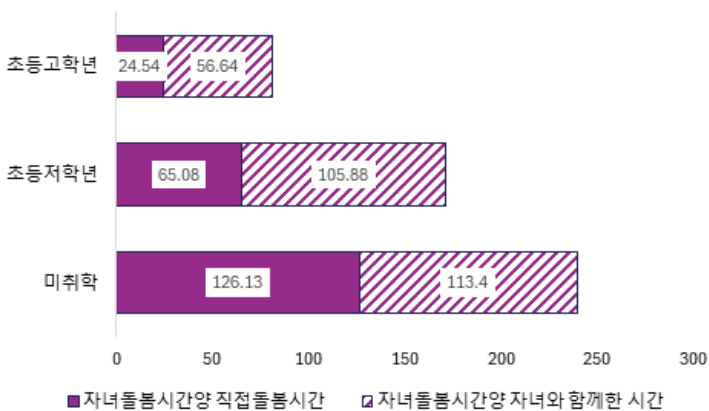
4) 육아가구의 총 자녀돌봄시간: 직접돌봄과 함께한 시간 총량

그렇다면, 자녀돌봄시간 총량은 어느 정도인가? 자녀돌봄총량은 자녀를 직접 돌보는 시간과 자녀와 함께한 시간의 합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자녀돌봄시간

총량을 육아가구를 중심으로 막내자녀 연령대를 가지고 세 집단으로 구분해서 제시한 것이 [그림 III-3-5]이다.

총 자녀돌봄시간은 자녀의 연령구성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인 예측을 벗어나지 않는다. 초등 고학년 가구의 부모가 미취학자녀 가구나 초등 저학년 가구의 부모보다 자녀돌봄에 투입하는 시간량은 적다. 미취학자녀를 둔 경우 직접돌봄시간에 자녀와 함께한 시간까지 합하면 총 돌봄시간은 하루 평균 239분에 달한다. 그런데, 앞선 절에서 부모들은 자녀직접돌봄 및 자녀와 함께한 활동의 행위자 비율이 감소했을 뿐, 실제 행위시간은 크게 줄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 자녀돌봄시간 총량을 직접돌봄시간과 자녀와 함께한 시간으로 분해해 보면, 고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 직접돌봄시간보다 자녀와 함께한 시간이 약 2배를 넘는다(24.54분 vs. 56.64분). 이미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부모돌봄시간 역시 직접돌봄시간보다 자녀와 함께한 시간이 길다(65.08분 vs. 105.88분).

[그림 III-3-5] 육아가구 부모의 자녀돌봄시간 총량: 자녀연령대별 비교



나. 자녀연령대별 자녀돌봄시간에서 격차: 부모 특성 분석

위에서 육아가구의 생활시간 배분에서 차이를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육아가구에서 자녀돌봄시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모하는지 예측해 보도록 하자. 생활시간 변모를 가장 잘 알아보기 위해서는 중단연구를 통한 추적조사가 쉽지만, 부모의 자녀돌봄시간을 장기간 추적 조사한 경우는 많지 않다.

앞서 연구 배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녀돌봄이 직접 신체 돌봄, 발달 자극을 통해 돌보는 것 외에 주변을 맴돌고, 함께 하는 시간까지 포괄한다고 정의하면, 이를 중단연구로 살펴본 연구는 더욱 찾아보기 힘들다. 육아가구의 막내 자녀연령을 기준으로 집단별 자녀돌봄시간 차이를 통해 자녀연령 증가에 따른 부모 돌봄시간의 변화양상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는 부모의 성별, 그리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자녀돌봄의 양상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주목하였다. 우선 부모의 성별을 기준으로 부모의 성별에 따라 자녀돌봄 양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한다. 이후에는 부모의 성별과 부모의 교육 및 가계소득과 같은 계층 특성을 중심으로 자녀연령별로 부모의 자녀돌봄시간 격차를 분석하였다. 이는 부모 됨의 경험이 부모의 사회적 특성별로 어떻게 다르며, 이것이 앞으로 한국의 부모 됨을 이해하는데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여기에서는 자녀돌봄시간을 자녀직접돌봄과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교제, 식사, 여가활동에서 함께한 시간)영역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예정이다. 각 영역의 시간은 통제변수들을 고려한 상태에서 ANCOVA 분석을 통해 도출된 평균 시간을 활용했음을 밝힌다. 또한, 모든 그래프에 제시된 신뢰구간은 표준오차의 구간으로 각 집단 내에서의 변량 값을 막대 형태로 함께 제시하였다. 신뢰구간이 겹치는 경우는 대체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구간 막대의 변량이 서로 겹치지 않은 경우, 두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1) 부모 성별에 따른 자녀직접돌봄 및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가구 자녀돌봄시간에 대한 ANCOVA 분석 그래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그림 III-3-6 왼쪽 그래프 참고).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은 100분에 미치지 못하며,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은 약 150분의 이었다. 돌봄시간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50분 이상을 유의미하게 돌봄시간에 투여하고 있다.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가구는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보다 자녀돌봄시간이 아버지의 경우 약 20분, 어머니의 경우 약 50분 정도 각각 줄어든 수치이다. 즉, 부모의 돌봄시간은 자녀가 초등 저학년일 경우 감소하며, 어머니의 돌봄시간의 감소 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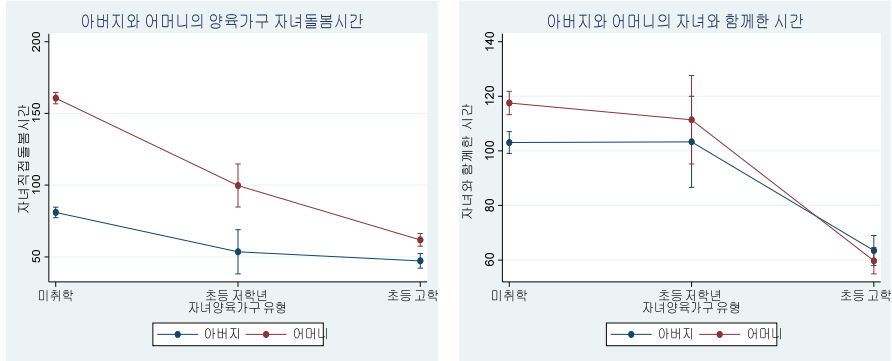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가구에서 부모의 자녀돌봄시간은 전체적으로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가구의 시간보다 크게 적은 값을 보이지만, 이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직접돌봄시간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다. 자녀가 미취학,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의 시기의 발달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그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 간 자녀직접돌봄시간에서 격차는 오히려 줄어들어든다고도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와 함께한 시간에 대한 ANCOVA 분석 그래프이다(그림 III-3-6 오른쪽 그래프 참고). 미취학 양육가구의 아버지는 평균 약 100분, 어머니는 평균 약 120분의 시간을 자녀와 함께하고 있다.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약 20분 정도 자녀와 함께한 시간이 길고, 이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변량 값 그래프가 겹치지 않기에 두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유아기 자녀를 둔 가구에서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유의미하게 자녀와 함께한 시간이 길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초등 저학년 양육가구의 자녀와 함께한 시간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에 대한 격차가 줄어들어든다. 그리고 총량으로 보더라도 부모가 자녀와 함께한 시간이 미취학 자녀 가구와 비교해서 거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초등 고학년 양육가구를 보게 되면, 미취학 양육가구와 초등 저학년 양육가구의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에 비해 부모 모두 현저히 감소한다. 이는 앞서 분석 결과로 볼 때 행위시간에서 감소가 아니라 행위자 비율의 감소 영향이 더 크다. 즉, 가족 시간을 확보하는 기회가 자녀 성장과 함께 감소한 결과이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초등 고학년 양육가구의 수치를 보면,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한 시간이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한 시간보다 약간 상회한다. 물론 부와 모의 자녀와 함께한 시간 평균과 그 신뢰구간이 다소 겹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자녀와 함께한 시간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만큼 시간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난 집단은 초등 고학년 가구뿐이다. 이를 통해 자녀와 함께한 시간, 즉 가족 공유시간의 측면에서 보면, 이 시기만큼은 아버지의 가족 시간 투여가 어머니와 비교해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I-3-6]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직접돌봄시간 및 자녀와 함께한 시간 차이: 자녀연령대별 비교
단위: 분



주: 제시된 Y축 수치는 ANCOVA 분석 결과 예측된 자녀직접돌봄시간 및 자녀와 함께한 시간 그래프는 유형별 평균과 신뢰구간(95%)을 나타냄. ANCOVA 분석에는 육아가구유형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통제변수로 요일, 지역, 성별, 연령, 교육수준, 그리고 취업여부를 투입함.

2)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직접돌봄 및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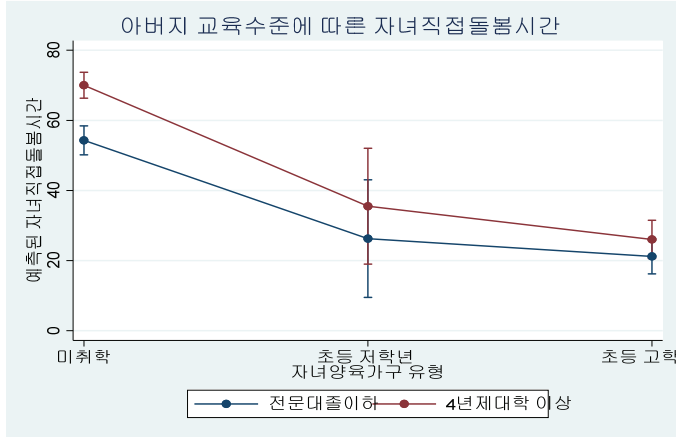
다음의 그래프는 아버지의 하루 평균 자녀직접돌봄 시간과 관련한 ANCOVA 분석이며, 자녀연령 및 학력 수준의 집단차이를 비교한 결과이다(그림 III-3-7 참조). 참고로 전문대졸 이하 학력의 경우 저학년, 그리고 4년제 이상 대학 학력자의 경우 고학력으로 함께 적는다.

먼저, 전체적인 표의 양상을 보았을 때,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 수준(이하 고학력으로 병기)을 가진 아버지가 저학력 아버지보다 자녀연령과 무관하게 자녀직접돌봄 시간 투여가 많았다. 다만, 자녀가 초등고학력 집단에서는 아버지 학력 집단 간 자녀직접돌봄 시간의 격차는 감소하는 경향이다.

미취학 자녀를 기준으로 할 때, 전문대졸 이하의 아버지는 평균 60분에 가까운 분포, 4년제 대학의 아버지는 평균 약 70분 정도의 분포를 가지며 각각의 변량 값 그래프의 분산이 비교적 작고, 겹치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래프에서 드러나는 양상을 통해 추론해 보면, 자녀가 성장할수록 아버지의 직접 돌봄 시간이 감소하며, 아버지의 학력 수준에 따라 최대 20분에서 최소 5분 미만의 투여 시간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투여 시간의 차이도 자녀가 성장할수록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III-3-7]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직접돌봄시간 차이: 자녀연령대별 비교

단위: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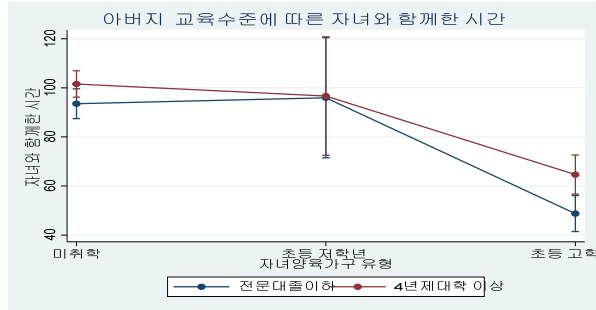
주: 제시된 Y축 수치는 ANCOVA 분석결과 예측된 자녀직접돌봄시간이며 그래프는 유형별 평균과 신뢰구간 (95%)를 나타냄. ANCOVA 분석에는 육아가구 자녀연령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통제변수로 요일, 지역, 연령, 교육수준, 그리고 취업여부를 투입하였음.

이번에는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한 시간을 아버지 교육수준 집단별로 분석한 그래프이다(그림 III-3-8 참고). 그래프의 전체적인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아버지 두 집단 모두 자녀 집단이 미취학에서 초등 저학년으로 변화할 때는 시간 투여량의 큰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자녀 집단이 초등 저학년에서 초등 고학년으로 변화할 때 아버지의 자녀와 함께한 시간은 의미 있게 적어지는 확인할 수 있다.

미취학 자녀 집단에서는 저학력 아버지와 고학력 아버지 간의 격차가 거의 없다. 즉, 자녀가 어릴 때는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한 시간에서 교육 수준별 격차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전문대졸 이하의 아버지 집단과 4년제 대학 이상의 아버지 집단 모두 약 100분 전후의 시간을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에 투여하였다. 초등 저학년의 경우, 전문대졸 이하의 아버지 집단과 4년제 대학 이상의 아버지 집단의 평균값이 거의 일치하며, 미취학 자녀를 둔 아버지들에서 드러난 함께한 시간(하루 평균 100 분)이 거의 유지되는 양상이다. 흥미롭게도 초등 고학년의 경우 아버지가 투여하는 자녀와 함께한 시간은 매우 감소한다. 다만, 고학력 아버지들이 저학력 아버지들과 비교해 자녀와 함께한 시간이 약간 더 길다. 즉, 자녀의 성장과 함께 아버지들이 식사, 교제, 여가활동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지만, 고학력 아버지들은 그 감소 경향이 저학력 아버지들에 비해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III-3-8]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와 함께한 시간 차이: 자녀연령대별 비교

단위: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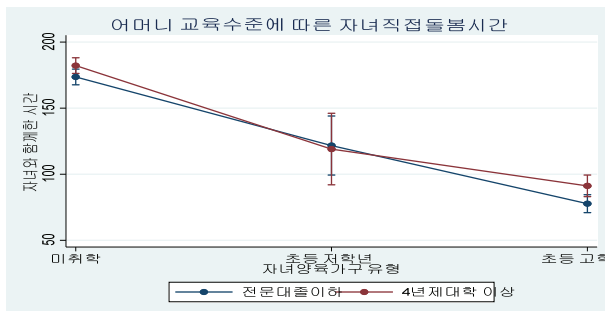


주: 제시된 Y축 수치는 ANCOVA 분석결과 예측된 자녀와 함께한 시간이며 그래프는 유형별 평균과 신뢰구간 (95%)를 나타냄. ANCOVA 분석에는 육아가구 자녀연령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통제변수로 요일, 지역, 연령, 교육수준, 그리고 취업여부를 투입하였음.

자녀연령과 어머니의 교육 수준별로 어머니의 자녀직접돌봄 시간과 자녀와 함께한 시간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 결과가 [그림 III-3-9]와 [그림 III-3-10]에 제시하였다. 아버지 그래프와 가장 다른 점은 어머니 학력 수준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자녀 연령집단에 따라 어머니의 자녀직접돌봄 시간이나 자녀와 함께한 시간 모두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 그러나 미취학 자녀나 초등저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에서 어머니 교육 수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다만, 초등고학년 자녀를 둔 경우는 고학력 어머니가 자녀직접돌봄 시간에 투여한 시간 양이 저학력 어머니에 비해 유의미하게 긴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III-3-9]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직접돌봄시간 차이: 자녀연령대별 비교

단위: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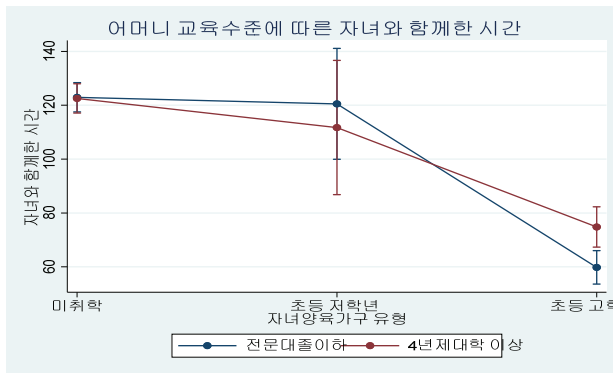


주: 제시된 Y축 수치는 ANCOVA 분석결과 예측된 자녀직접돌봄시간이며 그래프는 유형별 평균과 신뢰구간 (95%)를 나타냄. ANCOVA 분석에는 육아가구 자녀연령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통제변수로 요일, 지역, 연령, 교육수준, 그리고 취업여부를 투입하였음.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한 시간 역시 앞서 살펴본 자녀직접돌봄 시간과 거의 유사하다. 자녀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한 시간은 줄어드는 패턴을 보이지만, 초등 고학년 집단에서는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함께한 시간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고학력 어머니가 저학력 어머니보다 유의미하게 자녀와 함께한 시간이 길게 나타난다.

[그림 III-3-10]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와 함께한 시간 차이: 자녀연령대별 비교

단위: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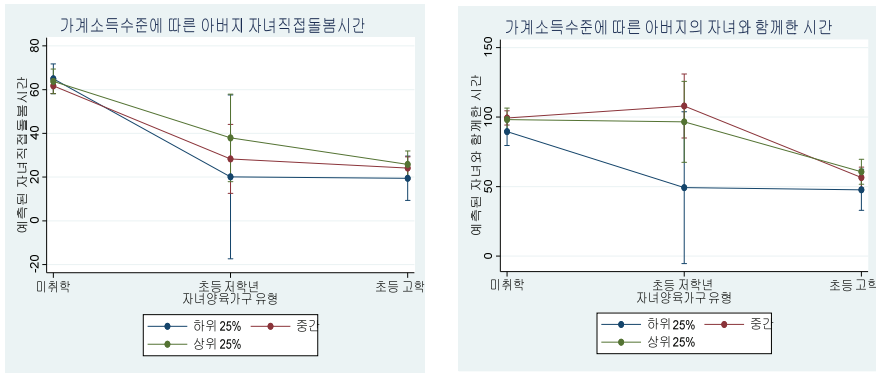
주: 제시된 Y축 수치는 ANCOVA 분석결과 예측된 자녀와 함께한 시간이며 그래프는 유형별 평균과 신뢰구간 (95%)를 나타냄. ANCOVA 분석에는 육아가구 자녀연령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통제변수로 요일, 지역, 연령, 교육수준, 그리고 취업여부를 투입하였음.

3) 자녀직접돌봄 및 자녀와 함께한 시간에서 가계소득 수준별 차이

이번에는 가계소득 별로 부모의 자녀돌봄시간(직접돌봄시간과 자녀와 함께한 시간)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가계소득은 부모가 공유하는 가족 특성이지만, 이러한 특성별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행태는 다를 수 있다. 이에 부모를 구분해서 소득분포(3분위) 부모가 자녀돌봄시간에 투여하는 시간이 자녀연령 집단별로 어떻게 상이한지 다른 변수들이 모두 통제된 상태에서 분석하였다.

[그림 III-3-11] 가계소득 수준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직접돌봄 및 자녀와 함께한 시간 차이:
자녀연령대별 비교

단위: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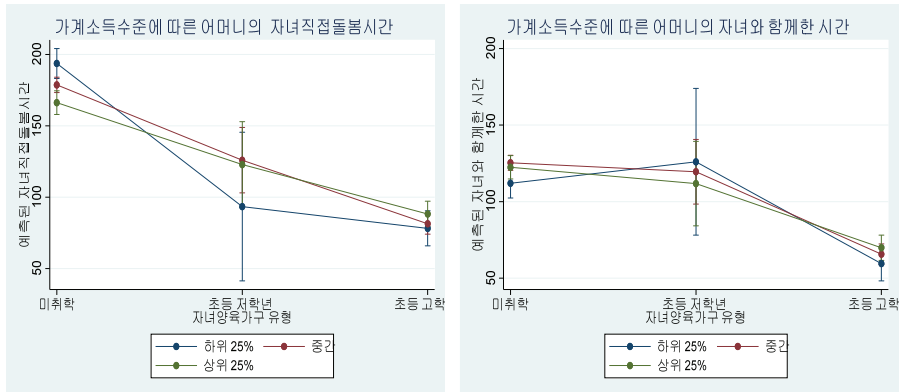
주: 제시된 Y축 수치는 ANCOVA 분석결과 예측된 자녀직접돌봄시간 및 자녀와 함께한 시간이며 그래프는 유형별 평균과 신뢰구간 (95%)를 나타냄. ANCOVA 분석에는 육아가구 자녀연령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통제변수로 요일, 지역, 연령, 교육수준, 그리고 취업여부를 투입하였음.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그림 III-3-11 참고), 가계소득 별로 구분했을 때 아버지의 자녀직접돌봄 시간은 소득분위별 차이는 거의 없다. 다만, 자녀연령 집단별로 패턴의 차이가 있는 것은 발견할 수 있었다. 흥미롭게도 미취학 자녀나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경우에는 아버지들의 자녀돌봄시간(직접 돌봄과 함께한 시간 모두)에서 차이가 거의 없다. 미취학 자녀의 경우 하루 평균 돌봄시간 60-70분 수준, 함께한 시간은 100분 수준에서 유지되며 이때 가계소득 집단별 차이는 거의 없다. 자녀가 초등 고학년일 경우는 아버지의 자녀직접돌봄 시간이 20-30분, 그리고 함께한 시간도 50-60분 수준에서 가계 소득수준별 차이는 거의 없다.

그런데, 초등 저학년 집단의 경우는 가계소득 수준에 따라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적어도 고소득집단과 저소득 집단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은, 직접 돌봄과 함께한 시간 모두 그 격차가 벌어지는 양상이다. 즉, 고소득 아버지들은 초등 저학년 시기 자녀돌봄시간을 미취학 자녀들 둔 집단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저소득가구 아버지들은 자녀돌봄시간을 유지하지 못하고 큰 폭의 감소 경험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II-3-12] 가계소득 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직접돌봄 및 자녀와 함께한 시간 차이:
자녀연령대별 비교

단위: 분



주: 제시된 Y축 수치는 ANCOVA 분석결과 예측된 자녀직접돌봄시간 및 자녀와 함께한 시간이며 그래프는 유형별 평균과 신뢰구간 (95%)를 나타냄. ANCOVA 분석에는 육아가구 자녀연령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통제변수로 요일, 지역, 연령, 교육수준, 그리고 취업여부를 투입하였음.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은 직접 돌봄과 함께한 시간에서 어떠한 패턴을 보일까? 자녀연령별 어머니의 직접 돌봄 및 함께한 시간은 감소한다는 점에서 아버지의 그래프와 동일한 패턴이나 가계소득 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그림 III-3-12 참고). 다만,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집단에서 하위소득의 어머니들이 고소득 어머니들보다 직접 돌봄시간이 유의미하게 드러나는 패턴은 흥미롭다. 이후에는 집단 내 변동 폭(저소득 집단)이 커서 초등 저학년이나 초등 고학년 집단에서는 가계소득 별 어머니의 직접 돌봄시간의 격차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한 시간 역시 가계소득 별 차이는 거의 없었다.

4. 소결

본 장은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의 시간활용 및 삶의 지표 비교를 통해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의 생활세계를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비교작업은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제공되고 있는 최근의 육아 환경을 고려해 볼 때 과연 육아가구의 부모들은 시간활용에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그것은 그들의 삶의 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비육아가구와의 비교를 통해 육아가구가 비육아가구에 비해 생활시간활용에서 비용과 불이익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는 정책에 시사점을 주고하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2019년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몇 가지 큰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육아가구는 비육아가구에 비해 의무시간이 비중이 크고, 반면에, 개인유지나 재량시간 배분은 작게 나타나서, 어느 정도 예상한 패턴을 드러냈다. 특히,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의 부모는 자녀돌봄 시간을 확보하는 점에서 개인유지나 재량시간은 비육아가구에 비해 유의미하게 적었다. 육아가구 내에서도 성별과 요일 그리고 교육수준별로 돌봄시간 투여에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패턴으로 보면 미취학 자녀를 돌보는 자녀양육기에는 부모가 자신을 돌보는 자기돌봄이나 재량시간을 희생하는 패턴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초등 저학년부턴 부모의 생활시간 활용은 크게 변화하기 시작한다. 즉, 자녀돌봄에 대한 시간 투여는 상당히 줄어들면서,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거의 비육아가구와 유사한 수준까지 개인유지와 재량시간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자녀양육기에 비육아가구에 비해 유의미하게 감소한 개인유지시간 영역은 흥미롭게도 수면이나 섭식시간이 아닌 위생 및 의료 관련 시간이었다. 즉, 부모의 자기돌봄시간이 부족해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재량시간 영역에서 특별히 육아가구-비육아가구 간 격차가 드러난 영역은 평일에는 교제, TV/미디어, 그리고 운동 영역이었고, 주말에도 유사하게 교제, 종교활동, TV/미디어 그리고 운동 영역이다. 오히려 문화/야외활동은 육아-비육아가구 간 차이가 없었고, 게임/놀이 활동 역시 두 가구 유형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특히, 육아가구의 재량시간에서 교제, TV/미디어, 운동시간은 자녀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빠르게 늘어나는 패턴을 보인다. 따라서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경우 오히려 교제, 종교활동, 운동시간은 거의 비육아가구 남녀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게 되고, 문화/야외활동은 초등 저학년 육아가구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육아-비육아가구에서 드러나는 재량시간에서 격차는 거의 교제와 TV/미디어 활동에서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비육아가구의 경우 육아가구에 비해 자녀돌봄시간이 적기 때문에 생활시간활용에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따

라서 재량시간에도 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런데 이 연구결과 그들의 재량시간이 대부분 TV/미디어 활동에 집중되는 경향이 이 있었고, 그 외 문화생활이나 운동 영역에서 시간확보는 초등 고학년 육아가구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셋째, 긍정적 기분과 삶의 만족도 지표를 통해 확인해 보면, 지표점수에서 육아-비육아 가구별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육아가구가 자녀돌봄 부담으로 비육아가구보다 긍정적 정서나 생활만족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하게 된다. 그런데, 이번 분석결과에 따르면,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육아-비육아가구 간 삶의 질 지표(i.g. 긍정적 정서, 삶의 질)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물론 육아가구에서도 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 비육아가구보다 긍정적 기분이나 삶의 만족도 수치는 다소 낮은 편이었다. 다만, 초등 저학년 가구나 초등 고학년 가구의 부모와 비육아가구 성인의 삶의 질 지표는 그 평균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더욱 흥미로운 결과는 비육아가구의 경우 재량시간이 그들의 긍정적 기분을 끌어 올리는 데 크게 이바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 점이다. 반면에, 육아가구의 경우 재량시간 활동 특히 자녀와 함께한 시간이 그들의 긍정적 정서와 유의미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물론, 자녀돌봄 자체는 노동의 면모가 있지만, 자녀와 함께한 시간, 혹은 가족 공유시간이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넷째, 자녀돌봄시간을 직접돌봄과 간접돌봄(자녀와 함께한 시간)으로 분해해서 살펴봄으로써, 부모 역할을 직접적인 돌봄 행위가 아닌 넓은 의미의 관여와 자녀와 연결된 삶의 모습까지 포착하고자 한 점이 이 연구의 특이점이다. 미취학 자녀 시기에는 부모의 직접돌봄시간도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존재한다. 자녀와 함께한 시간은 어머니 기준으로 자녀와 함께한 시간의 행위자 비율이 식사의 경우 80% 이상, 여가도 40-50% 수준으로 나타나서 밀착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직접돌봄시간과 간접돌봄시간을 모두 합치면 미취학 자녀의 하루 평균 돌봄시간 총량(직접돌봄시간 126분, 자녀와 함께한 시간 113분)은 하루 평균 약 5시간이 훌쩍 넘어선다. 그러나 이러한 돌봄시간 양은 자녀가 성장하면서 크게 감소하는 면모를 보인다. 초등 고학년 가구의 부모가 투여하는 자녀돌봄시간 총량은 하루 평균 직접돌봄시간이 24분, 그리고 자녀와 함께한 시간이 56분으로, 하루 평균 80

분 수준이다. 다만, 기술 분석 결과 드러난 흥미로운 측면은 자녀가 초등 고학년일 때 부모의 직접돌봄시간은 행위자 비율이나 행위시간이 그리고 자녀와 함께한 행위자 비율이 모두 감소하지만, 오히려 총 돌봄시간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녀 연령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즉, 자녀와 함께할 기회가 있을 때 (예: 가족 공유시간) 부모의 행위시간 자체는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모들의 행보가 앞으로 자녀의 청소년기 및 성인기로의 전이과정에서 어떻게 변모할지, 그리고 그것이 자녀의 성장과 독립과 연관성을 추적하는 일이 중요해 보인다. 최근 들어 청년세대의 ‘느려진 전이’ (slow trajectory) 논의들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기고 그러한 친밀감을 소중하게 여기는 추세를 주목한다. 실제로 많은 사회에서 자녀의 성인기 전이(연애, 결혼 그리고 자녀출산)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데,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있겠지만, 부모자녀 관계의 친밀감 증가가 느려진 전이 기재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한다(Carr & Utz, 2020). 실제로 이탈리아나 스페인과 같이 가족주의가 강한 유럽 국가에서 출산률이 다른 서구 유럽국가보다 낮아진 이유도 강력한 가족주의, 높은 부모자녀 간 친밀감이 자녀의 성인기 독립시기를 늦추는 기재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Dalla Zuanna & Micheli, 2004). 후속작업으로 최근 코호트(MZ 세대)의 성장기에 부모와 연결된 시간과 일상생활의 변모를 살펴보는 작업은 우리 사회의 부모됨(prarenthood)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필요해 보인다.

다섯째, 자녀돌봄시간을 부와 모로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를 보면, 미취학 자녀 가구에서는 여전히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 양이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 양보다 매우 많다. 부와 모의 자녀돌봄시간의 차이는 거의 3배에 이른다. 미취학 자녀기에는 직접 돌봄행위(먹이기, 입히기, 기저귀 갈기, 목욕시키고, 놀아주는 활동) 비중이 크고 활동의 일과 속 배치도 빈번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에서는 직접 돌봄과 관련해서 어머니가 직접돌봄 행위에 집중하게 되는 몰입육아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직접돌봄 활동에서 아버지들은 어머니에 비해 다소 소극적인 양상임은 분명하게 드러났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아버지의 직접돌봄시간이 자녀가 초등 고학년에 이른 경우에도 심하게 감소하지 않고 하루 평균 50분 수준의 직접 돌봄(예: 책을 읽어주기/대화하기)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 점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직접돌봄시

간이 초등 고학년 가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간 돌봄 시간 격차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아버지들이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 상당한 시간을 투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함께한 시간의 관점, 즉 연결된 삶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버지들의 삶에서 부성과 아버지 역할이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렇게 자녀의 유년기에 밀착 돌봄을 하는 아버지의 생애과정에 대한 해석과 경험이 이후 세대 관계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여섯째, 자녀돌봄시간이 부모의 여러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지난 2000년대 초반까지 시간 연구들이 주목한 부분이었다. 특히 몰입육아 밀착육아, 헬리콥터 부모 개념은 마치 한국 부모의 교육열을 연상시키는 양상이지만, 실제로 서구에서 제시된 용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장의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00년대 초반까지 이러한 과열된 부모 역할이 서구 중산층의 전유물로 인식했지만, 2010년대 들어선 이후에는 연구 배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녀돌봄시간 양의 면에서 계층 차가 점차 수렴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즉, 계층을 막론하고 많은 부모가 몰입육아, 밀착 육아, 독박 돌봄과 청년기까지 이어지는 부모 역할 연장 현상이 관찰된다는 것이다.

이번에 자녀돌봄시간을 직접돌봄과 간접돌봄으로 분해해서 부모의 계층별 차별성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은 직접돌봄과 자녀와 함께한 시간 모두 계층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미취학 자녀 가구의 경우 가계소득이 낮은 어머니들의 자녀 직접돌봄 시간이 길게 나온 점, 그리고 초등 저학년 가구에서는 가계소득이 낮은 부모들의 자녀직접돌봄 시간이 가계소득이 높은 집단에 비해 크게 줄어든 점이 관찰되었지만, 적어도 교육수준에서 어머니들의 직접돌봄시간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 분명해진 부분은 어머니들의 간접돌봄시간 즉, 자녀와 함께한 시간에서는 계층 간 격차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고소득 어머니들은 자녀가 초등 고학년이라도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초등 저학년 자녀가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패턴을 보인다. 다시 말해서, 저소득 부모는 미취학 시기까지는 어머니의 밀착 육아에서 계층 차이가 적지만,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자녀와 함께 시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곱째, 이 연구는 아버지의 교육 및 가계소득 수준별로 자녀돌봄시간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기존 서구 연구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연구에서 확실히 고학력

아버지들은 자녀돌봄시간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자녀와 함께한 시간을 만들어내는 데도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규직 남성을 중심으로 유연근무제 시행, 육아휴직 활용이 가능해지고, 주 5일제나 주 4일제 근무까지 확산하는 추세여서 고학력/고소득 아버지들의 직접돌봄시간 내지는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확보는 다른 저학력/저소득 아버지들과 뚜렷한 차이를 나타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이 계층을 불문하고 일정 시간 확보되는데,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 투자에서는 계층 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자녀돌봄 총량에서 계층 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이것이 자녀돌봄이나 미래세대 에 어떻게 작용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IV

삶의 영역별 육아가구의 삶의 질

- 01 삶의 질 지표로 본 육아가구의 삶의 질
- 02 육아가구 삶의 질 영향 요소
- 03 육아가구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주요 영역
- 04 소결

IV. 삶의 영역별 육아가구의 삶의 질

4장에서는 육아가구 1,614가구와 비육아가구 41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중 삶의 질 지표를 사용하여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의 삶의 질을 분석한 결과와 육아가구를 대상으로 한 심층 분석 결과 중 삶의 질에 관련한 내용의 분석을 담았다. 본 장은 1. 육아가구의 삶의 질, 2. 육아가구 삶의 질 영향요소, 3. 육아가구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주요 영역, 4. 소결의 네 절로 구성되어 있다.

1. 삶의 질 지표로 본 육아가구의 삶의 질

삶의 지표를 통한 삶의 질은 크게 가. 내면적 삶, 나. 삶의 역량, 다. 사회적 삶, 라. 물질적 삶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모든 지표에 있어 첫째자녀 기준 영아, 유아, 초등저학년, 초등학교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육아가구(1,614명)와 결혼은 하였으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비육아가구(410명)의 결과를 비교하는 표를 제시하고,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를 구분하여, 성별, 가구소득, 맞벌이 여부, 첫째자녀 연령 등에 따라 분석한 그룹비교 표를 제시하였다.

가. 내면적 삶

내면적 삶은 주관적 웰빙과 의식 및 가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주관적 웰빙

주관적 웰빙은 삶의 질을 관적으로 평가한 가장 포괄적인 지표라 할 수 있으며,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5.9점, 어제의 행복도는 6.3점, 어제의 근심걱정 정도는 5.6점, 어제의 우울정도는 4.5점으로 나타났다. 육아가구가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 측면에서는 비육아가구와 차이가 없었으나 근심/걱정 정도, 우울정도에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IV-1-1〉 주관적 웰빙 지표(전체)

단위: 점, (명)

구분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어제의 행복도	어제의 근심/걱정 정도	어제의 우울정도	사례수
전체	5.9	6.3	5.6	4.5	(2,024)
육아가구 여부					
육아가구	5.8	6.3	5.8	4.6	(1,614)
비육아가구	5.9	6.4	5.2	4.0	(410)
t	-0.7	-0.5	4.5***	4.3***	

주: 평균은 '전혀 ~하지 않는(었다)' 0점 ~ '매우 ~한(했)다' 10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01$.

전반적 만족도와 행복도에 대해서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별로 그룹별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비육아가구의 경우 성별,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육아가구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고소득이 저소득보다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가 비맞벌이 부부보다 만족도와 행복도가 높은 것은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 모두에게 나타났다. 첫째자녀 연령에 따라서는 첫째자녀가 영아인 육아가구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 주관적 웰빙 지표1(육아가구/비육아가구 비교)-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행복도

단위: 점, (명)

육아/비육아 따로	육아가구			비육아가구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어제의 행복도	사례수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어제의 행복도	사례수
전체	5.8	6.3	(1,614)	5.9	6.4	(410)
성별						
남성	6.2	6.5	(808)	6.2	6.5	(203)
여성	5.5	6.1	(806)	5.7	6.2	(207)
t	6.3***	4.1***		1.9	1.2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5.3	5.7	(218)	4.9	5.7	(44)
300만원 이상 450만원 미만	5.6	6.1	(429)	6.0	6.3	(93)
45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5.9	6.3	(369)	6.0	6.4	(87)
600만원 이상 750만원 미만	6.1	6.5	(264)	6.1	6.5	(81)
750만원 이상	6.3	6.6	(334)	6.1	6.5	(105)
F	8.5***(a)	6.5***		2.3	1.3	

육아/비육아 따로	육아가구			비육아가구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어제의 행복도	사례수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어제의 행복도	사례수
맞벌이 여부						
맞벌이	6.0	6.4	(995)	6.1	6.5	(311)
외벌이	5.6	6.2	(521)	5.4	5.8	(94)
그 외	5.1	5.7	(98)	4.6	4.4	(5)
F	10.7***(a)	4.0*		3.7*	5.6**	
첫째자녀 연령						
영아(만0-2세)	6.2	6.7	(402)	-	-	-
유아(만3-5세)	5.7	6.1	(406)	-	-	-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5.8	6.2	(402)	-	-	-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5.7	6.2	(404)	-	-	-
F	3.7*(a)	5.6**(a)				

주: 평균은 '전혀 ~하지 않는(있)다' 0점 ~ '매우 ~한(했)다' 10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근심/걱정, 우울에 대해서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별로 그룹별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육아가구, 비육아가구에 상관없이 여성의 우울정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높은 경우보다 근심/걱정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자녀연령에 따라 근심/걱정 정도는 차이가 없었으나, 우울정도는 첫째자녀가 영아인 육아가구의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 주관적 웰빙 지표2(육아가구/비육아가구 비교)-근심/걱정, 우울

단위: 점, (명)

육아/비육아 따로	육아가구			비육아가구		
	어제의 근심/ 걱정 정도	어제의 우울 정도	사례수	어제의 근심/ 걱정 정도	어제의 우울 정도	사례수
전체	5.8	4.6	(1,614)	5.2	4.0	(410)
성별						
남성	5.7	4.4	(808)	5.0	3.7	(203)
여성	5.8	4.8	(806)	5.3	4.3	(207)
t	-1.4	-3.0**		-1.4	-2.1*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6.0	5.0	(218)	5.5	4.9	(44)

육아/비육아 따로	육아가구			비육아가구		
	어제의 근심/ 걱정 정도	어제의 우울 정도	사례수	어제의 근심/ 걱정 정도	어제의 우울 정도	사례수
300만원 이상 450만원 미만	5.9	4.8	(429)	5.1	3.7	(93)
45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5.9	4.6	(369)	5.9	4.2	(87)
600만원 이상 750만원 미만	5.3	4.2	(264)	4.6	3.6	(81)
750만원 이상	5.6	4.5	(334)	4.9	3.9	(105)
F	4.5**	3.9**		3.4*	2.2	
첫째자녀 연령						
영아(만0-2세)	5.7	4.3	(402)	-	-	-
유아(만3-5세)	5.9	4.7	(406)	-	-	-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5.7	4.8	(402)	-	-	-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5.7	4.6	(404)	-	-	-
F	0.3	2.6*				

주: 평균은 '전혀 ~하지 않는(있)다' 0점 ~ '매우 ~한(했)다' 10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p < .01$.

2) 의식과 가치

의식과 가치 영역은 삶의 의미와 인생결정 자유로 측정하였는데, 삶의 의미의 경우 6.3점, 인생 결정자유는 5.6점을 나타냈다.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 간에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인생결정 자유는 비육아가구가 높게 나타났다.

〈표 IV-1-4〉 삶의 의미 및 인생 결정 자유(전체)

단위: 점, (명)

구분	삶의 의미	인생 결정 자유	사례수
전체	6.3	5.6	(2,024)
육아가구 여부			
육아가구	6.4	5.4	(1,614)
비육아가구	6.2	6.1	(410)
t	1.7	-5.1***	

주: 평균은 '전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자유롭지 못하다)' 0점 ~ '매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자유롭다)' 10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01$.

삶의 의미 및 인생 결정 자유에 대해서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별로 그룹별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삶의 의미는 남성이 여성보다, 맞벌이가 외벌이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인생결정자유 의 경우 육아가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지만 비육아가구에서는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비육아가구에서는 맞벌이가 외벌이보다 높았지만, 육아가구에서는 맞벌이 유무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1-5〉 삶의 의미 및 인생 결정 자유(육아가구/비육아가구 비교)

단위: 점, (명)

육아/비육아 따로	육아가구			비육아가구		
	삶의 의미	인생 결정 자유	사례수	삶의 의미	인생 결정 자유	사례수
전체	6.4	5.4	(1,614)	6.2	6.1	(410)
성별						
남성	6.6	5.7	(808)	6.4	6.1	(203)
여성	6.1	5.1	(806)	5.9	6.1	(207)
t	4.1***	5.0***		2.3*	0.2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5.8	5.2	(218)	5.1	5.4	(44)
300만원 이상 450만원 미만	6.2	5.2	(429)	6.2	6.2	(93)
45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6.4	5.2	(369)	6.2	6.2	(87)
600만원 이상 750만원 미만	6.6	5.6	(264)	6.3	6.2	(81)
750만원 이상	6.7	5.8	(334)	6.4	6.2	(105)
F	7.8***(a)	4.2**		2.8*	1.1(a)	
맞벌이 여부						
맞벌이	6.5	5.5	(995)	6.4	6.3	(311)
외벌이	6.2	5.2	(521)	5.4	5.7	(94)
그 외	5.8	5.5	(98)	4.2	4.6	(5)
F	8.2***	2.2		8.9***	3.4*	
첫째자녀 연령						
영아(만0-2세)	6.6	5.6	(402)	-	-	-
유아(만3-5세)	6.3	5.3	(406)	-	-	-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6.3	5.4	(402)	-	-	-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6.2	5.4	(404)	-	-	-
F	2.1(a)	1.1				

주: 평균은 '전혀 가치다 없다고 생각한다(자유롭지 못하다)' 0점 ~ '매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자유롭다)' 10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나. 삶의 역량

삶의 역량은 삶의 다양한 영역 중 건강 생활, 교육, 여가생활 등이 포함된다.

1) 건강 생활

건강 생활은 객관적 건강지표와 주관적 건강지표로 나누어 측정하였는데, 객관적 건강지표는 아침 식사, 규칙적 운동, 정기검진으로 측정하였다. 아침식사를 한다고 한 비율이 47.3%, 규칙적 운동을 한다고 한 비율이 40.6%, 정기적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한 비율이 78.2%로 아침식사 및 운동 등의 기본적 습관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침식사와 정기적 건강검진은 육아 유무에 대해서 차이가 없었고, 규칙적 운동의 경우 육아가구가 38.3%, 비육아가구가 49.8%로 차이를 보였다. 이는 3장에서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간의 생활시간분석에서도 육아가구의 운동 활동 비율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표 IV-1-6〉 건강관리 활동(전체)

단위: %, (명)

구분	아침 식사		규칙적 운동		정기적 건강검진		계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체	47.3	52.7	40.6	59.4	78.2	21.8	(2,024)
육아가구 여부							
육아가구	48.3	51.7	38.3	61.7	77.4	22.6	(1,614)
비육아가구	43.7	56.3	49.8	50.2	81.5	18.5	(410)
$\chi^2(df)$	2.783(1)		17.822(1)***		3.191(1)		

*** $p < .001$.

아침식사 비율을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별로 그룹별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비육아가구는 연령별 차이도 없었으나, 육아가구는 45세 이상 연령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아침식사 비율을 보였다. 첫째자녀 연령별로는 영유아 자녀보다 초등학교 자녀 부모가 아침식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녀의 식사를 챙겨주는 것과 연관이 되어 보인다.

〈표 IV-1-7〉 건강관리 활동(육아가구/비육아가구 비교)-아침식사

단위: %, (명)

육아/비육아 따로	육아가구			비육아가구		
	예	아니오	계	예	아니오	계
전체	48.3	51.7	(1,614)	43.7	56.3	(410)
성별						
남성	48.8	51.2	(808)	46.3	53.7	(203)
여성	47.8	52.2	(806)	41.1	58.9	(207)
$\chi^2(df)$	0.160(1)			1.145(1)		
본인 연령						
만34세 이하	47.9	52.1	(315)	44.9	55.1	(69)
만35-39세	43.5	56.5	(510)	40.8	59.2	(152)
만40-44세	49.6	50.4	(569)	45.0	55.0	(120)
만45세 이상	56.4	43.6	(220)	46.4	53.6	(69)
$\chi^2(df)$	10.755(3)*			0.849(3)		
첫째자녀 연령						
영아(만0-2세)	45.8	54.2	(402)	-	-	-
유아(만3-5세)	43.6	56.4	(406)	-	-	-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50.0	50.0	(402)	-	-	-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53.7	46.3	(404)	-	-	-
$\chi^2(df)$	9.832(3)*					

* $p < .05$.

규칙적 운동의 비율을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별로 그룹별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육아가구, 비육아 가구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10%p이상의 차이로 높은 규칙적 운동 비율을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차이가 없었고, 취업중인 경우가 미취업중인 경우보다 규칙적 운동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비육아 가구는 소득에 따른 규칙적 운동 비율에 차이가 없었으나, 육아가구는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이하인 경우보다 규칙적 운동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1-8〉 건강관리 활동(육아가구/비육아가구 비교)-규칙적 운동

단위: %, (명)

육아/비육아 따로	육아가구			비육아가구		
	예	아니오	계	예	아니오	계
전체	38.3	61.7	(1,614)	49.8	50.2	(410)
성별						
남성	45.4	54.6	(808)	54.7	45.3	(203)

육아가구의 삶의 질 제고 방안

육아/비육아 따로	육아가구			비육아가구		
	예	아니오	계	예	아니오	계
여성	31.1	68.9	(806)	44.9	55.1	(207)
$\chi^2(df)$	34.819(1)***			3.899(1)*		
본인 연령						
만34세 이하	39.7	60.3	(315)	53.6	46.4	(69)
만35-39세	37.5	62.5	(510)	50.0	50.0	(152)
만40-44세	37.6	62.4	(569)	44.2	55.8	(120)
만45세 이상	40.0	60.0	(220)	55.1	44.9	(69)
$\chi^2(df)$	0.794(3)			2.696(3)		
취업 여부						
취업중/학업중	40.8	59.2	(1,171)	50.7	49.3	(337)
휴직중	33.1	66.9	(157)	72.0	28.0	(25)
미취업	30.8	69.2	(286)	31.3	68.8	(48)
$\chi^2(df)$	11.793(2)**			11.655(2)**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2.1	67.9	(218)	54.5	45.5	(44)
300만원 이상 450만원 미만	34.0	66.0	(429)	46.2	53.8	(93)
45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37.1	62.9	(369)	52.9	47.1	(87)
600만원 이상 750만원 미만	42.4	57.6	(264)	50.6	49.4	(81)
750만원 이상	45.8	54.2	(334)	47.6	52.4	(105)
$\chi^2(df)$	16.925(4)**			1.419(4)		
첫째자녀연령						
영아(만0-2세)	35.1	64.9	(402)	-	-	-
유아(만3-5세)	35.5	64.5	(406)	-	-	-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40.3	59.7	(402)	-	-	-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42.3	57.7	(404)	-	-	-
$\chi^2(df)$	6.600(3)					

* $p < .05$, ** $p < .01$, *** $p < .001$.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 사이에는 건강검진 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세부 변수들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먼저, 육아가구, 비육아가구 모두 정기 건강검진 비율이 남성이 여성보다 각각 14%p, 10%p씩 높았고, 취업자가 미취업자보다 건강검진 비율이 육아가구, 비육아가구 각각 17%p, 20%p씩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 가구소득, 연령, 취업유무, 맞벌이여부, 거주지역(비육아가구의 경우만)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표 IV-1-9〉 건강관리 활동(육아가구/비육아가구 비교)-정기 건강검진

단위: %, (명)

육아/비육아 따로	육아가구			비육아가구		
	예	아니오	계	예	아니오	계
전체	77.4	22.6	(1,614)	81.5	18.5	(410)
성별						
남성	84.4	15.6	(808)	86.2	13.8	(203)
여성	70.3	29.7	(806)	76.8	23.2	(207)
$\chi^2(df)$	45.570(1)***			5.991(1)*		
본인 연령						
만34세 이하	71.1	28.9	(315)	82.6	17.4	(69)
만35-39세	74.5	25.5	(510)	86.8	13.2	(152)
만40-44세	81.2	18.8	(569)	70.0	30.0	(120)
만45세 이상	83.2	16.8	(220)	88.4	11.6	(69)
$\chi^2(df)$	18.438(3)***			15.617(3)**		
취업 여부						
취업중/학업중	81.2	18.8	(1,171)	84.6	15.4	(337)
휴직중	72.6	27.4	(157)	72.0	28.0	(25)
미취업	64.3	35.7	(286)	64.6	35.4	(48)
$\chi^2(df)$	39.676(2)***			12.693(2)**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67.4	32.6	(218)	72.7	27.3	(44)
300만원 이상 450만원 미만	69.9	30.1	(429)	67.7	32.3	(93)
45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79.1	20.9	(369)	89.7	10.3	(87)
600만원 이상 750만원 미만	84.1	15.9	(264)	84.0	16.0	(81)
750만원 이상	86.2	13.8	(334)	88.6	11.4	(105)
$\chi^2(df)$	48.317(4)***			21.531(4)***		
거주지역						
수도권	78.9	21.1	(829)	86.4	13.6	(214)
광역시(세종 포함)	73.4	26.6	(323)	72.3	27.7	(83)
도지역	77.5	22.5	(462)	78.8	21.2	(113)
$\chi^2(df)$	4.045(2)			8.695(2)*		
첫째자녀 연령						
영아(만0-2세)	75.1	24.9	(402)	-	-	-
유아(만3-5세)	77.3	22.7	(406)	-	-	-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75.9	24.1	(402)	-	-	-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81.2	18.8	(404)	-	-	-
$\chi^2(df)$	5.040(3)					

* p < .05, ** p < .01, *** p < .001.

주관적 건강지표는 응답자가 스스로 평가한 주관적 건강상태와 수면의 질로 측정하였는데 스스로 평가한 주관적 건강상태와 수면의 질은 비육아가구가 육아가구보다 높게 나타나, 육아가구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법이 필요해 보인다.

〈표 IV-1-10〉 주관적 건강상태 및 수면의 질(전체)

단위: 점, (명)

구분	주관적 건강상태	수면의질	사례수
전체	5.4	4.8	(2,024)
육아가구 여부			
육아가구	5.3	4.7	(1,614)
비육아가구	5.7	5.4	(410)
t	-3.1**	-5.5***	

주: 평균은 '매우 나쁘다' 0점 ~ '매우 좋다' 10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1, *** p < .001.

주관적 건강지표에 대해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로 나누어 그룹별로 살펴본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는 비육아가구도 육아가구와 마찬가지로 남성이 여성보다, 취업중이 미취업중보다 600만원 이상 소득 가구가 300만원 미만 소득 가구보다, 맞벌이가 외벌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수면의 질에 있어서는 비육아가구에서는 성별, 가구소득,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지만, 육아가구는 여성이 남성보다, 미취업자가 취업자보다 저소득이 고소득보다, 외벌이가 맞벌이보다, 영유아 자녀의 부모가 초등학교 자녀의 부모보다, 부모 외 돌봄인력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수면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1〉 주관적 건강상태 및 수면의 질(육아가구/비육아가구 비교)

단위: 점, (명)

육아/비육아 따로	육아가구			비육아가구		
	주관적 건강상태	수면의질	사례수	주관적 건강상태	수면의질	사례수
전체	5.3	4.7	(1,614)	5.7	5.4	(410)
성별						
남성	5.7	5.1	(808)	5.9	5.5	(203)
여성	5.0	4.2	(806)	5.5	5.3	(207)
t	7.4***	7.8***		2.1*	1.0	
취업 여부						

육아/비육아 따로	육아가구			비육아가구		
	주관적 건강상태	수면의질	사례수	주관적 건강상태	수면의질	사례수
취업중/학업중	5.5	4.9	(1,171)	5.8	5.5	(337)
휴직중	5.1	4.2	(157)	5.5	5.4	(25)
미취업	4.7	3.9	(286)	4.9	4.8	(48)
F	19.8***(a)	26.3***		4.9**	2.3(a)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5.1	4.6	(218)	4.6	4.6	(44)
300만원 이상 450만원 미만	5.1	4.4	(429)	5.7	5.3	(93)
45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5.2	4.6	(369)	5.7	5.5	(87)
600만원 이상 750만원 미만	5.5	4.6	(264)	6.1	5.6	(81)
750만원 이상	5.8	5.2	(334)	5.8	5.5	(105)
F	5.8***	5.1***		4.2**	1.9	
첫째자녀 연령						
영아(만0-2세)	5.3	4.5	(402)	-	-	-
유아(만3-5세)	5.0	4.5	(406)	-	-	-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5.5	4.8	(402)	-	-	-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5.6	5.0	(404)	-	-	-
F	6.5***	4.5**				
부모 외 돌봄 인력 유무						
있음	5.6	5.0	(586)	-	-	-
없음	5.2	4.5	(1,028)	-	-	-
t	3.7***	3.4**				

주: 평균은 '매우 나쁘다' 0점 ~ '매우 좋다' 10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은 주관적 건강 중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보았는데, 육아가구가 비육아가구보다, 직장생활스트레스를 제외한 전반적 스트레스, 가정생활 스트레스, 가족 내 관계에서의 스트레스, 친구, 이웃, 지인관계에서의 스트레스 모두 높게 나타났다.

〈표 IV-1-12〉 스트레스 정도(전체)

단위: 점, (명)

구분	전반적 스트레스	가정생활 스트레스	직장 (학교) 생활	가족 내 관계에서의 스트레스	친구, 이웃, 지인관계에서의 스트레스	사례수
전체	6.0	5.8	6.4	5.4	4.4	(2,024)
육아가구 여부						
육아가구	6.1	6.1	6.4	5.7	4.6	(1,614)

육아가구의 삶의 질 제고 방안

구분	전반적 스트레스	가정생활 스트레스	직장 (학교) 생활	가족 내 관계에서의 스트레스	친구, 이웃, 지인관계에서의 스트레스	사례수
비육아가구	5.3	4.6	6.3	4.2	3.8	(410)
t	6.6***	11.0***	0.8	9.7***	5.6***	

주: 평균은 '전혀 느끼지 않았다' 0점 ~ '매우 많이 느꼈다' 10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은 주관적 건강 중 전반적 스트레스 및 가정, 직장 생활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룹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육아가구가 비육아가구 모두 여성의 스트레스가 직장 스트레스를 제외하고는 유의미하게 높았고, 육아가구의 경우 전반적, 가정생활 스트레스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고, 미취업인 경우 취업중인 경우보다 전반적 스트레스 및 가정생활 스트레스가 가 높았다. 하지만 가구소득이나 자녀 연령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1-13〉 스트레스 정도(가구간 비교)-전반적, 가정생활, 직장생활 스트레스

단위: 점, (명)

육아/비육아 따로	육아가구				비육아가구			
	전반적	가정 생활	직장 (학교) 생활	사례수	전반적	가정 생활	직장 (학교) 생활	사례수
전체	6.1	6.1	6.4	(1,614)	5.3	4.6	6.3	(410)
성별								
남성	5.9	5.6	6.5	(808)	5.1	4.2	6.2	(203)
여성	6.4	6.5	6.4	(806)	5.5	4.9	6.5	(207)
t	-4.9***	-8.4***	0.6		-1.7	-2.8**	-1.0	
본인 연령								
만34세 이하	6.3	6.2	6.4	(315)	5.8	4.5	6.4	(69)
만35-39세	6.2	6.1	6.4	(510)	5.1	4.2	6.3	(152)
만40-44세	6.2	6.0	6.5	(569)	5.5	4.9	6.4	(120)
만45세 이상	5.7	5.7	6.5	(220)	5.1	4.9	6.2	(69)
F	4.1**	2.7*(a)	0.1		2.3	2.7*	0.1	
취업 여부								
취업중/학업중	6.1	5.9	6.4	(1,171)	5.4	4.5	6.3	(337)
휴직중	6.1	6.4	0.0	(157)	4.4	3.9	0.0	(25)
미취업	6.4	6.6	-	(286)	5.5	5.1	0.0	(48)
F	3.8*	13.1***			2.4	2.1		
월평균 가구소득								

육아/비육아 따로	육아가구				비육아가구			
	전반적	가정 생활	직장 (학교) 생활	사례수	전반적	가정 생활	직장 (학교) 생활	사례수
300만원 미만	6.1	6.2	6.1	(218)	5.9	5.6	6.3	(44)
300만원 이상 450만원 미만	6.3	6.1	6.4	(429)	5.1	4.5	6.1	(93)
45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6.2	6.0	6.6	(369)	5.4	4.6	6.3	(87)
600만원 이상 750만원 미만	6.0	6.0	6.5	(264)	5.3	4.3	6.8	(81)
750만원 이상	6.0	5.9	6.5	(334)	5.3	4.3	6.2	(105)
F	1.3	1.0	1.0(a)		1.1	2.5*	0.9	
첫째자녀 연령								
영아(만0-2세)	6.1	6.2	6.3	(402)	-	-	-	-
유아(만3-5세)	6.3	6.2	6.5	(406)	-	-	-	-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6.2	6.0	6.6	(402)	-	-	-	-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6.0	5.9	6.3	(404)	-	-	-	-
F	1.9	2.0	1.2					

주: 평균은 '전혀 느끼지 않았다' 0점 ~ '매우 많이 느꼈다' 10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가족 내 관계 및 지인관계에서의 스트레스를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로 나누어 그룹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육아, 비육아가구에 상관없이 여성이 남성보다 가족 내 관계에서의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친구, 이웃, 지인관계에서의 스트레스는 비육아가구의 경우만 여성이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육아가구에서는 미취업인 경우 가족내, 지인관계에서의 스트레스가 높았고, 비육아 가구의 경우는 가족 및 지인 관계에서의 스트레스가 연령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육아가구 중 첫째자녀 연령에 따라서는 친구, 이웃, 지인관계에서의 스트레스가 초등 저학년 부모의 경우 가장 높고, 영아 부모의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4〉 스트레스 정도(가구간 비교)-가족 내 관계/친구, 이웃, 지인관계에서의 스트레스

단위: 점, (명)

육아/비육아 따로	육아가구			비육아가구		
	가족 내 관계에서의 스트레스	친구, 이웃, 지인 관계에서의 스트레스	사례수	가족 내 관계에서의 스트레스	친구, 이웃, 지인 관계에서의 스트레스	사례수
전체	5.7	4.6	(1,614)	4.2	3.8	(410)
성별						
남성	5.2	4.6	(808)	3.8	3.3	(203)

육아/비육아 따로	육아가구			비육아가구		
	가족 내 관계에서의 스트레스	친구, 이웃, 지인 관계에서의 스트레스	사례수	가족 내 관계에서의 스트레스	친구, 이웃, 지인 관계에서의 스트레스	사례수
여성	6.1	4.5	(806)	4.6	4.2	(207)
t	-8.0***	0.7		-3.2**	-3.6***	
본인 연령						
만34세 이하	5.7	4.4	(315)	4.4	3.6	(69)
만35-39세	5.7	4.5	(510)	3.6	3.3	(152)
만40-44세	5.7	4.8	(569)	4.6	4.1	(120)
만45세 이상	5.3	4.5	(220)	4.7	4.4	(69)
F	1.9	1.8		4.0**	4.3**	
취업 여부						
취업중/학업중	5.4	4.6	(1,171)	4.2	3.7	(337)
휴직중	6.0	4.1	(157)	3.9	3.8	(25)
미취업	6.3	4.7	(286)	4.8	4.3	(48)
F	18.3***(a)	2.8		1.3	1.2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5.9	4.7	(218)	5.3	5.1	(44)
300만원 이상 450만원 미만	5.8	4.7	(429)	4.2	3.5	(93)
45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5.6	4.4	(369)	4.2	3.7	(87)
600만원 이상 750만원 미만	5.5	4.4	(264)	3.8	3.6	(81)
750만원 이상	5.5	4.6	(334)	4.2	3.7	(105)
F	2.0	0.8		2.3	3.1*	
첫째자녀 연령						
영아(만0-2세)	5.6	4.2	(402)	-	-	-
유아(만3-5세)	5.8	4.5	(406)	-	-	-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5.7	4.9	(402)	-	-	-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5.5	4.6	(404)	-	-	-
F	1.1	4.7**				

주: 평균은 '전혀 느끼지 않았다' 0점 ~ '매우 많이 느꼈다' 10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2) 교육 생활

다음은 교육 생활 삶의 질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 학업수준 만족도 및 자신을 위한 배움 등에 대한 노력정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업수준 만족도는 육아가구는 6.1점, 비육아가구 5.8점, 자신을 위한 배움 노력 정도는 육아가구가 5.2점, 비육아가구가 5.4점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1-15〉 학업수준 만족도 및 자신을 위한 배움(역량강화 등)에 대한 노력 정도(전체)

단위: 점, (명)

구분	학업수준 만족도	자신을 위한 배움(역량강화 등)에 대한 노력 정도	사례수
전체	6.0	5.2	(2,024)
육아가구 여부			
육아가구	6.1	5.2	(1,614)
비육아가구	5.8	5.4	(410)
t	1.7	-1.3	

주: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 '매우 그렇다' 10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학업수준 만족도 및 자신을 위한 배움 등에 대한 노력정도에 대해서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로 나누어 그룹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육아, 비육아가구에 상관없이 학업수준 만족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가구소득 응답자가 낮은 가구소득 응답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자신을 위한 배움 노력은 취업 중(육아가구)인 경우와 휴직 중(비육아가구)인 경우가 미취업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첫째자녀 연령별로는 초등학생 부모가 영유아 부모보다 자신을 위한 배움 노력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V-1-16〉 학업수준 만족도 및 자신을 위한 배움(역량강화 등)에 대한 노력 정도 (육아가구/비육아가구 비교)

단위: 점, (명)

육아/비육아 따로	육아가구			비육아가구		
	학업수준 만족도	자신을 위한 배움 (역량강화) 노력 정도	사례수	학업수준 만족도	자신을 위한 배움 (역량강화) 노력 정도	사례수
전체	6.1	5.2	(1,614)	5.8	5.4	(410)
성별						
남성	6.3	5.5	(808)	6.1	5.5	(203)
여성	5.8	4.9	(806)	5.5	5.2	(207)
t	3.9***	4.5***		2.5*	1.5	
본인 연령						
만34세 이하	6.3	5.0	(315)	5.9	5.6	(69)
만35-39세	6.1	5.2	(510)	6.3	5.5	(152)
만40-44세	6.0	5.2	(569)	5.5	5.1	(120)
만45세 이상	6.0	5.5	(220)	5.2	5.3	(69)
F	1.1	1.9		4.3**	0.7	
취업 여부						
취업중/학업중	6.3	5.4	(1,171)	5.9	5.5	(337)
휴직중	5.9	4.9	(157)	6.2	5.9	(25)
미취업	5.4	4.6	(286)	5.2	4.3	(48)

육아/비육아 따로	육아가구			비육아가구		
	학업수준 만족도	자신을 위한 배움 (역량강화) 노력 정도	사례수	학업수준 만족도	자신을 위한 배움 (역량강화) 노력 정도	사례수
F	15.0***(a)	14.3***		2.1(a)	6.6**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5.8	5.3	(218)	4.7	4.7	(44)
300만원 이상 450만원 미만	5.8	5.0	(429)	5.9	5.5	(93)
45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5.8	4.9	(369)	5.9	5.4	(87)
600만원 이상 750만원 미만	6.4	5.5	(264)	6.1	5.1	(81)
750만원 이상	6.6	5.6	(334)	6.0	5.7	(105)
F	8.1***(a)	5.0**		2.9*	1.7	
첫째자녀 연령						
영아(만0-2세)	6.2	5.1	(402)	-	-	-
유아(만3-5세)	6.2	4.9	(406)	-	-	-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6.1	5.3	(402)	-	-	-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5.8	5.4	(404)	-	-	-
F	2.6	3.2*				

주: 평균은 '전혀 느끼지 않았다' 0점 ~ '매우 많이 느꼈다' 10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3) 여가 생활

먼저 평일에 여가 생활로 주로 하는 활동을 살펴보았다. 전체 응답자 1순위 기준 동영상시청(63.7%), 건강을 위한 운동(7.4%) 순으로 나타났다. 동영상 시청이 두 그룹에 모두 1순위였지만, 그 비율은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의 경우 각각 61.3%, 73.4%로 비육아가구가 육아가구보다 12.2%p가 더 높은 비율로 동영상 시청을 여가로 보내고 있었다. 건강을 위한 운동 또한 비육아가구가 9.0%, 육아가구가 7.0%로 비육아가구가 2.0%p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에, 문화예술활동과 여행나들이는 육아가구가 각각 6.4%, 4.7%를 나타내어 비육아가구보다 3.5%p, 2.4%p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만, 육아가구의 10.4%가 여가활동이 없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표 IV-1-17〉 여가 시간에 주로 하는 일-주중(전체)

단위: %(명)

구분	동영상 시청	건강 위한 운동	문화 예술 활동	문화 예술 관람	여행 나들이	스포츠 관람	사회 활동	기타	여가 활동 없음	계
1+2순위 전체	74.7	31.6	21.5	10.9	20.3	11.3	4.9	5.3	10.4	100.0(2,024)
1순위 전체	63.7	7.4	5.7	4.5	4.1	3.3	0.8	1.3	9.1	100.0(2,024)

구분	동영상 시청	건강 위한 운동	문화 예술 활동	문화 예술 관람	여행 나들이	스포츠 관람	사회 활동	기타	여가 활동 없음	계
육아가구 여부										
육아가구	61.3	7.0	6.4	4.7	4.6	3.3	0.9	1.4	10.4	100.0(1,614)
비육아가구	73.4	9.0	2.9	3.9	2.2	3.2	0.2	1.0	4.1	100.0(410)
$\chi^2(df)$	37.807(8)***									

*** $p < .001$.

주말에 여가 생활로 주로 하는 활동의 경우에도 전체 응답자 1순위 기준 동영상 시청(45.9%)이 여전히 가장 높게 나타났고, 두 번째로는 여행나들이(24.4%)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세부 비율을 살펴보면 비육아가구의 경우 동영상 시청이 58.5%, 육아가구 42.8%로 15.7%p 차이를 나타냈고, 여행나들이는 육아가구가 26.8%, 비육아가구가 14.9%로 11.7%p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육아가구, 비육아가구의 서로 다른 여가 생활 패턴을 살펴볼 수 있었다.

〈표 IV-1-18〉 여가 시간에 주로 하는 일-주말/휴일(전체)

단위: %(명)

구분	동영상 시청	건강 위한 운동	문화 예술 활동	문화 예술 관람	여행 나들이	스포츠 관람	사회 활동	기타	여가 활동 없음	계
1+2순위전체	66.6	19.7	14.3	14.1	51.2	8.1	7.0	3.8	8.5	100.0(2,024)
1순위전체	45.9	5.5	5.3	6.4	24.4	2.2	2.8	0.8	6.7	100.0(2,024)
육아가구여부										
육아가구	42.8	5.1	5.5	6.2	26.8	2.2	2.9	0.7	7.8	100.0(1,614)
비육아가구	58.5	7.1	4.6	7.1	14.9	2.0	2.4	1.0	2.4	100.0(410)
$\chi^2(df)$	54.429(8)***									

*** $p < .001$.

주중 여가 시간에 주로 하는 일을 육아가구 중에서 그룹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동영상 시청 비율이 높고 남성의 경우 문화예술관람 및 스포츠관람 비율이 더 높았고, 가구소득별로는 월평균 가구소득 750만원 이상인 가구가 4.2%인 반면, 300만원 미만인 가구가 여가활동이 없는 비율이 17.4%를 보여, 가구소득에 따른 여가활동 차이가 큼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모 외 돌봄을 맡길 인력이 없는 경우에 여가활동이 없는 비율이 높았고, 부모 외 돌봄을 맡길 인력이 있는 경우에 문화 예술 활동, 문화 예술 관람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V-1-19〉 여가 시간에 주로 하는 일-주중(육아가구)

단위: %(명)

육아가구	동영상 시청	건강 위한 운동	문화 예술 활동	문화 예술 관람	여행 나들이	스포츠 관람	사회 활동	기타	여가 활동 없음	계
1+2순위 전체	72.4	29.8	22.7	10.7	20.3	11.6	4.8	5.7	11.6	100.0(1,614)
1순위 전체	61.3	7.0	6.4	4.7	4.6	3.3	0.9	1.4	10.4	100.0(1,614)
성별										
남성	58.2	7.3	6.1	6.1	4.5	5.4	0.9	1.7	9.9	100.0(808)
여성	64.4	6.7	6.8	3.3	4.7	1.1	1.0	1.0	10.9	100.0(806)
$\chi^2(df)$	34.612(8)***									
본인 연령										
만34세 이하	61.3	7.9	6.3	5.4	4.4	3.2	1.0	1.0	9.5	100.0(315)
만35-39세	62.9	5.9	7.1	5.3	3.5	2.9	0.2	1.4	10.8	100.0(510)
만40-44세	61.3	6.5	6.0	4.7	5.1	3.7	1.2	1.6	9.8	100.0(569)
만45세 이상	57.3	9.5	6.4	2.3	5.9	3.2	1.8	1.4	12.3	100.0(220)
$\chi^2(df)$	18.399(24)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56.9	5.5	6.9	5.0	4.1	0.9	2.8	0.5	17.4	100.0(218)
300만원 이상 450만원 미만	59.7	6.1	6.1	3.5	4.2	3.5	0.9	1.9	14.2	100.0(429)
45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64.0	7.0	6.5	3.5	4.1	4.9	0.3	1.1	8.7	100.0(369)
600만원 이상 750만원 미만	65.2	7.2	5.3	4.9	4.5	2.3	0.8	1.1	8.7	100.0(264)
750만원 이상	60.2	9.0	7.5	7.2	6.0	3.6	0.6	1.8	4.2	100.0(334)
$\chi^2(df)$	66.092(32)***									
첫째자녀 연령										
영아(만0-2세)	64.4	6.2	5.5	4.7	4.7	3.7	0.5	1.2	9.0	100.0(402)
유아(만3-5세)	60.1	5.9	5.9	3.7	3.9	3.4	1.0	1.5	14.5	100.0(406)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57.7	8.7	9.5	5.2	4.2	3.5	0.5	1.5	9.2	100.0(402)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62.9	7.2	5.0	5.2	5.4	2.5	1.7	1.2	8.9	100.0(404)
$\chi^2(df)$	29.374(24)									
부모 외 돌봄 인력 유무										
있음	58.0	7.2	8.7	8.0	5.3	3.8	1.2	0.7	7.2	100.0(586)
없음	63.1	6.9	5.2	2.8	4.2	3.0	0.8	1.8	12.3	100.0(1,028)
$\chi^2(df)$	45.074(8)***									

*** p < .001.

주말 여가 시간에 주로 하는 일을 육아가구 중에서 그룹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동영상 시청이 가장 높았으나 41.1%로 남성의 44.4%보다는 낮았으며, 여행나들이가 32.6%로 남성(21.0%)보다 12.6%p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남성은 건강을 위한 운동, 문화예술관람, 스포츠 관람 등의 여가를 여성보다 많이 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동영상시청이 높은 반면 여행나들이는 줄어들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가구소득이 450만원 이상인 경우 여가활동이 없는 경우가 5% 이하인 반면, 300만원 이상 450만원 미만인 경우 여가활동 없음이 10.0%, 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여가활동 없음이 17.0%로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여가활동이 없는 경향을 보였다.

〈표 IV-1-20〉 여가 시간에 주로 하는 일-주말/휴일(육아가구)

단위: %(명)

육아가구	동영상 시청	건강 위한 운동	문화 예술 활동	문화 예술 관람	여행 나들이	스포츠 관람	사회 활동	기타	여가 활동 없음	계
1+2순위 전체	64.6	18.1	14.3	13.4	52.5	8.5	7.2	3.6	10.0	100.0(1,614)
1순위 전체	42.8	5.1	5.5	6.2	26.8	2.2	2.9	0.7	7.8	100.0(1,614)
성별										
남성	44.4	7.9	6.2	7.3	21.0	3.7	2.7	0.9	5.8	100.0(808)
여성	41.1	2.4	4.7	5.1	32.6	0.7	3.0	0.6	9.8	100.0(806)
$\chi^2(df)$	74.930(8)***									
본인 연령										
만34세 이하	43.2	1.6	5.4	9.8	26.7	1.6	2.5	0.3	8.9	100.0(315)
만35-39세	43.3	2.9	5.3	6.1	31.2	1.6	1.0	0.8	7.8	100.0(510)
만40-44세	40.1	7.7	5.6	4.9	27.2	2.6	3.9	1.2	6.7	100.0(569)
만45세 이상	47.7	8.6	5.5	4.5	15.9	3.6	5.0	0.0	9.1	100.0(220)
$\chi^2(df)$	72.216(24)***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45.0	2.8	5.0	6.0	16.5	0.9	6.4	0.5	17.0	100.0(218)
300만원 이상 450만원 미만	41.3	5.4	5.8	6.5	24.9	2.1	2.8	1.2	10.0	100.0(429)
45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42.3	5.1	4.3	5.1	33.1	2.7	1.9	0.5	4.9	100.0(369)
600만원 이상 750만원 미만	41.7	5.3	4.5	5.7	30.7	1.5	2.3	0.8	7.6	100.0(264)
750만원 이상	44.6	6.3	7.2	7.5	26.0	3.3	2.1	0.6	2.4	100.0(334)
$\chi^2(df)$	85.906(32)***									
첫째자녀 연령										
영아(만0-2세)	42.0	2.7	4.0	6.2	31.3	1.7	2.2	1.0	8.7	100.0(402)
유아(만3-5세)	37.9	4.2	5.7	5.2	31.5	1.5	3.0	0.5	10.6	100.0(406)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46.5	5.2	6.2	6.5	22.9	2.5	1.7	1.0	7.5	100.0(402)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44.6	8.4	5.9	6.9	21.5	3.2	4.5	0.5	4.5	100.0(404)
$\chi^2(df)$	54.801(24)***									

육아가구	동영상 시청	건강 위한 운동	문화 예술 활동	문화 예술 관람	여행 나들이	스포츠 관람	사회 활동	기타	여가 활동 없음	계
부모 외 돌봄 인력 유무										
있음	45.4	5.1	7.0	8.5	23.0	2.4	2.7	0.7	5.1	100.0(586)
없음	41.2	5.2	4.6	4.9	29.0	2.1	2.9	0.8	9.3	100.0(1,028)
$\chi^2(df)$	27.268(8)**									

** p < .01, *** p < .001.

주중에 여가활동을 함께한 사람과 그 사람과의 감정을 물었을 때, 육아가구의 경우 혼자서(46.8%)나, 자녀동반가족(36.5%)인 경우가 많았고, 비육아가구는 자녀 외 가족이 57.8%를 차지했다. 자녀연령별로는 자녀연령에 상관없이 주중에는 혼자서 여가를 보내는 경우가 40%이상을 차지했고, 영아는 자녀 외 가족과 함께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표 IV-1-21〉 여가 활동을 함께 한 사람-주중(전체)

단위: %(명)

구분	혼자서	자녀 동반 가족	자녀 외 가족	친구, 지인, 동료, 동호회 등	기타	계
전체	44.8	28.7	20.8	5.7	0.1	100.0(1,839)
육아가구 여부						
육아가구	46.8	36.5	10.7	5.9	0.0	100.0(1,446)
비육아가구	37.4	0.0	57.8	4.6	0.3	100.0(393)
$\chi^2(df)$	483.516(4)***(b)					
첫째자녀 연령						
영아(만0-2세)	44.3	32.0	18.9	4.9	0.0	100.0(366)
유아(만3-5세)	50.7	34.9	9.2	5.2	0.0	100.0(347)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44.7	40.8	6.8	7.7	0.0	100.0(365)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47.8	38.3	7.9	6.0	0.0	100.0(368)
$\chi^2(df)$	40.586(9)***					

*** p < .001.

주중에 위 표에 나타난 동반인과 여가활동을 할 때의 감정을 물어본 결과 즐거움 정도는 6.9점으로 높은 편이었고,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의 차이가 없었으나, 긴장 혹은 스트레스는 4.0점으로 낮은 편이었으나, 육아가구가 0.8점 정도 높게 나타났다.

〈표 IV-1-22〉 여가 활동을 할 때의 감정-주중(전체)

단위: 점, (명)

구분	즐거움	긴장 혹은 스트레스	사례수
전체	6.9	4.0	(1,839)
육아가구 여부			
육아가구	6.9	4.2	(1,446)
비육아가구	6.9	3.4	(393)
t	0.1	5.6***	
첫째자녀연령			
영아(만0-2세)	7.0	4.2	(366)
유아(만3-5세)	6.8	4.3	(347)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6.9	4.3	(365)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6.8	4.0	(368)
F	1.1	1.2(a)	

주: 평균은 '전혀 느끼지 않았다' 0점 ~ '매우 많이 느꼈다' 10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01$.

주말에 여가활동을 함께한 사람과 그 사람과의 감정을 물었을 때, 육아가구의 경우 자녀동반가족(68.1%)과 함께하거나 혼자(18.6%)하는 경우가 많았고, 비육아가구는 자녀 외 가족과 하는 경우가 74.3%, 혼자서 하는 경우가 19.8%를 차지했다. 자녀연령별로는 주말에는 혼자서 여가는 보내는 경우가 17.2~20.2% 사이를 차지했고, 유아자녀(71.9%)와 초등 저학년 자녀(71.5%)를 둔 경우 자녀동반 가족 여가 생활이 가장 많았으며, 영아는 자녀 외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15.5%)가 더 많았다.

〈표 IV-1-23〉 여가 활동을 함께 한 사람-주말/휴일(전체)

단위: %(명)

구분	혼자서	자녀 동반 가족	자녀 외 가족	친구, 지인, 동료, 동호회 등	계
전체	18.9	53.7	23.0	4.4	100.0(1,888)
육아가구 여부					
육아가구	18.6	68.1	9.3	4.0	100.0(1,488)
비육아가구	19.8	-	74.3	6.0	100.0(400)
$\chi^2(df)$	853.432(3)***				
첫째자녀 연령					
영아(만0-2세)	20.2	59.9	15.5	4.4	100.0(367)

육아가구의 삶의 질 제고 방안

구분	혼자서	자녀 동반 가족	자녀 외 가족	친구, 지인, 동료, 동호회 등	계
유아(만3-5세)	19.3	71.9	6.1	2.8	100.0(363)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17.2	71.5	7.5	3.8	100.0(372)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17.9	69.2	8.0	4.9	100.0(386)
$\chi^2(df)$	29.938(9)***				

*** $p < .001$.

주말에 위 표의 동반인과 여가활동을 할 때의 감정을 물어본 결과 즐거움 정도는 7.2점으로 높은 편이었고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의 차이가 없었으나, 긴장 혹은 스트레스는 4.2점으로 낮은 편이었으나, 육아가구가 0.8점정도 높게 나타났다.

<표 IV-1-24> 여가 활동을 할 때의 감정-주말/휴일(전체)

단위: 점, (명)

구분	즐거움	긴장 혹은 스트레스	사례수
전체	7.2	4.2	(1,888)
육아가구 여부			
육아가구	7.2	4.4	(1,488)
비육아가구	7.3	3.2	(400)
t	-1.6	8.7***	
첫째자녀연령			
영아(만0-2세)	7.3	4.4	(367)
유아(만3-5세)	7.2	4.6	(363)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7.2	4.4	(372)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7.1	4.1	(386)
F	0.7	2.4	

주: 평균은 '전혀 느끼지 않았다' 0점 ~ '매우 많이 느꼈다' 10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01$.

여가생활 만족도와 여가시간 충분도를 확인할 결과 여가생활 만족도는 5.6점, 여가시간 충분도는 4.5점으로 높지 않았으며, 여가생활 만족도는 비육아가구가 6.3점으로 다소 높았으며, 여가시간 충분도도 비육아가구가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IV-1-25〉 여가생활 만족도 및 여가시간 충분도(전체)

단위: 점, (명)

구분	여가생활 만족도	여가시간 충분도	사례수
전체	5.6	4.5	(2,024)
육아가구 여부			
육아가구	5.4	4.2	(1,614)
비육아가구	6.3	5.5	(410)
t	-7.0***	-9.3***	

주: 평균은 '매우 불만족한다(전혀 그렇지 않다)' 0점 ~ '매우 만족한다(매우 그렇다)' 10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01$.

여가생활 만족도와 여가시간 충분도에 대해 육아가구, 비육아가구를 나누어 그룹별로 살펴본 결과, 비육아가구의 경우 성별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육아가구의 경우 남성이 만족도가 다소 높았으며 충분도도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육아가구의 경우는 휴직중인 그룹이 여가생활 만족도와 여가시간 충분도가 가장 높았던 반면, 육아가구는 휴직중인 경우가 만족도와 여가시간 충분도가 낮게 나타났다. 자녀 연령별로 살펴보면, 첫째 자녀 연령 초등학생의 경우 여가생활 만족도가 5.6점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여가시간 충분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1-26〉 여가생활 만족도 및 여가시간 충분도(육아가구/비육아가구 비교)

단위: 점, (명)

육아/비육아 따로	육아가구			비육아가구		
	여가생활 만족도	여가시간 충분도	사례수	여가생활 만족도	여가시간 충분도	사례수
전체	5.4	4.2	(1,614)	6.3	5.5	(410)
성별						
남성	5.7	4.5	(808)	6.4	5.5	(203)
여성	5.1	3.9	(806)	6.2	5.5	(207)
t	5.2***	4.7***		1.0	0.1	
취업 여부						
취업중/학업중	5.6	4.2	(1,171)	6.3	5.3	(337)
휴직중	5.1	4.0	(157)	6.8	7.0	(25)
미취업	5.1	4.2	(286)	5.7	6.5	(48)
F	6.5**	0.6(a)		3.0	10.3***	
첫째자녀 연령						
영아(만0-2세)	5.3	3.8	(402)	-	-	-

육아/비육아 따로	육아가구			비육아가구		
	여가생활 만족도	여가시간 충분도	사례수	여가생활 만족도	여가시간 충분도	사례수
유아(만3-5세)	5.2	3.8	(406)	-	-	-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5.6	4.5	(402)	-	-	-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5.6	4.7	(404)	-	-	-
F	3.6*	13.1***				
부모 외 돌봄 인력 유무						
있음	5.6	4.3	(586)	-	-	-
없음	5.3	4.2	(1,028)	-	-	-
t	2.1*	0.8				

주: 평균은 '매우 불만족한다(전혀 그렇지 않다)' 0점 ~ '매우 만족한다(매우 그렇다)' 10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을 때 육아가구의 경우 육아로 인한 시간 부족 57.9%, 일로 인한 시간부족, 30.1%, 집안일로 인한 시간부족이 12.0%로 나타났으나, 비육아가구의 경우 일로 인한 시간부족이 80.6%로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19.4%는 집안일로 인한 시간부족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IV-1-27〉 여가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전체)

단위: %(명)

구분	육아로 인한 시간부족	일로 인한 시간부족	집안일로 인한 시간부족	계
전체	51.2	36.0	12.8	100.0(803)
육아가구 여부				
육아가구	57.9	30.1	12.0	100.0(710)
비육아가구	-	80.6	19.4	100.0(93)
$\chi^2(df)$	115.607(2)***			

*** p < .001.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을 때 육아가구의 경우 육아로 인한 시간 부족 57.9%, 일로 인한 시간부족, 30.1%, 집안일로 인한 시간부족이 12.0%로 나타났으나, 비육아가구의 경우 일로 인한 시간부족이 80.6%로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19.4%는 집안일로 인한 시간부족이라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육아가구의 경우 만 34세 이하는 72.7%가 육아로, 21.2%가 일로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한 반면, 만 45세 이상은 34.3%가 육아로, 51.5%가 일로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여, 같은 육아가구 중에서도 연령별 차이를 보여준다.

이는 사실상 첫째자녀의 연령과 상관이 있는데, 영아 자녀의 경우 77.5%가 육아 때문에, 17.6%가 일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한 반면(집안일은 4.9%), 초등학교 고학년은 29.7%가 육아 때문에, 47.1%가 일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여(집안일 23.2%) 자녀 연령별, 본인의 연령별로 상황과 중시하는 영역을 엿볼 수 있다.

<표 IV-1-28> 여가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육아가구/비육아가구 비교)

단위: %(명)

육아/비육아 따로	육아가구				비육아가구		
	육아	일	집안일	계	일	집안일	계
전체	57.9	30.1	12.0	100.0(710)	80.6	19.4	100.0(93)
성별							
남성	44.5	46.4	9.1	100.0(319)	91.1	8.9	100.0(45)
여성	68.8	16.9	14.3	100.0(391)	70.8	29.2	100.0(48)
$\chi^2(df)$	72.686(2)***				6.118(1)*		
본인 연령							
만34세 이하	72.7	21.2	6.1	100.0(132)	92.9	7.1	100.0(14)
만35-39세	67.7	19.1	13.2	100.0(235)	80.0	20.0	100.0(45)
만40-44세	50.0	36.9	13.1	100.0(244)	79.2	20.8	100.0(24)
만45세 이상	34.3	51.5	14.1	100.0(99)	70.0	30.0	100.0(10)
$\chi^2(df)$	57.401(6)***				2.109(3)(b)		
취업 여부							
취업중/학업중	48.1	40.9	11.0	100.0(511)	83.9	16.1	100.0(87)
휴직중	85.9	3.5	10.6	100.0(85)	33.3	66.7	100.0(3)
미취업	80.7	1.8	17.5	100.0(114)	33.3	66.7	100.0(3)
$\chi^2(df)$	103.748(4)***				9.198(2)*(b)		
첫째자녀 연령							
영아(만0-2세)	77.5	17.6	4.9	100.0(204)	-	-	
유아(만3-5세)	63.0	27.0	10.0	100.0(200)	-	-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51.2	35.1	13.7	100.0(168)	-	-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29.7	47.1	23.2	100.0(138)	-	-	
$\chi^2(df)$	84.475(6)***						

* p < .05, *** p < .001

주중에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은 여가 활동을 물었을 때 건강을 위한 운동이 38%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여행나들이 18.3%, 문화예술관람 14.7%로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의 차이가 크지 않고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표 IV-1-29〉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은 일-주중(전체)

단위: %(명)

구분	건강 위한 운동	여행 나들이	문화 예술 관람	동영상 시청	문화 예술 활동	스포츠 관람	사회 활동	기타	계
전체	38.0	18.3	14.7	11.5	8.7	3.6	1.2	4.0	100.0(803)
육아가구 여부									
육아가구	38.7	18.2	14.4	11.3	8.0	3.8	1.3	4.4	100.0(710)
비육아가구	32.3	19.4	17.2	12.9	14.0	2.2	1.1	1.1	100.0(93)
$\chi^2(df)$	7.834(7)								

육아가구 대상으로 주중에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은 일을 물은 결과, 남녀성별에 따라 남성은 운동, 동영상 시청, 여행나들이가 높은 반면, 여성은 건강을 위한 운동, 문화예술관람, 여행나들이가 그 순서를 이루어 차이를 보였다. 비육아가구 사이에서는 하위 그룹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1-30〉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은 일-주중(육아가구)

단위: %(명)

육아가구	건강 위한 운동	여행 나들이	문화 예술 관람	동영상 시청	문화 예술 활동	스포츠 관람	사회 활동	기타	계
전체	38.7	18.2	14.4	11.3	8.0	3.8	1.3	4.4	100.0(710)
성별									
남성	41.7	15.7	6.6	15.7	8.8	7.5	0.9	3.1	100.0(319)
여성	36.3	20.2	20.7	7.7	7.4	0.8	1.5	5.4	100.0(391)
$\chi^2(df)$	61.695(7)***								
첫째자녀 연령									
영아(만0-2세)	35.3	21.1	13.7	11.3	8.3	3.4	2.0	4.9	100.0(204)
유아(만3-5세)	39.0	13.0	15.5	13.5	8.5	4.0	1.0	5.5	100.0(200)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39.3	20.2	15.5	11.3	8.3	1.8	0.6	3.0	100.0(168)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42.8	18.8	12.3	8.0	6.5	6.5	1.4	3.6	100.0(138)
$\chi^2(df)$	16.763(21)								

*** p < .001.

주말에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하고 여가 활동을 물었을 때 여행나들이가 52.8%로 가장 높았고, 문화예술관람이 13.8%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의 차이가 크지 않고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표 IV-1-31〉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은 일-주말(전체)

단위: %(명)

구분	건강 위한 운동	여행 나들이	문화 예술 관람	동영상 시청	문화 예술 활동	스포츠 관람	사회 활동	기타	계
전체	11.7	52.8	13.8	6.5	5.1	4.2	3.1	2.7	100.0(803)
육아가구 여부									
육아가구	11.8	51.4	13.9	6.9	5.4	4.5	3.1	3.0	100.0(710)
비육아가구	10.8	63.4	12.9	3.2	3.2	2.2	3.2	1.1	100.0(93)
$\chi^2(df)$	6.991(7)(b)								

육아가구 대상으로 주말에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은 일을 물은 결과 자녀연령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남녀성별에 따라 남성은 운동, 동영상 시청, 여행나들이가 높은 반면, 여성은 건강을 위한 운동, 문화예술관람, 여행나들이가 그 순서를 이루어 차이를 보였다. 비육아가구 사이에서는 하위 그룹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1-32〉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은 일-주말(육아가구)

단위: %(명)

육아가구	건강 위한 운동	여행 나들이	문화 예술 관람	동영상 시청	문화 예술 활동	스포츠 관람	사회 활동	기타	계
전체	11.8	51.4	13.9	6.9	5.4	4.5	3.1	3.0	100.0(710)
성별									
남성	16.0	47.3	10.7	7.2	4.7	8.2	3.1	2.8	100.0(319)
여성	8.4	54.7	16.6	6.6	5.9	1.5	3.1	3.1	100.0(391)
$\chi^2(df)$	32.449(7)***								
첫째자녀 연령									
영아(만0-2세)	12.7	55.4	12.3	6.9	5.4	2.9	2.0	2.5	100.0(204)
유아(만3-5세)	13.0	42.0	16.0	8.5	7.5	5.5	4.0	3.5	100.0(200)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12.5	50.6	13.7	7.1	4.2	4.2	5.4	2.4	100.0(168)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8.0	60.1	13.8	4.3	3.6	5.8	0.7	3.6	100.0(138)
$\chi^2(df)$	23.875(21)								

*** $p < .001$.

다. 사회적 삶 - 가족 생활, 공동체

1) 가족 생활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가족구성원별로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6.0~7.5점으로(10점 척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7.5점), 배우자(6.8점), 본인의 부모/형제(6.6점), 배우자의 부모/형제(6.0점)와의 관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육아가구보다 비육아가구에서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형제와의 관계에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표 IV-1-33〉 가족관계 만족도(전체)

단위: 점, (명)

구분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본인의 부모/형제와의 관계	배우자의 부모/형제와의 관계	사례수
전체	6.8	-	6.6	6.0	(2,024)
육아가구 여부					
육아가구	6.6	7.5	6.6	5.9	(1,614)
비육아가구	7.6	-	6.6	6.3	(410)
t	-7.4***		-0.2	-2.5*	

주: 평균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점 ~ '매우 만족한다' 10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p < .001.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별로 응답자 특성에 따라 가족관계 만족도를 살펴보면,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가 육아가구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비육아가구의 경우 남녀간에 차이가 없었다. 본인연령에 따른 차이는 육아/비육아가구 모두 만39세 미만인 경우가 만40세 이상인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육아가구는 첫째자녀가 영아일 경우, 본인이 취업/학업/휴직 중인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모든 관계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차이가 있었고, 부모 외 돌봄 인력이 있는 경우 자녀를 제외한 모든 관계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IV-1-34〉 가족관계 만족도(육아가구/비육아가구 비교)

단위: 점, (명)

육아/비육아 따로	육아가구					비육아가구			
	배우자 와의 관계	본인의 부모/ 형제와의 관계	배우자의 부모/ 형제와의 관계	재난의 관계	사례수	배우자 와의 관계	본인의 부모/ 형제와의 관계	배우자의 부모/ 형제와의 관계	사례수
전체	6.6	6.6	5.9	7.5	(1,614)	7.6	6.6	6.3	(410)
성별									
남성	7.0	6.7	6.5	7.5	(808)	7.8	6.9	6.8	(203)
여성	6.2	6.5	5.4	7.4	(806)	7.4	6.4	5.7	(207)
t	6.0***	1.9	8.9***	0.6		1.7	2.1*	4.4***	
본인 연령									
만34세 이하	7.1	6.8	6.1	7.5	(315)	7.8	6.5	6.5	(69)
만35-39세	6.7	6.7	6.1	7.7	(510)	8.2	7.0	6.7	(152)
만40-44세	6.4	6.4	5.8	7.4	(569)	7.1	6.4	5.9	(120)
만45세 이상	6.4	6.5	5.8	7.4	(220)	6.9	6.3	5.8	(69)
F	6.1***(a)	2.9*	1.9	2.4		7.4***(a)	2.0	3.1*(a)	
취업 여부									
취업중/학업중	6.7	6.7	6.2	7.5	(1,171)	7.6	6.7	6.4	(337)
휴직중	6.6	6.8	5.5	7.8	(157)	8.1	6.7	6.2	(25)
미취업	6.1	6.1	5.1	7.2	(286)	7.5	5.8	5.4	(48)
F	8.7***(a)	7.2**(a)	22.6***(a)	6.5**		0.6	3.1*	3.2*	
첫째자녀 연령									
영아(만0-2세)	7.1	7.0	6.5	7.8	(402)	-	-	-	-
유아(만3-5세)	6.3	6.5	5.9	7.5	(406)	-	-	-	-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6.5	6.4	5.7	7.3	(402)	-	-	-	-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6.5	6.4	5.6	7.3	(404)	-	-	-	-
F	7.0***(a)	7.0***(a)	8.9***(a)	7.1***					
부모 외 돌봄 인력 유무									
있음	6.8	6.8	6.4	7.5	(586)	-	-	-	-
없음	6.5	6.4	5.7	7.5	(1,028)	-	-	-	-
t	3.1**	3.5**	5.1***	0.0					

주: 평균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점 ~ '매우 만족한다' 10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남녀가 각각 생각하는 부부의 가사 분담 정도를 조사한 결과, 남성은 본인이 35.1%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이 응답한 배우자의 분담 정도는 24.3%로 차이

가 있었다. 육아/비육아가구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육아가구보다 비육아가구의 본인 분담률이 더 높게(육아가구 33.4%, 비육아가구 41.3%)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여성의 경우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비육아가구의 배우자 분담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육아가구 21.9%, 비육아가구 33.0%).

〈표 IV-1-35〉 부부의 가사 분담 정도(전체)

단위: %(명)

남녀 따로	본인	배우자	부부 외 타인	계
남성				
전체	35.1	60.3	4.7	100.0(987)
육아가구 여부				
육아가구	33.4	61.0	5.5	100.0(784)
비육아가구	41.3	57.5	1.2	100.0(203)
t	2.1*	-2.3*	0.7	
여성				
전체	71.9	24.3	3.8	100.0(950)
육아가구 여부				
육아가구	73.9	21.9	4.3	100.0(743)
비육아가구	64.9	33.0	2.1	100.0(207)
t	-1.8	1.1	1.4	

* $p < .05$.

육아가구의 남성의 가사 분담 정도를 응답자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의 연령이 만39세 미만인 경우 만40세 이상인 경우보다 본인 분담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부부와 타인 분담률의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약 7% 이상으로 높아져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와 부모 외 돌봄 인력이 있는 경우, 남성 본인의 분담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자녀 연령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지만, 영유아인 경우가 초등 자녀인 경우보다 남성의 가사분담률이 높았다. 본인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남성의 경우 휴직 상태인 경우 분담률이 50.8%로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높아졌고 여성의 경우는 미취업인 경우와 휴직 상태인 경우 본인 분담률이 각각 83.5%, 73.9%로 취업 중/학업 중보다 높았다.

〈표 IV-1-36〉 부부의 가사 분담 정도(육아가구)

단위: %, (명)

육아가구	남성				여성			
	본인	배우자	부부의 타인	사례수	본인	배우자	부부의 타인	사례수
전체	33.4	61.0	5.5	(784)	73.9	21.9	4.3	(743)
본인 연령								
만34세 이하	36.6	57.3	6.1	(117)	71.0	24.8	4.2	(175)
만35-39세	35.7	58.1	6.2	(214)	73.9	21.9	4.2	(272)
만40-44세	31.5	62.8	5.7	(310)	74.4	20.5	5.1	(234)
만45세 이상	31.6	64.6	3.8	(143)	80.0	18.7	1.3	(62)
F	11.8*** ^(a)	14.9*** ^(a)	1.7(a)		11.8*** ^(a)	14.9*** ^(a)	1.7(a)	
취업여부								
취업중/학업중	32.8	61.7	5.5	(745)	67.1	26.2	6.7	(364)
휴직중	50.8	45.6	3.6	(25)	73.9	23.1	3.1	(124)
미취업	37.1	52.1	10.7	(14)	83.5	15.2	1.3	(255)
F	297.2*** ^(a)	235.4*** ^(a)	12.0*** ^(a)		297.2*** ^(a)	235.4*** ^(a)	12.0*** ^(a)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5.5	59.9	4.7	(77)	76.9	19.8	3.3	(84)
300만원 이상 450만원 미만	32.0	65.6	2.5	(196)	79.6	18.0	2.5	(220)
45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31.0	64.6	4.3	(181)	72.9	23.6	3.6	(180)
600만원 이상 750만원 미만	35.6	57.6	6.8	(133)	68.2	25.1	6.7	(129)
750만원 이상	34.9	55.9	9.2	(197)	69.4	24.3	6.3	(130)
F	5.4*** ^(a)	1.6(a)	10.4*** ^(a)		5.4*** ^(a)	1.6(a)	10.4*** ^(a)	
첫째자녀 연령								
영아(만0-2세)	35.6	59.0	5.4	(198)	69.6	24.9	5.5	(198)
유아(만3-5세)	35.2	59.1	5.7	(201)	72.6	23.3	4.1	(193)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31.5	62.3	6.2	(191)	76.3	19.3	4.5	(178)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31.4	63.8	4.9	(194)	77.6	19.7	2.7	(174)
F	0.1(a)	0.2(a)	1.2(a)		0.1(a)	0.2(a)	1.2(a)	
부모 외 돌봄 인력 여부								
있음	35.8	51.7	12.5	(314)	63.7	24.0	12.4	(227)
없음	31.9	67.3	0.9	(470)	78.4	21.0	0.7	(516)
t	-6.0***	-2.2*	13.9***		-6.0***	-2.2*	13.9***	

* p < .05, *** p < .001.

비육아가구의 남녀 가사 분담 정도를 살펴보면, 연령과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없었고, 본인의 취업상태에 따라서만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모두 미취업과 휴직 상태인 경우 취업/학업 중보다 본인의 분담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1-37〉 부부의 가사 분담 정도(비육아 가구)

단위: %, (명)

비육아가구	남성				여성			
	본인	배우자	부부의 타인	사례수	본인	배우자	부부의 타인	사례수
전체	41.3	57.5	1.2	(203)	64.9	33.0	2.1	(207)
본인 연령								
만34세 이하	46.1	53.0	0.9	(33)	62.2	37.6	0.3	(36)
만35-39세	40.7	59.1	0.3	(76)	63.0	36.0	1.0	(76)
만40-44세	43.6	53.7	2.8	(60)	70.9	26.3	2.8	(60)
만45세 이상	33.8	65.3	0.9	(34)	61.6	33.0	5.4	(35)
F	2.1(a)	2.5(a)	2.6(a)		2.1(a)	2.5(a)	2.6(a)	
취업여부								
취업중/학업중	40.2	58.6	1.2	(191)	60.4	37.6	2.0	(146)
휴직중	53.3	45.0	1.7	(6)	73.8	23.5	2.6	(19)
미취업	64.2	35.8	0.0	(6)	76.7	21.1	2.3	(42)
F	29.7***	31.4***	0.1		29.7***	31.4***	0.1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8.5	71.5	0.0	(13)	63.6	34.2	2.3	(31)
300만원 이상 450만원 미만	41.1	58.1	0.9	(47)	75.8	23.8	0.4	(46)
45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39.7	57.4	2.9	(43)	66.5	31.1	2.4	(44)
600만원 이상 750만원 미만	50.1	49.1	0.8	(39)	59.1	38.1	2.8	(42)
750만원 이상	39.6	59.6	0.8	(61)	58.4	38.6	3.0	(44)
F	2.2(a)	2.0(a)	0.6(a)		2.2(a)	2.0(a)	0.6(a)	

*** p < .001.

남성과 여성의 부부간 가사 분담에 대한 만족도를 10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남성은 6.4점, 여성은 5.0점으로 두 집단 모두 보통 정도였고, 남성이 상대적으로 약간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비육아 가구에 따라 살펴보면, 남녀 모두 비육아 가구인 경우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육아가구보다 비육아가구의 본인 분담률이 더 높게(육아가구 33.4%, 비육아가구 41.3%)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더 높게 나타났다(표 IV-1-35 참고).

〈표 IV-1-38〉 부부의 가사 분담 만족도(전체)

단위: %(명), 점

남녀따로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 — — — — — — — — — → 매우 만족한다										계	평균	
	0	1	2	3	4	5	6	7	8	9			10
남성													
전체	1.6	0.8	1.3	3.6	6.2	17.4	19.6	21.6	14.9	5.2	7.8	100.0(987)	6.4
육아가구 여부													
육아가구	1.5	0.9	1.5	3.7	6.6	18.4	20.0	22.1	14.3	4.6	6.4	100.0(784)	6.3

남녀따로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 — — — — — — — — — → 매우 만족한다										계	평균	
	0	1	2	3	4	5	6	7	8	9			10
비육아가구	2.0	0.5	0.5	3.4	4.4	13.8	17.7	19.7	17.2	7.4	13.3	100.0(203)	6.8
$\chi^2(df)/t$	19.200(10)*												0.2
여성													
전체	10.0	4.3	6.7	7.9	9.8	12.6	14.7	14.7	11.4	3.7	4.1	100.0(950)	5.0
육아가구 여부													
육아가구	11.0	5.0	7.4	8.9	10.1	12.1	15.1	13.9	9.7	3.5	3.4	100.0(743)	4.8
비육아가구	6.3	1.9	4.3	4.3	8.7	14.5	13.5	17.9	17.4	4.3	6.8	100.0(207)	5.8
$\chi^2(df)/t$	30.003(10)**												0.8

주: 평균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점 ~ '매우 만족한다' 10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p < .01.

육아가구의 남녀의 가사 분담 만족도를 가구 특성별로 살펴보면, 첫째 자녀 연령에 따라서는 남성은 초등 저학년인 경우, 여성의 경우는 영아인 경우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사분담률과 함께 살펴보면 남성은 초등 자녀인 경우 본인 분담률이 낮았고, 여성은 영아 자녀인 경우 본인 분담률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표 IV-1-36 참고). 그 외에 자녀수에 따른 만족도 차이는 없었고, 부모 외 돌봄 인력 여부에 따라서는 남성 여성 모두 돌봄 인력이 있는 경우 만족도가 높아졌다. 본인의 가사분담률이 돌봄 인력이 있을 경우 여성은 감소하는 반면 남성은 더 높아지나 남성의 만족도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IV-1-36 참고).

〈표 IV-1-39〉 부부의 가사 분담 만족도(육아가구)

단위: 점, (명)

육아가구	남성		여성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전체	6.3	(784)	4.8	(743)
첫째자녀 연령				
영아(만0-2세)	6.4	(198)	5.4	(198)
유아(만3-5세)	5.9	(201)	4.5	(193)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6.5	(191)	4.6	(178)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6.3	(194)	4.6	(174)
F	5.0**		5.0**	
자녀수				
1명	6.3	(469)	4.9	(434)
2명 이상	6.3	(315)	4.7	(309)
t	0.9		0.9	

육아가구	남성		여성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부모 외 돌봄 인력 여부				
있음	6.3	(314)	5.1	(227)
없음	6.2	(470)	4.6	(516)
t	3.2**		3.2**	

주: 평균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점 ~ '매우 만족한다' 10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1.

2) 사회 및 공동체 생활

가족 외에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다양한 인간관계별로 관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4~6.4점으로(10점 척도) 보통 정도로 나타났다. 가족관계 만족도(6.0~7.5 점, 표 IV-1-32 참고)보다 약간 낮았다. 관계별로는 친구(6.4점), 직장 동료(6.3 점), 자녀 친구 부모(6.1점), 이웃(5.4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육아/비육아 가구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표 IV-1-40〉 인간관계 만족도(전체)

단위: 점, (명)

구분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자녀 친구 부모와의 관계	사례수
전체	6.4	5.4	6.3	-	(2,024)
육아가구 여부					
육아가구	6.4	5.5	6.3	6.1	(1,614)
비육아가구	6.5	5.3	6.2	-	(410)
t	-1.4	1.2	0.3		

주: 평균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점 ~ '매우 만족한다' 10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가족 외에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다양한 인간관계별로 관계 만족도를 육아/비육아 가구별로 개별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직장 동료와의 관계 만족도가 육아가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았으나, 비육아가구에서는 남녀 간에 차이가 없었다. 육아가구의 자녀 친구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는 여성보다 남성이, 미취업 보다는 취업/학업중인 경우가, 가구소득이 450만원 이하보다는 6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부모 외 돌봄인력이 있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고, 첫째자녀 연령이 영아인 경우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IV-1-41〉 인간관계 만족도(육아가구/비육아가구 비교)

단위: 점, (명)

육아/비육아 따로	육아가구					비육아가구			
	친구 와의 관계	이웃 과의 관계	직장 동료 와의 관계	자녀 친구 부모	사례수	친구 와의 관계	이웃 과의 관계	직장 동료 와의 관계	사례수
전체	6.4	5.5	6.3	6.1	(1,614)	6.5	5.3	6.2	(410)
성별									
남성	6.6	5.6	6.4	6.4	(808)	6.8	5.6	6.3	(203)
여성	6.2	5.4	6.1	5.9	(806)	6.3	5.1	6.2	(207)
t	3.6***	1.6	2.4*	4.6***		2.5*	1.8	0.3	
본인 연령									
만34세 이하	6.7	5.6	6.6	6.0	(315)	7.2	5.8	6.7	(69)
만35-39세	6.4	5.6	6.4	6.4	(510)	6.9	5.4	6.5	(152)
만40-44세	6.1	5.3	6.1	6.1	(569)	6.0	5.0	6.1	(120)
만45세 이상	6.2	5.4	6.0	6.1	(220)	6.1	5.2	5.5	(69)
F	4.7**	2.8*	5.0**	2.2		5.8**	1.7	4.2**	
취업 여부									
취업중/학업중	6.5	5.6	6.3	6.3	(1,171)	6.7	5.5	6.3	(337)
휴직중	6.6	5.3	6.1	6.0	(157)	6.5	4.5	5.2	(25)
미취업	5.8	5.2	-	5.7	(286)	5.2	4.6	-	(48)
F	10.3***	2.7	1.7	7.4**		8.7***	3.4*	6.2*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6.0	5.2	6.1	5.8	(218)	5.7	5.1	5.2	(44)
300만원 이상 450만원 미만	6.1	5.3	6.0	5.9	(429)	6.5	5.0	6.3	(93)
45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6.4	5.6	6.2	6.2	(369)	6.5	5.3	6.3	(87)
600만원 이상 750만원 미만	6.5	5.5	6.5	6.3	(264)	6.8	5.3	6.2	(81)
750만원 이상	6.7	5.7	6.5	6.4	(334)	6.8	5.7	6.6	(105)
F	4.0**(a)	2.2	2.9*(a)	3.8**(a)		2.0	1.1	2.5*	
첫째자녀 연령									
영아(만0-2세)	6.7	5.5	6.5	6.4	(402)	-	-	-	-
유아(만3-5세)	6.3	5.4	6.2	6.1	(406)	-	-	-	-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6.2	5.6	6.2	6.1	(402)	-	-	-	-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6.3	5.5	6.2	6.0	(404)	-	-	-	-
F	3.6*	0.5	1.3	2.1					
부모 외 돌봄 인력 유무									
있음	6.7	5.7	6.4	6.3	(586)	-	-	-	-
없음	6.2	5.4	6.2	6.1	(1,028)	-	-	-	-
t	4.0***	2.4*	1.5	2.0*					

주: 평균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점 ~ '매우 만족한다' 10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우리 사회 전반과 가족 및 친척, 이웃 등 각 집단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서는 4.5점(10점 척도)으로 보통 정도로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높지 않았다. 집단별로는 가족 및 친척에 대해서는 7.3점으로 신뢰하는 편으로 조사된 반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친구, 동료 등)과 이웃에 대해서는 각각 6.4점, 4.8점으로 보통 정도였고, 처음 만난 낯선 사람에 대해서는 3.1점으로 신뢰하지 않는 편으로 조사되어 차이가 나타났다. 육아/비육아 가구별로는 이웃과 낯선 사람에 대해서 육아가구가 비육아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표 IV-1-42〉 사회/집단에 대한 신뢰도(전체)

단위: 점, (명)

구분	우리 사회 전반	가족/친척	이웃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 (친구, 동료 등)	처음 만난 낯선 사람	사례수
전체	4.5	7.3	4.8	6.4	3.1	(2,024)
육아가구 여부						
육아가구	4.6	7.3	5.0	6.4	3.2	(1,614)
비육아가구	4.5	7.2	4.2	6.3	2.7	(410)
t	0.7	0.6	5.9***	0.7	3.7***	

주: 평균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0점 ~ '매우 신뢰한다' 10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01.

우리 사회 전반과 가족 및 친척, 이웃에 대한 신뢰도를 육아가구/비육아가구의 개별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사회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육아가구의 경우는 여성보다 남성이, 만40세 이상보다 만39세 이하인 경우가, 미취업보다 취업/학업/휴직 중인 경우가, 맞벌이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 개인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웃에 대한 신뢰도는 남성인 경우, 부모 외 돌봄 인력이 있는 경우 더 높았다.

〈표 IV-1-43〉 사회/집단에 대한 신뢰도-사회전반, 가족/친척, 이웃(육아가구/비육아가구 비교)

단위: 점, (명)

육아/비육아 따로	육아가구				비육아가구			
	사회 전반	가족/ 친척	이웃	사례 수	사회 전반	가족/ 친척	이웃	사례 수
전체	4.6	7.3	5.0	(1,614)	4.5	7.2	4.2	(410)
성별								
남성	4.8	7.5	5.2	(808)	4.7	7.3	4.5	(203)
여성	4.3	7.1	4.7	(806)	4.3	7.1	4.0	(207)
t	4.5***	4.1***	4.5***		1.4	1.1	2.2*	
본인 연령								
만34세 이하	4.9	7.3	4.9	(315)	4.3	7.3	4.2	(69)
만35-39세	4.7	7.3	4.9	(510)	4.5	7.6	4.2	(152)
만40-44세	4.4	7.2	5.0	(569)	4.4	7.0	4.0	(120)
만45세 이상	4.4	7.3	5.0	(220)	4.7	6.7	4.6	(69)
F	4.4**	0.4	0.2		0.4	3.0*(a)	1.2	
취업 여부								
취업중/학업중	4.7	7.4	5.2	(1,171)	4.6	7.3	4.3	(337)
휴직중	4.5	7.2	4.7	(157)	3.8	7.7	3.6	(25)
미취업	3.9	6.7	4.4	(286)	4.0	6.4	3.9	(48)
F	137***	159***	147***		2.3	3.9*	1.6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4.2	6.9	4.6	(218)	3.4	6.3	3.8	(44)
300만원 이상 450만원 미만	4.5	7.1	4.9	(429)	4.7	7.2	3.9	(93)
45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4.5	7.3	5.1	(369)	4.7	7.3	4.3	(87)
600만원 이상 750만원 미만	4.9	7.5	5.2	(264)	4.3	7.5	4.1	(81)
750만원 이상	4.7	7.5	5.0	(334)	4.7	7.3	4.7	(105)
F	3.0*	4.9***(a)	2.3(a)		3.1*	2.1	1.8	
첫째자녀 연령								
영아(만0-2세)	4.9	7.5	4.8	(402)	-	-	-	-
유아(만3-5세)	4.5	7.2	5.0	(406)	-	-	-	-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4.6	7.2	5.1	(402)	-	-	-	-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4.3	7.2	5.0	(404)	-	-	-	-
F	4.7**	2.5	1.7					
부모 외 돌봄 인력 유무								
있음	4.9	7.4	5.1	(586)	-	-	-	-
없음	4.4	7.2	4.9	(1,028)	-	-	-	-
t	4.6***	2.0*	2.0*					

주: 평균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0점 ~ '매우 신뢰한다' 10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처음 만난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도를 육아가구/비육아가구의 개별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여성보다 남성이 상대적으로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육아가구에서는 취업/학업중인 경우, 맞벌이인 경우, 부모 외 돌봄인력이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표 IV-1-44〉 집단별 신뢰도-개인적 친분 있는 사람, 낯선 사람(육아가구/비육아가구 비교)

단위: 점, (명)

육아/비육아 따로	육아가구			비육아가구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사람	처음 만난 낯선 사람	사례수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사람	처음 만난 낯선 사람	사례수
전체	6.4	3.2	(1,614)	6.3	2.7	(410)
성별						
남성	6.5	3.8	(808)	6.4	3.1	(203)
여성	6.3	2.7	(806)	6.3	2.4	(207)
t	2.9**	8.7***		0.7	3.2**	
본인 연령						
만34세 이하	6.5	3.3	(315)	6.4	2.7	(69)
만35-39세	6.4	3.3	(510)	6.7	2.7	(152)
만40-44세	6.3	3.1	(569)	6.0	2.8	(120)
만45세 이상	6.3	3.3	(220)	6.0	2.8	(69)
F	0.6(a)	0.7(a)		4.0**	0.1	
취업 여부						
취업중/학업중	6.5	3.5	(1,171)	6.5	2.8	(337)
휴직중	6.4	2.9	(157)	6.1	1.8	(25)
미취업	5.9	2.3	(286)	5.6	2.7	(48)
F	10.7***(a)	28.4***(a)		3.9*	1.9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6.0	3.0	(218)	5.6	2.6	(44)
300만원 이상 450만원 미만	6.2	3.2	(429)	6.2	2.5	(93)
45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6.6	3.3	(369)	6.5	3.0	(87)
600만원 이상 750만원 미만	6.6	3.3	(264)	6.3	2.3	(81)
750만원 이상	6.5	3.4	(334)	6.6	3.1	(105)
F	5.1***(a)	1.1(a)		2.3	2.1	
첫째자녀 연령						
영아(만0-2세)	6.6	3.3	(402)	-	-	-

육아/비육아 따로	육아가구			비육아가구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사람	처음 만난 낯선 사람	사례수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사람	처음 만난 낯선 사람	사례수
유아(만3-5세)	6.4	3.2	(406)	-	-	-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6.3	3.4	(402)	-	-	-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6.3	3.1	(404)	-	-	-
F	2.3	0.9				
부모 외 돌봄 인력 유무						
있음	6.5	3.8	(586)	-	-	-
없음	6.3	2.9	(1,028)	-	-	-
t	1.6	6.6***				

주: 평균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0점 ~ '매우 신뢰한다' 10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상황별 사회적 관계망 정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2.8점)과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2.7점)에 대해서는 있는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2.4점으로 없는 편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가구의 경우 급하게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2.6점으로 있는 편으로 조사되었다. 육아/비육아가구별로 비교해보면,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육아가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표 IV-1-45〉 사회적 관계망(전체)

단위: 점, (명)

구분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	급하게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사람	사례수
전체	2.4	2.7	2.8	-	(2,024)
육아가구 여부					
육아가구	2.4	2.6	2.7	2.6	(1,614)
비육아가구	2.5	2.7	2.9	-	(410)
t	-0.9	-1.5	-3.2**	-	

주: 평균은 '전혀 없다' 1점 ~ '꽤 있다'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1$.

사회적 고립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2.2점(4점 척도)으로 고립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비육아가구에 따라 비교해보면, 모든 항목에서 육아가구의 사회적 고립도가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표 IV-1-46〉 사회적 고립도(전체)

단위: 점, (명)

구분	외롭다고 느낀다	소외되어 있다고 느낀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편하게 의지할 수 있다	일상적인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사례수	평균
전체	2.2	2.1	2.7	2.8	(2,024)	2.2
육아가구 여부						
육아가구	2.3	2.2	2.6	2.7	(1,614)	2.3
비육아가구	2.1	1.9	2.8	2.9	(410)	2.1
t	4.1***	5.6***	-2.4*	-3.7***		5.2***

주: 1)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2) 전체 평균 산출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편하게 의지할 수 있다.', '일상적인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항목은 역코딩 함. 점수가 높을수록 고립도가 낮다고 해석할 수 있음.

* p < .05, *** p < .001.

육아/비육아 가구에 따라 사회적 고립도를 비교한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여성인 경우, 연령이 만40세 이상인 경우, 미취업인 경우, 고립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육아가구에서는 비육아가구와 달리 학력이 전문대졸 이하인 경우, 가구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첫째자녀 연령이 유아 이상인 경우 고립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47〉 사회적 고립도 평균(육아가구/비육아가구 비교)

단위: 점, (명)

육아/비육아 따로	육아가구		비육아가구	
	사회적고립도 전체(4문항) 평균	사례수	사회적고립도 전체(4문항) 평균	사례수
전체	2.3	(1,614)	2.1	(410)
성별				
남성	2.2	(808)	2.0	(203)
여성	2.3	(806)	2.2	(207)
t	-2.6**		-3.1**	

육아/비육아 따로	육아가구		비육아가구	
	사회적고립도 전체(4문항) 평균	사례수	사회적고립도 전체(4문항) 평균	사례수
본인 연령				
만34세 이하	2.2	(315)	1.9	(69)
만35-39세	2.2	(510)	2.0	(152)
만40-44세	2.3	(569)	2.2	(120)
만45세 이상	2.3	(220)	2.2	(69)
F	6.0***		5.8**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3	(170)	2.1	(57)
전문대학(2·3년제) 졸업	2.3	(325)	2.2	(65)
대학교(4년제) 졸업	2.2	(910)	2.1	(233)
대학원 재학 이상	2.2	(209)	1.9	(55)
F	2.6*		2.3	
취업 여부				
취업중/학업중	2.2	(1,171)	2.0	(337)
휴직중	2.2	(157)	2.2	(25)
미취업	2.4	(286)	2.3	(48)
F	8.1***		4.4*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4	(218)	2.3	(44)
300만원 이상 450만원 미만	2.3	(429)	2.0	(93)
45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2	(369)	2.1	(87)
600만원 이상 750만원 미만	2.2	(264)	2.0	(81)
750만원 이상	2.2	(334)	2.0	(105)
F	5.8***		1.9	
첫째자녀 연령				
영아(만0-2세)	2.1	(402)	-	-
유아(만3-5세)	2.3	(406)	-	-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2.3	(402)	-	-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2.3	(404)	-	-
F	7.5***			

주: 1) 사회적고립도문항 4문항을 총합하여 평균한 결과임.

2) 전체 평균에서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편하게 의지할 수 있다.', '일상적인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항목은 역코딩 함. 점수가 높을수록 고립도가 낮다고 해석할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라. 물질적 삶

1) 일 생활

전반적인 직업·일 만족도와 일·가정(생활) 양립 정도 만족도를 10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각각 6.0점, 5.9점으로 보통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 일·가정(생활) 양립 정도 만족도에서 육아가구보다 비육아가구가 약간 더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IV-1-48〉 일자리 만족도(전체)

단위: 점, (명)

구분	전반적인 직업·일 만족도	일·가정(생활) 양립 정도 만족도	사례수
전체	6.0	5.9	(1,477)
육아가구 여부			
육아가구	6.0	5.8	(1,150)
비육아가구	6.0	6.0	(327)
t	-0.1	-1.4	

주: 평균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점 ~ '매우 만족한다' 10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전반적인 직업·일 만족도를 육아/비육아가구별로 개별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육아가구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정규직 임금근로자인 경우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비육아가구에서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맞벌이인 경우, 자영업자인 경우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일·가정(생활) 양립 정도 만족도의 경우는, 육아가구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이, 전문대졸업 이하보다 4년제 대학졸업이상인 경우가, 정규직 임금근로자인 경우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비육아가구의 경우는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맞벌이인 경우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49〉 일자리 만족도(육아가구/비육아가구 비교)

단위: 점, (명)

육아/비육아 따로	육아가구			비육아가구		
	전반적인 직업/일 만족도	일·가정(생활) 양립 정도 만족도	사례수	전반적인 직업/일 만족도	일·가정(생활) 양립 정도 만족도	사례수
전체	6.0	5.8	(1,150)	6.0	6.0	(327)
성별						

육아/비육아 따로	육아가구			비육아가구		
	전반적인 직업/일 만족도	일·가정(생활) 양립 정도 만족도	사례수	전반적인 직업/일 만족도	일·가정(생활) 양립 정도 만족도	사례 수
남성	6.1	6.0	(759)	6.1	6.1	(188)
여성	5.9	5.5	(391)	6.0	5.9	(139)
t	1.5	2.9**		0.3	1.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5.6	5.5	(97)	5.5	5.6	(40)
전문대학(2·3년제) 졸업	5.7	5.5	(202)	5.6	5.6	(49)
대학교(4년제) 졸업	6.1	5.9	(682)	6.2	6.1	(194)
대학원 재학 이상	6.5	6.0	(169)	6.6	6.6	(44)
F	5.6**(a)	3.1*(a)		2.3	1.9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5.7	5.6	(114)	4.6	4.8	(25)
300만원 이상 450만원 미만	5.7	5.6	(260)	6.1	6.2	(61)
45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5.9	5.7	(277)	5.8	6.3	(69)
600만원 이상 750만원 미만	6.2	5.9	(211)	6.1	6.0	(78)
750만원 이상	6.4	6.1	(288)	6.5	6.0	(94)
F	4.6**	2.1		3.7**	2.4*	
맞벌이 여부						
맞벌이	6.1	5.8	(835)	6.2	6.1	(277)
외벌이	5.8	5.7	(257)	5.3	5.4	(50)
그 외	6.0	5.9	(58)	-	-	-
F	2.3	0.2		6.4*(a)	3.9*(a)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정규직)	6.1	5.9	(902)	6.0	6.0	(247)
임금근로자(비정규직/일용직)	5.8	5.5	(120)	5.5	5.6	(44)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5.8	5.5	(128)	7.1	6.5	(36)
F	1.8	3.1*		5.1**(a)	1.6	
첫째자녀 연령						
영아(만0-2세)	6.0	5.9	(264)	-	-	-
유아(만3-5세)	6.1	5.7	(304)	-	-	-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5.9	5.6	(290)	-	-	-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6.1	6.0	(292)	-	-	-
F	0.5	1.3				
부모 외 돌봄 인력 유무						
있음	6.2	5.9	(476)	-	-	-
없음	5.9	5.8	(674)	-	-	-
t	2.2*	1.0				

주: 평균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점 ~ '매우 만족한다' 10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p < .01.

다지고 있는 직장의 자녀양육 지원 제도 현황, 이용관련 분위기, 지지적인 육아 문화에 대해 10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4.5~4.9점으로 보통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나 지지적인 육아문화보다는 상대적으로 제도 마련이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육아/비육아 가구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IV-1-50〉 기업의 육아친화적 환경(전체)

단위: 점, (명)

구분	자녀양육 지원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	자녀양육 지원 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이다	지지적인 육아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사례수
전체	4.9	4.6	4.5	(1,477)
육아가구 여부				
육아가구	5.0	4.7	4.6	(1,150)
비육아가구	4.6	4.4	4.2	(327)
t	1.9	1.1	1.9	

주: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 '매우 그렇다' 10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직장의 육아친화적 환경을 육아/비육아가구별로 개별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정규직 임금근로자인 경우,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인 경우 상대적으로 직장의 자녀양육 지원 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고, 제도 이용이 더 가능한 분위기이고, 지지적인 육아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육아가구의 경우는 거주지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데, 광역시나 도지역보다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더 육아친화적인 직장을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51〉 기업의 육아친화적 환경(육아가구/비육아가구 비교)

단위: 점, (명)

육아/비육아 따로	육아가구				비육아가구			
	제도 구비	제도 이용 가능 분위기	지지적인 육아 문화 형성	사례수	제도 구비	제도 이용 가능 분위기	지지적인 육아 문화 형성	사례수
전체	5.0	4.7	4.6	(1,150)	4.6	4.4	4.2	(327)
성별								
남성	5.1	4.7	4.7	(759)	4.8	4.5	4.3	(188)
여성	4.8	4.6	4.4	(391)	4.4	4.4	4.1	(139)
t	1.7	0.7	1.2		1.3	0.2	0.7	

육아/비육아 따로	육아가구				비육아가구			
	제도 구비	제도 이용 가능 분위기	지지 적인 육아 문화 형성	사례수	제도 구비	제도 이용 가능 분위기	지지 적인 육아 문화 형성	사례수
본인 연령								
만34세 이하	5.3	5.0	4.8	(191)	4.1	4.2	3.8	(59)
만35-39세	5.4	5.1	5.0	(357)	5.3	4.9	4.6	(127)
만40-44세	4.7	4.3	4.3	(433)	4.0	3.9	4.0	(87)
만45세 이상	4.4	4.2	4.1	(169)	4.6	4.6	4.4	(54)
F	5.5**	6.1***	5.6**		4.0**	2.4	1.3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8	3.7	3.6	(97)	3.8	3.6	3.5	(40)
전문대학(2·3년제) 졸업	4.5	4.0	3.8	(202)	3.9	3.9	3.9	(49)
대학교(4년제) 졸업	5.3	5.0	4.9	(682)	4.9	4.6	4.3	(194)
대학원 재학 이상	5.1	4.8	4.8	(169)	5.0	5.0	4.8	(44)
F	9.6*** ^(a)	9.1*** ^(a)	11.2*** ^(a)		2.8*	2.4	1.8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4.6	4.4	4.4	(114)	2.4	2.8	2.6	(25)
300만원 이상 450만원 미만	4.6	4.4	4.3	(260)	3.8	3.9	3.8	(61)
45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4.6	4.3	4.4	(277)	4.9	4.6	4.6	(69)
600만원 이상 750만원 미만	5.4	4.9	4.7	(211)	4.9	4.7	4.2	(78)
750만원 이상	5.5	5.1	5.0	(288)	5.3	4.9	4.7	(94)
F	5.5***	3.7**	2.2		6.3***	3.0*	3.2*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정규직)	5.2	4.8	4.8	(902)	5.0	4.8	4.5	(247)
임금근로자(비정규직/일용직)	4.3	4.0	4.0	(120)	3.1	3.1	3.0	(44)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3.8	4.0	4.0	(128)	3.6	3.8	3.9	(36)
F	16.0***	7.4**	6.4** ^(a)		10.7*** ^(a)	6.6** ^(a)	5.0** ^(a)	
거주지역								
수도권	4.9	4.6	4.6	(600)	4.9	4.8	4.6	(166)
광역시(세종 포함)	5.3	5.0	4.8	(232)	4.4	4.1	4.1	(66)
도지역	4.8	4.5	4.5	(318)	4.2	4.0	3.7	(95)
F	1.6	1.8	1.0		1.9 ^(a)	3.3* ^(a)	3.2*	

주: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 '매우 그렇다' 10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2) 소득 생활

소득과 소비생활 만족도를 10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4.6~4.8점으로 보통이었다. 육아/비육아가구에 따라 비교한 결과, 비육아가구가 가구소득 만족도, 가구의 전반적인 소비생활 만족도, 자신을 위한 소비생활(의식주, 여가) 만족도 모든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52〉 소득 및 소비생활 만족도(전체)

단위: 점, (명)

구분	가구 소득 만족도	가구의 전반적인 소비생활 만족도	자신을 위한 소비생활 만족도	사례수
전체	4.6	4.8	4.7	(2,024)
육아가구 여부				
육아가구	4.6	4.7	4.6	(1,614)
비육아가구	4.9	5.1	5.3	(410)
t	-2.0*	-3.3**	-5.1***	

주: 평균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점 ~ '매우 만족한다' 10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육아가구의 소득과 소비생활 만족도를 살펴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전문대졸 이하보다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이, 취업/학업중인 경우,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정규직 임금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인 경우, 맞벌이인 경우, 첫째자녀 연령이 영아인 경우, 자녀수가 1명인 경우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한편 비육아가구의 경우는 성별 차이는 없었고, 학력, 가구소득, 종사상 지위,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만 있었다.

〈표 IV-1-53〉 소득 및 소비생활 만족도(육아가구/비육아가구 비교)

단위: 점, (명)

육아/비육아 따로	육아 가구				비육아 가구			
	가구 소득 만족도	가구의 전반적 소비 생활 만족도	자신을 위한 소비 생활 만족도	사례수	가구 소득 만족도	가구의 전반적 소비 생활 만족도	자신을 위한 소비 생활 만족도	사례수
전체	4.6	4.7	4.6	(1,614)	4.9	5.1	5.3	(410)
성별								
남성	4.8	5.0	5.0	(808)	5.0	5.3	5.5	(203)

육아/비육아 따로	육아 가구				비육아 가구			
	가구 소득 만족도	가구의 전반적 소비 생활 만족도	자신을 위한 소비 생활 만족도	사례수	가구 소득 만족도	가구의 전반적 소비 생활 만족도	자신을 위한 소비 생활 만족도	사례수
여성	4.3	4.3	4.2	(806)	4.8	5.0	5.1	(207)
t	4.2***	5.9***	6.4***		0.8	1.3	1.4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9	4.0	4.1	(97)	4.3	4.7	4.8	(57)
전문대학(2·3년제) 졸업	4.3	4.3	4.2	(202)	4.4	4.5	4.6	(65)
대학교(4년제) 졸업	4.7	4.9	4.8	(682)	5.0	5.2	5.4	(233)
대학원 재학 이상	4.8	5.0	4.7	(169)	5.3	5.8	6.1	(55)
F	7.2***	11.0***	7.7***		2.7*	3.9**	5.0**	
취업 여부								
취업중/학업중	4.7	4.9	4.8	(1,171)	4.9	5.1	5.3	(337)
휴직중	4.5	4.5	4.5	(157)	4.3	5.1	5.8	(25)
미취업	4.0	4.0	3.8	(286)	5.2	5.2	5.2	(48)
F	10.9***	14.4***	18.5***		0.9	0.1	0.7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7	3.9	3.8	(218)	3.5	3.8	3.9	(44)
300만원 이상 450만원 미만	4.0	4.3	4.3	(429)	4.6	4.8	5.0	(93)
45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4.5	4.7	4.5	(369)	5.0	5.2	5.4	(87)
600만원 이상 750만원 미만	5.0	5.0	5.1	(264)	4.8	5.3	5.4	(81)
750만원 이상	5.6	5.5	5.3	(334)	5.6	5.7	5.9	(105)
F	31.4*** ^(a)	21.1*** ^(a)	17.5*** ^(a)		6.5*** ^(a)	6.1*** ^(a)	5.9*** ^(a)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정규직)	4.8	4.9	4.9	(902)	5.0	5.3	5.5	(258)
임금근로자(비정규직/일용직)	4.1	4.3	4.1	(120)	4.0	4.2	4.5	(51)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4.6	4.6	4.5	(128)	4.7	5.3	5.2	(43)
경제활동 하지 않음	4.0	4.1	3.9		5.1	5.1	5.2	(58)
F	9.6***	10.5*** ^(a)	14.1***		2.8*	3.1*	2.5	
맞벌이 여부								
맞벌이	4.8	4.9	4.9	(995)	5.0	5.3	5.5	(311)
외벌이	4.2	4.4	4.2	(521)	4.4	4.5	4.7	(94)
그 외	3.8	3.8	3.6	(98)	4.8	5.2	4.8	(5)
F	16.0*** ^(a)	16.7*** ^(a)	19.7*** ^(a)		1.9	4.6*(a)	3.9*(a)	
첫째자녀 연령								

육아/비육아 따로	육아 가구				비육아 가구			
	가구 소득 만족도	가구의 전반적 소비 생활 만족도	자신을 위한 소비 생활 만족도	사례수	가구 소득 만족도	가구의 전반적 소비 생활 만족도	자신을 위한 소비 생활 만족도	사례수
영아(만0-2세)	4.9	5.0	5.0	(402)	-	-	-	-
유아(만3-5세)	4.5	4.6	4.4	(406)	-	-	-	-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4.5	4.6	4.5	(402)	-	-	-	-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4.4	4.6	4.5	(404)	-	-	-	-
F	2.6*(a)	3.8*(a)	4.2**(a)					
자녀수								
1명	4.7	4.8	4.8	(965)	-	-	-	-
2명 이상	4.5	4.4	4.4	(649)	-	-	-	-
t	1.7	3.4**	3.0**					

주: 평균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점 ~ '매우 만족한다' 10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자녀 양육비, 교육비, 주거비에 대한 부담 정도를 10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6.1~6.4점으로 보통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의 경우 육아가구가 약간 더 부담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차이가 있었다.

〈표 IV-1-54〉 비용 부담도(전체)

단위: 점, (명)

구분	자녀 양육비 부담도	자녀 교육비 부담도	주거비 부담도	사례수
전체	-	-	6.4	(2,024)
육아가구 여부				
육아가구	6.1	6.1	6.5	(1,614)
비육아가구	-	-	5.9	(410)
t			4.1***	

주: 평균은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0점 ~ '매우 부담된다' 10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01.

자녀양육비와 교육비를 육아가구의 개별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가구소득,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자녀가 영유아보다 초등학생인 경우,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경우 상대적으로 더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 부담도를 육아/비육아가구 별도로 개별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비육아가

구의 경우는 특성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육아가구는 가구소득, 거주지역, 자녀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도지역보다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경우 상대적으로 더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표 IV-1-55〉 비용 부담도(육아가구/비육아가구 비교)

단위: 점, (명)

육아/비육아 따로	육아가구				비육아가구			
	자녀 양육비 부담도	자녀 교육비 부담도	주거비 부담도	사례수	자녀 양육비 부담도	자녀 교육비 부담도	주거비 부담도	사례수
전체	6.1	6.1	6.5	(1,614)	-	-	5.9	(41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6.2	6.4	6.8	(218)	-	-	6.6	(44)
300만원 이상 450만원 미만	6.1	6.1	6.7	(429)	-	-	6.3	(93)
45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6.2	6.1	6.6	(369)	-	-	5.6	(87)
600만원 이상 750만원 미만	5.9	5.9	6.4	(264)	-	-	6.1	(81)
750만원 이상	5.9	5.9	6.1	(334)	-	-	5.5	(105)
F	1.8(a)	2.0	3.6**				2.3(a)	
맞벌이 여부								
맞벌이	6.0	6.0	6.5	(995)	-	-	5.8	(311)
외벌이	6.2	6.2	6.4	(521)	-	-	6.3	(94)
그 외	6.4	6.6	7.1	(98)	-	-	5.2	(5)
F	2.1	3.7*	3.3*				1.6	
거주지역								
수도권	6.0	6.1	6.6	(829)	-	-	6.0	(214)
광역시(세종 포함)	6.3	6.3	6.7	(323)	-	-	5.8	(83)
도지역	6.0	5.9	6.2	(462)	-	-	6.0	(113)
F	1.7	2.3	3.7*				0.2	
첫째자녀 연령								
영아(만0-2세)	5.8	5.5	6.5	(402)	-	-	-	-
유아(만3-5세)	5.7	5.6	6.4	(406)	-	-	-	-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6.3	6.5	6.7	(402)	-	-	-	-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6.5	6.7	6.5	(404)	-	-	-	-
F	11.3***	30.4*** ^(a)	1.2					
자녀수								
1명	5.8	5.7	6.4	(965)	-	-	-	-

육아/비육아 따로	육아가구				비육아가구			
	자녀 양육비 부담도	자녀 교육비 부담도	주거비 부담도	사례수	자녀 양육비 부담도	자녀 교육비 부담도	주거비 부담도	사례수
2명 이상	6.5	6.6	6.7	(649)	-	-	-	-
t	-6.5***	-7.5***	-2.1*					

주: 평균은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0점 ~ '매우 부담된다' 10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해서는 6점이 가장 높은 점수로 자신의 계층을 높게 인식한 것을 6점, 가장 낮게 인식한 것을 1점이 되도록 환산한 점수이며 전체평균은 3.1점, 육아가구가 비육아가구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본인과 자식 세대에서 노력한다면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0점에서 10점 사이로 응답하였고, 본인 세대에서의 계층이동 가능성 4.7점, 자식 세대에서의 계층이동 가능성 4.3점으로 평균보다 낮게 인식하였으나, 육아가구에서는 본인세대와 자식세대에서의 계층 이동가능성을 비육아가구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1-56〉 주관적 계층 의식 및 계층 이동(전체)

단위: 점, (명)

구분	주관적 계층 의식	계층이동 가능성		사례수
		본인 세대	자식 세대	
전체	3.1	4.7	4.3	(2,024)
육아가구 여부				
육아가구	3.2	4.7	4.5	(1,614)
비육아가구	3.1	4.3	3.5	(410)
t	4.5***	3.1**	6.5***	

주: 1) 주관적 계층의식 평균은 하-하 1점, 하-상 2점, 중-하 3점, 중-상 4점, 상-하 5점, 상-상 6점으로 재코딩하여 평정한 결과임.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계층의식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2) 계층이동 가능성 평균은 '개인의 노력으로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 0점 ~ '개인의 노력으로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10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1, *** p < .001.

주관적 계층의식을 응답자 개별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육아/비육아가구 모두 여성보다 남성이,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정규직 임금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 맞벌이인 경우, 수도권 거주자인 경우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이동 가능성을 육아/비육아가구별로 응답자 개별 특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 비육아가구에서는 특성별 차이가 없었고, 육아가구도 자식 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성별을 제외하고는 특성별 차이가 없었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본인과 자식 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을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육아가구의 본인 세대에서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학업/휴직 중인 경우,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정규직 임금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인 경우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차이가 있었다.

〈표 IV-1-57〉 계층 의식 및 계층 이동(육아가구/비육아가구 비교)

단위: 점, (명)

육아/비육아 따로	육아가구				비육아가구			
	계층 의식	계층이동가능성		사례수	계층 의식	계층이동가능성		사례수
		본인 세대	자식 세대			본인 세대	자식 세대	
전체	3.2	4.7	4.5	(1,614)	3.1	4.3	3.5	(410)
성별								
남성	3.3	5.0	4.7	(808)	3.2	4.5	3.7	(203)
여성	3.1	4.5	4.3	(806)	3.0	4.1	3.4	(207)
t	4.1***	4.1***	3.2**		2.0*	1.3	1.3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6	4.1	4.4	(170)	2.8	3.7	3.3	(57)
전문대학(2·3년제) 졸업	2.9	4.6	4.5	(325)	3.0	4.0	3.7	(65)
대학교(4년제) 졸업	3.3	4.9	4.5	(910)	3.2	4.4	3.4	(233)
대학원 재학 이상	3.5	4.9	4.5	(209)	3.3	4.9	4.2	(55)
F	385*** ^(a)	5.7**	0.1		5.0**	2.4	1.8	
취업 여부								
취업중/학업중	3.2	4.9	4.6	(1,171)	3.1	4.4	3.6	(337)
휴직중	3.3	4.7	4.3	(157)	3.2	4.6	3.6	(25)
미취업	2.8	4.2	4.3	(286)	3.0	3.7	3.4	(48)
F	22.7***	7.5**	1.8		0.7	1.5	0.1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4	4.1	4.4	(218)	2.7	3.3	3.3	(44)
300만원 이상 450만원 미만	2.9	4.6	4.5	(429)	2.9	4.5	3.7	(93)
45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3.2	4.5	4.4	(369)	3.1	4.6	3.9	(87)
600만원 이상 750만원 미만	3.5	5.1	4.5	(264)	3.2	4.2	2.9	(81)
750만원 이상	3.7	5.4	4.7	(334)	3.4	4.4	3.6	(105)

육아/비육아 따로	육아가구				비육아가구			
	계층 의식	계층이동가능성		사례수	계층 의식	계층이동가능성		사례수
		본인 세대	자식 세대			본인 세대	자식 세대	
F	836*** ^(a)	105*** ^(a)	0.5(a)		6.9***	2.1	1.7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정규직)	3.3	4.9	4.5	(1,009)	3.2	4.4	3.5	(258)
임금근로자(비정규직/일용직)	3.0	4.5	4.5	(141)	3.0	3.8	3.4	(51)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3.3	5.1	4.7	(157)	3.3	4.8	4.0	(43)
경제활동 하지 않음	2.8	4.2	4.3	(307)	2.9	3.9	3.6	(58)
F	192*** ^(a)	5.8**	0.7		2.7*	1.5	0.5	
거주지역								
수도권	3.3			(829)	3.2			(214)
광역시(세종 포함)	3.1			(323)	3.0			(83)
도지역	3.0			(462)	3.0			(113)
F	115*** ^(a)				2.5			
첫째자녀 연령								
영아(만0-2세)	3.3	4.8	4.4	(402)	-	-	-	-
유아(만3-5세)	3.1	4.6	4.4	(406)	-	-	-	-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3.2	4.9	4.7	(402)	-	-	-	-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3.0	4.7	4.5	(404)	-	-	-	-
F	6.6***	0.8	0.6					

주: 평균은 '개인의 노력으로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 0점 ~ '개인의 노력으로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10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1, *** p < .001.

마. 삶의 환경

1) 주거 생활

주택 점유형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8.3%가 자가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세 25.3%, 보증금 있는 월세 12.8% 순이었다. 육아가구의 경우 자가 가 59.4%로 비육아가구보다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육아가구의 첫째자녀 연령에 따라 주택 점유형태를 비교해보면, 자녀연령이 높아 질수록 자가 비율이 높아지고 전세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58〉 주택 점유형태(전체)

단위: %(명)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무상	사례수
전체	58.3	25.3	12.8	0.6	2.9	100.0(2,024)
육아가구 여부						
육아가구	59.4	25.3	12.0	0.6	2.7	100.0(1,614)
비육아가구	53.9	25.4	16.3	1.0	3.4	100.0(410)
$\chi^2(df)$	8.027(4)					
첫째자녀 연령						
영아(만0~2세)	52.2	33.6	11.2	0.5	2.5	100.0(402)
유아(만3~5세)	56.9	27.8	11.8	1.0	2.5	100.0(406)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63.9	19.2	13.7	0.2	3.0	100.0(402)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64.6	20.8	11.1	0.5	3.0	100.0(404)
$\chi^2(df)$	32.143(12)**(b)					

** p < .01.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상태에 대한 만족도를 10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5.8점으로 보통 정도로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 육아/비육아가구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 IV-1-59〉 거주 주택 만족도(전체)

단위: 점, (명)

구분	거주 주택 만족도	사례수
전체	5.8	(2,024)
육아가구 여부		
육아가구	5.8	(1,614)
비육아가구	5.8	(410)
t	-0.2	
첫째자녀연령		
영아(만0~2세)	5.9	(402)
유아(만3~5세)	5.9	(406)
초등학교저학년(만6~8세)	5.7	(402)
초등학교고학년(만9~11세)	5.7	(404)
F	1.0	

주: 평균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점 ~ '매우 만족한다' 10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2) 환경 생활

살고 있는 지역의 전반적인 주거환경과 교통 인프라, 문화·체육시설 등 세부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10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주거환경 만족도는 6.1점, 세부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5.4~6.1점으로 보통 정도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큰 차이는 없었으나 편의시설(6.1점), 교통 인프라, 보육·교육 관련 시설(각각 6.0점), 의료시설(5.7점), 문화·체육시설(5.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육아/비육아 가구가 느끼는 보육·교육 관련 시설 만족도는 비육아가구가 더 낮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육아가구, 비육아가구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1-60〉 주거환경 만족도(전체)

단위: 점, (명)

구분	전반적인 주거환경	교통 인프라	문화·체육 시설	편의시설	의료시설	보육·교육 관련 시설	사례수
전체	6.1	6.0	5.4	6.1	5.7	6.0	(2,024)
육아가구 여부							
육아가구	6.1	6.0	5.4	6.1	5.7	6.2	(1,614)
비육아가구	6.2	6.0	5.3	6.3	5.8	5.5	(410)
t	-1.1	0.3	0.4	-1.3	-0.6	4.9***	

주: 평균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점 ~ '매우 만족한다' 10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01$.

육아/비육아가구별로 개별특성에 따른 주거환경 전반과 교통 인프라와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육아가구의 경우는 여성보다 남성이, 미취업자보다 취업/학업/휴직 중인 경우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도지역 보다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육아가구의 경우는 거주지역에 따라서만 차이가 있었는데,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IV-1-61〉 주거환경 만족도-전반적인 주거환경, 교통인프라, 문화·체육시설(육아가구/비육아가구 비교)

단위: 점, (명)

육아/비육아 따로	육아가구				비육아가구			
	전반적인 주거환경	교통 인프라	문화· 체육 시설	사례수	전반적인 주거환경	교통 인프라	문화· 체육 시설	사례수
전체	6.1	6.0	5.4	(1,614)	6.2	6.0	5.3	(410)
성별								
남성	6.3	6.1	5.6	(808)	6.3	6.1	5.4	(203)
여성	5.9	5.9	5.1	(806)	6.1	5.9	5.2	(207)
t	3.6***	1.9	3.7***		0.8	0.6	0.7	
취업 여부								
취업중/학업중	6.2	6.1	5.5	(1,171)	6.2	6.1	5.4	(337)
휴직중	5.9	6.0	5.4	(157)	7.0	5.6	5.3	(25)
미취업	5.7	5.6	5.0	(286)	5.8	5.5	4.8	(48)
F	5.0**(a)	3.6*(a)	4.2*		2.3	1.2	1.1	
월평균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5.6	5.8	4.9	(218)	5.4	5.6	4.8	(44)
300만원 이상 450만원 미만	5.9	5.8	5.1	(429)	6.2	5.6	5.3	(93)
45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6.0	5.9	5.3	(369)	6.3	6.1	5.6	(87)
600만원 이상 750만원 미만	6.1	6.1	5.5	(264)	6.5	6.1	5.3	(81)
750만원 이상	6.6	6.4	6.0	(334)	6.3	6.2	5.3	(105)
F	8.6***(a)	3.4**(a)	9.1***		1.9(a)	1.1	0.9(a)	
거주지역								
수도권	6.1	6.1	5.6	(829)	6.5	6.4	5.6	(214)
광역시(세종 포함)	6.1	6.2	5.4	(323)	6.0	6.1	5.4	(83)
도지역	5.9	5.7	5.0	(462)	5.8	5.1	4.6	(113)
F	0.9	3.6*	7.1**		4.3*	9.3***(a)	6.5**	
첫째자녀 연령								
영아(만0-2세)	6.1	6.0	5.4	(402)	-	-	-	-
유아(만3-5세)	6.1	5.9	5.1	(406)	-	-	-	-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6.0	6.0	5.4	(402)	-	-	-	-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6.1	6.1	5.6	(404)	-	-	-	-
F	0.1	0.8	2.1					

주: 평균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점 ~ '매우 만족한다' 10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편의시설, 의료시설, 보육·교육 관련 시설에 대한 만족도 차이도 유사한 경향으로 조사되었다. 육아가구의 경우만 개별 특성별 차이가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미취업자보다 취업/학업/휴직 중인 경우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는 두 집단 모두에서 나타났는데,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 도지역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IV-1-62〉 주거환경 만족도-편의시설, 의료시설, 보육·교육 관련 시설(육아가구/비육아가구 비교)

단위: 점, (명)

육아/비육아 따로	육아가구				비육아가구			
	편의 시설	의료 시설	보육·교육 관련 시설	사례수	편의 시설	의료 시설	보육·교육 관련 시설	사례수
전체	6.1	5.7	6.2	(1,614)	6.3	5.8	5.5	(410)
성별								
남성	6.2	5.9	6.3	(808)	6.1	5.7	5.5	(203)
여성	6.0	5.4	6.1	(806)	6.4	5.8	5.5	(207)
t	2.4*	3.4**	1.8		-1.4	-0.4	0.2	
취업 여부								
취업중/학업중	6.2	5.8	6.2	(1,171)	6.3	5.7	5.6	(337)
휴직중	6.2	5.9	6.1	(157)	6.2	5.9	5.1	(25)
미취업	5.8	5.2	6.1	(286)	6.3	5.8	5.2	(48)
F	2.6(a)	6.6**(a)	0.7(a)		0.0	0.0	1.0(a)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5.8	5.2	5.9	(218)	6.1	5.4	5.2	(44)
300만원 이상 450만원 미만	5.9	5.5	6.1	(429)	6.6	5.6	5.5	(93)
45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6.1	5.6	6.1	(369)	6.1	5.7	5.6	(87)
600만원 이상 750만원 미만	6.0	5.7	6.1	(264)	6.3	5.8	5.5	(81)
750만원 이상	6.6	6.2	6.6	(334)	6.3	6.0	5.6	(105)
F	56*** ^(a)	6.0***	3.2*		0.4	0.5	0.2	
거주지역								
수도권	6.2	5.9	6.2	(829)	6.7	6.2	5.8	(214)
광역시(세종 포함)	6.1	5.9	6.3	(323)	6.3	6.2	5.6	(83)
도지역	5.9	5.0	6.0	(462)	5.5	4.6	4.9	(113)
F	3.1*	189*** ^(a)	1.0		84*** ^(a)	14.8***	5.2**	
첫째자녀 연령								
영아(만0-2세)	6.3	5.9	6.2	(402)	-	-	-	-

육아/비육아 따로	육아가구				비육아가구			
	편의 시설	의료 시설	보육·교육 관련 시설	사례수	편의 시설	의료 시설	보육·교육 관련 시설	사례수
유아(만3-5세)	5.9	5.5	6.1	(406)	-	-	-	-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6.0	5.5	6.2	(402)	-	-	-	-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6.2	5.8	6.2	(404)	-	-	-	-
F	2.1	2.5	0.1					

주: 평균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점 ~ '매우 만족한다' 10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거주중인 생활 환경의 공기의 질, 소음, 주변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10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육아/비육아가구 모두 5.6~6.3점으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고, 주변 자연환경(6.3점)>공기 질(5.8점)>소음(5.6점) 순으로 높았다.

〈표 IV-1-63〉 생활환경 만족도(전체)

단위: 점, (명)

구분	공기의 질	소음	주변 자연환경	사례수
전체	5.8	5.6	6.3	(2,024)
육아가구 여부				
육아가구	5.8	5.6	6.3	(1,614)
비육아가구	5.7	5.5	6.4	(410)
t	0.3	1.1	-1.2	

주: 평균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점 ~ '매우 만족한다' 10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거주중인 생활환경의 공기의 질, 소음, 주변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육아/비육아가구별로 개별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 육아가구에서는 성별,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있었고, 비육아가구에서는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육아가구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이, 취업중인 경우 휴직중이나 미취업인 경우보다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비육아가구의 경우는 수도권이나 광역시보다 도지역에 사는 경우 더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도지역 거주 비육아가구 경우 공기의 질과 소음정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표 IV-1-64〉 생활환경 만족도(육아가구/비육아가구 비교)

단위: 점, (명)

육아/비육아 따로	육아가구				비육아가구			
	공기의 질	소음	주변 자연 환경	사례수	공기의 질	소음	주변 자연 환경	사례수
전체	5.8	5.6	6.3	(1,614)	5.7	5.5	6.4	(410)
성별								
남성	6.0	5.8	6.5	(808)	5.9	5.5	6.4	(203)
여성	5.5	5.5	6.0	(806)	5.5	5.4	6.4	(207)
t	4.6***	2.6*	3.9***		1.8	0.4	0.0	
취업 여부								
취업중/학업중	5.9	5.8	6.3	(1,171)	5.9	5.6	6.5	(337)
휴직중	5.5	5.5	6.1	(157)	4.8	4.7	5.9	(25)
미취업	5.4	5.1	6.0	(286)	5.3	5.2	6.1	(48)
F	6.1**	7.3**	3.3*(a)		3.2*	1.6	1.4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5.4	5.3	5.8	(218)	5.0	4.7	5.8	(44)
300만원 이상 450만원 미만	5.6	5.5	6.2	(429)	5.9	5.5	6.3	(93)
45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5.8	5.6	6.2	(369)	5.5	5.6	6.5	(87)
600만원 이상 750만원 미만	6.0	5.8	6.5	(264)	6.4	5.6	7.0	(81)
750만원 이상	6.0	5.9	6.5	(334)	5.5	5.5	6.3	(105)
F	2.9*(a)	2.8*	4.4**(a)		3.2*	1.2	2.1	
거주지역								
수도권	5.7	5.6	6.3	(829)	5.4	5.3	6.4	(214)
광역시(세종 포함)	5.8	5.6	6.1	(323)	5.8	5.1	6.3	(83)
도지역	5.9	5.7	6.2	(462)	6.3	6.1	6.5	(113)
F	0.5	0.3	1.2		4.6*	5.6**	0.3	
첫째자녀 연령								
영아(만0-2세)	5.7	5.6	6.2	(402)	-	-	-	-
유아(만3-5세)	5.7	5.5	6.1	(406)	-	-	-	-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5.7	5.7	6.3	(402)	-	-	-	-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6.0	5.7	6.4	(404)	-	-	-	-
F	1.3	0.7	1.0					

주: 평균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점 ~ '매우 만족한다' 10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양육환경과 양육친화적 문화에 대해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2.4~3.0점으로 나타났다. '긴급한 돌봄을 요청할 곳이 있다(2.4점)'

와 ‘지역 내 정부의 지원 서비스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2.4점)’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이었고, 그 외에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긴다(3.0점)’, ‘아이가 있는 가정을 반기는 분위기이다(2.9점)’, ‘동네에 공원, 녹지, 놀이터 등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다(2.9점)’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약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65〉 지역사회 내 양육환경 및 문화-전체(육아가구)

단위: 점, (명)

구분	전체	사례수
1. 아이가 있는 가정을 반기는 분위기이다.	2.9	(1,614)
2.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긴다.	3.0	(1,614)
3. 아이의 ‘아이다음’에 대해 인정하고, 배려한다.	2.8	(1,614)
4. 동네에 공원, 녹지, 놀이터 등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다.	2.9	(1,614)
5. 우리 동네에 있는 놀이공간은 아이들이 놀기에 안전하다	2.8	(1,614)
6. 긴급한 돌봄을 요청할 곳이 있다.	2.4	(1,614)
7. 양육 관련 정보를 얻거나 양육 관련 지원을 받을 곳이 있다.	2.5	(1,614)
8. 양육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내 소통공간(온라인 맘카페, 공동양육나눔터 등)이 있다.	2.5	(1,614)
9.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 인프라(보육, 교육, 돌봄)가 잘 구성되어 있다.	2.5	(1,614)
10. 지역 내 정부의 지원 서비스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2.4	(1,614)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3) 안전 생활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네의 전반적 안전도와 우리 사회의 자녀를 키우기 안전한 정도를 10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동네에 대해서는 6.5점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반면, 사회의 자녀 키우기 안전한 정도에 대해서는 5.4점으로 보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비육아가구의 경우 육아가구보다 우리 사회가 자녀를 키우기에 더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표 IV-1-66〉 지역사회 안전(전체)

단위: 점, (명)

구분	동네의 전반적 안전	사회적 자녀를 키우기에 안전한 정도	사례수
전체	6.5	5.4	(2,024)
육아가구 여부			
육아가구	6.5	5.5	(1,614)

구분	동네의 전반적 안전	사회의 자녀를 키우기에 안전한 정도	사례수
비육아가구	6.6	5.1	(410)
t	-0.8	2.6*	

주: 평균은 '전혀 안전하지 않다' 0점 ~ '매우 안전하다' 10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안전도에 대한 인식을 육아/비육아가구별로 개별 특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 육아가구의 경우 응답자 성별, 학력,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더욱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비육아가구의 경우는 동네의 안전에 대해서는 가구소득이 450만원 이상인 경우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였고, 사회의 자녀 키우기 안전한 정도에 대해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차이가 있었다. 한편 두 집단 모두 거주지역에 따른 안전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없었다.

〈표 IV-1-67〉 지역사회 안전(육아가구/비육아가구 비교)

단위: 점, (명)

육아/비육아 따로	육아가구			비육아가구		
	동네의 전반적 안전	사회의 자녀를 키우기에 안전한 정도	사례수	동네의 전반적 안전	사회의 자녀를 키우기에 안전한 정도	사례수
전체	6.5	5.5	(1,614)	6.6	5.1	(410)
성별						
남성	6.7	6.0	(808)	6.6	5.5	(203)
여성	6.3	4.9	(806)	6.6	4.7	(207)
t	4.7***	9.2***		0.1	3.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5.6	4.5	(170)	6.2	5.0	(57)
전문대학(2·3년제) 졸업	6.1	5.0	(325)	6.5	5.0	(65)
대학교(4년제) 졸업	6.8	5.7	(910)	6.7	5.1	(233)
대학원 재학 이상	6.7	5.7	(209)	6.9	5.4	(55)
F	20.5*** ^(a)	16.1***		1.3	0.4	
취업 여부						
취업중/학업중	6.6	5.7	(1,171)	6.7	5.3	(337)
휴직중	6.5	5.3	(157)	6.1	4.2	(25)

육아/비육아 따로	육아가구			비육아가구		
	동네의 전반적 안전	사회의 자녀를 키우기에 안전한 정도	사례수	동네의 전반적 안전	사회의 자녀를 키우기에 안전한 정도	사례수
미취업	6.0	4.6	(286)	6.0	4.3	(48)
F	11.9***	22.8***(a)		3.6*	4.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6.1	4.9	(218)	5.8	3.9	(44)
300만원 이상 450만원 미만	6.2	5.3	(429)	6.4	5.1	(93)
45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6.5	5.4	(369)	6.9	5.2	(87)
600만원 이상 750만원 미만	6.8	5.5	(264)	6.9	5.4	(81)
750만원 이상	7.0	6.0	(334)	6.6	5.1	(105)
F	9.7***(a)	7.3***		2.8*(a)	2.7*(a)	
거주지역						
수도권	6.5	5.4	(829)	6.5	5.1	(214)
광역시(세종 포함)	6.5	5.5	(323)	6.7	5.3	(83)
도지역	6.5	5.4	(462)	6.6	4.9	(113)
F	0.3	0.2(a)		0.2	0.4	
맞벌이 여부						
맞벌이	6.6	5.6	(995)	6.8	5.2	(311)
외벌이	6.3	5.2	(521)	6.2	4.8	(94)
그 외	6.3	5.0	(98)	3.8	3.4	(5)
F	4.3*	6.8**(a)		7.6**	1.7	
첫째자녀 연령						
영아(만0-2세)	6.5	5.6	(402)	-	-	-
유아(만3-5세)	6.5	5.3	(406)	-	-	-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6.4	5.5	(402)	-	-	-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6.6	5.4	(404)	-	-	-
F	0.5	1.2				
부모 외 돌봄 인력 유무						
있음	6.7	5.7	(586)	-	-	-
없음	6.4	5.3	(1,028)	-	-	-
t	2.1*	3.6***				

주: 평균은 '전혀 안전하지 않다' 0점 ~ '매우 안전하다' 10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바. 주요생활 시간사용 패턴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의 시간분배 및 활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평일 주말로 나누어 수면, 유급노동, 집안일, 여가시간,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 하루에 사용하는 시간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평일 기준으로 비육아가구가 육아가구보다 수면, 직업활동, 여가시간에 대해서는 각각 30분, 24분, 1시간 18분 정도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고, 집안일의 경우만 42분 정도 육아가구가 많게 나타났다.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4시간 6분으로 나타나 상당한 시간을 자녀양육에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말을 기준으로 비육아가구가 육아가구보다 54분, 여가시간은 2시간 48분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며, 집안일은 육아가구가 54분정도 많이 하고 있었고, 주말 동안의 유급 노동시간은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IV-1-68〉 생활시간사용

단위: (명), 시간/분

구분		사례수	전체	육아가구	비육아가구	t
평일	수면 시간	(2,024)	6시간 24분	6시간 18분	6시간 48분	-7.2***
	직업 활동(유급노동시간)	(1,477)	8시간 6분	8시간 0분	8시간 24분	-2.5*
	집안일(가사노동시간)	(2,024)	2시간 42분	2시간 48분	2시간 6분	7.0***
	여가시간	(2,024)	1시간 42분	1시간 24분	2시간 42분	-10.9***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1,614)	-	4시간 6분	-	-
주말	수면 시간	(2,024)	7시간 18분	7시간 6분	8시간 0분	-10.6***
	직업 활동(유급노동시간)	(1,477)	1시간 54분	1시간 48분	2시간 12분	-1.5
	집안일(가사노동시간)	(2,024)	3시간 24분	3시간 36분	2시간 42분	8.8***
	여가시간	(2,024)	2시간 30분	1시간 54분	4시간 42분	-17.9***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1,614)	-	6시간 48분	-	-

주: 하루일과에서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시간사용만 독립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p < .05$, *** $p < .001$.

2. 육아가구 삶의 질 영향 요소

본 절에서는 심층면담 결과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 개인의 삶에서 육아로 인해 느끼는 행복한 순간, 우울한 순간 등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들을 정리해 보았다.

가. 행복한 순간 및 삶에 질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이 삶의 행복한 순간을 경험하는 순간은 자녀의 성장을 지켜볼 때, 가족이라는 느낌을 경험할 때, 자녀로부터의 애정표현을 받을 때, 육아 중 자신만의 시간을 누릴 때, 현재 삶의 균형적 운영을 체감할 때라고 한다.

1) 아이의 성장과 변화로부터 오는 행복

영유아기부터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까지 자녀의 성장으로 인한 변화를 볼 때 행복함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영유아 부모들은 개월에 따라 발달하는 변화에 부모로서의 새로운 경험에 행복을 표현하였다.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저는 아기가 성장 한 번 할 때마다 새로운 거 할 때 되게 신기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고, 또 지금 저는 일하고 있어서 어린이집 보내니까 키즈노트 사진 오면 그런 거 볼 때마다 너무, 가서 안아주고 싶고 그러고요.(영아 모1)

뭐 저도 행복할 때는 애가 애고 떨고 아빠 사랑해요 뭐 이런 한마디 할 때가 제일 행복하죠 애 키우면서.(영아 부3)

저는 매일매일 아이가 행동이나 말하거나 이럴 때 대화를 하고 소통이 되고, 또 어느 순간 밤에 잠을 잘 자고 또 기저귀를 떼고 스스로, 이런 모습을 할 때마다 많이 컸구나 뿌듯하고 행복해요(유아 모3)

초등학생의 부모들은 학년의 변화에 따른 성숙을 체감할 때, 함께 시간을 공유하며 소통한다고 느낄 때, 학업의 향상 등에서 행복감을 표현하였다.

애들이 그래도 초등학교 1학년이고 다 할 일은 하거나, 학원, 학교 다 마치고 돌아와서 자랑 같이 간식을 먹는다가나 이럴 때도 행복하고, 그냥 주말에도 애들이랑 어디 간다가나 데리고 간다가나 뭐 사주고 같이 함께할 때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초저 모5)

아이가 한 학년 한 학년 올라갈 때마다, 나이를 먹을 때마다 성숙해 가는 그 데이터가 있다고요. 가끔씩 자기 용돈에 맞춰서 선물을 준다거나 한 번씩 이렇게 성숙해 가는 자세를 볼 때 행복하다고 느낍니다.(초저 부3)

2) 가족이라는 느낌, 자녀와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

처음 자녀를 둔 영아기 부모들의 경우 부부만의 가족에서 자녀까지 가족이 확대됨에 따른 변화에 특히 행복감을 느끼고, 자녀의 존재 자체로, 또 자녀가 부모에게 애정 담은 표현을 할 때 행복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저는 그냥 아기랑... 그러니까 우리 가족끼리 뭔가 하는 게 행복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뭘 해도 막 여행을 가도 재미가 없고, 취미 활동을 해도 재미가 없고... 근데 가족이 생기고 아기가 있으니까는 아기랑 같이 남편이랑 여행 가는 것도 재밌고 어디 박물관 가는 것도 재밌고 놀이공원 가는 것도 재밌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게 행복한 것 같아요.(영아 모4)

지금 생각해 보면 행복한 거는 와이프랑 아이랑 셋이서 같이 함께할 때가 제일 많이 행복한 것 같아요.(영아 부5)

네. 저는 퇴근하고 제가 애기를 씻기고 마지막 수유를 하고 재우는 것까지 평일에 제가 하고 있는데, 밤에 아기 재울 때가 제일 행복하거든요. 왜냐하면 자는 모습도 예쁘고 그리고 아기가 자고 나서는 개인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그 때가 제일 행복하고요.(영아 부4)

현재는 아이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무조건적인 애정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새롭기도 하고 되게 부담이 되면서도 하여튼 가장 큰 행복을 안겨주는 순간이 아닌가, 아 얘는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고 정말 오로지 저에게만 어떤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유아 부4)

행복... 항상 매 순간이죠. 근데 아이가 좋아하고 힘껏 웃을 때? 그때 그 순간? 되게 크게 무슨 뭐 비싸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아무 얘기 없이 같이, 나하고 같이 통했다 그러죠. 같이 웃을 때.(초저 부4)

부모들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하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전해오는 행복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또 자녀의 좋아하는 모습 속, 행복해하는 모습 속에서 행복을 체감하기도 한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와의 유대감을 확인하고 특히 자녀와 적절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낄 때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체감한다고 하였다.

아이가 웃을 때가 가장 행복하거든요. 서로 놀 때가 제일 행복하고.(초저 부1)

퇴근하고 아기랑 밥 먹는 시간도 소중한가지고 나가서 외식하는 것도 행복하고, 주말에 남편이랑 어디 나가는 그런 시간도 행복하고.(초저 모4)

그냥 특별하지 않고 일상 중에서 어떤 부분을 느낄 때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둘째가 전화 통화로 엄마 어디야 하다가, 갑자기 엄마 사랑해 말해줄 때 있잖아요. 뜬금없이. 그럴 때 조금 소소한 건데 그럴 때 약간 느끼는 것 같아요.(초고 모3)

저는 삶의 질이 한 지금은 8점 정도 된 것 같고요. 지금은 아이가 만 5세여서 말도 알아듣고 어느 정도 제 지시에 잘 따라주고 저와 티키타카가 되기 때문에...그래서 지금은 아이와 지내는 시간도 그렇게 큰 트러블 없이 잘 지내고 있고, 요즘에 학습적인 것 때문에 많이 부딪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가 되어가서, 저는 요즘이 가장 아이 키우기 굉장히 편한 시기 같아서.(유아 모2)

일단 아기가 좀 크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것들도 조금 생겼고요. 그리고 대화가 가능해지고 하면서 그런 면들이 조금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유아 모5)

처음에는 태어났을 때 참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었고, 지금은 소통을 하고 있으면서 아이와 티키타카가 되고 이럴 때, 그럴 때 많이 행복을 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유아 부2)

뭐 굳이 돈을 쓰고 키즈 카페 같은 데 가지 않더라도 아이와 같이 뭘 하고, 그래도 애가 나만 바라보면서 여기 와서 좋아요, 아빠랑 같이 있어서 좋아요 이런 말 한 마디 한 마디 하는 게 저에게는 삶의 질이 참 높아진다고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유아 부2)

아이랑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제 여유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는 만족감이 크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초저 모4)

저는 조금 힘들고 그럴지언정 아이들을 위해서 더 하려고 애를 쓰는 편인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더 아껴서 아이들 학원이라든지 아이들이 체험하고 싶은 거라든지 그런 거를 더 해주고, 그리고 애들이 엄마 나 이거 해서 너무 좋아라 하는 모습을 했을 때, 아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가 좋아한다는 거에 조금...(초고 모4)

3) 부부간 또는 개인의 시간을 누릴 때

부모들은 육아로부터 분리되어 자기만의 시간을 누린다고 체감할 때 행복감을 느끼며, 부모로서의 시간이 아닌 개인의 시간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될 때 부모들은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느꼈다.

제가 행복해야 아기도 행복할거고 다 가장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제일 가장 요즘 행복한 시간은 퇴근 후에 혼자 운동하러 가는 시간이 있는데, 지금은 애기가 아무리 행복해도 그 시간이 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퇴근하고 혼자 운동하는 시간.(초저 모4)

스스로의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운동도 하고 취미활동도 하고 주변 사람도 만나고 하면서 저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올라간 편이고요.(초저 모3)

부모들은 육아를 벗어나 부부만의 시간을 누릴 때 삶의 질의 변화를 체감한다.

저도 제 시간이 보장이 되고, 그걸 넘어서 신랑이랑 둘이 있는 시간이 좀 많이 있어서 같이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러면 삶이...둘이 같이 뭔가 활동한다는 게 어쨌든 뭔가 보장이 된다는 느낌이니깐 그런 경우가 가끔 있을 때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영아 모2)

애가 자고 나서 오늘 하루 어땠냐고 와이프랑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최소한의 행복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유아 부2)

애들 다 재우고 신랑하고 둘이 닭발을 먹었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초고 모1)

올해부터 아이가 친구들이랑 자주 놀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컸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도 와이프랑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게 많아져서 행복함이 생긴 것 같습니다.(초고 부5)

육아로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짬을 내어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한 행복감, 삶의 질 향상이 컸으며, 그 외에도 미디어 시청 및 음악감상 및 혼자 쉬기 등의 개인시간도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제가 TV를 본다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이런 데서 굉장히 삶의 질이 저한테는 높다고 느껴 지거든요.(초저 모5)

저는 지금 현재 10점인 것 같아요. 어떤 활동을 할 때 삶의 질이 높아질까도 잠깐 생각했는데, 결국은 제가 좀 더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 그게 저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지는 것 같고.(초저 부2)

4) 일과 양육, 삶의 균형이 느껴질 때

부모들은 일과 육아, 여가,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등 균형 잡힌 삶을 운영하고 있다고 느낄 때, 행복감을 경험하였고, 부모의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파트타임, 프리랜서 등 육아가 가능한 일을 하는 등의 노력으로 일과 양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때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제 계획에 짜여진 대로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흘러갈 때 제일 행복합니다.(유아 모4)

물론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육아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육아랑 저의 여가와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영아 모5)

제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직장 다니면서 돈 벌고, 그리고 나서 운동하고, 운동하고 나서의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영아 모3)

(삶의 질을 평가하면) 저는 10점 만점에 8점인 것 같고,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리고 아이도 케어를 하고 신랑도 도와주는 면이 있고, 그러니까 아이도 어린이집 가면서 좀 덜 아프고 이리다 보니깐 그런 삼박자가 딱 짜여져 있어서 제일 좋은 것 같고...(유아 모3)

저도 또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으로 그래도 만족하면서, 저 또 일하고 나서 애들 학원 보내고 하면 제 여유 시간도 있고. 그리고 이사를 넓은 평수로 하면서 또 그런 만족감도 오는 것 같고.(초저 모5)

(삶의 질을 평가하면) 거의 1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직장도 최근에 이직해서 많이 안정적으로 됐고 애들도 계속 크고 변화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된 것 같아서, 애들도 아직 저학년이긴 하지만 그래도 말귀도 어느 정도 많이 알아듣고...(초저 부 1)

5) 가족과의 여행으로 인한 삶의 영역 확장

또한 여행이나 놀이처럼 가족이 공유하는 시간 안에서 부모들은 행복을 체감하며 부모 자신의 성숙도 경험한다고 한다.

(삶의 질을 평가하면) 그래도 7점? 아이랑 여행을 다니거나 이런 거 안 가봤던 데 가는 거, 그럴 때 좋고요. 아니면 취미생활도 아예 못했다면 지금은 그래도 애가 좀 커가지고 조금씩 할 수 있을 때.(초고 부2)

삶의 질이 높아질 때는 가족들이랑 같이 다 여행 갈 때? 그때 행복감도 많이 느끼고 아 정말 좋아졌구나.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초저 부1)

애기랑 남편이랑 퇴근하고 치킨을 시켜 먹는다든지 이런 소소한 행복이랑, 주말에 마트를 간다든지 어디 야외로 놀러 간다든지 이런 게 저한테는 큰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초저 모4)

아이들하고 여행 많이 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고 느낄 때, 그럴 때 아이들이 많이 성장하고, 그러면서 저도 뭔가 부모로서 더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는 것 같아요.(초고 모1)

6) 부부의 적절한 양육 분담

육아를 하면서 겪게 되는 부부간의 양육분담이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공평하게 서로가 만족하는 수준의 육아참여도, 부부의 적절한 양육 분담이 이루어질 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었다.

(삶의 질을 평가하면) 10점에 가까운 9.5점 정도 되는데, 저희 아이는 지금 37개월이거든

요. 남자 아이라서...남편이 많이 전담을 해 주고. 저도 저녁에는 운동을 가고 필라테스를 가고,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삶의 질도 만족스러운 편이에요.(유아 모3)

(삶의 질을 평가하면) 한 7점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저는 남편이 애들을 데리고 본인 집에도 혼자 자주 가는 편이고...(초저 모2)

(삶의 질을 평가하면) 저는 7점 정도인데 신량이 늦게 출근하다 보니까 그래도 요즘 방학이나 평소에도 애들한테 육아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서...(초저 모5)

나. 우울한 순간 및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

다음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꼈던 우울한 순간 및 육아로 인해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한 응답들을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양육과정의 어려움 및 양육분담의 어려움을 겪을 때, 친구와 일 등의 변화가 체감될 때, 부부만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외부 요인으로 자녀양육을 소홀하게 할 때, 부모로서 잘하고 있다는 효능감이 떨어질 때, 금전적 부족감을 느낄 때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 양육의 어려움과 육아의 부담

부모들은 자녀 양육, 육아의 어려움, 체력의 부족함이 와 닿을 때 우울감을 느끼기도 한다. 육아의 단조로움, 체력적 어려움, 양육자로서의 무력감 등은 부모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 요소로 체감되고 있다.

기본적인 걸 못 할 때인 것 같아요. 잠이 많이 부족하거나, 아기가 중간에 많이 깨거나 이랬을 때 너무 피곤하거나 했을 때는 짜증이 많이 올라오고, 그러면 아기한테 짜증을 못 내니까 남편이랑 싸우게 되고.(영아 모1)

저는 체력이 잘 안될 때 조금 우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해주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제가 체력이 좀 약한 편이어가지고 그게...(영아 모2)

할 일이 쌓였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다 끝냈다고 생각하는데 또 애들 자고 나도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남았을 때? 정리를 해도 해도 끝이 없잖아요. 가사일도 그렇고, 또 애들 공부 요즘에 학년 올라갈수록 공부시킬 때도 힘든 것 같아요.(초고 모2)

지금은 가장으로서의 사실 가정, 그러니까 가족과의 시간이지요. 근데 이게 육아휴직을 해보니까 마냥 그 시간을 쓴다 해서 가족과의 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냥 또 다른

노동의 시간이라고 사실 어느 정도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영아 부2)

일단 아이 보면 제 아이가 있다는 게 그거는 행복한데, 다들 공통적으로 얘기했듯이 저만의 시간도 없고, 또 하나는 일을 하고 와도 와이프는 육아로 아이를 또 재우고 밥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일은 전부 제 일이 되더라고요. 청소부터 해서 뭐 뒷정리까지,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잠잘 시간도 부족한 것 같고, 거기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영아 부1)

일을 하는 부모의 경우 일로 인해 자녀에게 필요한 지원을 잘 못해 준다고 느낄 때 우울감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아기들은 지금 1학년이라서 일찍 끝나거든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놀이터도 많이 가고 엄마 들끼리 모임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를 못 따라갈 때 제일 속상하고, 애기가 전화 와요 학교에서. 엄마 나 누구 엄마랑 어디 가는데 엄마는 못 오지? 제가 속제하고 이런 거 봐주고 싶는데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시간들이 요즘에 우울하고, 내가 꼭 굳이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초저 모4)

자녀가 아프다든지, 짜증을 낸다든지, 형제자매 간 다툼, 자녀가 말을 안듣는 등 양육 중 만나는 여러 상황으로부터 속상하고 우울함을 경험한다.

저는 아기가 좀 아픈 데가 있어가지고 그게 속상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남편 늦게 들어올 때 화가 나죠.(영아 모5)

제가 최근에 육아 번아웃이 와서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그 이유가 아기가 밥을 정말 잘 안 먹어요. 뭘 해줘도 맨밥만 먹고 이래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좌절스럽고 그랬고...(영아 모3)

저는 아들이 둘인데, 둘이서 정말 사소한 걸로 목숨 걸고 싸울 때. 그리고 저도 모르게 솔직히 좀, 그 화를 아이들한테 분출을 하는데, 그렇게 분출하고 나면 많이 후회하고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초고 부3)

2) 육아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변화(직장, 친구 등)

부모들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직장이나 친구와의 관계 지속이 쉽지 않을 때 우울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좌절이 있었고, 사회적 삶의 영역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저도 똑같이 회사를 다녔고 했는데 남편은, 저는 육아휴직 중이긴 한데 남편은... 똑같, 그

러니까 애를 낳기 전이랑 후랑 거의 비슷한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뭔가 일도 일이고, 집안일이며 아기 보는 거며 전적으로 제가 다 하고 있어 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우울하고 짜증나서...(영아 모4)

언제 우울하냐면 주변 친구들 중에 미혼인 친구들도 여럿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랑 가끔씩 친구들끼리 술자리를 갖거나 이럴 때 저는 조금 자리 참여가 어려우니까 그럴 때 소외될 때 약간 우울한 걸 느끼는 것 같아요.(영아 부4)

친구도 만나기도 힘들고 또 만난다고 하더라도 일찍 들어와야 되니까 그럼 노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게 우울한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영아 부1)

3) 양육분담으로 갈등을 겪을 때

부모들은 자녀양육 과정에서 서로의 역할 분담이 적절하지 않다고 체감할 때 우울감을 표현한다. 남편의 경우에는 한다고 하여도 부인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하소연도 한다.

(자녀 양육을) 남편은 본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문제는 본인은, 제가 봤을 때 성에 안 차는데 본인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정말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싸우기도 많이, 그러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뭐라고 하는 상황인긴 한데 그럴 때 많이 지치고 힘들고 슬프기도 한 것 같아요.(영아 모3)

사실은 저는 딸아이를 키우고 있고 제가 지금 당장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보다는 제가 아이를 책임지고, 그리고 집안일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다 전담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청소라든지 살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강요하는 식의 이런 대화가 이루어졌을 때 우울하다고 느끼기도 하고...(영아 부5)

좀 우울할 때는 가끔 와이프가 자기만 독박육아 하는 것 같다고 아쉬운 소리 할 때 마음에 상처를 입죠.(영아 부3)

저는 엄마다 보니까 아이들 챙겨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혼내기도 할 것 같고 챙기기도 하는데, 이럴 때 저는 미안하고 생각하고... 아빠는 칭찬만 해주고 놀아주니까 아빠한테 가서 막 좋다 좋다 할 때, 나도 좋은 말만 하면 얼마든지 좋은 엄마 될 수 있는데 이런 나쁜 역할만 내가 맡아서 하는구나, 나만 나쁜 엄마 되는구나, 약간 이런 기분이 들 때 조금 우울한 것 같아요.(초고 모4)

4) 부부가 함께 하지 못하는 시간 등 개인 시간 부족

육아로 인해 부부간에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가 어렵고 부부가 함께하는

취미, 여행 영화보기 등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우울감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아무래도 아내랑 아이가 있기 전에는 취미를 많이 같이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취미가 뭐 의도치 않게 육아가 돼버린 상황이니깐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취미 생활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게, 당장은...(영아 부2)

아무래도 결혼하면서 여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못하고 둘만의 시간을, 영화라든가 이런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삶의 질 점수가 7점.(영아 부4)

육아가구의 부모는 자신의 시간이 없다고 느낄 때 삶의 질이 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육아로 인해 부부간 시간, 개인시간 등이 없는 것을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들 공통점하신 것 같은데 자기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또 아직 공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분처럼 지금 한 4년 연속 1년에 한번 친구 만나고 있고.(영아 부3)

저는 일을 하고 있어서 직장 맘인데, 일에 대한 신경과 애에 대한 것도 놓지 않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 제 개인 시간이 하나도 없거든요. 다 똑같겠지만.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분이 커진 거에 대해서 저의 삶은 떨어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초고 모3)

5) 양육효능감이 떨어질 때

부모들은 부모로서 잘하고 있다는 느낌,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다는 양육효능감이 떨어지는 순간에 우울감을 경험하고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요소로 인식하였다. 자녀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할 때, 자녀에게 화를 내고 나서 부모들은 속상하다고 한다.

저도 1학년 방학 중인데, 학교생활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하거나 어려움을 얘기할 때 그럴 때 엄마로서 어떻게 제가 그걸 해결해줘야 될지... 딸 같은 경우에는 7살이지만 여자아이다 보니까 섬세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친구 관계를 고민하고 힘들어한다거나 그런 얘기를 들으면 힘들더라고요.(초저 모1)

아이가 학교 들어가서 어려웠던 점이나 아니면 본인이 적응하면서 힘들었던,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아니면 제가 도와줘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 못하고 도움을 주기

어려울 때, 제 스스로가 속상한 것 같아요.(초저 모3)

아이들한테 훈육을 할 때, 밤에 잘 때 생각해 보면 이거는 내가 좀 더 이성적으로 더 쉽게 설명하고 하면 됐을 텐데 감정적으로 아이한테 다그친 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속상함을 많이 느꼈어요.(초저 부5)

6) 육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금전적 지원의 부족감을 체감할 때 부모들은 우울감을 경험한다. 또한 자녀의 성장과 더불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때 등 경제적 부담은 부모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아버지들에게서 또 본격적인 사교육을 많이 시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부모에게서 경제적 부담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아무래도 금전, 꼭 그렇게까지 필요한가라는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금전적인 것 때문에 내가 이 아이한테 이것도 못 해주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를 테면 하다 못해 장난감 하나를 사주려고 하더라도 퍽 하니 사준다고보다는 뭔가 따지게 되고 이런 순간들이 일상 속에서 잘게 잘게 있다 보니까, 그런 때들이 조금은...(유아 부4)

돈 때문에 싸운다든지 교육비로 서로 의견이 안 맞는다든지, 아이가 둘이니까 아무래도 돈 때문에 다툼 일이 좀 있어 가지고 그럴 때 우울하고 그런 것 같아요.(초고 모5)

경제적으로 학원이나 이런 걸 보내다 보면 조금, 구민 님 말씀대로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게 되는 것도 있고, 아이한테 많이 올 인을 하다 보니까 자금적, 금전적인 걸로 스트레스 받을 때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초고 부2)

애들이 커가면서 점점 약간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오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고학년이고 더 중고등학생이 되면, 앞으로 대학교까지 만약에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장사에 대한 벌이를 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제 삶의 질이 그렇게 자꾸 높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초고 부1)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거는 아무래도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를 가지는 게 저는 삶의 여유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렇게까지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생각은 못 들어가지고,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초고 부3)

또한 자녀를 위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부모 자신을 위한 소비가 감소된 측면도 물질적 삶의 측면에서 부정적 삶의 요소로 체감되기도 한다.

아무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취미라든지 아니면 사고 싶은 거라든지 그런 걸 전혀 못하니까, 전하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못하니까 좀 그거에 대한 질은 떨어진 것 같습니다.(초고 부5)

그러니까 쇼핑을, 제 거를 사겠다는 마음을 먹고 쇼핑을 가도 큰 애 거 먼저 사고 있고, 내 거는 100번을 고민해서 1개, 2개를 사면 애 거는 계획이 없어도 지나가다가 구입하게 되고. 모든 게 다 거의 애 위주로 간 것 같아요.(초고 모2)

7) 나의 삶에 대한 고민

육아로 인해 부모로서의 성장을 위한 고민, 개인의 삶을 발전시키고자하는 마음을 지속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육아를 하다 보니 부모 개인의 삶을 잃은 것 같은 느낌도 삶의 질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행복한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제 스스로,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들한테 짜증도 덜 내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저의 행복? 나를 즐거움을 찾으려고 지금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초저 모1)

아이를 낳고 나서는 그런 모든 저의 열정을 다 아이한테만 지금 쏟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저의 정체성을 많이 잃은 것 같기도 해요.(유아 모3)

저도 결혼 전에는 저만 위해서 맨날 생활하고 살았다면, 요즘은...아이 위주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약간 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초저 모2)

제일 솔직히 힘든 거는 제 자신이, 제가 저도 하고 싶은 게,남자로서 하고 싶은 게 있고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를 다 포기하고 아이한테 투자할 때. 투자를 하면서도 아이는 당연히 모르겠죠. 근데 그게 왜 나의 삶은 없을까, 그럴 때 제일 회의감이 들죠.(초고 부4)

같은 맥락으로 자녀를 위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 본인의 경력단절이 된 어머니들의 고민이 있었다.

글쎄요. 제가 아직 전업주부로 조금 오래 지내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뭘 해야 행복할지.(초저 모1)

아직까지는 지금은 즐겁지만 어느 정도 아이가 더 커가면서 제가 더 주가 된 삶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제 시간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그 때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라는 약간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고민을 하고 발전을 해가야 될 것 같아요.(초저 모 3)

또한 후속출산을 원했으나, 첫째양육의 어려움으로 낳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를 하는 부모도 있었다.

저는 아기가 하나밖에 없는데, 아기 키웠을 때는 너무 힘들어 가지고 하나만 낳고 잘 키우자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 사실 요즘은 아니고 한 몇 년 전부터 그래도 하나 더 낳았으면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초고 부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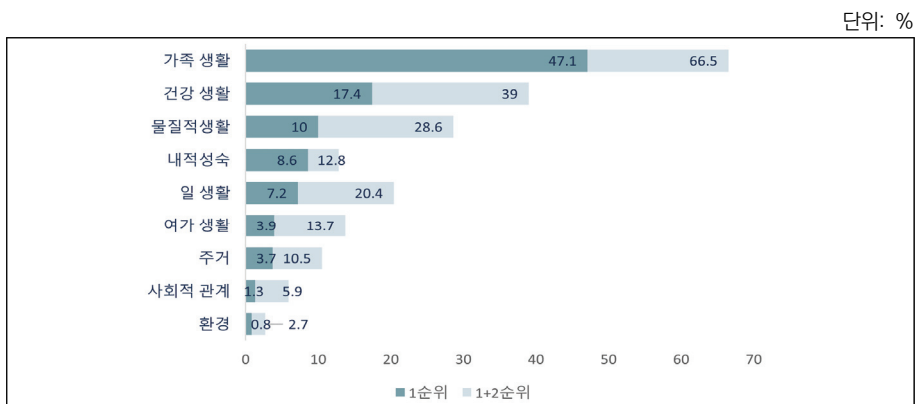
3. 육아가구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주요 영역

가. 육아가구의 중요한 삶의 영역

육아가구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과 현재상황과 이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육아를 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현재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인지’, ‘어떤 영역에 가장 많은 시간/노력을 쏟고 있는지’, ‘어떤 영역을 향상시키고 싶은지’ 세 가지를 질문하였다.

먼저, ‘현재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인지’ 2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를 <표 IV-3-1>, [그림 IV-3-1]에 나타내었다. 먼저 1순위 응답을 살펴보면, ‘가족’이라는 응답이 47.1%로 월등히 높았고, 다음은 ‘건강’ 17.4%, ‘소득’ 10%, ‘내적 성숙’ 8.6%, ‘일’ 7.2%, ‘여가’ 3.9%, ‘주거’ 3.7%, ‘사회적 관계’ 1.3%, ‘환경’ 0.8%의 순서로 나타났고, 2순위까지의 응답도 그 순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IV-3-1] 현재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아버지 집단에서 어머니 집단보다 중요한 삶의 영역이라 응답한 비율이 높은 부분은 가족과 일 부분이며, 어머니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은 건강, 소득, 내적 성숙, 여가 등이다. 취업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휴직 중인 집단에서 가족에의 응답비율이 높았고, 미취업 집단에서 건강과 소득에 대한 응답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V-3-1〉 현재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

단위: %(명)

구분	가족 생활	건강 생활	물질적 생활	내적 성숙	일 생활	여가 생활	주거	사회적 관계	환경	계
1+2순위 전체	66.5	39.0	28.6	12.8	20.4	13.7	10.5	5.9	2.7	-
1순위 전체	47.1	17.4	10.0	8.6	7.2	3.9	3.7	1.3	0.8	100.0(1,614)
성별										
남성	51.5	15.7	9.7	7.4	8.5	3.2	2.6	0.9	0.5	100.0(808)
여성	42.7	19.1	10.4	9.7	5.8	4.6	4.8	1.7	1.1	100.0(806)
$\chi^2(df)$	27.732(8)**									
본인 연령										
만34세 이하	43.8	18.4	9.5	8.6	8.6	4.1	3.8	2.2	1.0	100.0(315)
만35-39세	48.8	16.3	8.2	9.4	6.5	4.9	3.9	1.4	0.6	100.0(510)
만40-44세	47.3	16.9	11.4	8.4	7.7	3.3	3.5	0.7	0.7	100.0(569)
만45세 이상	47.3	20.0	11.4	6.8	5.5	2.7	3.6	1.4	1.4	100.0(220)
$\chi^2(df)$	17.015(24)									
취업 여부										
취업중/학업중	48.8	16.2	9.4	8.0	8.7	4.0	3.1	1.5	0.3	100.0(1,171)
휴직중	51.0	19.1	7.6	4.5	5.1	3.2	6.4	1.9	1.3	100.0(157)
미취업	38.1	21.3	14.0	12.9	2.1	3.8	4.9	0.3	2.4	100.0(286)
$\chi^2(df)$	61.927(16)***									
첫째자녀 연령										
영아(만0-2세)	52.5	15.4	8.0	7.5	6.5	3.7	4.7	0.5	1.2	100.0(402)
유아(만3-5세)	43.3	16.7	11.8	7.4	10.8	4.4	3.9	1.5	0.0	100.0(406)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46.8	19.4	9.7	9.2	4.7	4.2	3.0	1.5	1.5	100.0(402)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45.8	18.1	10.6	10.1	6.7	3.2	3.2	1.7	0.5	100.0(404)
$\chi^2(df)$	35.817(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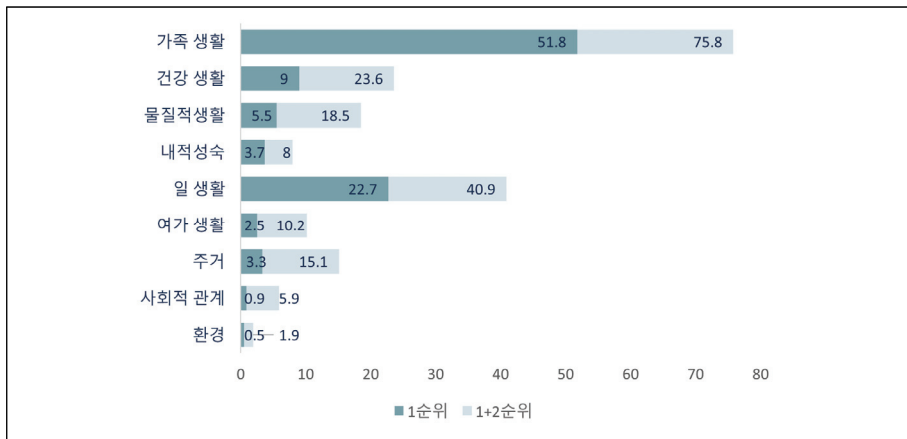
주: ① 가족 생활 ② 건강 생활 ③ 소득소비(물질적 생활) ④ 개인의 내적 성숙 ⑤ 일(직장) 생활 ⑥ 여가 생활 ⑦ 주거 생활 ⑧ 사회적 관계 ⑨ 환경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육아 중인 부모들에게 ‘현재 삶에서 가장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는 영역’을 순서대로 2가지 선택하도록 한 결과를 <표 IV-3-2>, [그림 IV-3-2]에 나타내었다. 먼저 1순위 응답을 살펴보면, ‘가족 생활’이라는 응답이 51.8%로 월등히 높았고, 다음은 ‘일(직장)생활’ 22.7%, ‘건강 생활’ 9%, 등에 높은 응답을 보였다.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하여 보면, 1순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IV-3-2] 현재 삶에서 가장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는 영역

단위: %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을 기준으로 보면 모두에서 ‘가족 생활’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지만 아버지 집단에서는 ‘일(직장)생활’에 대해, 어머니 집단에서는 ‘가족 생활’이라는 영역에 각각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또한 취업중인 집단에서 ‘가족 생활’이 1순위 응답으로 46.6%, 그 다음으로 ‘일(직장)생활’이 30.8%로 높게 나타났다. 모든 첫째 자녀 연령에 대해서 가족 생활에 노력과 시간을 쏟는 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영아자녀의 경우 60.4%, 유아 53.0%, 초등 저학년 52.0%, 초등 고학년이 41.8%로 자녀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그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만큼 영아 시기에 자녀에게 쏟는 노력과 시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표 IV-3-2〉 현재 삶에서 가장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는 영역

단위: %(명)

구분	가족 생활	일 생활	건강 생활	물질적 생활	내적 성숙	주거	여가 생활	사회적 관계	환경	계
1+2순위 전체	75.8	40.9	23.6	18.5	8.0	15.1	10.2	5.9	1.9	-
1순위 전체	51.8	22.7	9.0	5.5	3.7	3.3	2.5	0.9	0.5	100.0(1,614)
성별										
남성	45.5	30.8	8.8	6.6	3.5	1.7	2.4	0.5	0.2	100.0(808)
여성	58.1	14.6	9.3	4.3	4.0	5.0	2.7	1.2	0.7	100.0(806)
$\chi^2(df)$	80.087(8)***									
본인 연령										
만34세 이하	56.2	16.2	10.8	6.0	4.8	2.9	2.2	1.0	0.0	100.0(315)
만35-39세	55.5	22.2	8.0	4.1	3.7	3.3	2.4	0.6	0.2	100.0(510)
만40-44세	49.2	24.4	8.8	6.5	3.2	3.2	2.8	0.9	1.1	100.0(569)
만45세 이상	43.6	29.1	9.5	5.0	3.6	4.5	2.7	1.4	0.5	100.0(220)
$\chi^2(df)$	31.752(24)(b)									
취업 여부										
취업중/학업중	46.6	30.4	8.5	5.6	3.7	1.7	2.6	0.7	0.2	100.0(1,171)
휴직중	69.4	4.5	9.6	4.5	2.5	6.4	0.6	1.9	0.6	100.0(157)
미취업	63.3	1.4	10.8	5.2	4.5	8.4	3.5	1.0	1.7	100.0(286)
$\chi^2(df)$	189.088(16)***									
첫째자녀 연령										
영아(만0-2세)	60.4	16.7	9.7	4.2	3.2	2.7	2.2	0.7	0.0	100.0(402)
유아(만3-5세)	53.0	25.4	7.9	4.4	2.5	3.9	2.0	0.5	0.5	100.0(406)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52.0	22.1	8.7	6.0	4.2	2.5	3.5	0.5	0.5	100.0(402)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41.8	26.7	9.9	7.2	5.0	4.2	2.5	1.7	1.0	100.0(404)
$\chi^2(df)$	47.244(24)**(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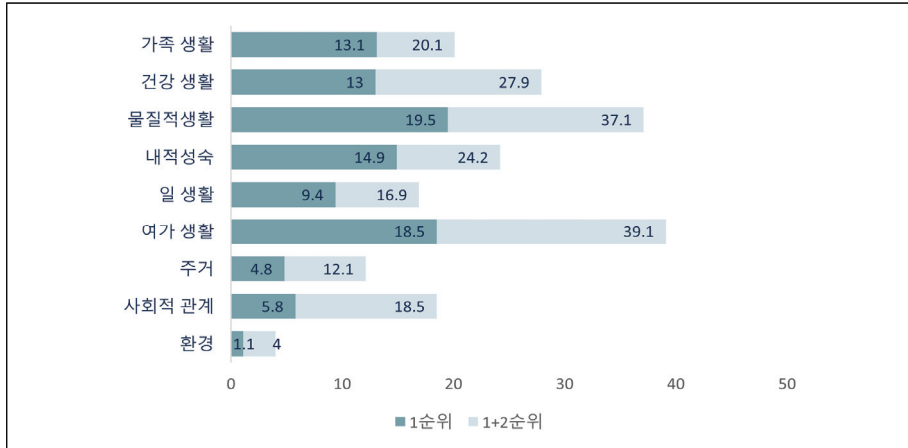
주: ① 가족 생활 ② 일(직장) 생활 ③ 건강 생활 ④ 소득소비(물질적 생활) ⑤ 개인의 내적 성숙 ⑥ 주거생활 ⑦ 여가 생활 ⑧ 사회적 관계 ⑨ 환경

** $p < .01$, *** $p < .001$.

육아 중인 부모들에게 현재 삶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순서대로 2가지 선택하도록 한 결과를 〈표 IV-3-3〉, [그림 IV-3-3]에 나타내었다. 먼저 1순위 응답을 살펴보면, ‘물질적 생활(19.5%)’과 ‘여가(18.5%)’라는 응답이 높았고, 다음은 ‘내적 성숙’ 14.9%, ‘가족 생활’ 13.1%, ‘건강 생활’ 13% ‘일(직장) 생활’ 9.4% ‘사회적 관계’ 5.8% 등의 순서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하여 보면, ‘여가’ 39.1%, ‘물질적 생활’ 37.1%, ‘건강 생활’ 27.9%, ‘내적 성숙’ 24.2%, 등의 순서로 높게 조사되었다.

[그림 IV-3-3] 삶에서 개선이 필요한 영역

단위: %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성별을 기준으로 차이를 보여 아버지 집단에서는 ‘가족 생활’ 영역이, 어머니 집단에서는 ‘일(직장) 생활’ 영역이 현재 삶에서 부족하다는 체감이 높게 나타났다. 취업여부를 중심으로 보면 취업중인 집단에서는 ‘가족 생활’, 휴직중인 경우는 ‘사회적 관계’, 미취업인 경우는 ‘물질적 생활’에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3-3> 삶에서 개선이 필요한 영역

단위: %(명)

구분	물질적 생활	여가 생활	내적 성숙	가족 생활	건강 생활	일 생활	사회적 관계	주거	환경	계
1+2순위 전체	37.1	39.1	24.2	20.1	27.9	16.9	18.5	12.1	4.0	-
1순위 전체	19.5	18.5	14.9	13.1	13.0	9.4	5.8	4.8	1.1	100.0(1,614)
성별										
남성	19.8	18.3	11.9	17.9	14.2	6.8	6.1	4.2	0.7	100.0(808)
여성	19.2	18.6	17.9	8.2	11.8	12.0	5.5	5.3	1.5	100.0(806)
$\chi^2(df)$	56.099(8)***									
본인 연령										
만34세 이하	16.5	20.6	16.2	13.0	11.7	12.4	3.2	5.4	1.0	100.0(315)
만35-39세	21.0	21.0	14.9	11.0	12.4	7.5	5.7	5.5	1.2	100.0(510)
만40-44세	21.3	15.3	14.1	13.9	14.1	9.0	7.4	3.7	1.4	100.0(569)

구분	물질적 생활	여가 생활	내적 성숙	가족 생활	건강 생활	일 생활	사회적 관계	주거	환경	계
만45세 이상	15.9	17.7	15.0	15.9	13.6	10.9	5.5	5.0	0.5	100.0(220)
$\chi^2(df)$	30.757(24)									
취업 여부										
취업중/학업중	18.4	19.9	14.3	15.5	13.5	7.4	5.6	4.4	0.9	100.0(1171)
휴직중	17.2	18.5	19.1	7.0	14.0	10.2	7.6	5.1	1.3	100.0(157)
미취업	25.2	12.6	15.0	6.6	10.5	17.1	5.2	5.9	1.7	100.0(286)
$\chi^2(df)$	61.676(16)***									
첫째자녀 연령										
영아(만0-2세)	16.7	20.4	15.2	12.2	14.2	10.4	5.5	4.7	0.7	100.0(402)
유아(만3-5세)	18.5	18.2	16.5	14.8	13.3	6.9	5.2	5.7	1.0	100.0(406)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22.1	15.9	14.9	11.9	11.9	8.5	7.5	5.0	2.2	100.0(402)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20.8	19.3	12.9	13.4	12.6	11.9	5.0	3.7	0.5	100.0(404)
$\chi^2(df)$	27.430(24)									

주: 1) ① 소득소비(물질적 생활) ② 여가 생활 ③ 개인의 내적 성숙 ④ 가족 생활 ⑤ 건강 생활 ⑥ 일(직장) 생활
⑦ 사회적 관계 ⑧ 주거 ⑨ 환경

2) 1순위 비율 순서대로 정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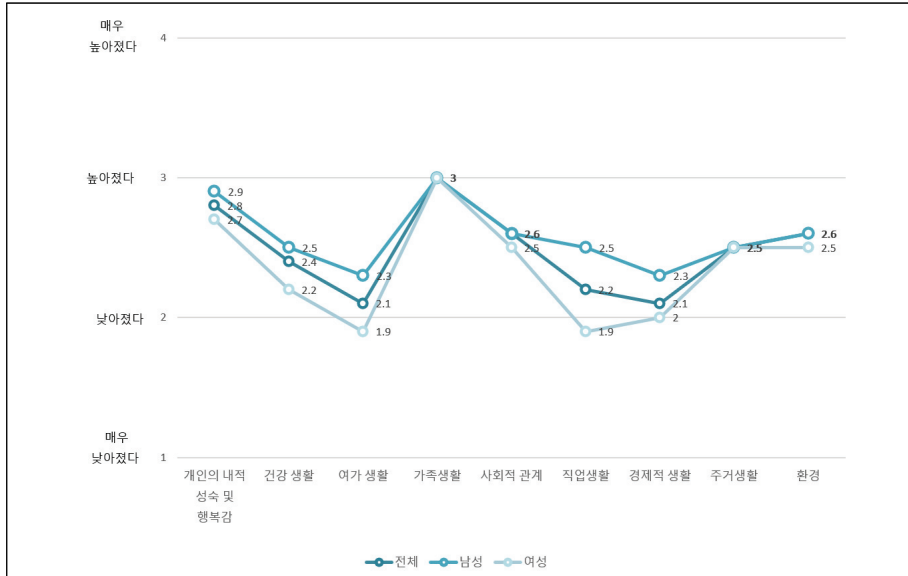
*** $p < .001$.

다음으로 육아 중인 부모들에게 삶의 질의 변화 체감을 질문하였다. 부모들이 다음의 삶의 영역에서 자녀로 인해 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매우 낮아졌다(1점)부터 ‘매우 높아졌다(4점)’의 척도로 답한 결과를 <표 IV-3-4>, [그림 IV-3-4]에 나타내었다.

질문한 삶의 영역 중 ‘가족 생활’이 3점으로 가장 긍정적 변화 체감을 보였고, 다음은 ‘개인의 내적 성숙 및 행복감(2.8점)’, ‘환경(2.6점)’, ‘사회적 관계(2.6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보였다. 이에 반해 ‘여가 생활(2.1점)’ 과 ‘물질적 풍요(2.1점)’ 는 ‘낮아진 편이다(2점)’에 수렴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림 IV-3-4] 각 영역별 자녀로 인한 삶의 질 변화

단위: 점



이 결과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아버지 집단에서 어머니 집단 보다 거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질적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녀의 연령을 중심으로 보면 영유아 자녀를 둔 집단에서 초등 자녀를 둔 집단보다 건강 생활과 여가, 물질적 풍요 등의 영역에서 유의하게 낮게 평가하였다.

[표 IV-3-4] 각 영역별 자녀로 인한 삶의 질 변화

단위: 점, (명)

구분	개인의 내적성숙 및 행복감	건강 생활	여가 생활	가족 생활	사회적 관계	직업 생활	경제적 생활	주거 생활	환경	사례 수
전체	2.8	2.4	2.1	3.0	2.6	2.2	2.1	2.5	2.6	(1,614)
성별										
남성	2.9	2.5	2.3	3.0	2.6	2.5	2.3	2.5	2.6	(808)
여성	2.7	2.2	1.9	3.0	2.5	1.9	2.0	2.5	2.5	(806)
t	6.1***	9.7***	7.8***	2.2*	2.0*	15.8***	7.1***	1.6	3.1**	
본인 연령										
만34세 이하	2.8	2.3	2.1	3.0	2.7	2.2	2.2	2.6	2.6	(315)
만35-39세	2.8	2.3	2.0	3.0	2.6	2.2	2.1	2.5	2.6	(510)

구분	개인의 내적성숙 및 행복감	건강 생활	여가 생활	가족 생활	사회적 관계	직업 생활	경제적 생활	주거 생활	환경	사례 수
만40-44세	2.8	2.4	2.1	3.0	2.5	2.2	2.1	2.5	2.6	(569)
만45세 이상	2.9	2.5	2.2	3.0	2.6	2.4	2.3	2.5	2.6	(220)
F	1.2	2.7*	2.5(a)	0.5	5.0**	4.5**(a)	2.6(a)	0.8(a)	0.4	
취업 여부										
취업중/학업중	2.9	2.4	2.2	3.0	2.6	2.5	2.2	2.5	2.6	(1,171)
휴직중	2.8	2.2	1.9	3.0	2.6	1.8	1.9	2.6	2.7	(157)
미취업	2.6	2.2	1.9	2.9	2.5	1.5	1.9	2.4	2.5	(286)
F	15.8*** ^(a)	15.3*** ^(a)	13.5*** ^(a)	3.9*	3.0	20.7***	35.2*** ^(a)	5.0**	5.4*** ^(a)	
첫째자녀 연령										
영아(만0-2세)	2.9	2.3	2.0	3.0	2.5	2.1	2.1	2.5	2.6	(402)
유아(만3-5세)	2.8	2.3	2.0	3.0	2.6	2.2	2.1	2.5	2.6	(406)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2.8	2.4	2.2	3.0	2.6	2.3	2.2	2.5	2.6	(402)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2.8	2.5	2.2	2.9	2.6	2.4	2.2	2.6	2.6	(404)
F	2.7*(a)	7.9***	10.1***	1.5	1.1(a)	6.6***	3.0*	1.1	1.7	
부모 외 돌봄 인력 유무										
있음	2.9	2.4	2.2	3.0	2.6	2.4	2.3	2.5	2.6	(586)
없음	2.8	2.3	2.0	3.0	2.5	2.1	2.1	2.5	2.6	(1,028)
t	1.7	2.0*	3.9***	-0.5	1.9	6.7***	5.0***	0.9	1.2	

주: 1) ① 개인의 내적 성숙 및 행복감 ② 건강 생활 ③ 여가 생활 ④ 가족 생활 ⑤ 사회적 관계 ⑥ 직업 생활 ⑦ 경제 생활(물질적 풍요) ⑧ 주거생활 ⑨ 환경

2) '매우 낮아졌다' 1점 ~ '매우 높아졌다'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나. 여가 생활과 삶의 질

여가는 육아를 하는 가구에서 가족 생활, 건강 생활, 물질 생활, 일 생활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이지만, 여가시간에 시간과 노력은 거의 쓰지 못하지만, 개선하고 싶은 삶의 영역으로 1+2순위 합산 39.1%로 가장 많은 사람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선택한 영역으로 선택하였고(그림 IV-3-3 참고), 육아가구에서 자녀출산이후 가장 낮아졌다고 인식하는 삶의 질 영역이기도 하여(그림 IV-3-4 참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육아가구 부모를 대상으로 여가 생활과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을 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분석하였다. 육아가구의 부모들은 육아로 시간이 부족하여, 여가 시간을 거의 가지지 못하고 있었으며, 짜투리 시간에 운동을 하는 등 사소한 여가를 누릴 때 큰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1) 육아로 줄어든 여가시간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급격히 줄어든 여가시간과 여가시간을 마련할 수 없음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부모들은 자녀의 육아 중 짬짬이 운동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특히 영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경우 여가시간을 전혀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여가 시간은 진짜 여행도 가고 막 이런 건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하고 쉽지 않은 얘기고, 그리고 만약에 여가가 있으면 저 보통은 혼자... 짬 날 때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신랑이 조금 집에 있는 날이어서 같이 아침에 커피 한잔하고 그 정도?(영아 모2)

주말 토요일 날 저녁에 나가지는 못하고 친한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서 와이프랑 아이랑 같이 저녁 먹으면서 술 한 잔 먹는 거? 그게 전부인 것 같고, 가끔 아이랑 나가서 노는 거 그건 거 같아요.(영아 부3)

여가... 여가를 거의, 여가가 뭔지 지금... 거의 없고요. 일주일에 저는 운동하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두 번 하는데 50분씩 해요. 딱 그것만 있어요. 나머지는 없습니다.(영아 모3)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운동 끝나고 샤워하고 집에 와서 에어컨 틀고 누우면 그게 행복하고요.(영아 모5)

저는 아이가 등원을 하고 제 개인적인 시간을 갖거나 책을 읽거나 뭐 필라테스 운동을 갈 때 저는 제 삶의 질이 좋아진 것 같다는 느낌을 가끔 받기는 해요.(유아 모2)

얼마 전까지는 둘을 양육하기가 조금 힘들고 지친 게 컸었는데, 1년 전부터 제가 헬스에 빠져가지고 운동에, 제가 혼자 시간을 매일 보내다 보니까 육아나 가족, 가정생활로 인해 지친 거에 힐링도 되고 행복해지는 걸 그때 느낀 것 같아요.(초저 모2)

네. 일단 저는 여가 시간이 없고요. 이전에는 친구들이랑 술 마시는 거를 즐겨 했는데 그 자리를 즐겨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굳이 그 술자리를 가지 않는 상황이 도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가라는 자체가 저는 아예 없는 것 같아요.(영아 부5)

2) 육아 중 운동을 통한 여가시간의 소중함

그 중에서도 운동 및 취미활동 등이 가능한 개인의 시간이 삶의 질을 향상하는 요소로 부각되었다. 유아, 초등 이상의 자녀의 경우는 운동 외에 다른 여가활동을 하기 시작하지만, 영아부모의 경우는 대부분 여유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건강을 위한 운동으로 시간을 보내며 이러한 시간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하였다.

저는 주중에는 운동을 여가 활동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만나는 거 그 정도 합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혼자 여가를 보내고요. 주말에는 친구들이랑 보통 같이, 누군가 같이 여가를 보낸다면 친구들이랑 여가를 보내고.(영아 모4)

저는 회사 점심시간에 자투리 시간 이용해서 웨이트 조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밤에는 아기 재워놓고 TV나 만화책 조금, 핸드폰 조금 뒤적거리고요.(영아 부4)

저는 아이가 유치원 가고 나서 청소 좀 하고 필라테스 갔다가, 그 다음에 같은 유치원 엄마들 만나서 가끔 커피 마시고, 가끔 영화 보고 밥 먹고 이럴 때 좋은 것 같고.(유아 모2)

헬스는 주 5일에서 6일 정도 하고 요가는 주 3일. 원래 필라테스 하다가 필테가 조금 안 맞아서 요가로 바꿨는데, 그리고 저는 제가 만화를 좋아해서 혼자 만화 카페 자주 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여가는... 제가 또 걷는 거 좋아해가지고 혼자 산책하거나 아니면 혼자 쇼핑하러 가는 거 자주 하는 것 같아요.(초저 모2)

주중에는 운동, 아이 등교시키고 운동 한 1시간 반 정도 하고, 그 다음 친정이 근처 살아서 친정 어머니 아니면 동네 친구들 만나서 커피 마시고 점심 먹는 게 여가, 어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었고. 주말에는 가족들끼리 쇼핑물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쇼핑도 하고 하는 게 나름 저에게는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힐링 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초저 모3)

거의 여가 시간에 딸이랑 많이 해요. 같이 나가서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친다거나 아니면 브롤스타즈라는 게임도 같이 많이 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제 시간이 남으면 저는 보통 바이크를 타거든요 오토바이.(초고 부2)

3) 지인과의 만남 또는 동영상 시청 등의 개인시간

자녀 양육으로 인해 지인을 많이 만날 시간이 없어지고, 자녀의 친구 부모 등의 지인이 생김과 동시에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와의 교류는 많이 없어졌지만, 가끔의 여가가 된다고 하였다. 부부가 교대로 영화관에 다녀오기도 하면서 바쁜 시간을 쪼개어 여가를 보내려는 모습을 보였다.

저는 처가댁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저희한테 아이 맡기고 나갔다 오라고 배려를 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와이프랑 시간 내서 그동안 못 했던 것들, 쇼핑을 한다든가 아니면 와이프 친구들을 만난다든가...(영아 부5)

둘 다 영화 보는 걸 좋아해서 평일이나 주말에 가끔씩 교대로 영화관 갔다 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애 낳은 다음에는 영화를 잘 못 본다고 하는데 저희는 거의 1년에 10편씩 보고 그래가지고...(유아 부4)

주말에는 애들이랑 다 같이 해서 놀러 갈 때가 많고요. 주말에는 주로 어디든 놀러 가려고 해요. 어디 새로운 장소 많이 가려고 하고, 새로운 박물관, 도서관, 여행지 이런 데 많이 가려고 하고...(초저 부1)

아이 재우고 나서 와이프랑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드라마를 본다든가. 그 시간에 저녁 먹으면서 와이프랑 이야기 나누고 뭐 드라마를 본다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가고 싶은 여행지를 한번 찾아본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여가의 끝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영아 부5)

4) 초등자녀 육아에는 여유로운 여가를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는 육아로 인한 시간의 제약 없이 여가 생활을 누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육아로 시간 만들기 어려운 영유아기 자녀의 부모들이 꿈꾸던 상황이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 시기에는 실현 가능한 일이 된다. 부부만의 시간을 보내고, 콘서트장도 가고, 심야 영화도 보고, 친구들과 새로운 곳인 핫플도 가고, 엄마들이랑 브런치도 먹는 여가를 보내고 있었다.

제 여가 시간일 때는 한 1년에 한두 번씩 정도는 제가 가고 싶은 콘서트장에 가서 소리도 지르고 그런 거 하고, 아니면 주말 밤에 엄마들이랑 같이 심야영화 보러 간다든가, 불금으로 밤 마실 간다든가 그런 거 하고 있어요.(초고 모4)

개인적으로 친구를 만난다든지 오랜만에 지인하고 약속을 한다든지 그런 게, 빈번하게는 아닌데 가끔씩 잡기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핫 플레이스도 가고, 동네가 아니고 핫플도 가고 이러니까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도 오랜만에 친구도 만나고 새로운 곳도 가고, 또 어떨 때는 가족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가를 보내는 것 같아요.(초고 모3)

애들 재우고 출퇴근길에 책 읽거나 그 다음에 애들 재우고 넷플릭스를 보거나, 그런 거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초고 모1)

5) 하고 싶은 여가활동

육아 때문에 하지 못하지만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해 혼자만의 여행, 영화 보기,

캠핑, 부부가 함께하는 운동, 등산, 친구와 술 한잔, 열대어 기르기, 자격증 공부, 복싱 등을 꼽는다.

그리고 육아 때문에 하지 못하지만 하고 싶은 활동은 여행. 여행 여행... (영아 모2)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캠핑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아이들이 조금만 자라면 다시 한 번 가족끼리 움직이는 취미가 될 것 같아요. 여가를 그렇게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영아 부2)

저 혼자 하는 것보다 와이프랑 같이 뭐 테니스를 배운다거나 뭐 영화관을 간다거나 뮤지컬을 같이 본다거나 그런 걸 하고 싶네요.(영아 부4)

육아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취미생활이죠. 옛날에 자전거 타고 열대어 기르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아이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못하게 된 그런 것들이 아쉽긴 합니다.(초저 부3)

다른 운동이나, 안 그러면 또 여행 같은 것도 와이프랑도 많이 다니고 싶어요. 왜냐하면 애를 빨리 가져서, 그러니까 결혼 하자마자 바로 낳아서 애를...와이프랑 많이 데이트나 여행도 가고 싶고 그렇습니다.(초고 부1)

저만의 시간은 거의 못 보내는 것 같아서 만약에 육아 때문에 하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그냥 자격증 공부하고 싶은 게 소소한 꿈입니다.(초고 부4)

아이 기르는 상황에서 여가가 사실상 누리기 어렵고 육아로 체력이 소진되어서 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접게 된다는 의견도 있다.

하고 싶은 활동들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진 지 되게 오래예요. 아기가 어리고 그랬을 때는 되게 많았었거든요. 일단 집 밖에 못 나가니까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는 약간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이 체력을 배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여가 시간에 남은 체력을 쓰기에는 약간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거는 조금 마음이 접어졌어요.(유아 모4)

아버지들의 경우는 원하는 여가 활동을 육아로 인해 하지 못했던 상황은 딱히 없다는 응답도 빈번하였고, 그동안 관계가 소원하였던 친구들과 만나고 싶다는 의견이 두드러진다.

육아 때문에 지금 하고 싶은 활동이 있는데 못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초저 부1)

지난주에 회사 친한 사람들이랑 술을 한잔 했는데, 너무 신난 거예요. 회사 욕을 바깥에 나가서 막 상사 욕도 하고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나도 나이가 들고 아저씨가 돼가고 있구나라는 걸 그때 느낀 것 같아요.(초저 부2)

육아 때 하지 못했던 활동은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요즘 많이 키워나가지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초고 부5)

다. 직장생활과 삶의 질

개인의 삶의 질을 평가할 때 일에 대한 생각과 경험이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한다. 육아하는 부모들에게 현재 자신의 일의 가치를 평가하고 삶에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질의하였다.

1) 육아로 인한 휴직과 복직

먼저 육아로 인해 휴직을 한 상황을 엄마의 희생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또한 휴직 후 복직과정에서는 자녀에게 미안함이 앞서지만 복직 후 일에서의 만족감을 높게 평가한다. 힘겨운 육아보다 일이 더 하고 싶다는 의견도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엄청 커리어우먼이었는데 지금 집에서 육아, 거의 1년 반째 하고 있는데요. 포기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승진을 앞두고 제 동기들 다 앞세우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진짜 이게 희생이구나. 이게 엄마의 희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영아 모4)

저는 8점 주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기를 낳고 집에 있는 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너무 회사에 나가고 싶었고 그래서 복직할 때 아기한테 미안해서 많이 울긴 했는데, 가서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기한테도 더 잘해주고 저 스스로도 더 자신감도 올라가고 해서, 그래서 8점 주고 싶습니다.(영아 모1)

그리고 애를 낳고 나서의 변화는...또 주말에 계속 육아를 하다 보면요 연휴가 길 때, 그럴 때는 회사에 나가고 싶더라고요.(영아 부4)

2) 회사에서 업무에 더욱 집중

자녀가 생기고 육아를 위한 시간 확보가 요구되므로 야근을 할 수 없으므로 일의 효율이 높아졌다는 설명도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생긴 뒤) 일의 능률이 굉장히 올라가요. 이게 반강제적으로 올라 갑니다. 왜냐면 저도 집에 가서 아이한테 해줘야 될 루틴이 있고, 뭐 예를 들면 아이 목욕이라든지 아니면 뭐 책이라도 한 권 읽어 준다든지, 근데 이게 과거에 아이 낳기 전에는 야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데, 이제 저는 야근을 안 하고 정시 퇴근을 한다 한들 더 부

지런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일의 효율이 반강제적으로 높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영아 부 2)

저는 7점이고요. 회사에 불만족은 없는데, 사실 시간을 줄여서 하면 제가 그런 일을 찾으면 되긴 하거든요. 이걸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것보다는 제가 일단 회사 시간을 줄여서 이직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초저 모4)

3) 자녀에 대한 책임감으로 퇴직, 이직하기 어려움

자녀가 생기 뒤 일에 대한 생각의 변화 중 가장 많은 부분은 책임감으로 이직이 줄고, 더욱 열심히 적극적으로, 더 오랫동안 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한다. 또한 자녀 양육을 위해 근무 직종을 바꾸거나 이직을 하였다는 이야기도 한다.

사실 아기 낳기 전에는 회사를 이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 갔다 저 회사 갔다 막 그렇게 미련도 없다 이런 식으로 지내왔었는데, 아기가 태어나니까 뭔가 책임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재취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전보다는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가 책임지어야 할 존재가 있으니까 그전에 설렁설렁 대충대충 했다면 지금은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영아 모3)

자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일을 60살까지 해야된다는 압박감이 있어서 그게 힘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없었다면 그냥 어느 정도 다니다가 노후자금 마련하면 그래도 빨리 은퇴를 해서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자녀가 있다 보니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켜야 되니까 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초고 부5)

저는 10점 만점에 현재 제 상태를 그냥 5점으로 주고 싶고.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우리 가족이 여가생활도 즐기고 먹고 지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요즘 그냥 제가 많이 고민하는 게 과연 내가 늙어서, 말 그대로 노후 자금이 100세 시대인데, 최소 30년 동안 일을 안 하고 먹고 살아야 된다면 내가 얼마나 필요할까 라는 이런 고민을 하면서.(초고 부3)

자녀가 태어나면서 일하는 태도가 저는 180도 변한 케이스인데, 제가 결혼하고 애를 낳기 전까지는 그래도 공무원 중에 내근, 사무적인 일을 했는데 아이가 낳고 나서부터는 육아도 해야 되고 월급도 조금 더 페이도 더 센 외근직으로 이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도 아이가 없다면 제가 하고 싶은 내근직에 책상에 앉아서 하는 사무직을 할 텐데, 지금 애를 양육하면서는 별이가 센 외근직으로 옮기게 됐고요. 아마 주변 동료들도 대다수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초고 부4)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존심이고 뭐고 제가 하고 싶은 거고 상관이 없이 지금은 그렇게 제가 운 좋게 하고 있어 계속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 사실 되게 안 좋을 때는 투잡도 뛰고 이랬거든요.(초고 부1)

애가 없을 때는 진짜 1년 하다가 일 그만두고 1년 하다가 일 그만두고 엄청 메뚜기 뛰어나는데, 지금 애를 낳고 나서 진짜 책임감이라는 게 엄청 생기고 난 다음에는 그 일을 더 깊게 보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인정받으려고 그런 욕심들이 생기자 보니까, 덕분에 회사도 더 오래 다니면서 인정도 많이 받고 해서 많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초고 부2)

4) 직장에서의 육아친화 분위기

자녀가 생긴 뒤 각종 육아지원 제도와 회사의 배려, 동료의 지원 등 일터에서 만족감이 더욱 커졌다는 의견도 있다.

저는 한 9.5점 정도 되는 것 같고, 저희는 사실 유연근무는 안 되는데 휴가 같은 거를 조금 당일애 갑자기 쓰거나 그런 거는 가능하다 보니까.(유아 모4)

배려들이 지금도 되게 감사하게 남아 있어 가지고 그런 점은 좋고, 그리고 사실 뭐 신혼 때 까지만 해도 자녀가 없었을 때는 막 또 월요병에 일요일 되면 회사 나가기 싫다 막 이런 생각 들고, 회사에 대해서 그렇게 막 뭐 긍정적이지... 일반 회사하고 비슷했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는 월요병도 사라지고 되게 좋아요. 회사 자체가 되게, 그때랑 차이점은 없는데 제가 느끼는 만족감이 되게 높아진 것 같아요.(유아 모4)

지금 하는 일에는 되게 만족해요. 거의 10점이고, 일하는 것도 하는 일은 똑같은데 일의 양이나 이런 게 많이 줄어서 되게 만족스럽고요. 자녀를 두고 부모가 되면서 일이나... 변화가 심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애가 입원했을 때 막 사람들 눈치 보면서 휴가 내야 되고 이런 거? 그럴 때 좀 그랬죠.(초저 부1)

저는 제가 지금 근무 형태가 재택으로 바뀌고 주에 1회 정도 나가고, 재택으로 바뀌면서 일에 아까 점수 주는 게 조금 높아졌어요.(초고 모3)

5) 일과 육아 중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

부모들은 일터에서 일에 더 몰입하거나 또는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 업무의 성취를 다소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상황이 있음을 설명한다.

저는 한 2, 3년 정도 전에 승진을 미뤘다고 해야 되나? 연봉이 올라가면서 일을 조금 더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있으면서 조금 일찍 유대리 있게 퇴근할 수 있는지 이런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아예 포기를 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아이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은 딱 그 때라고 저는 한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유아 부2)

보통 제가 있는 직장에서만 해도 약간의 갈림길이 있는 것 같아요. 일을 더 치중할 것이나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워라밸 쪽으로 갈 것이냐, 육아를 신경 쓰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 길이 나뉘는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육아 쪽을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유아 부4)

아무래도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가 생기다 보니까 양쪽에 제가 다 집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줄어든 것 같아서, 회사에서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제 업적을 쌓거나 하기에는 조금 힘들었던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초저 모3)

사실 첫째 때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일은 놓고 싶지 않는데 아이는 또 놓치고 싶지 않고, 이 두 개 중에 굉장히 갈등을 하면서 남편은 그만뒀라, 나는 그럴 수 없다, 이거를 굉장히 되게 갈등이 컸었고.(초고 모3)

6) 재취업을 희망, 재취업의 어려움

육아로 인해 일을 중단하여, 경력의 단절을 경험한 경우 자녀의 성장 뒤에는 재취업을 희망한다. 그러나 재취업의 문턱은 높고, 선택할 수 있는 일의 범위도 좁으며, 보수도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

가) 재취업을 고려하고 있는 어머니들

초등 고학년 어머니 그룹에서는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어머니도 있었고, 자녀 양육 10년 후 얼마전 재취업을 한 경우는 경력에 비해 낮은 대우를 받을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안타까워했다. 자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본인에게는 경력을 이어갈 수 없는 현실로 남았다.

아기 낳으면 다시 저의 어떤 그런 거를 해보겠다 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저도 마음이 쉽게 안 서고, 그래서 지금도 단기적으로 한 달짜리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거는 조금씩 나가보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거는... 그럼 저희 아기들을 제가 내려놔야 되는데 그건 제가 또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영아 모2)

거의 경력단절이 한 10년 정도 돼서 경단녀로 취업을 하게 된 경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그렇게 대우가 좋지 않아요.(초고 모4)

왜 여자만 희생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딱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두 명 중에 한 명이 그만뒀다 되는 상황이 생겨요.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생기고 아이는 10년 동안 키우잖아요. 그럼 여자는 다 경력단절이 돼요. 그럼 경력단절이 되면 그때부터 사회에 나가고 싶어도 힘들어져요. 아까 말한 보수며 경력이며 나이며 다 안 좋아져요.(초고 모3)

하루씩 나오는 알바들이 있어요. 그런거 가서 조금씩 벌어요. 그래봤자 애들 간식비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라도 도움이 되자 이려고서 나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애들 고학년 되면서부터 아침시간이 여유가 생기니까.(초고 모2)

고학년이 되면서 아 정말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일 관두고 집에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는데, 둘째도 점점 시간이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중학생이 되고 하면 정말 일을 하고 싶다. 하지만 경력단절 기간이 너무 길고.(초고 모5)

나) 육아 문제로 이직을 고민

부모들은 육아를 위해 이직을 하기도 한다. 또 자녀를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한다.

저희 애가 태어났을 때 조리원에 있을 때, 그때도 프로젝트 때문에, 애가 조리원에 있는데 프로젝트 때문에 출장 가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직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회사에 오게 되고.(초저 부2)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원래 하던 것 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아이가 더 클 때까지는 그래도 지금 회사가 육아에 있어서 자유롭고 연차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되게 만족해하고 있습니다.(초저 부2)

그래서 밤마다 저는 고민을 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할까, 제가 새롭게 도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아이들을 양육시키기 위해서. 사실 아이들이 없었으면 지금 하는 일로 충분히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아이들을 여유롭고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고민을 하고 도전하는 것 같아요.(초저 부5)

라. 미디어 이용과 삶의 질

미디어 이용은 공동체 생활을 누리는 방법의 하나로, 미디어 이용을 통해 육아에 참고하기도 하고 하지만 SNS나 미디어 통해 보여지는 모습에 부정적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미디어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일부러 멀리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다.

1) 타인의 육아에서 배우기

부모들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을 많이 활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참고하는 내용은 자녀 양육과정에 또래의 발달을 살피고, 아플 때 대응이나 물품구매에 대한 정보 등을 얻기도 하였다.

저는 저희 아이가 말이 늦게 터져가지고 발음 교정이나 말 잘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이런 거 되게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런 데 좋은 방법도 많이 나와 있고 수업 같이 열심히 티칭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 거 많이 보고 따라하고.(유아 모2)

유튜브 찾아보고 그러거든요. 교육하는 거에도 궁금할 때 그렇고 애들이랑 대화법 이런 것도 유튜브 많이 찾아보는데.(초고 모2)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렇게 많이 보는 것 같고요. 정보가 워낙 많으니까 사실은 조금 과도하다 싶을 때도 있지만 또 참고도 되는 것도 많이 있고.(초고 모3)

부모들은 SNS 미디어를 통해 자녀의 성장을 기록하기도 하고, 육아 팁도 얻을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부모들은 유아식, 육아용품에 대한 정보, 자녀 데리고 놀러가기 좋은 곳 등 육아관련 정보를 얻는다.

저는 일단 SNS 미디어 인스타를 많이 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하나면 성장 기록하기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나, 육아 팁 같은 것도 얻는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특히 유아식을 하다 보니까 레시피 같은 거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거 보면 되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영아 모4)

저는 인스타를 거의 안 하고 맘카페 정도 하고 있는데요. 맘카페도 제가 필요한 육아용품 있을 때 그 핫딜 찾는 용도로 주로 이용하고요. 그리고 아기가 아플 때 주로 검색해가지고 이걸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조언 정도 찾아보려는 용도로 사용을 해요.(영아 모5)

저는 인스타그램은 보통 어디 놀러 가지? 위주로 보고, 그러니까 어디 좋은 곳이 있나 놀러 갈 만한 데가 있나 보고 유튜브는 거의 아예 안 하고요.(유아 모1)

SNS나 미디어를 보통 보는 목적은 자료를 찾기 위함? 그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초고 부2)

2) 나의 육아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함

최근 방영 중인 육아 관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부모들의 생각을 살펴보았다. 양육 상담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부모들은 너무 극단적인 사례를 보면서 배우기도 하고, 육아의 부정적 측면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타인의 어려운 육아를 보면서 육아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이 드는 부분도 있어 보인다.

금쪽이 같은 프로그램을 볼 때 느낌은, 애를 키울 때 이런 점은 주의해야 되겠구나, 솔직히

금쪽이를 보면 애가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대부분 문제거든요. 그러가지고 애를 대할 때 저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자기반성? 자아 성찰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영아 모4)

저는 금쪽이는 초반에 많이 봤었는데 요즘에는 잘 안 봐요. 그런 걸 보면 더 약간 무서운 생각도 들고요. 오히려 위화감이 조성돼서 육아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초반에 굉장히 많이 보다가 요즘에는 잘 안 보고 있어요.(유아 모2)

부모들 중 SNS를 빈번하게 하지 않는다는 경우도 있다. 그 이유는 제공되는 내용으로 인해 부정적 생각이 든다든지, 검색이 비효율적이라든지, 계속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저는 SNS는 거의 안 해요. 남들한테 영향받는 게 싫고 다른 사람이 이거 샀다. 어떤 엄마들이 이거 샀는데 나도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싫어서 SNS는 안 하고 있는데,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요.(영아 모3)

모르겠어요. 인스타그램은 뭔가 저희 아이와 또래 보면, 자꾸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데 애는 이렇게 잘 자네? 애는 이렇게 많이 먹네? 이러면 솔직히 그거 안 좋은 거잖아요. 비교하게 되는 건데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유아 모3)

타인의 육아를 잘 보지는 않아요. 일단 뭐 시간적인 그런 것도 없거니와 말씀하셨듯이 너무 비교가 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자꾸 내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는 면들이 많아서 굳이 보지는 않고.(유아 모4)

일부 육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육아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과장(포장)된 부분도 보이고, 등장하는 가정의 상황과 자신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저도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는 하는데, 저는 근데 다른 사람들의 육아 이런 거 절대 안 봐요. TV에서도 나오면 사실 금쪽이 이런 거 나와도 아예 안 보거든요. 사실 도움은 되겠지만 저 사람들 삶은 저랑 다르고, 저는 또 일을 하다 보니까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비교를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초저 모4)

사실 미디어나 매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상 저희 같은 평범한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좀 더 자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관심을 끌기 위해서 더 오버스러운 그런 게 많아서, 저는 사실 이젠 안 보고 있어요.(초저 부5)

4. 소결

가. 육아 가구의 삶의 질

같은 연령대의 비육아가구와의 비교를 통해 육아가구 삶을 들여다보고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 육아가구 중에서도 첫째자녀 연령대별로의 지표에서의 차이를 통해 일부지표는 육아가구 유무보다 성별, 소득, 취업여부 등에 차이를 보이는 지표도 있었고, 육아로 인해 영향을 받는 부분도 보였다.

첫째, 내면적 삶은 여러 가지 삶의 영역에서의 만족감으로 인해 일어나는 전반적 주관적 웰빙과 의식 및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통해 살펴보았다. 평균으로는 육아가구 비육아가구의 만족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첫째가 영아인 부모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근심걱정 및 우울은 비육아가구보다 육아가구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육아 이후 육체적 피로도, 자녀에 대한 고민 등의 현실적인 고민이 많은 것의 영향으로 보여진다. 육아가구가 현실적인 고민과 제약들로 인생결정자유 측면에서는 비육아가구보다 낮게 나타나 삶 의미는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삶의 역량 측면에서는 건강, 교육, 여가 생활 등이 포함되는데, 이 중 건강 생활과 여가 생활이 육아가구에서의 시간부족으로 인해 간과되는 경향성이 있음을 파악하였다. 객관적 건강지표 중 아침식사 정도와 정기적 건강검진의 경우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규칙적 운동에 있어서는 영유아 부모가 초등학생 자녀 부모보다 적은 경향이 있었으나, 이 차이보다 크게 여성이 남성보다 규칙적 운동 정도가 현저하게 낮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와 수면의 질 또한 낮고 전반적 스트레스가 높은 경향을 보여, 육아가구의 건강관리가 시급해 보인다. 이는 주중에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은 일로 육아가구의 여성응답자의 36.3%가 가장 높은 순위로 건강을 위한 운동이라고 답하였고, 이 중 주관적 건강상태와 수면의 질은 첫째자녀의 연령에 따라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 영유아 시기에 육아에 건강관리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학업역량으로 측정한 학업수준 만족도와 자신을 위한 배움 노력에 있어서는 육아/비육아가구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낮게 나타

났고, 미취업인 경우 현저히 낮게 나타나, 육아가구 여성의 경우 재취업이나, 재교육 등을 통한 경력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 또한 필요해 보인다.

셋째,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가족 생활, 사회적 관계, 고립도, 대인 신뢰도 등이 포함된 사회적 삶의 지표를 살펴보았다. 흥미롭게도 육아가구는 비육아가구에 비해 배우자와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비육아가구에서는 없는 관계인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만족도가 비육아가구에서의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와 유사한 정도로 높게 나타나 자녀와의 관계가 가족관계 만족도 전체를 향상시키는 역할로 보였다. 이는 심층면담에서도 나타나는데 자녀의 출산으로 인해 소원했던 원가족과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부모님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육아가구의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첫째자녀 연령이 낮을 때 월등히 높게 나타나면서도 부모 외 돌봄인력이 있는 경우가 자녀와의 관계 외 배우자, 부모형제, 배우자부모형제와의 관계가 더 좋은 경향을 나타내어, 돌봄인력 지원으로 인한 인적자원의 역할이 가족 간 관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사회적 관계에서 인간관계 만족도에 있어서는 육아, 비육아가구의 차이는 없었으나, 오히려 남성이 여성보다, 낮은 연령의 부모가 높은 연령의 부모보다 높은 경향이 나타났고, 미취업인 경우 현저히 낮게 나타나서, 취업 유무가 사회적 관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하게도, 미취업인 육아가구 부모가 취업중인 육아가구 부모보다 자녀친구부모와의 관계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부모의 경우 인간관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심층면담을 통해서도, 초등 고학년 어머니들의 재취업 의사가 높았고, 경력 단절에 대한 고민이 높았던 것과 연계하여, 자녀를 밀착하여 돌보아야 하는 시기가 지난 초등부모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를 더욱 확장시켜줄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사회/집단에 대한 신뢰도 중 이웃과 처음만난 낯선 사람 등 가까운 사람이 아닌 경우에 대한 신뢰도가 육아가구가 비육아가구보다 매우 높아 타인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물질적 삶은 일 생활, 소득/소비생활이 포함되는데, 일생활의 지표인 전반적 직업만족도나 일 가정 양립 만족도, 육아친환경 제도 활동 등에 대해서도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 뿐 아니라 첫째자녀의 연령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

지만 소득/소비생활에 있어서는 육아가구가 비육아가구보다 가구 수가 많다보니, 소득에 대한 만족도, 소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소득, 소비에 대한 만족도는 성별, 소득, 취업여부, 종사상 지위 등에 따라서 차이가 난 측면이 있지만 첫째자녀 연령에서는 영아자녀를 둔 부모가 가장 높고 자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자녀 연령이 증가할수록 실제 양육비용 부담 및 자녀교육비 부담도가 높아지고, 자녀수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부담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어 자녀연령 증가 및 자녀수 증가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삶의 환경 영역에서는 주거생활, 주거, 환경, 안전 등 생활의 환경이 되는 영역에서의 삶의 지표를 살펴보았는데, 주택점유형태, 거주주택 만족도, 편의시설, 의료시설 등 주거환경 만족도, 공기의 질, 소음, 주변 자연환경 등 생활환경 만족도 및 안전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육아/비육아 가구 간, 첫째자녀 연령 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단, 주거환경 중 보육·교육 관련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가 자녀를 키우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비육아가구가 육아가구 보다 낮게 나타나, 비육아가구에서 육아를 하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외에는 육아/비육아 가구 사이의 차이보다는 오히려 삶의 환경 영역에서는 육아가구 유무보다는 학력, 소득, 취업유무, 거주지역 등에 영향이 있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파악할 수 있다.

나. 육아가구 삶의 질의 영향 요소

자녀를 두고 부모가 된다는 것은 개인의 삶에서 이정표적인 사건으로 이는 이후 삶의 전반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첫째, 부모들이 자녀가 생기고 경험하는 긍정적 삶의 변화들은 주로 유데모니아적 행복 및 정서적 측면을 담고 있다. 자녀 출산 후에 삶의 질이 좋아졌다거나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느끼는 요소들은 자녀를 통한 경험하게 된 행복감, 부모됨을 보이기위한 모범적인 삶, 부모나 부부간의 관계의 개선 또는 유대의 강화, 자녀를 생각하며 더 열심히 살게 하는 삶의 원동력, 부모가 되어 스스로 성숙하고 있다는 느낌, 내적 성장을 느끼고 그 가치를 인식하는 것 등으로 표현되었다. 이렇듯 긍정적 부분은 구체적인 무엇으로 보여지기 보다는 행복감으로 표현되는 정서적

체감, 잘하여야겠다는 의지를 담은 정의적 요소들이다.

둘째, 부모들이 자녀가 생기고 경험하는 부정적 삶의 변화들은 긍정적 요소들에 비해 훨씬 구체적이고 명료한 경향을 보인다. 부모들은 자녀의 출생 이후 자신의 삶이 질이 떨어졌다고 체감하는 요소들로 육아 상황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경제적, 시간 사용 등의 부담감과 함께 부모 자신을 위한 소비가 줄어든 점, 삶의 중심이 자녀와 가족으로 넘어간 상황, 외모의 변화, 자기정체성의 변화 등을 꼽았다. 이러한 체감의 구체성은 부모로서의 삶을 표현하는 데에도 반영된다. 부모됨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것은 훨씬 구체적이지만 부모됨의 좋은 점은 행복하다는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들이 부모가 아닌 무자녀 개인에게 부모의 삶을 부모 스스로 체감하는 것 보다 평가 절하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사료된다.

다. 육아가구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주요 영역

육아가구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주요 영역을 파악하기 위해서 ‘삶의 영역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 ‘가장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고 있는 영역’,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으로 나누어 질문한 결과, ‘가족 생활’, ‘건강 생활’, ‘내적 성숙’ 등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족 생활’과 ‘일생활’에 시간과 노력이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었으며, 여가 생활과 물질적 삶에 대한 개선의지가 높았다.

육아가구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집중해야할 영역으로 여가 생활, 일생활 등에 초점을 맞추어 육아가구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는다.

먼저, 대체로 부모들의 여가시간은 자녀의 성장과 함께 육아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영아기 자녀를 둔 경우에 가장 여가시간의 부족을 느끼지만 유아기, 초등학교로 자녀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들의 여가 시간도 늘어나고 활동도 다양하게 확장됨을 보여준다. 부모들은 여가 시간에 운동을 하거나 영화를 보고,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 영아기 부모들에게는 육아의 심표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의 마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부모가 되면서 일에 대한 태도에 변화에 대한 언급들에는 부모된 책임감이 묻어난다. 일에 집중하여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야근을 줄이기도 하고, 부모 자신의 일에 더 열정을 갖게 되고, 빈번했던 이직을 줄이고, 안정된 직장을 찾

고, 또 경제적 대가가 큰 직업을 선택하는 등 변화를 보였다. 특히 아버지들은 면담의 여러 부분에서 경제적 상황, 부양의 책임을 강조하기도 하고, 가족의 경제적 안정에 만족감을 표현하기도 하여 가계의 경제를 담당하는 가장으로의 부담을 갖고 있음을 보였다. 이에 비해 육아를 전담하는 전업주부들의 경우 현재 하고 있는 육아의 가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며 스스로 잘하고 있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들의 미디어와 SNS의 활용 양상에는 개인차가 두드러졌다. 육아정보를 얻고 자녀의 성장도 기록하고, 활동을 공유하고, 육아과정에 좋은 도구로 활용하는 부모들도 있지만 미디어를 통해 육아의 어려움만 강조되고 있는 현상에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미디어를 통해 육아의 긍정적인 측면도 부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렇게 부모가 육아를 하는 삶에서 희생되고 있는 영역, 하지만 개선을 요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인 여가 생활을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일-가정의 균형을 이루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V

부모됨 가치와 육아가구 양육지원 요구

- 01 육아가구의 양육현황
- 02 부모됨과 자녀에 대한 가치
- 03 부모로서의 삶과 정책적 지원요구
- 04 소결

V. 부모됨 가치와 육아가구 양육지원 요구

5장에서는 육아가구 1,614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중 육아가구 실태 및 어려움, 부모됨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부분과 육아가구를 대상으로 한 심층분석 결과 중 부모됨과 육아가구 지원 방안에 관련한 내용의 분석을 담았다.

본 장은 1. 육아가구의 양육현황, 2. 부모됨과 자녀에 대한 가치, 3. 부모가 된 후의 삶의 변화, 4. 육아가구 삶의 질과 정책적 요구, 5. 소결 의 네 절로 구성되어 있다.

1. 육아가구의 양육현황

현재 자녀를 육아 중인 가구의 양육현황을 통해 양육에 사용되는 시간 양육현황을 살펴보고자 자녀돌봄을 위해 이용하는 기관유형과 만족도, 부모의 양육 경험, 주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영역에 대해 질문하였다.

가. 자녀돌봄 및 이용기관

영유아 자녀와 초등자녀의 양육과 돌봄 양상은 너무 큰 차이를 보이므로 돌봄과 이용 기관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1) 영유아 첫째 자녀를 둔 경우

영유아 자녀가 평일 오전/낮시간에 다니는 기관은 어린이집 58.2%, 유치원 18.4%, 반일제 이상 학원 1.6%, 기관 미이용 21.8%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도지역보다 어린이집의 이용비율이 높았고, 도지역에서 수도권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유치원의 이용비율이 높은 양상을 보인다. 이는 도 지역 중 영유아의 인구 비율이 낮아 어린이집이 설치되기 어려운 지역에서 병설유치원의 이용이 보편적이기에 나타나는 차이로 보인다.

영아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54%로 나타났고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내 양육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41.3%로 나타나, 영아 부모를 위한 양육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유아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이용이 62.3%, 유치원 이용은 34.0%로 나타났다.

〈표 V-1-1〉 첫째자녀(영유아) 평일 이용 기관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기관 미이용	계
전체	58.2	18.4	1.6	21.8	100.0(808)
맞벌이 여부					
맞벌이	60.6	16.0	1.5	22.0	100.0(551)
외벌이	51.9	24.5	2.1	21.5	100.0(237)
그 외	65.0	15.0	0.0	20.0	100.0(20)
$\chi^2(df)$	9.777(6)(b)				
거주지역					
수도권	64.6	14.9	1.4	19.1	100.0(424)
광역시(세종 포함)	54.4	19.0	3.2	23.4	100.0(158)
도지역	48.7	24.8	0.9	25.7	100.0(226)
$\chi^2(df)$	21.184(6)**				
첫째자녀 연령					
영아(만0-2세)	54.0	2.7	2.0	41.3	100.0(402)
유아(만3-5세)	62.3	34.0	1.2	2.5	100.0(406)
$\chi^2(df)$	249.957(3)***				
자녀수					
1명	58.4	14.4	1.9	25.2	100.0(630)
2명 이상	57.3	32.6	0.6	9.6	100.0(178)
$\chi^2(df)$	42.031(3)***				

** $p < .01$, *** $p < .001$.

영유아 자녀가 평일 오후 이용하는 돌봄서비스 기관이 있는지 중복응답으로 확인하였다. 어린이집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40.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 33%,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경우 16.7%, 학원 등 사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10.5%, 지역사회 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4.3%, 반일제 이상 학원의 방과후 과정이용이 3.4%로 나타났다.

중복응답이지만 두드러지는 차이를 살펴보면 맞벌이인 경우에는 어린이집 연장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가 45.2%로 가장 높은 반면, 외벌이인 경우에는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보육을 한다는 응답이 40.1%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을 기준으로 보면 영아의 경우에는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보육을 한다는 응답이 54.5%로 가장 높았고, 유아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경우가 46.8%로 높게 나타났다.

〈표 V-1-2〉 첫째자녀(영유아) 평일 오후 이용 돌봄서비스 기관

단위: %, (명)

구분	어린이집 연장 보육	기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 보육함	유치원 방과후 과정	(사설) 학원 등의 사교육 기관	지역 사회 내 돌봄 서비스	반일제 이상 학원의 방과 후 수업	사례수
전체	40.1	33.0	16.7	10.5	4.3	3.5	(808)
맞벌이 여부							
맞벌이	45.2	29.9	15.1	10.2	5.3	4.2	(551)
외벌이	27.4	40.1	20.7	11.0	2.1	2.1	(237)
그 외	50.0	35.0	15.0	15.0	5.0	0.0	(20)
거주지역							
수도권	43.4	31.6	13.4	10.1	3.8	4.7	(424)
광역시(세종 포함)	38.0	30.4	19.0	12.7	7.0	3.2	(158)
도지역	35.4	37.6	21.2	9.7	3.5	1.3	(226)
첫째자녀 연령							
영아(만0-2세)	33.3	54.5	4.0	2.7	5.7	2.7	(402)
유아(만3-5세)	46.8	11.8	29.3	18.2	3.0	4.2	(406)
자녀수							
1명	40.0	36.8	13.3	9.2	4.4	3.7	(630)
2명 이상	40.4	19.7	28.7	15.2	3.9	2.8	(178)

주: 중복응답 결과임.

영유아 자녀가 집이 아닌 기관에서 하루 동안 보내는 평균시간을 조사하였다. 최소 30분에서 최대 15시간까지 응답하였고, 전체 응답자의 평균은 4시간 54분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를 기준으로 차이를 살펴보면, 맞벌이의 경우 평균 5시간 6분, 외벌이의 경우 평균 4시간 18분으로 나타나 약 50분 정도의 이용시간의 차이를 보였

다.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수도권외의 경우 평균 5시간 12분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을 중심으로 보면 영아보다 유아의 이용시간이 길게 나타나 영아의 경우 4시간, 유아의 경우 5시간 42분으로 유아의 기관 이용시간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표 V-1-3〉 첫째자녀(영유아) 기관 이용 시간

단위: 시간/분, (명)

구분	최소 이용시간	최대 이용시간	평균 이용시간	사례수
전체	0시간 30분	15시간 0분	4시간 54분	(808)
맞벌이 여부				
맞벌이	0시간 30분	15시간 0분	5시간 6분	(551)
외벌이	0시간 30분	10시간 0분	4시간 18분	(237)
그 외	0시간 30분	10시간 0분	4시간 42분	(20)
F	-	-	4.7**(a)	
거주지역				
수도권	0시간 30분	15시간 0분	5시간 12분	(424)
광역시(세종 포함)	0시간 30분	11시간 0분	4시간 30분	(158)
도지역	0시간 30분	15시간 0분	4시간 36분	(226)
F	-	-	3.7*	
첫째자녀 연령				
영아(만0-2세)	0시간 30분	15시간 0분	4시간 0분	(402)
유아(만3-5세)	0시간 30분	12시간 0분	5시간 42분	(406)
t	-	-	62.3*** (a)	

* $p < .05$, ** $p < .01$, *** $p < .001$.

영유아 자녀가 집에 있을 때 아이를 돌보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지 중복 응답으로 살펴보았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부모가 직접 돌본다는 경우가 5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조부모(또는 친인척) 36.3%, 공공아이돌보미 5.3%, 민간 베이비시터 2.8%로 나타났다.

중복응답이지만 두드러지는 차이를 살펴보면 외벌이인 경우 도움 없이 부모가 직접 돌본다는 비율이 73.4%에 달하였고, 맞벌이의 경우도 부모가 직접 돌본다는 응답이 52.3%로 높지만 그 다음은 조부모(또는 친인척)의 비율이 41.6%로 나타나 공공아이돌보미(6.2%)나 민간베이비시터(4.2%)의 이용보다 월등히 높았다.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영아와 유아 모두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부모가 직

접 돌본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조부모(또는 친인척)라는 응답도 영아의 경우 40.3%, 유아인 경우 32.3%로 높게 나타났다.

〈표 V-1-4〉 첫째자녀(영유아) 가정 내 돌봄 인력

단위: %, (명)

구분	부모	조부모(또는 친인척)	공공 아이돌보미	민간 베이비시터	사례수
전체	58.5	36.3	5.3	2.8	(808)
맞벌이 여부					
맞벌이	52.3	41.6	6.2	4.2	(551)
외벌이	73.4	24.1	3.0	0.0	(237)
그 외	55.0	35.0	10.0	0.0	(20)
거주지역					
수도권	58.7	34.7	5.4	3.5	(424)
광역시(세종 포함)	57.0	38.0	5.7	3.2	(158)
도지역	59.3	38.1	4.9	1.3	(226)
첫째자녀 연령					
영아(만0-2세)	53.5	40.3	6.5	3.0	(402)
유아(만3-5세)	63.5	32.3	4.2	2.7	(406)
자녀수					
1명	59.7	35.2	5.1	2.7	(630)
2명 이상	54.5	39.9	6.2	3.4	(178)

주: 중복응답 결과임.

2) 초등학생 첫째 자녀를 둔 경우

초등학생 자녀가 평일 오후 하교 후 다니는 기관을 중복응답으로 살펴보았다. 학원 등의 사교육 기관 64.1%, 초등학교 내 돌봄(초등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늘봄 학교 등) 48.4%, 지역사회 내 돌봄서비스 8.8%, 기관 미이용 3.8%로 나타났다.

중복응답이지만 두드러지는 차이를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에서 초등학교 내 돌봄 서비스와 지역사회 내 돌봄서비스 모두에서 외벌이의 경우보다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초등 저학년에서는 초등학교 내 돌봄의 비율이 60.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초등 고학년에서는 학원 등의 사교육 기관의 이용 비율이 70.8%까지 높게 나타났다.

〈표 V-1-5〉 첫째자녀(초등학생) 평일 이용 돌봄서비스 기관

단위: %, (명)

구분	학원 등의 사교육 기관	초등학교 내 돌봄	지역사회 내 돌봄 서비스	기관에 보내지 않음	사례수
전체	64.1	48.4	8.8	3.8	(806)
맞벌이 여부					
맞벌이	65.1	50.0	10.4	2.9	(444)
외벌이	65.8	44.4	5.6	5.6	(284)
그 외	52.6	53.8	11.5	2.6	(78)
거주지역					
수도권	67.4	45.2	7.4	4.7	(405)
광역시(세종 포함)	54.5	57.0	7.9	3.6	(165)
도지역	65.3	47.9	11.9	2.5	(236)
첫째자녀 연령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57.5	60.0	10.2	2.5	(402)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70.8	36.9	7.4	5.2	(404)
자녀수					
1명	65.7	43.9	8.7	3.6	(335)
2명 이상	63.1	51.6	8.9	4.0	(471)

주: 중복응답 결과임.

초등학생 자녀가 집이 아닌 기관(초등학교 내 돌봄, 지역사회 내 돌봄서비스, 학원 등의 사교육 기관 포함)에서 하루 동안 보내는 평균시간을 조사하였다. 최소 50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응답하였고, 전체 응답자의 평균은 2시간 48분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를 기준으로 차이를 살펴보면, 맞벌이의 경우 평균 3시간, 외벌이의 경우 평균 2시간 30분으로 나타나 약 30분 정도의 이용시간의 차이를 보였다. 자녀의 연령을 중심으로 보면 초등 고학년보다 초등 저학년의 이용시간이 길게 나타나 저학년의 경우의 경우 3시간, 초등 고학년의 경우 2시간 36분으로 나타났다.

〈표 V-1-6〉 첫째자녀(초등학생) 기관 이용시간

단위: 시간/분, (명)

구분	최소 이용시간	최대 이용시간	평균 이용시간	사례수
전체	0시간 50분	12시간 0분	2시간 48분	(806)
맞벌이 여부				

구분	최소 이용시간	최대 이용시간	평균 이용시간	사례수
맞벌이	0시간 50분	12시간 0분	3시간 0분	(444)
외벌이	0시간 50분	10시간 0분	2시간 30분	(284)
그 외	0시간 50분	10시간 0분	2시간 48분	(78)
F	-	-	6.8**	
거주지역				
수도권	0시간 50분	10시간 0분	2시간 42분	(405)
광역시(세종 포함)	0시간 50분	10시간 12분	2시간 48분	(165)
도지역	0시간 50분	12시간 0분	3시간 0분	(236)
F	-	-	2.2(a)	
첫째자녀 연령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0시간 50분	10시간 0분	3시간 0분	(402)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0시간 50분	12시간 0분	2시간 36분	(404)
t	-	-	10.7**(a)	

** p < .01.

초등학생 자녀가 집에 있을 때 아이를 돌보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지 중복응답으로 살펴보았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부모가 직접 돌본다는 경우가 57.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조부모(또는 친인척) 24.6%, 아이가 혼자 있음 11.7%, 공공아이돌보미 7.7%, 민간베이비시터 3.3%로 나타났다.

중복응답이지만 두드러지는 차이를 살펴보면 외벌이인 경우 도움 없이 부모가 직접 돌본다는 비율이 81.7%에 달하였고, 맞벌이의 경우도 부모가 직접 돌본다는 응답이 44.8%로 높았다. 맞벌이의 경우 그 다음은 여전히 조부모(또는 친인척)의 비율이 30.6%로 높게 나타나 맞벌이 가구에서 조부모의 조력이 자녀의 초등학생시기 까지 지속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초등 저학년과 초등 고학년 모두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부모가 직접 돌본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아이가 혼자 집에 있다는 응답이 초등 고학년에서 16.6%로 높게 나타났다.

<표 V-1-7> 첫째자녀(초등학생) 가정 내 돌봄 인력

단위: %, (명)

구분	부모	조부모 (또는 친인척)	아이가 집에 혼자 있음	공공 아이돌보미	민간 베이비시터	사례수
전체	57.2	24.6	11.7	7.7	3.3	(806)
맞벌이 여부						

구분	부모	조부모 (또는 친인척)	아이가 집에 혼자 있음	공공 아이돌보미	민간 베이비시터	사례수
맞벌이	44.8	30.6	15.5	10.6	5.4	(444)
외벌이	81.7	10.2	4.9	3.5	0.7	(284)
그 외	38.5	42.3	14.1	6.4	1.3	(78)
거주지역						
수도권	56.8	25.2	10.6	7.7	4.4	(405)
광역시(세종 포함)	57.0	26.1	10.9	9.1	3.0	(165)
도지역	58.1	22.5	14.0	6.8	1.7	(236)
첫째자녀 연령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56.7	28.4	6.7	10.4	4.2	(402)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57.7	20.8	16.6	5.0	2.5	(404)
자녀수						
1명	56.4	28.1	9.3	7.5	3.3	(335)
2명 이상	57.7	22.1	13.4	7.9	3.4	(471)

주: 중복응답 결과임.

나. 부모 양육관련 경험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들의 양육 관련 경험과 인식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양육 분담 정도는 어떠한지, 또 그에 대한 만족도, 부모로서의 양육효능감, 부모역할 부담,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정서, 육아를 어렵게 하는 요소 등을 살펴보았다.

1) 양육 분담 정도와 만족도

1주일을 기준으로 집안에서 자녀가 돌봄이 필요한 시간 전체를 100%로 생각하고 부부의 자녀양육 분담 정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아버지의 경우 본인은 30.8%, 배우자는 60.6%, 부부 외 타인은 8.6%로 나타났다. 취업여부를 중심으로 보면 휴직중인 경우 본인 48.7%, 배우자 46.3%로 양육 참여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맞벌이의 경우 외벌이의 경우 보다 본인의 참여비율이 다소 높았다.

어머니의 경우는 본인은 70.3%, 배우자는 22.3%, 부부 외 타인은 7.5%로 조사되었다. 취업여부를 중심으로 보면 취업 중인 경우 본인은 평균 62.4%로, 휴직 중

72.7%나 미취업 80.4%보다 그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를 중심으로 보면 맞벌이인 경우 65.2%, 외벌이의 경우 79.1%로 차이를 보였다.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영아 자녀를 둔 경우에서 초등 고학년 자녀 집단으로 갈수록 어머니 본인의 양육 참여 비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성장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참여 비중이 증가한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영유아를 기르는 젊은 아버지들의 양육 참여가 보다 활발하기 때문에 나타나 차이로 보인다.

〈표 V-1-8〉 부모의 자녀 양육분담 정도

단위: %, (명)

구분	남성(아버지)				여성(어머니)			
	본인	배우자	부부의 타인	사례수	본인	배우자	부부의 타인	사례수
전체	30.8	60.6	8.6	(784)	70.3	22.3	7.5	(743)
취업여부								
취업중/학업중	30.1	61.2	8.7	(745)	62.4	26.1	11.6	(364)
휴직중	48.7	46.3	5.0	(25)	72.7	21.8	5.5	(124)
미취업	36.8	53.9	9.3	(14)	80.4	17.1	2.5	(255)
F	13.7***	6.5**	0.7		60.1***(a)	22.5***	30.4***(a)	
맞벌이 여부								
맞벌이	33.3	55.2	11.5	(524)	65.2	24.6	10.2	(471)
외벌이	25.6	71.8	2.6	(254)	79.1	18.2	2.8	(267)
그 외	29.2	65.8	5.0	(6)	74.0	26.0	0.0	(5)
F	15.7***(a)	57.4***(a)	28.8***(a)		37.5***(a)	12.8***(a)	22.4***(a)	
첫째자녀 연령								
영아(만0-2세)	30.7	60.1	9.2	(198)	66.9	24.5	8.6	(198)
유아(만3-5세)	32.3	58.1	9.6	(201)	68.5	22.9	8.5	(193)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30.7	61.2	8.1	(191)	73.0	19.6	7.4	(178)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29.3	63.1	7.5	(194)	73.2	21.9	4.9	(174)
F	0.9	1.8	0.7		4.0**	2.7*(a)	2.4(a)	
부모 외 돌봄 인력 여부								
있음	31.5	50.4	18.2	(314)	57.6	23.0	19.4	(227)
없음	30.3	67.5	2.2	(470)	75.8	22.0	2.2	(516)
t	0.8	-11.7***	13.6***		-10.4***	0.8	12.4***	

* p < .05, ** p < .01, *** p < .001.



부부간 양육 분담에 대한 만족도를 0점(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에서 10점(매우 만족한다)까지의 척도로 확인하였다. 만족도는 대체로 5점에서 8점 사이의 응답이 높은 경향을 보였고 남성은 평균 6.5점, 여성은 평균 5.2점으로 부부간 양육 분담에 대해 남성이 여성보다 만족하는 정도가 높았다.

〈표 V-1-9〉 부모의 자녀 양육분담 만족도(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 — — — — — — — — — → 매우 만족한다											계	평균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4.7	2.4	4.1	6.4	6.4	16.6	14.1	18.2	12.6	6.5	8.1	100.0(1,527)	5.9
성별													
남성(아버지)	1.8	0.5	1.0	4.2	4.5	19.1	15.9	20.8	15.8	7.0	9.3	100.0(784)	6.5
여성(어머니)	7.8	4.3	7.4	8.6	8.5	13.9	12.1	15.5	9.2	5.9	6.9	100.0(743)	5.2
$\chi^2(df)/t$	144.816(10)***												10.1***

주: 평균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점 ~ '매우 만족한다' 10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01$.

부부간 양육 분담에 대한 만족도에 나타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자녀 연령집단별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유아 자녀를 둔 집단에서 역할 분담에의 만족도가 6.1점으로 가장 낮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집단에서 6.8점과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집단에서 6.7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영아 자녀를 둔 집단에서 만족정도가 가장 높아 5.8점으로 나타났다고 유아 이상 자녀를 둔 집단은 대략 5점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표 V-1-10〉 부모의 자녀 양육분담 만족도(아버지/어머니 비교)

단위: 점, (명)

구분	남성		여성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전체	6.5	(784)	5.2	(743)
첫째자녀 연령				
영아(만0~2세)	6.5	(198)	5.8	(198)
유아(만3~5세)	6.1	(201)	5.1	(193)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6.8	(191)	5.1	(178)

구분	남성		여성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6.7	(194)	5.0	(174)
F	4.4**		3.4*	
자녀수				
1명	6.5	(469)	5.3	(434)
2명 이상	6.6	(315)	5.1	(309)
t	-0.5		1.0	
부모 외 돌봄 인력 유무				
있음	6.6	(314)	5.3	(227)
없음	6.5	(470)	5.2	(516)
t	1.3		0.1	

주: 평균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점 ~ '매우 만족한다' 10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p < .01$.

2) 양육 효능감

부모들에게 자녀를 기르면서 어느 정도의 효능감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에 제시된 질문들에 대한 동의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는 다음 <표 IV-4-11>과 같다.

9개 문항 전체에 대한 평균은 남성과 여성 차이 없이 2.9점으로 '그런편이다(3점)'에 수렴하는 결과를 보였다. 세부 문항별로 보면, '나는 나의 행동이 아이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3.3점)'와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며 보다 더 나은 부모가 되고자 노력한다(3.2점)'에의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나는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2.5점)'와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로부터 좋은 부모 역할을 배울 수 있는 괜찮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2.6점)',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2.7점)'에의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V-1-11> 양육효능감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전체	남성	여성	t
양육효능감 전체 평균	(1,614)	2.9	2.9	2.9	-0.9
1. 나는 나의 행동이 아이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	(1,614)	3.3	3.2	3.4	-4.5***

구분	사례수	전체	남성	여성	t
2. 나는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1,614)	2.5	2.6	2.5	3.6***
3. 나는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1,614)	2.9	2.8	3.0	-5.0***
4.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로부터 좋은 부모 역할을 배울 수 있는 괜찮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1,614)	2.6	2.7	2.5	4.6***
5.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	(1,614)	2.7	2.7	2.7	-0.4
6. 나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 자신이 잘못된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 하고 지도한다.	(1,614)	2.9	2.9	2.9	-0.8
7. 나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다.	(1,614)	2.9	2.9	2.9	0.4
8.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며 보다 더 나은 부모가 되고자 노력한다.	(1,614)	3.2	3.2	3.3	-3.1**
9.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1,614)	2.8	2.7	2.8	-1.4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1$, *** $p < .001$.

3) 부모 역할부담

부모들에게 자녀를 양육하면서 체감하는 어려움에 대해 '전혀 느끼지 않는다(0점)'부터 '매우 느낀다(10점)'까지 답하도록 질문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4-12>와 같다. 부모가 체감하는 역할부담 중 가장 높은 부분은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따른 신체적 고단함(7점)'이며, 다음은 '양육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6.9점)', '부모로서 양육책임 자체에 대한 심리적 부담(6.8점)'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그 반면 '자녀의 학업, 취미, 생활습관 등을 둘러싼 자녀와의 갈등(5.4점)', '자녀를 키우느라 사회적으로 단절되어 느끼는 정서적 어려움(5.4점)' 등은 부모역할 부담으로 비교적 낮게 체감하고 있었다.

<표 V-1-12> 부모역할부담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전체	남성	여성	t
1.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을 둘러싼 배우자와의 갈등	(1,527)	5.6	5.4	5.8	-3.1**
2. 자녀의 학업, 취미, 생활습관 등을 둘러싼 자녀와의 갈등	(1,614)	5.4	5.1	5.7	-4.9***
3. 사회적으로 단절되어 느끼는 정서적 어려움	(1,614)	5.4	4.9	5.9	-7.7***
4. 부모로서 양육책임 자체에 대한 심리적 부담	(1,614)	6.6	6.1	7.2	-9.5***
5. 양육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	(1,614)	6.9	6.5	7.3	-6.5***
6.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따른 신체적 고단함	(1,614)	7.0	6.4	7.6	-10.6***

주: '전혀 느끼지 않는다' 0점 ~ '매우 느낀다' 10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1$, *** $p < .001$.

부모가 체감하는 역할부담에 나타난 집단차이를 살펴보면 아버지 집단과 어머니 집단에서 차이가 나타나 부모 역할 문항 전부에서 어머니가 더 역할부담을 높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자녀를 키우느라 사회적으로 단절되어 느끼는 정서적 어려움’과 ‘부모로서 양육책임 자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의 문항에서 45세 이상 집단의 체감이 다른 집단보다 낮게 나타났다.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보면 고학력 집단에서 ‘자녀의 학업, 취미, 생활습관 등을 둘러싼 자녀와의 갈등’과 ‘자녀를 키우느라 사회적으로 단절되어 느끼는 정서적 어려움’에 역할부담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여부를 중심으로 보면 휴직 중이거나 미취업 상황에서 ‘자녀를 키우느라 사회적으로 단절되어 느끼는 정서적 어려움’에의 체감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을 중심으로 보면 영유아 집단에서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따른 신체적 고단함’을 초등학교 자녀를 둔 집단보다도 높게 체감하였다. 또한 자녀수가 많은 집단에서 ‘자녀의 학업, 취미, 생활습관 등을 둘러싼 자녀와의 갈등’, ‘양육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따른 신체적 고단함’을 높게 체감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V-1-13〉 부모역할부담 1)-6)

단위: 점, (명)

구분	①	사례수	②	③	④	⑤	⑥	사례수
전체	5.6	(1,527)	5.4	5.4	6.6	6.9	7.0	(1,614)
성별								
남성	5.4	(784)	5.1	4.9	6.1	6.5	6.4	(808)
여성	5.8	(743)	5.7	5.9	7.2	7.3	7.6	(806)
t	-3.1**		-4.9***	-7.7***	-9.5***	-6.5***	-10.6***	
본인 연령								
만34세 이하	5.5	(292)	5.4	5.6	6.6	6.8	7.1	(315)
만35-39세	5.7	(486)	5.4	5.6	6.8	7.0	7.2	(510)
만40-44세	5.8	(544)	5.5	5.5	6.7	7.0	6.9	(569)
만45세 이상	5.3	(205)	5.1	4.7	6.1	6.7	6.5	(220)
F	1.6(a)		1.0(a)	5.2**	5.0**	1.3(a)	6.1***(a)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5.3	(153)	5.3	5.7	6.3	7.1	6.6	(170)
전문대학(2·3년제) 졸업	5.9	(296)	5.5	5.7	7.1	7.2	7.1	(325)
대학교(4년제) 졸업	5.7	(879)	5.5	5.4	6.6	6.9	7.1	(910)
대학원 재학 이상	5.3	(199)	4.9	4.9	6.2	6.4	6.6	(209)

구분	①	사례수	②	③	④	⑤	⑥	사례수
F	2.5		3.4*	4.4**	7.0*** ^(a)	5.0** ^(a)	3.6* ^(a)	
취업여부								
취업중/학업중	5.6	(1,109)	5.4	5.1	6.4	6.7	6.8	(1,171)
휴직중	5.8	(149)	5.2	6.1	6.9	7.2	7.6	(157)
미취업	5.5	(269)	5.5	6.6	7.3	7.6	7.5	(286)
F	0.4		1.2	40.5***	146*** ^(a)	151*** ^(a)	164*** ^(a)	
첫째자녀 연령								
영아(만0-2세)	5.5	(396)	4.8	5.5	6.7	6.8	7.2	(402)
유아(만3-5세)	6.0	(394)	5.5	5.6	6.9	7.0	7.3	(406)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5.6	(369)	5.5	5.4	6.5	6.9	6.8	(402)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5.4	(368)	5.6	5.2	6.5	6.9	6.6	(404)
F	4.3**		8.9*** ^(a)	1.8	2.6	0.5	9.4***	
자녀수								
1명	5.6	(903)	5.1	5.4	6.6	6.7	6.9	(965)
2명 이상	5.7	(624)	5.8	5.5	6.7	7.2	7.1	(649)
t	-1.2		-4.8***	-1.1	-1.1	-4.4***	-2.2*	

주: 1) ①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을 둘러싼 배우자와의 갈등 ② 자녀의 학업, 취미, 생활습관 등을 둘러싼 자녀와의 갈등
 ③ 자녀를 키우느라 사회적으로 단절되어 느끼는 정서적 어려움 ④ 부모로서 양육책임 자체에 대한 심리적 부담
 ⑤ 양육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 ⑥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따른 신체적 고단함
 2) ① 문항은 자녀와 배우자가 모두 있는 경우에 답함. ②~⑥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 모두 답함.
 3) '전혀 느끼지 않는다' 0점 ~ '매우 느낀다' 10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4) 자녀양육 정서

부모들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정서에 대해 다음의 9개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제시된 질문들에 대한 동의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는 다음 <표 IV-4-14>와 같다. 3점 이상의 높은 동의 정도를 보인 문항은 '육아 경험을 통해 나는 나의 부모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3.1점)', '육아 경험은 나에게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3.1점)', '육아활동에는 상당한 시간이 할애되지만 나는 이 시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3.1점)' 등으로 육아를 통해 경험하는 긍정적 정서를 보여주는 문항들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를 보인 문항들은 '자녀를 키우는 일은 귀찮고 짜증스러운 일이다(2점)', '자녀를 키우는 일은 부담스럽고 혼란스러운 일이다(2.6점)', '육아활동은 나를 제대로 표현해준다고 생각한다(2.6점)' 등이다.

이에 대한 아버지 집단과 어머니 집단의 차이를 살펴보면, ‘육아경험을 통해 나는 나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다’, ‘나는 육아에 완전히 몰입되는 경험을 갖춘 한 다’, ‘육아활동에는 상당한 시간이 할애되지만 나는 이 시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육아활동은 나를 제대로 표현해준다고 생각한다’ 등의 정서에서 아버지 집단의 동의 정도가 어머니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고, ‘자녀에게 잘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한 생각이 든다’, ‘자녀를 키우는 일은 부담스럽고 혼란스러운 일이다’ 등의 문항에서는 어머니 집단의 동의 정도가 아버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1-14〉 자녀양육정서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전체	남성	여성	t
1. 육아 경험을 통해 나는 나의 부모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1,614)	3.1	3.1	3.1	-1.8
2. 육아경험을 통해 나는 나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다.	(1,614)	2.7	2.8	2.7	2.5*
3. 육아경험은 나에게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	(1,614)	3.1	3.1	3.1	2.1*
4. 나는 육아에 완전히 몰입되는 경험을 갖춘 한 다.	(1,614)	2.7	2.8	2.7	2.1*
5. 육아활동에는 상당한 시간이 할애되지만 나는 이 시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1,614)	3.1	3.1	3.0	2.2*
6. 육아활동은 나를 제대로 표현해준다고 생각한다.	(1,614)	2.6	2.7	2.5	7.0***
7. 자녀에게 잘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한 생각이 든다.	(1,614)	2.9	2.8	3.0	-6.6***
8. 자녀를 키우는 일은 부담스럽고 혼란스러운 일이다.	(1,614)	2.6	2.5	2.7	-5.5***
9. 자녀를 키우는 일은 귀찮고 짜증스러운 일이다.	(1,614)	2.0	2.0	2.0	0.9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p < .001$.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정서를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로 구분하여 그 동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긍정적 정서에의 동의가 2.9점으로 부정적 정서 평균인 2.5점보다 높게 나타나 부모들은 자녀양육 시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체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버지 집단과 어머니 집단 사이 차이를 보여 아버지 집단에서 긍정적 정서에의 체감이 어머니 집단에서는 부정적 정서의 체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휴직 중인 집단에서 긍정적 정서에의 동의가 높고 부정적 정서에의 동의가 낮게 나타났다.

〈표 V-1-15〉 양육 정서-긍정정서/부정정서

단위: 점, (명)

구분	긍정적 정서 (평균)	부정적 정서 (평균)	사례수
전체	2.9	2.5	(1,614)
성별			
남성	2.9	2.4	(808)
여성	2.8	2.6	(806)
t	3.5***	-4.8***	
본인 연령			
만34세 이하	2.9	2.5	(315)
만35-39세	2.9	2.5	(510)
만40-44세	2.8	2.5	(569)
만45세 이상	2.9	2.4	(220)
F	2.4(a)	2.8*(a)	
취업 여부			
취업중/학업중	2.9	2.5	(1,171)
휴직중	2.9	2.4	(157)
미취업	2.8	2.6	(286)
F	5.1**	5.2**	
첫째자녀 연령			
영아(만0-2세)	3.0	2.5	(402)
유아(만3-5세)	2.9	2.5	(406)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2.9	2.5	(402)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2.8	2.4	(404)
F	4.1**(a)	1.9	

** $p < .01$, *** $p < .001$.

5) 육아를 어렵게 하는 요인

부모들에 육아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하도록 질문하였다. 먼저 1순위 응답을 살펴보면, '사교육 증가로 사교육비용의 증가(29.1%)', '양육 수당, 아동 수당 등 비용지원 부족(28%)',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교육기관 및 인력의 부재(20.8%)'의 순서로 나타나 부모들은 양육비용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높게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하여 보면,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비용지원 부족' 53.3%, '사교육 증가로 사교육 비용의 증가'가 51.9%,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교육기관 및 인력의 부재' 42.4%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응답자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여 만39세 이하 집단에서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비용지원 부족'을, 만40세 이상 집단에서는 '사교육 증가로 사교육 비용의 증가'를 육아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월평균 가구소득이 450만원 미만 집단에서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비용지원 부족'을, 450만원 이상 집단에서는 '사교육 증가로 사교육 비용의 증가'에 높은 응답을 보였다. 맞벌이 집단에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교육기관 및 인력의 부재'에의 응답이 외벌이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교육 증가로 사교육 비용의 증가'라는 응답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자녀의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비용지원 부족'에이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영유아 집단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교육기관 및 인력의 부재'에의 응답이 높았다. 자녀수가 2명이상인 집단에서는 '사교육 증가로 사교육비용의 증가'라는 응답의 비율이, 자녀가 1명인 집단에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교육기관 및 인력의 부재'에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V-1-16〉 육아를 어렵게 하는 요인

단위: %(명)

구분	① 사교육 비용 증가	② 비용 지원 부족	③ 돌봄, 교육기관 및 인력의 부재	④ 지역 사회 내 시설 및 공간 부족	⑤ 사회 분위기	기타	없음	계
1+2순위 전체	51.9	53.3	42.4	31.0	18.2	3.0	0.2	-
1순위 전체	29.1	28.0	20.8	12.6	8.0	1.5	-	100.0(1,614)
성별								
남성	27.5	30.1	20.8	12.6	7.7	1.4	-	100.0(808)
여성	30.6	25.9	20.8	12.5	8.3	1.7	-	100.0(806)
$\chi^2(df)$	4.446(5)							
본인 연령								
만34세 이하	18.1	36.2	20.0	14.6	9.8	1.3	-	100.0(315)
만35-39세	23.5	28.8	24.7	12.5	8.4	2.0	-	100.0(510)
만40-44세	33.7	26.4	19.2	11.8	7.7	1.2	-	100.0(569)
만45세 이상	45.5	18.6	17.3	11.8	5.0	1.8	-	100.0(220)

육아가구의 삶의 질 제고 방안

구분	① 사교육 비용 증가	② 비용 지원 부족	③ 돌봄, 교육기관 및 인력의 부재	④ 지역 사회 내 시설 및 공간 부족	⑤ 사회 분위기	기타	없음	계
$\chi^2(df)$	70.631(15)***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8.0	39.0	13.8	9.6	9.2	0.5	-	100.0(218)
300만원 이상 450만원 미만	28.2	33.8	14.9	14.0	7.0	2.1	-	100.0(429)
45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32.2	28.5	20.9	10.8	6.8	0.8	-	100.0(369)
600만원 이상 750만원 미만	27.3	22.0	26.9	13.3	8.7	1.9	-	100.0(264)
750만원 이상	28.7	17.7	28.1	14.1	9.3	2.1	-	100.0(334)
$\chi^2(df)$	69.086(20)***							
맞벌이 여부								
맞벌이	26.3	26.6	24.5	12.5	8.2	1.8	-	100.0(995)
외벌이	32.6	30.1	14.8	14.0	7.1	1.3	-	100.0(521)
그 외	37.8	30.6	15.3	6.1	10.2	0.0	-	100.0(98)
$\chi^2(df)$	33.647(10)***							
거주지역								
수도권	30.0	26.4	22.1	10.9	8.8	1.8	-	100.0(829)
광역시(세종 포함)	31.0	32.2	17.6	9.6	8.0	1.5	-	100.0(323)
도지역	26.0	27.9	20.8	17.7	6.5	1.1	-	100.0(462)
$\chi^2(df)$	24.207(10)**							
첫째자녀 연령								
영아(만0-2세)	13.4	36.6	23.6	14.7	10.0	1.7	-	100.0(402)
유아(만3-5세)	18.2	30.3	27.3	12.6	9.6	2.0	-	100.0(406)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33.8	24.1	19.4	13.4	7.5	1.7	-	100.0(402)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50.7	21.0	12.9	9.7	5.0	0.7	-	100.0(404)
$\chi^2(df)$	176.411(15)***							
자녀수								
1명	24.2	28.9	24.4	11.9	9.1	1.5		100.0(965)
2명 이상	36.2	26.7	15.6	13.6	6.3	1.7		100.0(649)
$\chi^2(df)$	39.003(5)***							

주: ① 사교육 증가로 사교육비용 증가 ②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비용지원 부족 ③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교육기관 및 인력의 부재 ④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시설 및 공간 부족 ⑤ 육아를 하는 가구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

** p < .01, *** p < .001.

2. 부모됨과 자녀에 대한 가치

가. 부모됨/자녀에 대한 인식

‘자녀’라는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음에 진술된 문장들에 대한 동의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척도로 확인하였다. 응답자들은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3.3점)’와 ‘자녀를 키우는 일은 기쁨과 행복을 준다(3.3점)’에 가장 높은 동의를 보였고, 자녀의 도구적 측면이 강조되는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2.2점)’,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2.3점)’ 등에는 낮은 동의를 보였다.

〈표 V-2-1〉 자녀에 대한 가치관(전체)

단위: 점, (명)

구분	전체	사례수
1.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3.3	(2,024)
2. 자녀를 키우는 일은 기쁨과 행복을 준다.	3.3	(2,024)
3.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3.1	(2,024)
4. 자녀가 있으면 외롭지 않고 허전하지 않다.	3.1	(2,024)
5.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2	(2,024)
6.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2.3	(2,024)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녀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에 나타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남성 집단의 동의 정도가 여성 집단에 비해 거의 모든 문항에서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연령에 따라서는 만45세 이상 집단에서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에 동의 정도가 다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학력을 중심으로는 대학원 이상 집단에서 ‘자녀를 키우는 일은 기쁨과 행복을 준다’에 동의 정도가 다소 높았다. 현재 육아를 하고 있는 부모와 아닌 경우를 비교하면 자녀를 기르고 있는 가구에서 거의 모든 문항에서 동의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즉 육아를 하고 있는 부모들이 자녀 존재 자체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V-2-2〉 자녀에 대한 가치관

단위: 점,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사례수
전체	3.3	3.3	3.1	3.1	2.2	2.3	(2,024)
성별							
남성	3.4	3.3	3.2	3.2	2.3	2.4	(1,011)
여성	3.3	3.3	3.0	3.0	2.0	2.1	(1,013)
t	3.4**	1.8	4.6***	5.3***	7.5***	9.5***	
본인 연령							
만34세 이하	3.3	3.3	3.1	3.0	2.2	2.2	(384)
만35-39세	3.3	3.3	3.1	3.1	2.2	2.2	(662)
만40-44세	3.3	3.3	3.0	3.1	2.1	2.3	(689)
만45세 이상	3.4	3.4	3.1	3.1	2.1	2.5	(289)
F	0.7	1.6	1.5	1.1	0.9(a)	8.3***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3	3.2	3.1	3.0	2.3	2.2	(227)
전문대학(2·3년제) 졸업	3.3	3.3	3.0	3.1	2.2	2.2	(390)
대학교(4년제) 졸업	3.3	3.3	3.1	3.1	2.1	2.3	(1,143)
대학원 재학 이상	3.4	3.4	3.2	3.2	2.1	2.4	(264)
F	2.6	3.8**	1.8	1.2	1.9	2.0	
육아가구 여부							
육아가구	3.4	3.4	3.1	3.2	2.2	2.3	(1,614)
비육아가구	3.2	3.1	3.0	2.8	2.1	2.0	(410)
t	5.8***	7.3***	3.5**	9.0***	1.8	6.7***	
첫째자녀 연령							
영아(만0-2세)	3.4	3.4	3.2	3.1	2.2	2.2	(402)
유아(만3-5세)	3.4	3.4	3.1	3.2	2.1	2.3	(406)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3.4	3.3	3.1	3.2	2.2	2.4	(402)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3.4	3.3	3.1	3.2	2.2	2.4	(404)
F	0.8	1.8(a)	1.6	0.6(a)	1.1	4.1**(a)	

주: 1) ①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② 자녀를 키우는 일은 기쁨과 행복을 준다. ③ 자녀는 부부 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④ 자녀가 있으면 외롭지 않고 허전하지 않다. ⑤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⑥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2)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1$, *** $p < .001$.

'부모됨'에 대해 다음에 진술된 문장들에 대한 동의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척도로 확인하였다. 응답자들은 '자녀를 낳기

전에 부모가 되기 위한 심리·정서적 준비가 꼭 필요하다(3.4점)',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3.3점)', '부모가 된다는 것은 책임감을 동반하는 두렵고 부담스러운 일이다(3.2점)'의 순서로 동의정도를 보였다.

부모됨에 대한 인식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 집단에서 남성 집단보다 유의하게 동의 정도가 높아 부모됨에 부담스럽고, 심리·정서적, 경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차이는 육아중인 부모들과 육아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 간에도 나타났다. 대체로 육아를 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 집단에서 실제 부모 집단보다 유의하게 동의 정도가 높아 부모됨에 부담스럽고, 심리·정서적, 경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렇듯 자녀 양육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서 부모됨에 대한 부담스러움, 심리·정서적, 경제적 준비에의 부담 등은 결혼과 출산의 의사결정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V-2-3〉 부모됨에 대한 인식

단위: 점, (명)

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은 책임감을 동반하는 두렵고 부담스러운 일이다	자녀를 낳기 전에 부모가 되기 위한 심리·정서적 준비가 꼭 필요하다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사례수
전체	3.2	3.4	3.3	(2,024)
성별				
남성	3.0	3.2	3.2	(1,011)
여성	3.3	3.5	3.4	(1,013)
t	-8.4***	-10.8***	-7.2***	
육아가구 여부				
육아가구	3.1	3.3	3.2	(1,614)
비육아가구	3.4	3.5	3.5	(410)
t	-6.9***	-4.9***	-7.3***	
첫째자녀 연령				
영아(만0-2세)	3.1	3.3	3.2	(402)
유아(만3-5세)	3.1	3.4	3.3	(406)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3.1	3.3	3.2	(402)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3.1	3.3	3.2	(404)
F	0.7	1.6(a)	3.6*	

주: '전혀 동의하지 않다' 1점 ~ '매우 동의한다'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p < .001$.

부모의 책임인식을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문장 제시하고 어느 쪽에 더 동의하는 지 질문한 결과가 <표 V-2-4>이다. 전체 응답자들은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라는 부모의 희생적 관점에 53.6%가 동의하였고,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으므로, 자녀 때문에 본인의 행복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 라는 입장에 46.4%가 답하였다.

이런 생각에 집단 간 차이를 보여 남성의 경우에는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에의 동의가 61.0%로 더 많았고, 여성의 경우에는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으므로, 자녀 때문에 본인의 행복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라는 입장에의 동의가 53.8%로 다소 더 많았다. 만 45세 이상 집단에서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에의 동의가 58.8%로 높아 다른 집단들과 차이를 보였다.

이런 차이는 육아중인 부모들과 육아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 간에 두드러졌다. 양육 중인 부모들은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라는 입장에 59%가 동의하였고, 육아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 집단에서는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으므로, 자녀 때문에 본인의 행복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에 67.8%가 동의를 나타냈다.

<표 V-2-4> 부모책임 인식

단위: %, (명)

구분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으므로, 자녀 때문에 본인의 행복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계
전체	53.6	46.4	(2,024)
성별			
남성	61.0	39.0	(1,011)
여성	46.2	53.8	(1,013)
$\chi^2(df)$	44.742(1)***		
본인 연령			
만34세 이하	53.1	46.9	(384)
만35-39세	48.9	51.1	(662)
만40-44세	56.2	43.8	(689)
만45세 이상	58.8	41.2	(289)
$\chi^2(df)$	10.807(3)*		

구분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으므로, 자녀 때문에 본인의 행복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계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53.3	46.7	(227)
전문대학(2·3년제) 졸업	56.2	43.8	(390)
대학교(4년제) 졸업	51.9	48.1	(1,143)
대학원 재학 이상	57.6	42.4	(264)
$\chi^2(df)$	4.067(3)		
육아가구 여부			
육아가구	59.0	41.0	(1,614)
비육아가구	32.2	67.8	(410)
$\chi^2(df)$	94.780(1)***		
첫째자녀 연령			
영아(만0-2세)	52.5	47.5	(402)
유아(만3-5세)	59.1	40.9	(406)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64.2	35.8	(402)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60.4	39.6	(404)
$\chi^2(df)$	11.836(3)**		
자녀수			
1명	57.6	42.4	(965)
2명 이상	61.2	38.8	(649)
$\chi^2(df)$	2.027(1)		

* $p < .05$, ** $p < .01$, *** $p < .001$.

부모로서 자녀에게 언제까지 경제적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대학 졸업까지’라는 응답이 43.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대학 입학 전까지(20.5%)’, ‘취업할 때까지(19.8%)’, ‘평생동안 언제라도(6.6%)’, ‘결혼할 때까지(6.0%)’, ‘결혼 후 기반이 마련되고 안정될 때까지(3.6%)’의 순서로 나타났다. 대체로 ‘대학 졸업까지’라는 응답이 가장 많지만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과 대학원 재학 이상 집단에서 ‘대학 입학 전까지’에의 응답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그에 비해 전문대학(2·3년제) 졸업 집단과 대학교(4년제) 졸업 집단에서는 ‘취업할 때까지’에의 응답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표 V-2-5〉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지원정도

단위: %, (명)

구분	대학 입학 전까지	대학 졸업까지	취업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결혼 후 기반이 마련되고 안정될 때까지	평생 동안 언제라도	계
전체	20.5	43.5	19.8	6.0	3.6	6.6	(2,024)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4.4	35.7	15.4	5.7	3.1	5.7	(227)
전문대학(2·3년제) 졸업	18.5	45.9	20.3	5.1	3.8	6.4	(390)
대학교(4년제) 졸업	17.9	44.2	21.8	6.3	3.6	6.2	(1,143)
대학원 재학 이상	22.3	43.9	14.4	6.1	3.8	9.5	(264)
$\chi^2(df)$	43.252(15)***						
육아가구 여부							
육아가구	19.3	43.1	20.5	6.6	3.7	6.8	(1,614)
비육아가구	24.9	45.1	17.1	3.7	3.2	6.1	(410)
$\chi^2(df)$	12.277(5)*						
첫째자녀 연령							
영아(만0-2세)	22.1	38.6	21.1	7.2	3.2	7.7	(402)
유아(만3-5세)	20.0	38.2	22.9	5.7	4.7	8.6	(406)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17.7	47.5	18.9	6.5	3.7	5.7	(402)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17.6	48.3	19.1	6.9	3.2	5.0	(404)
$\chi^2(df)$	21.205(15)						
자녀수							
1명	18.4	42.7	19.2	7.7	3.9	8.1	(965)
2명 이상	20.6	43.8	22.5	4.9	3.4	4.8	(649)
$\chi^2(df)$	14.190(5)*						

* p < .05, *** p < .001.

자녀양육을 위한 직장에서의 일·가정 양립지원제도들의 이용현황을 파악하고자 각 제도들이 이용가능한지 현재 이용 중인지, 제도 도입이 안 되었는지, 제도를 잘 모르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육아휴직제도의 경우 필요 시 이용가능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남성에서는 42.2%, 여성에서는 40.1%가 답하였다. 그러나 남성에서는 제도 있으나 이용이 어렵다는 응답도 34.5%로 높게 나타났다.

육아기근로단축제도는 남성에서는 제도 있으나 이용이 어렵다는 응답 33.5%로 가장 많았고 여성의 경우에는 필요 시 이용가능하다는 응답이 30.1%로 가장 많았다. 시차출퇴근제/선택근무제는 남성에서 제도 있으나 이용이 어렵다는 응답 27.2%로 가장 많았고 여성의 경우에도 24.4%로 역시 가장 많았다. 원격(재택)근무제는 제도의 도입이 아직 안되었다는 응답이 남성(29.9%)과 여성(30.7%) 모두에서 가장 높았다. 가족돌봄휴가는 필요 시 이용가능하다는 응답이 남성(31.1%)과 여성(26%) 모두에서 가장 높았다.

〈표 V-2-6〉 직장의 자녀 양육 지원 제도 이용 및 이용가능 여부(전체)

단위: %(명)

구분	현재 이용중	필요시 이용가능	제도 있으나 이용 어려움	제도 도입안됨	제도 잘모름	적용 대상 아님	계
남성							
육아휴직제도	2.5	42.4	34.5	7.5	2.8	10.4	100.0(979)
육아기근로단축제도	3.0	27.4	33.5	14.2	10.1	11.8	100.0(979)
시차출퇴근제/선택근무제	7.0	25.1	27.2	18.2	10.0	12.5	100.0(979)
원격(재택)근무제	2.3	15.9	27.0	29.9	9.0	15.8	100.0(979)
가족돌봄휴가	4.2	31.1	24.5	16.4	12.0	11.8	100.0(979)
여성							
육아휴직제도	14.6	40.1	19.6	5.7	2.8	17.2	100.0(680)
육아기근로단축제도	6.8	30.1	25.0	10.4	6.8	20.9	100.0(680)
시차출퇴근제/선택근무제	5.3	21.2	24.4	17.4	10.7	21.0	100.0(680)
원격(재택)근무제	3.4	8.7	24.3	30.7	8.5	24.4	100.0(680)
가족돌봄휴가	4.0	26.0	22.1	16.3	10.9	20.7	100.0(680)

미디어를 통해 방영되는 다양한 육아 관련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미디어의 육아/양육 관련 예능/교양 프로그램을 보고 드는 생각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이 두렵고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0점)부터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10점)까지의 수직선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3-8〉과 같다. 전체 응답자들은 5점과 6점, 7점 등에 많이 표시하였고, 평균은 중앙값인 5점에 수렴하는 4.9점으로 나타났다.

평균을 중심으로 집단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에 다소 가까운 5.3점, 여성은 4.6점으로 답하였다. 육아를 하는 부모 집단(5.2점)에서 육아를 하지 않는 경우(4점) 보다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생각이 첫째자녀 연령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V-2-7〉 미디어의 육아 관련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점

구분	아이들 키운다는 게 두렵고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 <-----> 아이들 키운다는 게 행복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계	평균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9.5	4.6	9.2	9.3	7.2	15.2	12.0	13.2	11.1	3.6	5.1	(2,024)	4.9
성별													
남성	7.9	4.0	8.4	7.8	5.9	14.6	13.6	14.6	12.4	4.0	6.7	(1,011)	5.3
여성	11.2	5.2	10.1	10.8	8.4	15.7	10.4	11.8	9.8	3.2	3.6	(1,013)	4.6
$\chi^2(df)/t$	39.655(10)***												5.7***
육아가구 여부													
육아가구	8.2	3.7	8.7	8.9	6.6	15.1	12.8	14.7	12.0	3.7	5.6	(1,614)	5.2
비육아가구	14.9	8.3	11.2	10.7	9.5	15.4	8.8	7.6	7.6	2.9	3.2	(410)	4.0
$\chi^2(df)/t$	65.139(10)***												7.4***
첫째자녀 연령													
영아(만0-2세)	9.5	3.2	6.5	8.7	5.0	14.4	12.2	18.2	13.7	3.0	5.7	(402)	5.3
유아(만3-5세)	9.4	3.4	10.6	9.9	5.7	14.5	12.8	13.3	10.1	5.2	5.2	(406)	5.0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6.0	5.0	8.5	8.2	8.5	15.2	12.9	14.7	12.4	4.0	4.7	(402)	5.2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7.9	3.0	9.4	8.9	7.2	16.3	13.4	12.6	11.6	2.7	6.9	(404)	5.1
$\chi^2(df)/F$	30.045(30)												0.8

주: 평균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점 ~ '매우 만족한다' 10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01$.

나. 부모가 된 후의 삶의 변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부모들에게 물었다. 각 연령대의 어머니, 아버지가 응답한 내용을 〈표 V-3-1〉에 나타냈다. 연령대에 상관없이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은 '책임감', '내 자신이 성장하는 과정', '어른이 되는 것' 등 자녀로 인해, 자녀를 책임지고 키워나가면서 나 또한 성장하는 과정으로 표현하였다.

〈표 V-2-8〉 부모가 된다는 것

	영아	유아	초등저	초등고
어머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숙해질 기회 • 선택받은 일 • 누군가를 온전히 책임진다는 것 • 이해심이 넓어지는 것 • 세상을 다시 보게 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감(3) • 육아로 인해 성숙한 어른이 되는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를 희생해서까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 • 뒷받침해주는 존재 • 책임감이나 희생 • 책임감-내가 부여 받은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삶이 한단계 성장하는 것 (배려,타협,인내 등) • 어른이 되어가는 힘든 삶 • 희생과 책임감 • 이해폭이 넓어지는 성장
아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른이 된다는 것 • 가족관계를 더 완만하게 그리고 다질 수 있는 기회 • 분위기가 화목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한 느낌 • 어른이 된 것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상 옆에 있어주는 사람 • 책임을 지는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기회

1) 인간으로서 성숙/성장할 수 있는 기회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는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부모가 되는 자체의 의미를 넘어 한 인간으로서 성숙하고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답변이 공통적으로 많이 나왔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감당해야 하는 것을 해 나가면서, 또 자녀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면서 타인에 대한 이해도 넓어지고 성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부모가 된다는 거는 글썽요, 좀 내가 성숙해지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성숙해지고 나서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나였던 내 자신이 아기가 생기고 나서부터 말도 조심하게 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아기한테 아직 어리지만 조금 좋은 습관을 길러줄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랄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 자체도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 같아요.(영아 모3)

저는 육아를 해서, 육아로 인해 제가 성숙한 어른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아이를 낳아서 제가 해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아이를 안 낳았으면 제가 철들지 않았을 것 같다.(유아 모2)

한 단계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는다고 사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고 첫째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남으로써 조금, 전에는 저만을 위해 생각했던 것들을 약간 포기도 하고 배려도 하고 양보도 하면서, 어떤 사람들과의 대립 관계가 생겼을 때도 전에 같았으면 나를 위해서 주장하고 이랬을 수도 있는데, 한 바퀴 돌아서서 우리 아이 때문에 이런 건 내가 또 참아야 될 부분도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서, 저의 생각도 더 넓어지고 그리고 많이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초고 모4)



저도 또 다른 저의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 낳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아이 낳고 많이 배우고 느끼고, 이해의 폭이 훨씬 넓어진 것 같아요. 그전에 카페에서 애들 요란한 거 보면 진짜 이해 안 가고 짜증내고 그랬는데, 그런 이해의 폭이라든지, 꼭 아이 관련된 거 아니더라도 조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구나라는 그 이해 폭이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초고 모5)

2) 진정한 어른이 되는 것

스스로 성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부모가 됨과 동시에 진정한 어른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은 응답자들이 하고 있었다. 같은 나이에도 부모가 됨으로써 부모님 입장을 이해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진정으로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면서 비로소 철이 든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였다.

저도 다른 분들 말하신 거랑 공감하는 게, 저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결혼을 일찍 한 편이긴 한데, 개네들보다 제가 살짝 더 어른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유아 부1)

저도 제가 너무 애 같다는 생각을 계속 지울 수가 없는데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조금 어른이 되는 한 걸음 걸은 것 같다?(유아 부4)

부모가 됐다는 거는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그동안 철없이 맨날 지내오다가 아이가 생겨서 제가 또 부모가 되니까, 그동안 어머니 아버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이제는 슬슬 이해가 돼가는 것 같기도 하고.(영아 부1)

저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우선순위 자체가 완전하게 뒤바뀌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저한테 맞춰서 생각을 하고 적어도 아내 정도의 입장을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아이의 모든 관점으로 맞춰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겨서, 부모가 된다는 거는 보는 높이 자체가 아이한테 맞춰진다고 생각이 들어요.(유아 부3)

3) 책임감을 갖게 되는 일

또한 면담에 참여한 많은 부모님들이 부모가 된다는 것은 즉 책임감을 갖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부모가 된다는 게, 이걸 진짜 한 존재라는 거를 내가... 그러니까 성인까지면 다행이고 어떻게 아이가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애를 책임져줘야 되고...(중략)...끝까지 계속 가슴에 품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 진짜 너무 엄청난 책임감을 요하는 거구나, 부모가 된다는 게 정말 내가 오롯이 책임져야 될 존재가 하나가 생긴다는 거구나.(영아 모5)

책임감이 2배가 아니라 한 4배 정도로 늘어나서 경제적으로나 제 건강도 더 챙기게 되고요. 부모가 된다는 건 책임감이 정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영아 부4)

책임져야 될 것도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중략)... 어쨌든 20살 넘어서 책임을 지고 독립까지 시키는 게 육아의 끝이니까, 잘 독립시킬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일 것 같아요.(유아 모1)

저는 비슷할 수도 있지만 희생과 책임감? 부모가 되면 희생과 책임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초고 모3)

4)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는 계기

또한 많이 나왔던 의미는 부모가 됨으로써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하였다.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님의 행동을 이해하게 되고, 부모님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면서 서먹했던 사이가 다시 좋아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부모가 된다는 거는 이해심이 넓어진다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는 엄마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엄마가 왜 옛날에 그렇게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넓어지고.(영아 모4)

되게 심오한 것 같은데요. 저는 저희 부모님 그리고 처가댁 부모님, 장인 장모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았던 경우도, 안 좋았던 것들도 조금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가족관계를 더 원만하게 그리고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아이가 생김으로써.(영아 부5)

부모가 된다는 거는, 저는 그냥 비로소 저희 부모랑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 저도 좀 무뎡뎡하고 그랬는데 부모님한테, 막상 아이를 키우게 되니까 처음에는 아이한테 막 재롱 부리는 말도 잘 못 했어요 어색하고 쑥스럽고. 근데 이제 딸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과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아 이렇게 힘드셨구나, 저보다 더 많이 낳으셨는데.(영아 부2)

저희 부모님이 저를 볼 때 이런 느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었어요. 그 관점 자체가, 제가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제가 느꼈던 관점에서 지금 저희 부모님이 생각했던 그 모습들이, 그러니까 보고 있었던 그 장면들이 저한테 투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존재이고, 저희 부모님과 저를 동일시하게 만드는 존재로 생각이 들었어요.(유아 부3)

5) 온전히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생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절대적이고 온전히 사랑을 받는다는 느

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자녀 양육을 통해 삶이 풍부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였다. 부모-자녀간에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정을 부모가 됨으로써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받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아이가 생김으로써 이유 없이 저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생겼다는 거? 무한히 내 편이 돼주는 사람이 한 명 더 생겼다는 게 굉장히 큰 것 같고요.(영아 부5)

진짜 선택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저는 그걸 경험을 했고, 그래서 그 엄마가 된다는 게 진짜 굉장히, 진짜 되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택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영아 모2)

부모가 되고 좋은 점은 삶의 원동력 같은 게 생겼다.(영아 모4)

정적인 거는 아무래도 집의 어떤 분위기가 더 풍요로워졌다 이런 느낌이 많긴 한 것 같아요.(영아 모2)

6) 힘들기도 한 일

부모가 된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책임감과 희생이 따르고 그럼에도 나를 성장시키고, 부모님을 돌아보게 하는 선물 같은 일이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게 힘들기도 한 일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삶이 내가 계획하고 노력해서 살아왔다면 예측할 수 없지만 너무나 중요한 존재가 생긴 예측불허한 변수가 생겨서 불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힘든 삶이다.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힘든 삶? 근데 그걸 힘든 걸 겪고 나면 내가 또 한 번 하나 또 성장해지는 거잖아요...(중략)...그게 그러니까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긴 한데 그 과정은 분명히 힘들다.(초고 모2)

제 삶에 조절할 수 없는 변수가 하나 탄생한 느낌?(영아 모5)

3. 부모로서의 삶과 정책적 지원요구

가. 육아가구를 위한 지원 분야에 대한 의견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분야는 무엇인지 3가지로 답한 결과가 <표 V-3-1>이다. 먼저 1순위 응답을 살펴보면, ‘비용 지원정책(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자녀세액공제 등)’라는 응답이 26.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양육 시간 지원정책(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20.1%, ‘주거 지원정책(특별공급, 청약 가점 등)’ 13.4%, ‘돌봄 서비스 지원정책(보육서비스,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초등돌봄교실 등)’ 11.5% 등의 순서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1순위와 2순위, 3순위를 종합하여 보면, ‘비용 지원 정책(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자녀세액공제 등)’ 58.7%, ‘양육 시간 지원정책(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55.8%, ‘돌봄 서비스 지원정책(보육서비스,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초등돌봄교실 등)’ 47.8% 등의 순서로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정부의 지원정책의 큰 축인 비용지원정책, 시간지원 정책, 서비스지원정책이라는 정책 지원 틀과 그 맥락을 같이하는 듯하다.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성별을 중심으로는 남성 집단에서는 ‘비용 지원정책’을, 여성 집단에서는 ‘양육 시간 지원정책’을 비교적 더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응답자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만35-39세 집단에서 ‘양육 시간 지원정책’에의 응답비율이 높았고, 만45세 이상에서는 교육 정책(공교육 강화 등)에의 응답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또한 만39세 이하에서는 양육 친화적인 문화(양육에의 가치 인정, 아동 환대 등의 분위기)에 대한 응답이 비교적 높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60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는 ‘비용 지원정책’에의 요구가 높으나, 600만원 이상 집단에서는 ‘양육 시간 지원정책’을 더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맞벌이 가구에서는 ‘양육 시간 지원정책’을, 외벌이 가구에서는 ‘비용 지원 정책’을 더 높게 답하였다.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집단에서 ‘비용 지원 정책’에의 응답이 가장 높지만, 초등 고학년 집단에서 ‘교육 정책(공교육 강화 등)’에 대한 응답이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자녀가 1명인 집단에서 ‘돌봄 서비스 지원 정책’에의 요구가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표 V-3-1〉 육아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지원 분야

단위: %, (명)

구분	① 시간 지원	② 비용 지원	③ 돌봄 지원	④ 주거 지원	⑤ 교육 정책	⑥ 지역 환경	⑦ 육아 친화 문화	⑧ 아동 의료 지원	⑨ 부모 상담	⑩ 기타	계
1+2+3순위 전체	55.8	58.7	47.8	34.6	28.0	14.5	27.8	21.5	10.5	0.4	-
1+2순위 전체	39.1	44.1	29.2	25.0	17.8	7.7	17.7	12.1	7.0	0.2	-
1순위 전체	20.1	26.1	11.5	13.4	8.0	2.7	9.1	5.1	3.8	0.2	(2,024)

육아가구의 삶의 질 제고 방안

구분	① 시간 지원	② 비용 지원	③ 돌봄 지원	④ 주거 지원	⑤ 교육 정책	⑥ 지역 환경	⑦ 육아 친화 문화	⑧ 아동 의료 지원	⑨ 부모 상담	⑩ 기타	계
성별											
남성	16.9	28.0	10.9	15.3	8.0	3.0	8.9	4.9	3.9	0.2	(1,011)
여성	23.3	24.3	12.1	11.5	7.9	2.5	9.3	5.2	3.7	0.2	(1,013)
$\chi^2(df)$	19.689(9)*										
본인 연령											
만34세 이하	19.0	28.1	8.1	13.0	5.7	3.9	10.2	6.3	5.7	0.0	(384)
만35-39세	25.1	23.1	11.5	12.8	6.8	2.4	10.0	5.1	3.0	0.2	(662)
만40-44세	17.7	29.0	12.0	13.4	8.3	2.3	8.6	4.6	3.8	0.3	(689)
만45세 이상	15.9	23.5	14.9	15.6	12.8	2.8	6.9	4.5	2.8	0.3	(289)
$\chi^2(df)$	53.000(27)**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4.5	30.5	11.1	14.1	6.9	2.3	8.0	7.3	5.0	0.4	(262)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6.1	28.4	11.1	14.6	6.5	3.4	9.6	5.6	4.4	0.4	(522)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9.3	30.9	11.4	12.7	8.3	2.6	7.0	3.5	4.2	0.0	(456)
600만원 이상 750만원 미만	28.1	21.7	9.0	12.2	8.4	3.2	8.1	6.4	2.6	0.3	(345)
750만원 이상	22.8	19.4	14.4	13.4	9.6	1.8	12.1	3.9	2.7	0.0	(439)
$\chi^2(df)$	72.647(36)***										
맞벌이 여부											
맞벌이	24.0	23.7	12.0	14.3	7.4	2.3	8.4	4.7	3.1	0.0	(1,306)
외벌이	13.3	30.2	10.6	11.4	9.4	3.4	10.2	6.0	4.7	0.7	(615)
그 외	10.7	33.0	10.7	14.6	6.8	3.9	10.7	3.9	5.8	0.0	(103)
$\chi^2(df)$	62.709(18)***										
첫째자녀 연령											
영아(만0-2세)	23.1	25.9	12.7	12.4	4.7	3.5	8.2	5.2	4.0	0.2	(402)
유아(만3-5세)	21.7	26.6	10.3	13.1	7.6	3.0	7.4	6.4	3.9	0.0	(406)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15.9	25.9	12.4	11.2	9.0	3.7	11.7	4.7	5.2	0.2	(402)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16.3	31.9	8.7	11.4	12.6	2.5	8.2	4.2	3.7	0.5	(404)
$\chi^2(df)$	43.933(27)*										
자녀수											
1명	20.8	25.0	12.6	11.6	7.7	3.5	9.0	4.8	4.8	0.2	(965)
2명 이상	16.9	31.4	8.6	12.6	9.7	2.6	8.6	5.7	3.4	0.3	(649)
$\chi^2(df)$	20.446(9)*										

주: ① 양육 시간 지원정책(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② 비용 지원정책(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자녀세액공제 등) ③ 돌봄 서비스 지원정책(보육서비스,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초등돌봄교실 등) ④ 주거 지원정책(특별공급, 청약 가점 등) ⑤ 교육 정책(공교육 강화 등) ⑥ 지역사회 환경(놀이터, 공원 등) ⑦ 양육 친화적인 문화(양육에의 가치 인정, 아동 환대 등의 분위기) ⑧ 아동 의료시설 확대 ⑨ 육아기 부모 대상 자녀 및 부모 상담 ⑩ 기타

* $p < .05$, ** $p < .01$, *** $p < .001$.

나. 육아가구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에 대한 의견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육아가구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다음의 정부 지원 영역 중에 어떤 부분의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여 그 응답과 이유를 들어보았다.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육시간 지원 2) 비용지원정책 3) 돌봄 서비스 지원정책 4) 주거지원정책 5) 교육정책(공교육 강화 등) 6) 지역사회 환경(놀이터, 공원 등) 7) 양육 친화적인 문화 |
|-------------------------------------------------------------------------------------------------------------------------------------------------------------------------------------------------------------|

1) 양육시간 지원

많은 비율로 양육시간 지원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자녀가 직접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많은 제도들을 활용하면서 자녀양육에 직접적으로 시간을 내어 참여하지만 그러한 선택은 일을 결국 일을 줄이게 되고, 일을 줄이면 소득이 줄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었다. 소득이 줄지 않고 일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재택근무인데, 이러한 제도들의 확대를 바라고 있었다.

저는 2번(비용지원)이랑 1번(양육시간 지원)은 거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유아 부2)

전체적인 사회 전반으로. 그리고 제가 지금 아이한테 시간을 쓰고 양육에 시간을 쓰고 한다고 해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 일에 대해서 5점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는 금전적인 부분이 제일 크거든요. 부동산을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따라가기 위해서 저는, 제가 지금 일을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고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아이를 육아하는데 조금 덜 쓰게 되고 하는 것 같아요.(유아 부3)

재택근무를 아예 쪽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그러니까 기업에서 할 수 있게끔 가능한 기업들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너무 일회성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영아 모2)

저도 생각하는 게 일단은 양육 시간 지원정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기업 위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정책이 다 있다 하더라도, 솔직히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단축 근무니 이런 근무니 이런 것 하려고 해도 다 눈치 보여서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고.(초고 모4)

육아를 위해 손이 많이 가는 영아를 키우는 부모의 경우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삶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남편의 재택근무 육아휴직 등의 제도의 활용 가능 여부가 자녀를 전담하여 양육하는 어머니의 생활과 하루하루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여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그래도 재택을 하니깐 확실히 집에서 신랑이 할 수 있는 육아가 너무 많긴 해요. 그래서 재택이 있고 없고가 너무 차이가, 그 주가 너무 저는 그래서 너무 다르거든요. 신랑이 출근하는 주랑 재택하는 주가 체감이 너무 달라서, 남편이 출근한 주는 너무 힘든 상태고 재택하면 그게 진짜 너무 다르더라고요...중략...네. 그래서 재택할 때는 거의 신랑이 많이 거의 조금 주로 많이 도와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같이하는 것 같아요. 같이하고.(영아 모2)

2) 비용 지원정책 필요

자녀가 어릴 때 자녀를 전담하여 양육하기 위해서는 휴직 등 일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경제적인 소득의 감소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 부담이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저는 육아휴직 급여가 너무 적다. 예를 들어서 솔직히 말해서 600만 원, 1천만 원 벌던 사람도 상한제에 다 걸려가지고 지금 110만 원 받나요? (중략)..근데 그렇게 상한제를 뒤편하고 하니깐 결국에는 또 일하러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영아 모4)

근데 그렇다 보니까 남편이 외벌이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 경제적인 부분이 저는 가장 고민이 요즘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부모 급여라든지 그런 수당들이 여태까지는 저는 한 달에 110만 원을 받아서 그걸로 아기분유 사고 기저귀 사고 그런 식으로 써왔거든요 저축도 하고. 근데 그게 이번 달부터는 60만 원으로 확 줄어드니까 외벌이에다가 지원금도 줄어들고 하니깐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집 가까운 데서 일을 한다고 해도 아기를 맡겨야 되는데 그것도 아기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저는 사실 뒤로 미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조금 더 길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영아 모3)

영아 부모가 받고 있는 부모급여의 경우 어린이집을 보낼 경우 보육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데,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기가 많아 미리 자리를 맡아두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이용이 필수적이 아닐 때에도 보육료를 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저도 아무래도 지원금이 조금,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가 길게 나왔으면 좋겠고. 사실

어릴 때는 조금 많이 주잖아요. 0세 때는 조금 그나마 줬는데, 사실 저희는 요즘은 사실 0세 때 어린이집을 많이, 그때 안 보내면 거의 보내기 또 T/O가 잘 안 나고 보내기 힘든 상황인데, 부모 급여가 그럼 거기서 다 까지니까 너무 약간, 어린이집을 보내면 부모 급여를 못 받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거의 못 받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모 급여를 다 빼고 그렇게 거의 0세부터 보내지 않으면 보낼 수가 없게 돼 있는데, 그것을 그래서 조금이라도 길게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영아 모2)

저는 2번에 비용 지원이요. 금액을 어떻게 뭐, 어떤 형식으로 주는지는 국가에서 방법을 많이 쓰겠지만, 굉장히 큰 금액을 줘야 아마 애를 낳을 것 같아요.(유아 모2)

그러면서 사회적 분위기도 애를 낳아도 내가 부담이 없구나, 국가에서 정말로 책임져주는구나 그렇게 인식이 된다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초고 부4)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 부모의 경우 양육수당 및 부모수당을 거의 받지 못했고, 만8세에 끝나는 아동수당에 대해 교육비를 포함한 양육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시점에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저출산이 문제이긴 하지만 이제부터 낳는 아이들에게만 집중하지 않고, 이미 낳은 아이들에게도 비용지원이 지속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저 또 못 드린 얘기가 있는데요. 아동수당에 관한 부분이, 아동이 어릴 때는 수당이 많고 아동이 점점 유아 시기가 돼 가면 비용이 줄잖아요. 그걸 거꾸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클수록 돈이 정말 더 많이 드니까, 옷도 금방금방 커서 바뀌줘야 되고 신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비용도 거꾸로 클수록 많이 비용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초고 모1)

아동수당도 저희 첫째 때는 진짜 못 받았어요. 저희 애는 3월생이어서 가지고 한 달 받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 첫 애 세대는 진짜 받지도 못하고 끝난 것도 되게 많고. 근데 정말 진짜로 돈을 제일 많이 써야 되는 나이가 이제부터 시작인데, 둘째는 그나마 지금 2년 차이니까 아직 받고 있는데 올해가 끝이예요 애도.(초고 모2)

근데 아이들이 요즘에 신체 활동이 적어진다, 운동시켜야 된다 하는데 막상 태권도나 줄넘기나 이런 데 가려고 그러면 10만 원은 당연히 기본으로 뛰어넘는데, 이런 것들을 바꾸쳐 쿠폰을 제공해서 준다든지...(초고 모2)

3) 돌봄 서비스 지원정책

유아 자녀와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중심으로 가장 많은 필요성을 언급해 준 부분은 돌봄 서비스 지원정책이었다. 기본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의 도움을 많이 받다보니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양질의 돌봄기관이



많아지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하였고, 이러한 돌봄지원 상황이 자녀가 영아, 유아때 직접 자녀를 돌보기 위해 하지 않거나 줄였던 일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자녀가 아플 때 무조건 아이를 데려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자녀를 따로 봐줄 수 있는 곳이나, 병원을 동행해주는 등의 지원들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어린이집에 선생님을 더 모집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 많이 하면 저희 아이들도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가깝게 다닐 수 있는 거리에, 그렇게만 저는 되어진다면 저도 일을 구하기 쉽고, 그런 것들이 먼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유아 모3)

그 다음에 애들이 갑자기 아팠을 때 병원 가야 되는데 중요한 회의가 양쪽이 다 잡혀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애로사항이었는데, 그런 걸 도움 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학교에서 애들이 갑자기 아픈 게 부모님이 아닌 담당해 주는 선생님이 병원에 잠깐 데려다 준다거나 이런 제도도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초저 부3)

학교 돌봄의 경우 돌봄과 함께 교육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다.

저도 3번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도움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근데 보면 저희는 단지 내에 있어 가지고 진짜 출퇴근할 때 가는 길에 맡겼다가 올 때 데려오고 이런 게 진짜 편해요. (중략) 돌봄 교실이나 요런 게 앞으로 더 확대된다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동의는 하지만, 교육 내용 관련해서 조금 더 학원만큼은 아니겠지만 조금 탄탄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조금 그 시간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더 만들어서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유아 모4)

돌봄 기관뿐 아니라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활용에 만족하는 사례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돌보미를 신청하여 배정받는 절차가 신속하지 못하고, 대기가 많아 활용이 어려워 인력확충을 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돌봄 교실을 활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돌봄 서비스(아이돌보미)도, 이게 어떤 식이냐면 신청을 하면은 돌봄 선생님이 오서 갖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와이프하고 저하고, 일을 나가니까 봐주세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데리고 오셔서 집에 와서 간단한 간식을 주고 저희 퇴근할 때까지 데리고 가셨다가 저희 오면 교대로 가요. 그래서 그런 게 저희는 너무 괜찮았어요. 문제는 그거를 신청하면 바로 안 돼요. 너무 밀려 갖고, 예산 문제도 있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인력 확충이에요.(초저 부4)

저도 돌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요.(유아 모1)

그러니까 키즈카페나 이런 데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데리고 가기가 하루 종일 애를 보는 입장에서 어디 데리고 나가야 애도 좋고 저도 좋고 모두 다 좋은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약간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거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고, 시간도 물론 그분들 퇴근하셔야 되겠지만 6시보다 조금 더 늘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영아 모4)

4) 주거 지원정책

특히 아버님들의 면담에서는 주택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고, 이를 위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번에도 신생아 대출 이런 게 생겼잖아요. 근데 너무 제약이 많아요. 해주려면 해주는데 뭐 85제곱미터부터 해서 얼마 이하의,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금리 싸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도 제한을 하나하나씩 다 두면서 이거에 안 돼.(유아 모1)

결국 그 돈을 지원해 달라고 아니라 주택에 대한 마련이 해소가 되면 저는 충분히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영아 부5)

주거 지원이 좀 더 원활하게 돼서 사람들이 지내는 데 부담을 덜 가지게 되는 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도 전전긍긍하면서 지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따라가는 부동산 그 금액에 맞춰서 돈을 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유아 부3)

가까운 가족 중에 애를 아예 안 낳았는데, 안 낳기로 완전히 끝났는데, 결론은 하나였어요. 자기들 그냥 부부끼리 잘 살겠다. 애 생기면 집도 마련도 못하고, 결국엔 돈이죠 이게 다 안 되니까. 그에 대해서 그럼 반대로 한번 물어봤거든요 제가. 그러면 뭐 이제는 안 낳기로 완전히 마음을 굳혔긴 했지만 불과 한 1년 전만 해도, 아 그럼 형님 어떻게 하면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 하더라고요. 나라에서 집 주면 낳을게.(영아 부3)

솔직히 저희가 지금 여가 시간이 부족한 것도 경제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또 요즘은 맞벌이하지 않는 이상은 진짜 부모님 도움 없이는 진짜 집을 살 수도 없고, 아까 신생아 특례 대출도 마찬가지지만 그거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못 받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부에서도 일시적으로 첫만남 바우처 이렇게 뭐 주는 것보다는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해 주셔야 되는데.(영아 부1)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앞에 말씀하셨던 분들이 너무 다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결국은 거주 문제인 것 같아요. 거주, 월급도 더 받으려는 게 더 좋은, 우리 아이에게 더 좋은 공간을 내주거나 뭐 보금자리를 더 넓히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집 쪽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영아 부2)

5) 교육 정책(공교육 강화 등)

초등학생 부모 중에서는 교육 정책을 중시하였는데, 학교의 시간을 늘려서 수업을 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맞춰진 교육을 실시해준다면 돌봄이나 사교육 문제 중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의견을 주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에 있어야 될 시간이 제일 많은데, 학교에서 그런 하는 공부를 시켜줄 수 있는 환경? 근데 방과 후까지는 공교육처럼 다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초고 모2)

5번(공교육 강화) 생각하는데, 일단은 학교 끝나면 대부분 다 학원을 가고 그렇게 또 분위기가 조성돼 있고 하다 보니 또 안 보낼 수도 없고 저만. 그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 돈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초고 모3)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육 정책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교육열이라고 말을 해서 조기 교육에 굉장히 열을 내는데, 그게 아니라 슬로우 교육을 하면서 대학은 조금 누구에게나 다 열어주는데 졸업을 정말 어렵게 해서. 전문적으로 애들 키워서 할 수 있게. 각자 그렇게 하다 보면 사교육비도 많이 줄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교육 정책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초고 부1)

6) 지역사회 환경(놀이터, 공원 등)

지역사회 환경은 주요한 정책 요소로 지목되지는 않았으나,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공간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지역사회에서 아동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과 함께 아동들의 모임이나 놀이 등을 이해해주는 주변 환경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지역사회 환경이라는 것도 아이들이 지금 비용이 많아지는 게, 중고생 정도 가보면 아이들이 쉴 공간이 없어서 비싼 데 스타벅스를 간다든가 공차를 간다든가 다 이런 데를 가니까, 아이들이 한 번 나갔다 오면 하루 쓰는 비용이 거의 10만 원씩 쓸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엄마들은 지원해 주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중략)...그리고 또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하면 주변에 어른들이 시끄럽다고 민원 넣고 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지역사회 환경에서 이런 아이들을 위한 그런 것들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초고 모4)

7) 양육 친화적인 문화

가) 양육친화적 문화가 양육지원정책 활용의 기본

양육 친화적인 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응답자가 동의를 하면서, 많은 다른 정책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 하였다. 국민들에게 거두어진 세금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게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므로, 그 정책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지지를 받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저는 사실 여기 안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면 7번(양육 친화적 문화)이 전제가 돼야 이 1번부터 6번까지가 다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양육 친화적인 문화가 없으면 이 정책들이 사실상 사람들이 쓰는 데 전체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제가 이 세금을 내고 이 서비스를 쓴다고 하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들을 표출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7번이 기반이 안 되면 돌봄 서비스 늘리고 세금 이런 거 이럴 때 쓸게요라고 해도 부정적일 것 같아요.(유아 부3)

하지만 반면에,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꼭 인정해주고 양육친화적으로 대해주는 것을 기대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었다.

그런데 7번에 대해서는 생각하게 되는 게, 다른 아버님들이 다들 결혼도 육아도 그런 게 다 선택의 문제라고 했다고 하면, 선택인데 왜 그걸 인정해 줘야 되죠? 제가 아이를 낳았지만 그거를 가지고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저는 별로 없어요. 그냥 제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어떻게 보면 차별 받기도 싫고 대우받기도 싫고.(초저 부2)

나) 자녀가 없는 사람들의 반대로 지원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음

육아가구가 자녀양육을 위한 제도를 쓰는 데에 있어서 양육친화적 인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육아가구가 자녀양육지원 제도를 쓰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일부 무자녀 직원들로 인해 지원제도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급기야 제도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회사에서 보면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그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를 해서, 왜 저 사람들만 저렇게 혜택을 더 주냐 이렇게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또, 그래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 다녀도 이런 유연제 근

무 같은 게 별로 잘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다 회사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있던 정책도 밑에 사람들이 나는 결혼도 안 하고 이런 걸 안 하는데 왜 결혼하면 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냐 해서, 있던 혜택도 조금 없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첫째 때는 3일 했는데 둘째 때는 오히려 이틀 쉬고 그래서.(초고 모4)

8) 기타 제안

가) 직장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직접 육아를 권장하는 정책 필요

저는 사실 3번 같은 경우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돌봄 교실이 연장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예요 시간이. 그러면 그 돌봄 선생님의 자녀들은 누가 보나요? 저는 그거는 절대 반대를 하고요. 오히려 그 엄마 아빠의 맞벌이 회사가 정시 퇴근을 권장해야지 맞는 거죠. 부모는 자기 자식을 봐야지 남이 자기 자식을 보는 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3번은 반대를 하고요. 4번 같은 경우도 특별 공급이, 사실은 결혼 10년 차에도 집이 없는 분이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그런 약간 결혼한 지 10년 이상 된 분에 대한 그런 가산점?(초고 모1)

네. 저는 그래서 1번인데 정시 퇴근 권장이 뭔가 법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야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수당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회사가 비용을 쓰기 싫어서라도 정시 퇴근을 시키겠죠. 그래서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초고 모1)

나) 쌍둥이 및 난임지원

쌍둥이 임신이나 난임의 경우 추가 검사 등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지원이 더 이루어지고는 있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그러니까 두 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두세 배가 더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는. 근데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사실 육아 이번에 돌봄... 돌봄 뭐지? 서울시 유아 돌봄비 같은 경우도 한 명이면 45만 원, 둘이면 60만 원까지 지원,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1.5배 정도라고 해야 되나? 오히려 2배도 아니고 더 조금 주고 그런 게, 저 임신했을 때도 바우처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명 60이면 둘이면 120도 아니고, 둘인데 쌍둥이인데 100만 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쌍둥이여서 더 검진해야 되는 것도 훨씬 많고 한데 그게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조금, 그런 게 조금 불편하고 지금도 그렇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영아 모2)

쌍둥이 같은 경우도 사실 들어가는 거는 거의 두세 배가 더 들어가는데.(영아 모2)

다) 경력단절 및 재취업 지원 필요

초등 고학년 어머니들의 경우 자녀의 육아가 직접적인 육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자녀들이 학업으로 교육비가 더 많이 들어감에 따라 재취업 등을 고려하게

되는 시기였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공백으로 재취업을 하기가 쉽지 않아, 양육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재취업 기회가 많았으면 한다고 하였다.

재취업을 하고 싶는데 여기서 고민되는 부분이, 그래서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아이를 두 돌 때 보낸 것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애를 거기다가 막 진짜 5시, 6시까지 계속 그 긴 시간을 보내도 되나? 이런 고민이 계속해서 지금 드는 게 제일 지금 시점에서의 가장 큰 고민이요. 그렇다고 시터를 개인적으로 쓰기에는 그 비용이 정말 많이 들고, 그게 지금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 같은 거는, 저는 두 돌이 지나고 나서 대부분의 급유가 끊겼어요 이제. 그래서 한 달에 나오는 게 10만 원인가 그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줄어들게 되니까 아 이거 만만치 않다.(영아 모5)

육아 정책을 아까 약간 경력단절 어머니들이 할 수 있는 일과 뭔가 연결돼 가지고, 저희가 10년 경력단절 있는 동안 아이를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육아에 대해서도 나름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노하우를 어떤 일터에서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로든, 그러면 일하는 젊은 엄마들을 위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애들 중고등학교쯤 돼서 시간이 나서 일하는 분들한테도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정확히 뭐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 양쪽에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생각해 보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초고 모5)

인력을 뽑는데 거의 무슨 교원 자격증이 있거나 학교 경력이 있는 분들만 뽑다 보니, 집에만 있는 사람들은 갈 데가 또 막상 없더라고요.(초고 모5)

다. 개인의 삶의 질과 부모됨 선택의 문제

최근 저출생 추세인 상황에서 개인의 삶의 질을 위해서 부모됨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양육을 하고 있는 부모님들의 생각을 물었다.

1) 희생을 하지 않으려는 가치관의 문제

비교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한테 보여주기를 더 많이 중요시하는 나라인데 나라의 인터넷도 너무 잘 되고 SNS 같은 것도 너무 활발히 되다 보니 남들과 비교돼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못 살면 괜히 위축되고 특히 비교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젊은 사람들은 자기희생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고.(초고 부2)

여러 가지 상황에 맞물리면서 가치관 자체들이 나를 희생하지 않는 걸로 바뀐 거죠 그냥. 근데 더군다나 거기에 사회적으로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애를 낳으면 내 자신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되게 손해를 봐야 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되니까 그걸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겠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초고 부1)

2) 사회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회적 문제

부모됨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로 개인적인 삶의 질을 이야기 하지만 정작 중요한 부분은 출산을 할 수 있는 집값, 물가, 경제적인 여유 등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준다면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하였다.

근본적으로는 집값과 물가 그리고 연애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출생을 했을 때 내 삶을 조금이라도 희망적으로 경제적으로 준다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감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초고 부4)

행복한 게 있긴 있는데 또 하나의 걱정은, 저출생이라는 게 원인은 뭐냐 하면은 돈이 있어 야지 내가 그 돈으로 아이를 더 풍요롭고 나 자신도 우리 가족도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이유이더라고요. 집값은 점점 올라가고 난 쓸 것도 많아 지는데 돈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우리 애한테 덜 해주어야 되고, 내 걸 또 하나 포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과연 행복이라는 게 맞을까?(유아 모3)

결혼해서 (결혼한 사람들의) 출산율을 보면 다른 나라랑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다른 건, 결혼을 많이 안 하고 결혼이 늦다는 거예요. (중략) 지금 우리나라는 결혼해야 될 적령기가 너무 경쟁이 치열해요. 취업 문제나 뭐 그런 기타 등등의 문제가. 사실 그 문제를 조금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결혼하고 또 출생도 같이 되지 않을까.(초저 부2)

3) 이제 출산은 강요할 수 없는 개인의 선택임

이전에는 때가 되면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출산을 개인의 선택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고 그 의견을 존중하고 있었다.

저도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주변에도 보면 10명이 결혼했다 그러면 5명이 애를 안 낳았을 정도로 애를 안 갖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개네들의 마인드를 얘기 들어보면, 나는 야기 안 가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근데 제가 봐도 삶의 질이나 이런 것들은 월등히 좋긴 한데, 애를 키워가면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은 또 다른 느낌도 있다. (초저 부3)

저는 지금 제 결혼 생활이랑 아이랑 함께하는 이런 생활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행복하지만, 사실 누구한테도 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처럼 똑같이 이거는, 지금은 99%는 다 이거는 선택이다. 결혼도 선택이고 아이 낳는 것도 선택이다. 왜냐면, 특히 아이를 낳음으로써 내가 포기하고 희생되어야 될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초저 부5)

4) 개인의 삶의 질도 중요하지만 육아의 기쁨이 큼

육아가 자녀가 어릴 때에는 육체적으로 힘들고 희생이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육아를 하면서 느끼는 행복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러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분들도 있었다.

요새는 조금 젊은 분들 보면 개인주의 성향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결혼에 대한 생각도 바뀐 것 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이해하지만 또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 키웠을 때 또 그 행복감이 큰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또 그런 행복감이 있거든요. 그거를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면 또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아이를 키우려면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솔직히 경제적인 거거든요.(초저 모1)

저도 결혼을 늦게 해서 애가 하나뿐이지만,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또 아이를 가지고 싶은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했을 때 저는 서울을 벗어나서 지방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서울에 있을 때는 경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여가 와서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초저 부2)

저는 요즘에 남녀평등이니 뭐 개인주의이니 이런 식도 많긴 한데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애들 낳고 한 명 키우는 데도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사람들이 아기 낳는 걸 포기하는 것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남편이 항상 하는 말이 전업주부도 월급을 줘야 된다고, 그러면 정말 자기 커리어를 위해서 일하는 여성분들도 정말 많긴 하겠지만 생활비 때문에 일하는 게 더 많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라에서 맨날 애 적다, 0점 몇 % 출산율 줄었다 말만 하지 말고 전업주부도 월급을 주고 지원을 해주면 애들을 더 낳지 않겠냐.(초저 모2)

4. 소결

가. 육아가구의 양육현황

자녀의 양육 여건과 양육 분담은 육아를 하고 있는 가구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변인이다. 자녀를 육아 중인 가구의 양육현황을 살펴보고자 자녀돌봄을 위해 이용하는 기관유형과 만족도, 부모의 양육 경험, 주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영역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육아가구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음의 시사점을 얻는다.

첫째, 영아 자녀 양육 부모를 위해 시간제보육지원, 부모역량강화의 기회제공, 육아나눔공간 제공, 장난감대여 등 가정 양육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영아의

기관 미이용이 41.3%로 부모급여의 지급이후 영아 가구에서 기관 이용 양상이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자녀양육 가구를 위해 조부모 역량강화 기회 마련과 더불어 공공아이돌보미 등 돌봄제도의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 자녀 양육 가구에서 여전히 조부모(친인척)의 돌봄지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녀가 집에 있을 때 부모가 직접 돌본다는 응답이 가장 많지만 공공아이돌보미나 민간베이비시터보다 조부모(친인척)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셋째, 초등학생의 사교육 이용 비율을 줄이고,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학교 중심의 돌봄, 늘봄정책이 안착이 필요하다. 초등학생의 평일 하교 후 사교육 기관 이용 비율이 64%를 상회하였다. 이렇듯 높은 이용비율은 사교육이 학습뿐 아니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넷째, 양육분담에 대해 부부가 서로 참여를 인식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버지들은 30.8% 정도의 참여를 인식하지만 어머니들은 아버지의 참여를 22.3%로 평가하였다. 어머니에게 양육의 편중은 여전히지만 영유아기 아버지들이 양육 참여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은 육아는 부부가 함께하는 것이라는 인식과 실천이 확대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양육 중인 부모의 양육 역량강화를 위한 기회들이 지속적으로 개발 지원될 필요가 있다. 양육효능감 응답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영향력을 잘 알고 있고 좋은 부모가 되는 것에 관심도 있고 되고자 노력한다는 등의 부모역할 인식에의 동의가 높았다. 그에 반해 자녀돌봄에 유능하다든지, 자녀와의 관계문제를 잘 다루는지 등의 실제 양육역량에 대한 동의가 낮아 양육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여섯째, 육아기 어머니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체감하는 어려움 중 신체적 고단함과 경제적 부담이 가장 컸고, 실제 양육 참여가 많은 어머니들에게서 부모역할 부담이 아버지들보다 크게 나타났다.

일곱째, 부모들은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긍정적 양육 정서를 부정적인 정서들보다 강하게 체감하고 있었다. 또한 그런 경향을 아버지 들이 어머니들보다 더욱 긍정적으로 체감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덟째, 육아가구의 어려움을 비용 지원에의 요구로 수렴된다. 가장 큰 어려움은 사교육 비용 부담, 비용지원부족 등을 꼽았다. 현재 양육비용에 대한 지원은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사교육 간소를 위한 학교 중심의 공교육 강화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아홉째, 육아가구 부모들이 가족을 이루고 자녀가 생기고 삶의 질을 돌아본 결과, 자녀 출산 이후 여가와 물질적 부분에서 다소 부족하다고 여기지만 그들의 삶의 질은 보다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가족 생활과 부모개인의 내적 성숙과 행복감에서 긍정적 삶의 변화를 체감한다고 하였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열 명 중 거의 일곱 명은 '가족'이라 답하였고, 삶의 질의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은 여가와 물질적 생활이라고 하였다.

나. 부모됨과 자녀의 가치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가 인식하는 부모됨에 대한 인식과 자녀에 대한 가치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부모들은 자녀의 의미를 노후에 경제적 도움이나 사회적 의무 같은 도구적인 존재로서가 아닌 부모의 인생에 가치를 부여하는, 존재 자체가 주는 기쁨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부모들은 부모가 되기 위해 심리·정서적,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함을 체감하고 있었고 부모로서의 책임감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또한 부모는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입장(53.4%)과 '자녀 때문에 본인의 행복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입장(46.4%)은 거의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의 경우, 45세 이상의 연령 집단, 육아하는 집단에서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부모 책임에의 동의가 높았다.

셋째, 부모로서의 자녀 지원은 '대학을 졸업할 때' 까지라는 생각이 주류를 이루었고, 자녀 양육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비용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모가 양육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지원요구가 높았다. 그러나 맞벌이 가구로 추정되는 소득이 높은 집단들에서는 시간지원요구가 더 높은 특징을 보였다.

다. 부모됨 경험과 삶의 질 향상

또한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 아버지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하여 파악한 부모가 됨으로써 느끼는 행복과 달라진 점 등을 통해 다음의 시사점을 얻는다.

첫째, 부모들은 자신의 삶의 질을 독립된 개인이 아닌 부모로서의 정체성에 입각하여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에 대해서도 자녀의 성장, 자녀와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 부모로서의 경험하는 성숙감, 가족과 삶의 균형감 등 자녀를 둔 부모로서의 입장에서 표현하고 있다. 이는 부모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전략이 가족이라는 단위를 중심으로 구상되고 접근되어야함을 시사한다.

둘째, 부모들은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평가와 자녀가 주는 행복감 등의 기쁨은 독립적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부모들은 자녀의 존재 자체부터 오는 보람이나 표현하기 힘든 기쁨, 충만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삶의 질은 자신의 시간과 경제적 요소를 자유롭게 쓸 수 있을 때 향상된다고 느끼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육아로 인한 시간의 제약과 자유로운 활동의 제한은 부모 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육아의 부담이 큰 시기인 영아기 부모들은 육아 과정에 함몰되어 현재 부모들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인식하며, 같은 맥락에서 부부간 양육 분담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이는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는 다면적인 양육 지원정책들은 부모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소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부모들이 양육효능감을 지닐 수 있도록 자녀의 발달에 따른 부모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부모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부모들은 우울하거나 속상하여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상황들에 대해 자녀의 발달적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어려움을 지원하지 못할 때, 부모로서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때, 자녀에게 적절한 훈육을 하지 못할 때라고 답하였다. 이런 부분들은 부모 교육이나 상담 등 부모를 위한 역량강화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선 가능한 부분으로 자녀의 성장에 따른 부모의 성장을 지원하는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양한 기회 제공이 요구된다.

넷째, 부모의 삶의 질 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긍정적 영향 요소들을 높이고 부정적 요소를 줄여가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부모들은 삶의 질을 높게 느

끼는 순간에 대해 육아의 부담이 줄고 일상의 회복, 부부의 적절한 양육 분담, 가정의 경제적 안정감, 자녀와의 유대감과 소통, 부부 또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과 경험, 개인으로 자신만의 시간 확보, 일과 양육 등 삶의 균형감 등으로 요약 할 수 있다. 부모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육아로부터 오는 부담, 부모 자신의 시간 부족, 경제적 부담감, 부모 자신의 발전을 위한 고민 등으로 표현되었다.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들이 상당한 연관성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요소들은 이미 많은 부분 육아지원정책으로 반영되어 돌봄지원정책, 비용지원정책, 일·가정양립정책으로 대표되는 시간지원정책들로 구체화된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이 부모의 생활에서 체감되어 제도에 대한 만족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고 메우는 노력이 요구된다.

라. 육아가구 삶의 질과 정책적 요구

육아가구는 본인 외에 책임지고 양육해야할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 육체적 제약이 있음으로 인해 여가 생활, 개인생활 등의 자율성이 부족하지만 자녀의 탄생과 자녀양육으로 인해 스스로의 성장과 부모로서의 책임감, 자신의 부모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면서 스스로 성장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였다.

육아가구 대상을 중요한 삶의 영역을 물었을 때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가족 생활, 건강 생활, 물질적 생활, 내적 성숙, 일 생활 등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는데, 이에 반해 현재 삶에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는 영역으로는 가족 생활과 일 생활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로 인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은 물질적 생활의 변화를 원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여가 생활과 내적 성숙을 원하는 비율이 높았다.

건강이 중요함에도 이에 시간을 쓰기 어렵기 때문에 여가 생활의 증가로 건강 생활 및 사회적 관계 등에도 시간을 쓰기 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육아가구에게 양육으로 인한 부족한 시간이 여가시간, 건강 생활 등의 희생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 여가시간의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자녀로 인한 삶의 질의 변화도 가족 생활은 남녀 구분 없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많았고, 개인의 성숙 및 행복감, 사회적 관계, 직업생활 등은 남성의 경우 꽤 높게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 여가 생활, 직업생활, 경제적생활, 건강 생활 등의 순으로 낮게 나타나, 여가 생활과 재취업 등의 경력단절 극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VI

육아가구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 01 결과 및 요약
- 02 기본방향
- 03 육아가구의 삶의 질 제고방안 세부과제

VI. 육아가구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본 연구에서는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1,614명의 아버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비육아가구 남녀 410명 포함)를 바탕으로 삶의 질 지표에서의 삶의 질 정도와 부모됨과 자녀에의 가치관, 육아가구 양육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38명의 영아, 유아, 초등학생을 양육하는 부모님의 심층면담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면서 행복한 순간, 힘들었던 순간 등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지원 요구를 분석하였다. 또한 생활시간데이터를 바탕으로 육아가구의 생활시간의 패턴을 파악해보았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육아가구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결과 및 요약

가. 자녀 유무 및 자녀 양육단계별 삶의 질

〈표 VI-1-1〉에서는 육아기의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 자녀 연령별로 삶의 질 지표를 통한 삶의 질 측정을 통해 살펴본 삶의 질 내용을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 육아가구 중에서는 자녀연령별로 요약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영아기에는 내면적 삶에 해당하는 주관적 웰빙, 의식과 가치에 해당하는 삶에 대한 만족도, 행복도, 삶의 의미 등이 매우 높고, 오히려 우울, 근심걱정이 낮게 나타나고 인생결정자유도 높게 나타나, 육체적으로 힘든 시기임에도 높은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건강영역에서는 아침식사, 규칙적운동 등에서 영유아가구가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주관적 건강상태, 수면의 질도 현저히 낮은 상황을 보였다. 여가생활 만족도도 영유아 시기에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여가시간 충분도는 0~10점 중 3.8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초등 저학년 이후에는 기본적인 건강과 여가에 대한 노력을 영유아시기에 비해서는 높아진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초등 고학년 부모의 경우 학업수준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표 VI-1-1〉 육아기구/비육아기구별, 자녀연령대별 삶의 질(요약)

영역	구성요소	측정요소	전체 평균	육아 기구	비육아 기구	차이	영아 기구	유아 기구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차이
내면적 삶	주관적 웰빙	삶에 대한 만족도	5.9	5.8	5.9	n.s.	6.2	5.7	5.8	5.7	*
		행복도	6.3	6.3	6.4	n.s.	6.7	6.1	6.2	6.2	**
		근심/걱정 정도	5.6	5.8	5.2	***	5.7	5.9	5.7	5.7	n.s.
	의식과 가치	우울 정도	4.5	4.6	4.0	***	4.3	4.7	4.8	4.6	*
		삶의 의미(삶이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6.3	6.4	6.2	n.s.	6.6	6.3	6.3	6.3	n.s.
		인생 결정 자유	5.6	5.4	6.1	***	5.6	5.3	5.4	5.4	n.s.
삶의 역량	건강	아침식사*	47.3	48.3	43.7	n.s.	45.8	43.6	50.0	53.7	*
		규칙적 운동*	40.6	38.3	49.8	***	35.1	35.5	40.3	42.3	n.s.
		정기적 건강검진*	78.2	77.4	81.5	n.s.	75.1	77.3	75.9	81.2	n.s.
		주관적 건강상태	5.4	5.3	5.7	***	5.3	5.0	5.5	5.6	***
		수면의 질	4.8	4.7	5.4	***	4.5	4.5	4.8	5.0	**
	교육	전반적 스트레스	6.0	6.1	5.3	***	6.1	6.3	6.2	6.0	n.s.
		학업수준 만족도	6.0	6.1	5.8	n.s.	6.2	6.2	6.1	5.8	n.s.
		배움노력	5.2	5.2	5.4	n.s.	5.1	4.9	5.3	5.4	*
		여가생활 만족도	5.6	5.4	6.3	***	5.3	5.2	5.6	5.6	*
		여가시간 충분도	4.5	4.2	5.5	***	3.8	3.8	4.5	4.7	***
사회적 삶	가족	가족관계만족도 (평균)	6.7	6.7	6.8	-	7.1	6.6	6.5	6.5	-
		부부간 가시분담만족도	5.7	5.6	6.3	***	5.9	5.2	5.6	5.5	**
		부부간 양육분담만족도	-	5.9	-	-	6.1	5.6	6.0	5.9	n.s.
	공동체생활	사회적 고립도(외롭다고 느끼는 정도)	2.2	2.3	2.1	***	2.1	2.3	2.4	2.3	***
		인간관계 만족도 (평균)	6.1	6.1	6.0	n.s.	6.3	6.0	6.0	6.0	n.s.
		사회전반에 대한 신뢰도	4.6	4.6	4.5	n.s.	4.9	4.5	4.6	4.3	***
		가족/친척에 대한 신뢰도	7.3	7.3	7.2	n.s.	7.5	7.2	7.2	7.2	n.s.

단위: 점

영역	구성요소	측정요소	진척 평균	육아 가구	비용아 가구	차이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초등저 학년	초등고 학년	차이	
물질적 삶	일	이웃에 대한 신뢰도	4.9	5.0	4.2	***	4.8	5.0	5.1	5.0	n.s.	
		친분있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	6.4	6.4	6.3	n.s.	6.6	6.4	6.3	6.3	n.s.	
		처음만난 낯선사람에 대한 신뢰도	3.2	3.2	2.7	***	3.3	3.2	3.4	3.1	n.s.	
	소득/소비	전반적 일 만족도	6	6	6	n.s.	6	6.1	5.9	6.1	n.s.	
		일·가정 양립 만족도	5.9	5.8	6	n.s.	5.9	5.7	5.6	6	n.s.	
		기업의 육이친화적 환경 (평균)	4.7	4.8	4.4	n.s.	5	4.9	4.6	4.5	n.s.	
		소득 만족도	4.6	4.6	4.9	*	4.9	4.5	4.5	4.4	n.s.	
		소비 만족도	4.8	4.7	5.1	*	5.0	4.6	4.6	4.6	*	
		자녀양육비 부담정도	-	6.1	-	-	5.8	5.7	6.3	6.5	6.5	***
		주거비 부담도	6.4	6.5	5.9	***	6.5	6.4	6.7	6.5	-	
주거	본인세대 계층이동 가능성	4.7	4.7	4.3	**	4.8	4.6	4.9	4.7	***		
	자식세대 계층이동 가능성	4.3	4.5	3.5	n.s.	4.4	4.4	4.7	4.5	n.s.		
	현재 거주주택 상태 만족도	5.8	5.8	5.8	n.s.	5.9	5.9	5.7	5.7	n.s.		
	주거환경 만족도 (교통, 문화체육시설, 편의시설, 의료시설)	5.9	5.9	5.9	n.s.	6	5.8	5.9	6	n.s.		
삶의 환경	환경	주변환경 (보육교육관련 시설) 만족도	6.0	6.2	5.5	***	6.2	6.1	6.2	6.2	n.s.	
		생활환경 만족도 (공기질, 소음, 녹지공원 등)	5.9	5.9	5.9	n.s.	5.8	5.8	5.9	6	n.s.	
	인전	지역사회 내 양육환경 및 문화에 대한 인식(평균)	-	2.7	-	-	2.7	2.7	2.7	2.7	n.s.	
		동네의 전반적 안전	6.5	6.5	6.6	n.s.	6.5	6.5	6.4	6.6	n.s.	
		자녀 키우기에 안전한 정도	5.4	5.5	5.1	*	5.6	5.3	5.5	5.4	n.s.	

주: 1) 간격 중 객관적 지표인 이원시사, 규칙적운동, 정기적 건강검진 세 문항은 실천 유무(예/아니오)를 질문하여, 해당수치는 '예'에 응답한 비율임을 밝힘.

2) 객관적 건강지표를 제외한 모든 응답은 0점(매우 그렇지 않다)-10점(매우 그렇다)의 척도에서 응답한 그룹별 평균값임.

* $p < .05$, ** $p < .01$, *** $p < .001$.

2. 기본방향

육아가구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함에 있어 기본 정책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기본방향 1. 변화하는 육아가구의 인식과 선호양육형태를 고려한 제도개선을 제안한다.
기본방향 2. 육아가구의 삶의 질 현황에 근거하여, 육아를 하는 부모 개인의 삶의 개선 영역을 지원한다.
기본방향 3. 육아하는 가구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고, 육아하지 않는 가구도 육아를 지지하는 사회전반의 변화와 배려를 도모한다.

가. 변화하는 육아가구 인식에 맞는 제도개선 필요

본 연구에서 육아가구에서 원하는 지원분야로는 비용지원, 양육시간 지원, 주거 지원, 돌봄 서비스 지원 등으로 다양한 방면의 지원을 원하고 있었으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영아, 유아 가구를 중심으로 아버지의 휴직경험이 높고, 아버지의 공동육아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즉 일 생활 유지를 위해 돌봄을 오래 맡기는 돌봄지원 형태에서 자녀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곳으로 직장을 옮기거나, 업무 시간을 줄이거나 하는 노력을 통해 영유아 육아기에 직접돌봄을 통해 자녀들과 함께 지내고자 하는 욕구와 노력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경향성은 휴직 사용 및 근무시간단축 등과 연결되면서 실질적으로는 가구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재 지원체계에서는 육아지원제도의 활용이 소득감소를 감수함과 동시에 여전히 남아있는 육아지원제도활용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육아시간지원과 제도개선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또한 직접돌봄의 추세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육아를 위해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특히 여성의 경우 많이 있고, 이는 경력단절 및 재취업의 어려움 고민으로 연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나. 육아기 양육자의 부족한 삶의 질 영역에 대한 지원마련

현재까지의 육아가구에 대한 지원이 돌봄지원 등 육아자체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연구에서 확인한 육아를 하는 부모의 삶의 질 조사를 통해 비육아가구와의

비교를 통한 육아가구에서 두드러지는 취약부분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지원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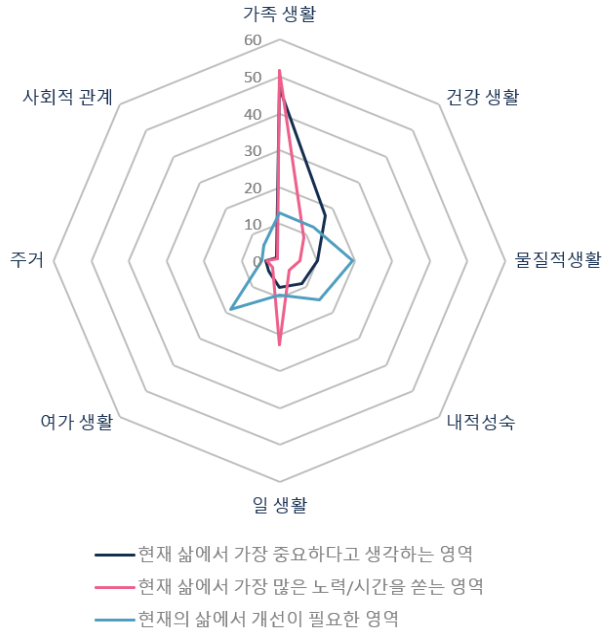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의 삶의 질 전반을 살펴보았을 때,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격차가 두드러지는 영역들이 있었으며, 특히 육아가구에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부부간의 가사분담정도를 살펴보면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가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가사분담정도가 높고 가사분담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를 비교하면, 육아가구에서는 남성의 경우 본인 분담정도가 비육아가구보다 낮고, 여성의 경우는 본인의 가사분담정도가 비육아가구보다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가구의 여성은 비육아가구의 여성보다 분담만족도가 낮은 경향성을 보여 육아와 가사를 동시에 하게 되는 육아가구에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비육아가구 대비 육아가구의 삶의 질을 파악했을 때, 가장 부족하면서도 육아가구가 원하고 있는 삶의 영역은 여가 생활 영역으로 나타났다. 현재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 가장 많은 노력/시간을 쏟는 영역,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물어 전체 값 기준으로 가장 높은 영역의 퍼센트를 기준으로 방사형 그래프를 그려보았을 때(그림 VI-2-1 참고), 육아가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으로 가족 생활, 건강 생활 등이 높게 나타났고, 현재 삶에서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가장 크게 물리적 생활 및 여가 생활의 영역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다. 부모됨의 과정을 존중할 수 있는 육아친화문화 확산

조사결과 육아휴직, 육아기근로단축제도, 시차출퇴근제/선택근무제, 원격(재택)근무제, 가족돌봄휴가 등 육아지원정책에 대해 제도가 있으나 이용이 어렵다고 한 경우가 남성의 경우는 24.5~34.5%, 여성의 경우는 19.6~25.0%로 육아지원제도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심층면담결과, 육아를 하지 않는 직원들의 이해부족으로 육아지원제도가 축소되는 경우 또한 발생하며,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쓰지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있었다. 결국 다양한 육아를 위한 지원정책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부모됨에 대한 존중과 이해에 대한 인식확산은 지속해서 노력해야 할 과제이다.

[그림 VI-2-1] 육아가구의 삶의 질 영역별 중요 영역/시간소요 영역/개선필요 영역



3. 육아가구의 삶의 질 제고방안 세부과제

가. 자녀 연령별 지원 영역 분석 및 정책방안

1) 영유아기 육아가구 지원 요구 및 정책방안

영유아 육아기에 삶의 질에 있어 부족한 영역과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들을 <표 VI-3-1>에 정리하였다. 영아를 양육하는 육아가구의 경우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자녀에 대한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는 행복한 시기이다. 또한 유아기는 영아기와 같은 육체적 어려움이 점차 줄어들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기관 이용을 통해 시간적 여유가 생기며 자녀 발달상 부모를 이해해주고 표현하는 시기이므로 주관적 행복감이 가장 큰 시기로 나타났다.

〈표 VI-3-1〉 영유아기 육아가구 지원 요구 내용 및 정책방안

삶의 영역 구분	지원 요구 내용	정책방안
건강 및 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 육아가구의 경우 규칙적 운동을 하는 비율(35%), 건강검진 비율(75%)이 가장 낮음 - 여가시간충분도가 0-10점중 3.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영유아기 육아 중 1시간의 운동이 삶의 질을 증진시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만2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대상으로 요가, 필라테스, 헬스 등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패스 발행-보건소 진행시 건강상담포함 - 주체: 보건소, 주민센터
가사 노동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시간에 있어서 가사노동에 대해 육아가구의 가사 노동시간이 높게 나타남 - 1자녀 가구에 비해 2자녀 이상의 자녀 가구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 대상 가사도우미 지원
주관적 건강/스트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책임에 대한 부모간 인식차이 및 양육 부담으로 인한 갈등 - 육아가구가 비육아가구에 비해 전반적, 가정생활, 가족 내 스트레스, 친구, 지인 스트레스가 모두 높음(직장스트레스는 차이없음) - 우울정도, 근심걱정 등이 육아가구가 비육아가구보다 높음. 삶의 만족도, 행복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낮음 - (면담) 양육 초기 육아책임에 대한 부모간 인식차이 및 양육 부담으로 인한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부부 및 영아자녀양육 부모를 대상으로 한 방문형 지원상담서비스 지원 - 양육자 스트레스 및 양육인식차이로 인한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 주체: 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자녀양육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육아가구의 경우 육아가구에 비해 자녀양육환경에 대한 안전 정도 및 주거환경의 보육교육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게 나와 경험전의 불안도가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초기 및 예비부모 대상 지역사회 양육친화환경에 대한 안내 제공

주: 본 연구의 IV장, V장의 조사결과 및 심층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함.

가) 영유아기 전업 양육자 건강증진프로그램 지원

건강 생활은 가족 생활 다음으로 육아가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임에도 실제 삶에 있어서는 육아로 인해 건강을 위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가시간이 나지 않아, 비육아가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다. 규칙적운동시간이 영유아 육아가구의 경우가 초등 육아가구보다 낮게 나타남과 동시에, 여성이 남성보다 낮게, 미취업자가 취업자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육아휴직 및 미취업 등 전업으로 양육을 맡고 있는 경우 여가시간이 더욱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아, 유아를 양육하는 육아가구의 부모의 여가시간충분도가 0~10점 중 3.8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현재 취업중이 아닌 전업으로 양육을 하고 있는 육아가구의 경우 자녀를 맡기고,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는 여가지원이 필요하다.

일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영유아 양육자 대상으로 하는 요가 교실 등을 실시하는가 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여성체육활동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신체건강과 여가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미취학 영유아를 양육하는 육아가구를 대상으로 주민센터 및 가족센터 등의 문화 생활 프로그램을 통해 요가, 필라테스, 헬스 등의 수업을 영유아기 양육자를 대상으로 부모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을 제안한다.

‘영유아기 건강pass’ 사업을 진행하여, 영유아기 전업양육자가 지역사회내의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유료 수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을 제공한다.

나) 다자녀 집중 가사도우미 지원

주관적 건강상태 수면의 질 등 기본적인 건강이 부모 외에 제 3의 돌봄 인력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육아가구가 비육아가구에 비해 의무시간이 높게 나타나고, 가사노동시간이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가사노동시간이 자녀연령별로는 차이가 나지 않았음에도 자녀수에 따라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1명인 가구보다 가사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다자녀가구 대상의 지원으로 가사도우미 지원을 제안한다(한부모가구, 저소득층 지원 우선).

2) 초등 저학년 육아가구 지원 요구 및 정책방안

초등학생 육아기에 삶의 질에 있어 부족한 영역과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들을 <표 VI-2-3>에 정리하였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기의 삶의 질은 영유아기의 부모와 그 어려움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

초등 저학년의 경우 아직 직접돌봄이 필요한 시기이며, 초등 고학년의 경우 학습에 대한 부담이 시작되는 시기라 사교육 이용이 많아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시기이다.

〈표 VI-3-2〉 초등 저학년 육아가구 지원 요구 내용 및 정책방안

삶의 영역 구분	지원 요구 내용	정책방안
가족 영역 일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시간조사) 초저 시기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한 시간, 자녀를 돌보는 시간의 그룹별 편차 큼. 초등 고학년에서 가구소득/교육수준 등으로 인한 돌봄의 차이가 생기는 중간단계임 - (조사) 여가시간 중 시간이 나면 하고 싶은 활동 중 '여행,나들이'의 비율이 50%이상임 - (면담) 자녀의 가족과의 시간 확대와 부모의 여가활동에 대한 요구 충족을 위해 가족단위 활동 지원 필요 - 초등 저학년의 학교 이용시간이 더 긴 이유는 방과후 및 돌봄 이용률이 높기 때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가구 대상 "육아가구 문화패스" - 자녀동반 예약시, 숙박시설 할인, 문화체육활동 예약 할인 제공
교육/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저학년의 평균 학교 이용시간은 3시간 (초등학교 고학년은 2시간 36분)으로 나타나, 영유아 기관 평균 이용시간인 4시간 54분 보다 2시간 이상 짧음. - (초등저) 학교 방과후 시간에 학원등의 사교육을 이용하는 경우가 57.5%, 학교내 돌봄 이용 60.0% - (초등고) 학교 방과후 시간에 학원 등의 사교육 이용하는 경우 70.8%, 학교 내 돌봄 이용 36.9%로 사교육 이용 급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돌봄의 중요성 방향에 따라 '출산초기 육아휴직'과 같이 초등 저학년 시기의 돌봄, 초등방학기간의 돌봄공백에 대한 특별 지원이 필요함 - 초등방학휴가, 초등돌봄 재택근무 등 시기 특수적 지원제도 마련 및 활용확대
소득/소비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가구가 소득소비만족도 낮고, 자신을 위한 소비생활만족도 낮음-자녀양육비, 자녀교육비 부담이 초등 저학년부터 높아져, 초고의 경우 가장 높음.-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자녀교육비 부담 더 높음.- (면담) 돈은 아이들이 클 수록 더 드는데 지원은 태어나는 아이들 위주임. 교육비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수요에 맞춘 공급이 제공될 수 있도록 초등 저학년 대상 방과후 수업 지원확대 - 늘봄학교 지원확대 등을 고려하여, 방과후 수업을 원하는 학생이 들을 수 있는 공간 및 수업인프라 확대

주: 본 연구의 IV장, V장의 조사결과 및 심층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함

가) 초등 저학년 시기 시간 지원 확대

초등학생자녀의 경우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육체적인 노동에 서는 서서히 벗어나지만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시기보다 2시간 이상 짧아진 학교 이용시간으로 오후 1, 2시 이후부터는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초등 저학년의 돌봄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책방향에서도 언급했듯이, 조사로 나타난 현재 육아가구의 부모가 장시간 돌봄을 맡기려고 하기 보다는 소득 감소, 회사에서의 승진 등의 기회비용을 희생하더라도 육아기에 자녀와 시간을 함께 많이 보내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추세에 맞는 초등 저학



년 지원을 위한 시간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만 8세까지 제공되고 있는 육아 휴직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고, 초등입학기(초등 1학년-3학년 시기)에는 가능한 직종에 한해 재택근무 활용을 의무화하고 기타 직종의 경우에도 시간단축근무제도 2시간을 임금삭감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나) 안전한 학교에서의 방과 후 돌봄 및 교육 지원

초등 저학년의 돌봄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으로 현재 초등 저학년의 60.0%가 이용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 및 돌봄을 돌봄 공백이 있는 가족만이 아닌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돌봄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시행이 활성화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학교 내 돌봄과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부모들의 수요는 높다. 하지만, 현재 돌봄 교실과 방과후과정의 운영의 실체는 고학년의 경우 학교수업이 마쳤음에도 방과후교실을 바로 이용하지 못하고, 저학년 이용 후 이용하기 위해 대기하거나, 공급에 비해 수요가 너무 높아 높은 경쟁률로 추첨을 해서 방과 후 수업을 듣거나 하는 수강에 제약이 있는 경우도 있다.

현재의 정부의 계획대로 원하는 모든 수요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의 방과후에 운용 가능한 교실 등을 고려하여 학습교실을 활용하는 등의 공간마련이 시급하다.

3) 초등 고학년 육아가구 지원 요구 및 정책방안

〈표 VI-3-3〉 초등 고학년 육아가구 지원 요구 내용 및 정책방안

삶의 영역 구분	지원 요구 내용	정책방안
- 소득/소비 영역 - (양육비 관련)	- 현재 초등학생을 양육하는 세대의 경우 최근 늘고 있는 영아기 부모급여 등 비용지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음 - 이와 함께 사교육비 등 교육비지출증가가 늘어나면서 교육비지원에 대한 요구 높음	- 아동수당 연령 증가 및 방과 후 수업 수강대상 확대
- 사회적 영역 - (사회적 고립도 및 사회적 관계망 부족)	- 육아가구 여성의 경우 사회적 고립도가 높으며, 연령 높고, 미취업일 경우 높아짐 - 학습수준에 대한 만족도도 낮음 - 특히,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육아가구가 더 적음	- 돌봄경력 인정으로 인한 일자리 확대 - 돌봄경력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양육으로 공백이 생긴 부모에

삶의 영역 구분	지원 요구 내용	정책방안
- 일 영역/ 사회적 영역 - (육아로 인한 여성 의 경력 단절)	- 경력단절 및 재취업에 대한 요구가 높음 - “왜 여자만 희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딱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두 명 중에 한 명이 그 만뉘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초고모3)” - 지자체 차원에서 여성 경력을 활용한 활동을 촉 진하고 여성의 육아경력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대한 재취업 지원 프로그 램 양성

주: 본 연구의 IV장, V장의 조사결과 및 심층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함

가) 만 8세 이상 경력단절 어머니 재취업 지원 제공

현재 시점의 초등 고학년을 첫째로 둔 어머니들의 지원요구사항의 주요한 부분으로 ‘재취업 희망’이 있었다.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출산, 양육을 할 시절은 다양한 육아지원제도 및 남성의 육아휴직 등도 활용률이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여성의 육아 비중이 높았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 어머니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접어들어 따라 직접 돌봄이 필요한 정도가 낮아지면서, 자녀의 교육비 등의 소비가 늘면서 재취업을 원하는 상황이 늘고 있다.

성동구는 2021.11.4.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력보유여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국최초로 제정하여, ‘경력단절여성’ ‘경력보유여성’으로 표현을 전환하고, 여성의 무급돌봄노동 경력에 대해 ‘돌봄노동 경력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양육으로 생긴 경력단절에 대해 돌봄 경력 인정해줄 수 있는 지자체의 조례 지정 및 돌봄 경력으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확대,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개설 및 제공이 필요하다. 이렇게 경력단절 여성들이 돌봄을 경력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분야의 취업교육 및 취업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표 VI-3-4〉 경력단절여성의 무급노동경력을 인정해주는 조례 예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력보유 여성 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 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서울특별시 성동구민 모두가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력보유 여성 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 등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일경험”이란 직무 교육, 훈련, 체험, 수행 등 취업 전에 하는 일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말한다.
3. “돌봄노동”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존을 해야 하는 환자나 노인, 어린이와 같은 사람을 돌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개인, 가족 또는 관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단체, 법인 등에 적용한다.

제6조(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경력보유여성등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실태조사 등)

-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경력보유여성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연령, 성별, 혼인 상태, 취업 상태, 국적, 장애 여부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구민이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 홈페이지, 자치법류.

<https://www.law.go.kr/LSW/ordinLinkProc.do?ordinId=2212554&chrClsCd=&mode=20>

나) 만8세 이후 자녀 지원 방안 필요 - 아동수당 지원 연령 확대 및 방과후수업 지원금 대상 확대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 부모의 경우, 최근 영아중심으로 집중되는 부모급여 등 다양한 비용지원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고, 교육비 부담이 높은 그룹으로 분류된다. 현재 만8세까지 제공되는 아동수당의 지원연령 확대를 통해 현재 자녀를 낳아 기르고 있는 육아가구에 대한 지원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이후 돌봄에 대한 직접적인 걱정보다는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재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과후 수업 지원금 대상을 전체 대상으로 확대하고, 학교 방과후 수업에서 제공되는 수업 프로그램의 질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나. 부모됨의 긍정성과 양육친화적 문화인식 확대

1) 부모됨의 긍정성 인식 확산

육아가구의 삶의 질 연구를 바탕으로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간의 비교를 통해 육아가구가 자녀양육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피로, 우울감, 걱정/근심 등을 더 높게 느끼는 동시에 자녀양육으로 인해 행복감을 느끼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스스로 성숙해가는 내적성장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VI-3-5〉 부모됨의 긍정성 인식 확대

구분	연구 내용	인식 확대
부모됨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체는 힘들지만 너무나 행복한, 온전한 사랑을 받는 경험을 하는 일. - 미디어에서의 육아와 훈육 등의 프로그램의 등장으로 육아에 대한 인식이 대중화 되었으나, 부정적인 측면, 힘든 측면이 부각되는 측면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를 통한 육아에 대한 긍정적 상황에 대한 지속적 노출 필요
자녀 출산으로 인한 내적 성장, 책임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출산으로 부모님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면서 원가족과의 관계 회복한 경험, - 누군가를 책임져야하는 존재로서 성장해가는 스스로를 발견하는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적 성장 경험, 가족관계 개선 경험 공유
높은 공동체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선 타인에 대한 신뢰', '사회에 대한 안전 인식' 부분에 대해 육아가구가 비육아가구보다 높은 인식정도를 나타냄 - 주거환경으로 '보육교육시설에 대한 인식' 부분도 비육아가구가 더 낮게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막연한 두려움 등을 가지지 않도록 인식개선이 필요함
육아로 인한 경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와 함께하는 문화생활에 대한 긍정적 정서가 높고, 육아가구의 경우 여행 및 문화생활에 대한 참여가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가구 대상 문화·관광 활동 확대
육아지원정책활성화 될 수 있는 기업사회 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육아가구의 항의 등으로 인해 육아지원 제도의 활용에 제약이 있거나 제도가 없어지기도 함-육아휴직을 활용한 남성 대상 불이익 분위기가 존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기업내 문화인식 개선 필요하며 제도를 통한 인식이 필요함

가) 미디어에서의 육아에 대한 긍정성 노출

미디어를 통하여 드러나는 육아의 모습은 부정적이고 힘들기만 하게 비춰지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육아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육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육아를 하고 있는 양육자도 육아에 대한 책임을 과도하게 느끼게 되는 부정적인

효과도 가지고 있다.

자신의 삶의 질을 위해서 자녀출산을 포기하는 등의 저출생 현상들이 가속되고 있다. 이에 미디어를 통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긍정적 경험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의 확산이 필요하다.

나) 육아가구 대상 문화·관광활동 확대

‘자녀 때문에 어쩔 수 없이’로 시작하였지만 자녀로 인한 관계로 인한 관계 확장을 경험하고, 자녀를 위한 여행으로 자신의 경험을 확장해나가는 긍정적인 경험의 공유를 할 수 있었다. 또한 비육아가구의 여가가 미디어 시청에 많은 비중을 활용하고 있는 반면, 양육을 하는 부모의 여가는 문화생활, 여행, 관광 등 보다 활동적이고 다양한 영역에 나타난다.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각 지역사회에서의 문화시설 및 지역공공기관 문화시설의 확충에 있어서, 가족단위 방문 시 식당 및 숙박시설 할인, 지역문화행사에서도 가족대상 프로그램 운영 등 자녀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등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가족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저변의 노력 또한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다.

2) 양육친화적 인식확대가 모든 육아지원정책의 기본

육아가구를 지원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양육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자녀양육으로 인한 지원에 대한 사회적 동의와 지지이다. 출산과 양육이 여성만의 책임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남성의 육아휴직 등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주변의 눈치로 인해 양육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비양육자가 육아지원정책의 활용을 공평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불만을 제기하여 육아지원제도의 활용을 어렵게 하거나,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활용하는 것이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게 하여 승진이나 업무추진에 불이익을 받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영유아 아버지 중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 등을 활용했던 아버지들이 불이익을 받는 분위기가 있음을 확신하였고, 그 중 몇 명은 그러한 분위기로 이직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었다. 출산과 양육이라는 과정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으로도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다.

〈표 VI-3-6〉 양육친화적 인식확대 필요성

구분	연구 내용	인식 확대
비양육자의 육아지원정책 비협조	- 비육아가구의 반대로 인해 육아지원 제도의 활용에 제약이 있거나 제도가 없어짐	직장내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 사이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직장문화인식개선 필요
육아지원정책활용에 대한 불이익	- “약간의 갈림길이 있는 것 같아요. 일을 더 치중할 것이냐 아니면 육아를 신경 쓰는 사람이 될 것이냐”(유아 부4) - “저는 한 2, 3년 정도 전에 승진을 미뤘다고 해야 되나?”(유아 부2) - (남성에게) 자녀출산 시 제공하는 출산휴가도 다 못 쓰는 경우도 많음	



참고문헌

- 고영복(2000).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학사전. 사회문화연구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520749&cid=42121
&categoryId=42121](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520749&cid=42121&categoryId=42121). (2024.3.4. 인출)
- 관계부처합동(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 12).
- 김영란·주재선·정가원·배호중·선보영·최진희·김수진·이진숙(2021). 2020년 가족 실태조사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은설·최혜선(2008). 한국인의 자녀 양육관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 김지현·배윤진·김문정(2024).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연구.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육아정책연구소.
- 문무경·조숙인·김정민(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박종서·임지영·김은정·변수정·이소영·장인수·조성호·최선영·이혜정·송지은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구)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심수진·남상민·김은아(2024). 국민 삶의 질 2023. 통계청 통계개발원.
- 조성호·변수정·김문길·김지민(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 이윤경·변수정·김은정·진화영·주보혜·남궁은하·김주현·정윤경(2020). 저출산·고령 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4. 6. 19.).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 통계청(2022). 2022년 사회조사보고서: 가족·교육과 훈련·건강·범죄와 안전·생활환경. 통계청.
- 통계청(2023a). 2022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 통계청(2023b). 2023년 사회조사보고서: 복지·사회참여·여가·소득과 소비·노동. 통계청.

- 통계청 보도자료(2024. 2. 28.)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 한국행정연구원(2023).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 한성민·이준상·김영철·정완교(2021).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이해와 정책대응. 한국개발연구원.
- 한준·최슬기·이도훈·정인관·권다은(2023). 생애주기별 삶의 질 측정 프레임워크 구축 연구. 통계개발원·한국삶의질학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24년 5월 기준).
<https://jumin.mois.go.kr>. (2024. 6. 15. 인출)
- 허중호(2024). 2023년 한국인의 행복조사의 주요 결과 및 최근 4년간 동향. 국가미래전략 Insight 88호.
- 허중호·민보경·이상직·이채정(2023). 2023년 한국인의 행복조사(3차조사): 기초 분석 보고서. 국회미래연구원.
-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역(2021). OECD 저. How's Life? 2020: 웰빙의 측정(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 2020,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870c393-en>). 서울: 월드프린테크.
- Budig, M. J., & Folbre, N. (2004). Activity, proximity, or responsibility? measuring parental childcare time. In: Bittman M and Folbre N (eds) Family Time: The Social Organization of Care. London: Routledge (pp.51-68).
- Brenning, K., De Clercq, B., & Soenens, B. (2024). The Role of Mothers' and Fathers' Perfectionistic Concerns and Emotional Dysregulation in the Co-Occurrence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Parental Burnout.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33(4), 1158-1171.
- Carr, D. (2018). The linked lives principle in life course studies: classic approaches and contemporary advances. In: Alwin D, Felmler D and Kreager D (eds) Social networks and the life course. *frontiers in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vol. 2. Cham: Springer(pp. 41-59).
- Carr, D., & Utz, R. L. (2020). Families in later life: A decade in review.

-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82(1), 346-363.
- Cha, Y., & Park, H. (2021). Converging educational differences in parents' time use in developmental child car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83(3), 769-785.
- Christopher, K. (2012). Extensive mothering: Employed mothers' constructions of the good mother. *Gender & society*, 26(1), 73-96.
- Craig, L. (2016). *Contemporary motherhood: The impact of children on adult time*. Routledge.
- Craig, L., & Mullan, K. (2012). Shared parent-child leisure time in four countries. *LeisureStudies* 31(2), 211-229.
- Dalla Zuanna, G., & Micheli, G. A. (Eds.). (2004). *Strong family and low fertility: a paradox?: new perspectives in interpreting contemporary family and reproductive behaviour* (Vol. 14).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Dotti Sani, G. M. (2022) The intrinsic value of childcare: positive returns of childcare time on parents' well-being and life satisfaction in Italy.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3, 1901-1921.
- Doucet, A. (2015). Parental responsibilities: dilemmas of measurement and gender equal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7(1), 224-242.
- Doucet, A. (2023). "Time is not time is not time": A feminist ecological approach to clock time, process time, and care responsibilities. *Time & Society*, 32(4), 434-460.
- Faircloth, C. (2023). Intensive parenting and the expansion of parenting. In *Parenting culture studies* (pp. 33-67). 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 Folbre, N. (2021). Quantifying care: design and harmonization issues in time-use surveys. Global Centre of Excellence on Gender Statistics, UN Women.eurostat
- Folbre, N. (2023). Beyond the clock: Rethinking the meaning of unpaid childcare in the US. *Time & Society*, 32(4), 367-384.

- Folbre, N., & Yoon, J. (2007). What is child care? Lessons from time-use surveys of major English-speaking countries.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5, 223-248.
- Hays, S. (1996).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motherhood*. Yale University Press.
- Kalil, A., Ryan, R., & Chor, E. (2014). Time investments in children across family structures.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54(1), 150-168.
- Lareau, A. (2003). *Unequal childhoods: Class, race and family life*.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ilkie, M. A., & Wray, D. (2023). Beyond mothers' time in childcare: Worlds of care and connection in the early life course. *Time & Society*, 32(4), 385-410.
- Milkie, M. A., Wray, D., & Boeckmann, I. (2021). Gendered pressures: divergent experiences linked to housework time among partnered men and women.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52(2), 147-179.
- Nomaguchi, K., & Milkie, M. A. (2020). Parenthood and well-being: A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82, 198-223.
- Oliveira, V. H., Martins, P. C., & Carvalho, G. S. (2024, April). Children's daily activity patterns and the influence of multilevel ecological factors. In *Child & Youth Care Forum* (Vol. 53, No. 2, pp. 315-348). New York: Springer US.
- Park, J. (2001). *How to define and measure outcomes of early intervention: An examination of family quality of life*. University of Kansas.
- Roeters, A., & Gracia, P. (2016). Child care time, parents' well-being, and gender: Evidence from the American time use survey.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5, 2469-2479.
- Sirgy, M. J., Kim, M. Y., Joshanloo, M., Lee, D. J., & Bosnjak, M.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domain satisfaction and

- domain importance: The moderating role of depression.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1, 2007-2030.
- Taylor, S. J., & Bogdan, R. C. (1990). Quality of life and the individual's perspective. In R. L. Schalock (Ed.), *Quality of life: Perspectives and issues* (pp. 27-40).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
- The WHOQOL Group(1998).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WHOQOL): development and general psychometric properties. *Social science & medicine*, 46(12), 1569-1585.
- Turnbull, A.P., Turnbull, H.R., Poston, D.J., Beegle, G., Blue-Banning, M.J., Frankland, H.C., Lawson, L.M., Nelson, L.G., Marquis, J.G., Park, J., Stowe, M.J., & Summers, J.A. (2004). Enhancing quality of life of families of children and youth with disabilities in the United States. In A.P. Turnbull, I., Brown, & H.R. Turnbull (Eds.), *Family quality of life: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pp. 51-100).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
- Vagni, G. (2019). Family time together. In Gershuny J and Sullivan O (eds) *What we really do all day: insights from the centre for time use research*. London: Pelican Books,(pp.151-165).
- Venn, S., Arber, S., Meadows, R., & Hislop, J. (2008). The fourth shift: exploring the gendered nature of sleep disruption among couples with children.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9(1), 79-97.
- Wikle, J. S., & Hoagland, A.(2020). Adolescent interactions with family and emotions during interactions: Variation by family structur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4(5), 544-554.
- Yee Leung, J. T. (2022). Conceptualization of self-oriented parenting perfectionism and its Associations with parents' wellbeing among Chinese parents.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17(6), 3517-3540.

〈참고 웹사이트〉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홈페이지
<https://mdis.kostat.go.kr/index.do>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24년 5월 기준). <https://jumin.mois.go.kr/>
(2024.6.15. 인출)

eurostat홈페이지_Quality of life indicators-measuring quality of life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Quality_of_life_indicators_-_measuring_quality_of_life#Framework_for_measuring_quality_of_life (2024.2.27.인출)

MDIS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 자료이용 > 공공용 데이터 다운로드 >
사회일반 > 가족실태조사 > 2020 자료
https://mdis.kostat.go.kr/dwnlSvc/ofrSurvSearch.do?curMenuNo=UI_POR_P9240.

〈관련 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력보유 여성 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 홈페이지, 자치법류.
<https://www.law.go.kr/LSW/ordinLinkProc.do?ordinId=2212554&chrClsCd=&mode=20>



Strategie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mong Child-rearing Households

Ji Hyun Kim, MeKyung Kwon, Seung-Eun Cha, Moonjeong Kim

In 2023, the number of newborns in Korea was approximately 230,000, which is less than half the 485,000 recorded in 2012, 11 years ag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quality of life of parents raising children and to explore ways in which they can pursue quality of life while managing the various aspects of life, including child-rearing in the era of low birth rates.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literature review, surveys, in-depth interviews, and secondary data analysis using 2019 Korean Time Use Survey. First, the survey included 1,614 households with children and 410 childless households, with a total of 2,024 participants. Parenting households were sampled by dividing them into groups based on the age of the first child, including infants, toddlers, lower elementary school, and upper elementary school households. Childless households were sampled according to the age distribution of parenting households.

In the survey examining the quality of life of parenting households, various life domains were considered, such as subjective well-being, life satisfaction, happiness, health, education, leisure, family life, social relationships, working life, and material well-being. The key findings revealed that while worries and depression levels were higher among parenting households compared to non-parenting households, life satisfaction, happiness, and life meaning were very high among infant households. Furthermore, parenting households showed higher levels of trust in neighbors and strangers compared to non-parenting households,

indicating stronger community engagement of parenting households. However, parenting households showed lower levels of regular exercise, sleep quality, satisfaction with leisure activities, and perceived adequacy of leisure time, suggesting that support may be needed in these areas.

Overall, this study compared the quality of life between parenting and non-parenting households, as well as across households with children of different ages. Notably, in parenting households, women showed significantly lower levels of satisfaction with household chores and happiness compared to men, indicating a more pronounced gender difference in parenting households compared to non-parenting households.

Additionally, using 2019 Korean Time Use Survey data, the study analyzed the daily time allocation of parents who are raising children. The time-use analysis divided the daily time of parents into personal maintenance time, obligatory time, and discretionary time, and compared the time distribution between parenting and non-parenting households. It was found that non-parenting households spent 15.5 minutes more on personal maintenance time and 57.7 minutes more on discretionary time compared to parenting households. On the other hand, parenting households spent 73.2 minutes more on obligatory time, including time for care-giving.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suggests several policy recommendations by the age of children. For parents of infants, health promotion programs and early child-rearing consultation support were recommended. For parenting households with elementary school-aged children, expanding after-school program support, recognizing the caregiving experience of women who have left the workforce, and providing cultural activities for families raising children were proposed. Above all, the study stresses the need to expand a parenting-friendly culture where parenting support systems are more widely utilized.

Keyword: Quality of life, Parenting households, Parenting-friendly environment, Time-use survey, Low birth rate

부록 1. 설문조사 질문지

육아가구 삶의 질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2024년 기본과제로 「육아가구의 삶의 질 제고방안 연구」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가구의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관련 정책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윤리 및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 이외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024년 6월
육아정책연구소장



선정문항

선문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퀴터]

1. () 시/도

선문2.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몇 세입니까? [퀴터]

1. 만 25세 미만
2. 만 25세 ~ 만 29세
3. 만 30세 ~ 만 34세
4. 만 35세 ~ 만 39세
5. 만 40세 ~ 만 44세
6. 만 45세 ~ 만 49세
7. 만 50세 이상

선문3.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퀴터]

1. 남자
2. 여자

선문4. 귀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퀴터]

1. 예
2. 아니오 → 선문5로 이동

[로직 : 선문4=1인 경우]

선문4-1. 자녀는 몇 명입니까? [오픈]

1. ()명

[로직 : 선문4=1인 경우]

선문4-2. 귀하의 자녀 연령을 응답해주세요.
 앞서 응답하신 [제시: 선문 4-1]명의 자녀 모두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커스텀]

자녀	연령
1. 첫째 자녀 [퀴터]	//드롭다운//
2. 둘째 자녀	//드롭다운//
3. 셋째 자녀	//드롭다운//

//선문4-1의 자녀수만큼 연령 응답할 수 있도록 구현 부탁드립니다.

예. 선문4-1=5일 경우 →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 다섯째 자녀//

//연령 드롭다운 보기

1. 만0~2세 (영아)
2. 만3~5세 (유아)
3. 만6~8세 (초등학교 1~3학년)
4. 만9~11세 (초등학교 4~6학년)
5. 만12~14세 (중학생)
6. 만15~17세 (고등학생)
7. 만18세 이상 (성인 자녀)//

//첫째자녀 연령=5 OR 6 OR 7일 경우 조사종료//

선문5.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단수]

1. 미혼
2. 기혼(사실혼 포함)
3. 이혼/사별

//선문4=1(자녀 있음)인 경우 선문5로 인한 조사 종료 없음//

//선문4=2(자녀 없음)인 경우, 선문5=1 또는 선문5=3이면 조사 종료//

//선문4=2(자녀 없음)인 경우, 선문2=1 또는 선문2=7이면 조사 종료//

// 선문6-1과 선문6-2는 한 화면에 구현해주세요.//

선문6-1. 현재 본인의 취업 또는 학업 상태에 대해 응답해주세요. [단수]

1. 취업중
2. 학업중
3. 휴직중 (육아휴직, 질병휴가 등 일시휴직)
4. 미취업

선문6-2. 현재 배우자의 취업 또는 학업 상태에 대해 응답해주세요. [단수]

1. 취업중
2. 학업중
3. 휴직중 (육아휴직, 질병휴가 등 일시휴직)

4. 미취업
5. 배우자 없음

// 유자녀 가구의 경우, 선문5=1 또는 3인 경우, 선문6-2=5로 자동 코딩 //

//선문6-3은 실제 설문에서 보여주지 않고, 선문6-1, 선문6-2 응답값에 따라 자동코딩//

선문6-3. 맞벌이 여부

1. 맞벌이 가구
2. 외벌이 가구
3. 모두 일하지 않음
4. 배우자 없음(유자녀 가구)

//자동코딩 로직 1 :

선문4=1 유자녀 가구일 때,

(선문6-1=1 OR 2 OR 3) AND (선문6-2=1 OR 2 OR 3)인 경우 선문6-3=1 맞벌이

(선문6-1=4) AND (선문6-2=1 OR 2 OR 3)인 경우 선문6-3=2 외벌이

(선문6-1=1 OR 2 OR 3) AND (선문6-2=4)인 경우 선문6-3=2 외벌이

(선문6-1=4) AND (선문6-2=4)인 경우 선문6-3=3 모두 일하지 않음

(선문6-2=5)인 경우 선문6-3=4 배우자 없음//

//자동코딩 로직 2 :

선문4=2 무자녀 기혼부부일 때,

(선문6-1=1 OR 2 OR 3) AND (선문6-2=1 OR 2 OR 3)인 경우 선문6-3=1 맞벌이

(선문6-1=4) AND (선문6-2=1 OR 2 OR 3)인 경우 선문6-3=2 외벌이

(선문6-1=1 OR 2 OR 3) AND (선문6-2=4)인 경우 선문6-3=2 외벌이

(선문6-1=4) AND (선문6-2=4)인 경우 선문6-3=3 모두 일하지 않음//

선문7. 귀하의 월평균 총 가구 소득은 얼마입니까? </br> 세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말씀해주시요. [소프트웨어][오픈]

1. ()만원



I. 육아가구 양육실태

[카테고리(단독) : ※다음은 첫째 자녀 양육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카테고리(문1~6) : 육아 돌봄 실태 전반]

[로직: 선문4=1 & 선문5=2인 경우만 응답]

문1. 부부의 자녀 양육 분담 정도는 어떠합니까?

※ 1주일 기준 집안에서 자녀가 돌봄이 필요한 시간 전체를 100%로 생각하고 응답해 주세요.

※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보육·교육 기관에 있는 시간을 제외해주시요.

[커스텀]

구분	비율
1. 본인	()% [로직 : 0 TO 100]
2. 배우자	()% [로직 : 0 TO 100]
3. 부부 외 타인 ※ 본인 부모님, 배우자 부모님, 비혈연 육아도우미 등	()% [로직 : 0 TO 100]
4. 총합	()% [자동합계]

[로직(총합) : 문35-3<100일 경우 경고창]

[경고창(총합) : 합이 100%가 되도록 응답해주시요.]

[로직: 선문4=1 & 선문5=2인 경우만 응답]

문2. 부부 간 양육분담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단일척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로직: 선문4=1인 경우]

문3. 자녀 중에 장애 또는 만성적인 질병이 있는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단수]

1. 있다
2. 없다

[로직 : 선문4-2-1=1 OR 2인 경우만] 첫째자녀가 영유아

문4-1. 첫째자녀는 평일 오전/낮시간(오전~오후3시경)에 다음의 기관에 다니고 있습니까? [단수]

1. 어린이집
2. 유치원
3. 반일제 이상 학원(예: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
4. 기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보육함

[로직 : 선문4-2-1=1 OR 2인 경우만] 첫째자녀가 영유아

문4-2. 첫째자녀가 평일 오후에 이용하는 돌봄서비스 기관에 대해 모두 응답해주시시오. [복수]

1. 어린이집 연장보육
2. 유치원 방과후 과정(오후 2시 이후)
3. 반일제 이상 학원(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의 방과후 수업
7. 지역사회 내 돌봄 서비스(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
8. (사설) 학원 등의 사교육 기관
9. 기타()

[로직 : 선문4-2-1=1 OR 2인 경우만] 첫째자녀가 영유아

문4-3. 첫째자녀가 집이 아닌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을 하루 평균 얼마나 됩니까?[오픈]

[제시 : 문4-1 응답값] 보기 1~3 중 응답 시 제시
어린이집/유치원/반일제 이상 학원(영어유치원 등)
[제시 : 문4-3 응답값] 제시
어린이집 연장보육/유치원 방과후과정/반일제 이상 학원(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의 방과후 수업/지역사회 내 돌봄 서비스(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사설) 학원 등의 사교육 기관/기타()

1. 하루 평균 ()시간 ()분 [시간_로직 : 0 TO 15], [분_로직 : 0 TO 59] //시간과 분 응답값이 모두 0일 경우 경고창//
[경고창 :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0시간 0분일 수는 없습니다. 다시 응답해주시시오.]

[로직 : 선문4-2-1=1 OR 2인 경우만] 첫째자녀가 영유아

문4-4. 첫째자녀가 집에 있을 때, 아이를 돌보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표기해주시시오. [복수]

- 1. 조부모(또는 친인척)
- 2.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아이돌보미)
- 3. 민간 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
- 4. 다른 사람 도움 없이 부모가 직접 돌봄 [중복선택불가]

[로직 : 선문4-2-1=3 OR 4인 경우만] 첫째자녀가 초등학생

문5-1. 첫째자녀가 집에 있을 때, 아이를 돌보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표기해주시시오. [복수]

- 1. 조부모(또는 친인척)이 돌봄
- 2.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아이돌보미)
- 3. 민간 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
- 4. 다른 사람 도움 없이 부모가 직접 돌봄 [중복선택불가]
- 5. 아이가 집에 혼자 있음 [중복선택불가]

[로직 : 선문4-2-1=3 OR 4인 경우만] 첫째자녀가 초등학생

문5-2. 첫째자녀가 평일 오후 하교 이후에 이용하는 돌봄서비스 기관에 대해 모두 응답해주시시오. [복수]

- 1. 초등학교 내 돌봄(초등돌봄교실/방과후 학교/ 늘봄학교 등)
- 5. 지역사회 내 돌봄 서비스(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
- 6. (사설) 학원 등의 사교육 기관
- 7. 기타()

[로직 : 선문4-2-1=3 OR 4인 경우만] 첫째자녀가 초등학생

문5-3. 첫째자녀가 집이 아닌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을 하루 평균 얼마나 됩니까?[오픈]

[제시 : 문4-3 응답값] 보기 1 또는 5 또는 6 중 응답 시 제시
 초등학교 내 돌봄(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늘봄학교 등)
 지역사회 내 돌봄 서비스(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
 (사설) 학원 등의 사교육 기관/기타()

1. 하루 평균 ()시간 ()분 [시간_로직 : 0 TO 15], [분_로직 : 0 TO 59]
//시간과 분 응답값이 모두 0일 경우 경고창//

[경고창 :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0시간 0분일 수는 없습니다. 다시 응답해 주십시오.]

[로직 : 선문4-2-1=1 OR 2인 경우만 아래 문구 나오게 구현 요청]

문6. 첫째자녀가 다니는 [문4-1 응답값 제시]에 대해 아래의 요소별로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응답해주십시오. [척도][STEPBYSTEP]

[로직 : 선문4-2-1=3 OR 4인 경우만 아래 문구 나오게 구현 요청]

문6. 첫째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대해 아래의 요소별로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응답해주십시오. [척도][STEPBYSTEP]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1. 시설의 질(건물, 공간, 장비 등)												
2. (교)직원들의 전문성과 역량												
3. 교육·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4. 커리큘럼 및 활동												

[카테고리(문7) : 양육 효능감]

[로직:선문4=1인 경우]

문7. 다음 진술을 읽고, 자신이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응답해주시시오.

[척도][STEPBYSTEP]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4
1. 나는 나의 행동이 아이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				
2. 나는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3. 나는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4.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로부터 좋은 부모 역할을 배울 수 있는 괜찮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5.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				
6. 나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 자신이 잘못된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 하고 지도한다.				
7. 나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다.				
8.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며 보다 더 나은 부모가 되고자 노력한다.				
9.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카테고리(문8) : 부모역할 부담]

[로직:선문4=1인 경우]

문8. 다음은 귀하의 육아에 대한 생각을 묻는 내용입니다.
 귀하하는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면서 다음 어려움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척도][STEPBYSTEP]

	전혀 느끼지 않는다.....매우 느낀다										
	0	1	2	3	4	5	6	7	8	9	10
[로직:선문5=2인 경우]											
1.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을 둘러싼 배우자와의 갈등											
2. 자녀의 학업, 취미(미디어 등), 생활습관 등을 둘러싼 자녀와의 갈등											
3. 자녀를 키우느라 사회적으로 단절되어 느끼는 정서적 어려움											
4. 부모로서 양육책임 자체에 대한 심리적 부담											
5. 양육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											
6.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따른 신체적 고단함											

[카테고리(문9) : 자녀 양육 정서]

[로직:선문4=1인 경우]

문9.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정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br>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정도에 표기해주시요.

[척도][STEPBYSTEP]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1. 육아 경험을 통해 나는 나의 부모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2. 육아경험을 통해 나는 나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다.				
3. 육아경험은 나에게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				
4. 나는 육아에 완전히 몰입되는 경험을 갖춘 한다.				
5. 육아활동에는 상당한 시간이 할애되지만 나는 이 시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6. 육아활동은 나를 제대로 표현해준다고 생각한다.				
7. 자녀에게 잘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한 생각이 든다.				
8. 자녀를 키우는 일은 부담스럽고 혼란스러운 일이다.				
9. 자녀를 키우는 일은 귀찮고 짜증스러운 일이다.				

[카테고리(문10) : 육아를 어렵게 하는 요소]

[로직:선문4=1인 경우]

문10. 귀하는 다음 중 육아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주시요.</br> ※귀하의 첫째 자녀

에 대해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복수] [rank : 2] [랜덤]

1.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교육기관 및 인력의 부재
2.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비용지원 부족
3.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시설 및 공간 부족
4. 육아를 하는 가구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
5. 사교육 증가로 사교육비용 증가
6. 기타()

[카테고리(문11-1~문11-3) : ※다음은 삶의 영역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로직:선문4=1인 경우]

문11-1. 다음의 영역 중 귀하가 현재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영역을 순서대로 2가지 선택해 주세요. [복수] [rank : 2]

1. 개인의 내적 성숙
2. 가족 생활
3. 건강 생활
4. 일(직장) 생활
5. 여가 생활
6. 사회적 관계
7. 소득소비(물질적 생활)
8. 주거생활
9. 환경

[로직:선문4=1인 경우]

문11-2. 다음의 영역 중 귀하가 현재 삶에서 가장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고 있는 영역을 순서대로 2가지 선택해 주세요. [복수] [rank : 2]

1. 개인의 내적 성숙
2. 가족 생활
3. 건강 생활
4. 일(직장) 생활
5. 여가 생활
6. 사회적 관계
7. 소득소비(물질적 생활)
8. 주거생활
9. 환경

[로직:선문4=1인 경우]

문11-3. 다음의 영역 중 귀하가 현재 삶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을 순서대로 2가지 선택해 주세요. [복수] [rank : 2]

1. 개인의 내적 성숙
2. 가족 생활
3. 건강 생활
4. 일(직장) 생활
5. 여가 생활
6. 사회적 관계
7. 소득소비(물질적 생활)
8. 주거생활
9. 환경

[로직:선문4=1인 경우]

문12. 자녀로 인해 나의 삶의 질은 어떤 변화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각 영역
별로 응답해주시오.
(자녀와 함께 하는 생활 등을 포함하여 생각해 주세요)

[척도][STEPBYSTEP]

	매우 낮아졌다	낮아진 편이다	높아진 편이다	매우 높아졌다
	1	2	3	4
1. 개인의 내적 성숙 및 행복감				
2. 건강 생활				
3. 여가 생활				
4. 가족 생활				
5. 사회적 관계 ※ 자녀로 인한 사회적 관계 포함				
6. 직업 생활				
7. 경제 생활(물질적 풍요)				
8. 주거생활				
9. 환경				



Ⅱ. 결혼·출산 및 부모되기 인식

[카테고리(단독) : ※다음은 결혼·출산·부모되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묻는 응답입니다.]

[카테고리(문13) : 자녀에 대한 가치관]

문13. 자녀에 대한 다음의 태도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척도][STEPBYSTEP]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4
1.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2. 자녀를 키우는 일은 기쁨과 행복을 준다.				
3.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4. 자녀가 있으면 외롭지 않고 허전하지 않다.				
5.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6.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카테고리(문14) : '부모되기'에 대한 인식]

문14. '부모되기'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다음의 각 문장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기해 주십시오. [척도][STEPBYSTEP]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1	2	3	4
1. 부모가 된다는 것은 책임감을 동반하는 두렵고 부담스러운 일이다.				
2. 자녀를 낳기 전에 부모가 되기 위한 심리·정서적 준비가 꼭 필요하다.				
3.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카테고리(문15) : 부모 책임 인식]

문15. 다음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나타내는 견해를 진술한 것입니다.

〈/br〉 귀하는 둘 중 어디에 더 동의하십니까? [단수]

1.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
2.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으므로, 자녀 때문에 본인의 행복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카테고리(문16) : 부모로서 지원 정도]

문16. 부모로서 언제까지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1. 대학 입학 전까지
2. 대학 졸업할 때까지
3. 취업할 때까지
4. 결혼할 때까지
5. 결혼 후 기반이 마련되고 안정될 때까지
6. 평생 동안 언제라도

문17. 육아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3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복수] [rank : 3]

[랜덤]

1. 양육 시간 지원정책(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2. 비용 지원정책(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자녀세액공제 등)
3. 돌봄 서비스 지원정책(보육서비스,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초등돌봄교실 등)
4. 주거 지원정책(특별공급, 청약 가점 등)
5. 교육 정책(공교육 강화 등)
6. 지역사회 환경(놀이터, 공원 등)
7. 양육 친화적인 문화(양육에의 가치 인정, 아동 환대 등의 분위기)
8. 아동 의료시설 확대
9. 육아기 부모 대상 자녀 및 부모 상담
10. 기타()

[로직: 선문6-1=4(미취업자) AND 선문5=1 OR 3(배우자 없음)인 경우 문항 스킵]

문18. 귀 닥에서 자녀의 양육을 위해 다음의 제도를 현재 이용 중이거나 필요시 활용할 수 있습니까? </br> ※ 현재 자녀가 없더라도, 해당 제도를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오. [커스텀]

	자녀돌봄 지원제도 이용가능 여부	
	본인	배우자
1. 육아휴직제도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3. 시차출퇴근제/선택근무제		
4. 원격근무제(재택근무제)		
5. 가족돌봄휴가		

보기
1. 현재 이용중임
2. 필요시 이용할 수 있음
3. 제도가 있으나 실제 사용하기 어려움
4. 제도 도입이 안 됨
5. 제도가 있는지 잘 모름
6. 제도 적용대상이 아님(해당사항 없음: 개인사업자, 임시직 등)
7. 취업자 아님
8. 배우자 없음

//선문6-1=2 OR 4이면 문18-1(본인)~문18-5(본인)=7. 취업자 아님 자동코딩//

//선문6-2=2 OR 4이면 문18-1(배우자)~문18-5(배우자)=7. 취업자 아님 자동코딩//

//선문5=1 OR 3이면 문18-1(배우자)~문18-5(배우자)=8. 배우자 없음 자동코딩//

//선문5=2인 경우, 8.배우자 없음은 응답자의 보기에서 출력되지 않게 해주세요.//

문19. 최근 미디어에서 육아/양육 관련 다양한 예능/교양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봤을 때 '육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단일척도]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게 두렵고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게 행복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0	1	2	3	4	5	6	7	8	9	10	



Ⅲ. 내면적 삶

[카테고리(문20~문23) : 주관적 웰빙]

문20. 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단일척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문21.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일척도]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매우 행복했다
0	1	2	3	4	5	6	7	8	9	10

문22.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근심/걱정을 하셨습니까? [단일척도]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매우 걱정했다
0	1	2	3	4	5	6	7	8	9	10

문23.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셨습니까? [단일척도]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										매우 우울했다
0	1	2	3	4	5	6	7	8	9	10

[카테고리(문24~문26) : 의식과 가치]

문24. 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일척도]

전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매우 가치가 있다고 생 각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문25. 귀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에 있어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일척도]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매우 자유롭다
0	1	2	3	4	5	6	7	8	9	10

문26. 귀하는 아래의 의견에 대해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단일척도]

막연한 미래보다 현재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 재를 희생할 수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카테고리(문27) : 생활패턴]

//로직 : 시간, 분 모두 드롭다운 형태이고, 분은 10분 단위로 응답할 수 있도록
구현 요청 드립니다(0, 10, 20, 30, 40, 50).//

문27. 응답하시는 날 기준, 가장 가까운 평일과, 주말을 떠올리시면서 아래의
활동을 몇 시간이나 하셨는지 표시해 주세요. [커스텀]

구분	평일	주말
1. 수면	()시간 ()분	()시간 ()분
2. 직업 활동 (유급노동시간)	()시간 ()분	()시간 ()분
3. 집안일 (가사노동시간)	()시간 ()분	()시간 ()분
[로직 : 선문4=1인 경우]		
4.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없을 경우 0으로 표시)	()시간 ()분	()시간 ()분
5. 여가시간 ※미디어 이용, 문화/취 미활동(영화감상, 박물관/미술관 관람 등), 친구/지인과 모임, 운동 등	()시간 ()분	()시간 ()분

//주중, 주말 각각 총합이 24시간 0분이 넘는 경우 경고창//

[경고창 : 총합이 24시간이 넘지 않도록 응답해 주십시오.]



IV. 삶의 역량 - 건강, 교육, 여가

[카테고리(문28-1~문28-3) : 건강관리]

문28-1. 귀하는 건강관리를 위해 **지난 3개월 이내**에 다음의 활동을 얼마나 실천하고 계십니까? [척도]

	예	아니오
	1	2
1. 아침 식사하기		
2. 규칙적 운동		

문28-2. 귀하는 건강관리를 위해 **지난 2년 이내**에 다음의 활동을 얼마나 실천하고 계십니까? [척도]

	예	아니오
	1	2
3. 정기 건강검진		

[카테고리(문29) : 주관적 건강상태]

문29. 귀하의 전반적인 (신체적)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단일척도]

매우 나쁘다											매우 좋다
0	1	2	3	4	5	6	7	8	9	10	

[카테고리(문30) : 수면의 질]

문30. 지난 한 달 동안, 당신의 전반적인 수면의 질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단일척도]

매우 나쁘다											매우 좋다
0	1	2	3	4	5	6	7	8	9	10	

[카테고리(문31) : 스트레스 정도]

문31. 귀하는 지난 2주일 동안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꼈습니까?</br> 다음 분야마다 해당되는 곳에 응답해주시시오. [척도]
[STEPBYSTEP]

	전혀 느끼지 않았다											매우 많이 느꼈다	해당 없음
	0	1	2	3	4	5	6	7	8	9	10	99	
1. 가정 생활													X
2. 직장 생활 ※ 학업 중인 경우, 학교 생활													
3. 가족 내 관계에서의 스트레스													X
4. 친구, 이웃, 지인 관계에서의 스트 레스													X
5. 전반적 스트레스													X

//선문6-1=3 인 경우 문31-2(직장생활)=99. 해당없음으로 자동코딩//

//선문6-1=4 인 경우 문31-2(직장생활)=99. 해당없음으로 자동코딩//

[카테고리(문32~문34) : 교육]

문32.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단수]

1. 고등학교 졸업 이하
2. 전문대학(2·3년제) 졸업
3. 대학교(4년제) 졸업
4. 대학원 재학 이상

문33. 귀하는 귀하가 받았던/받고 있는 학업 수준에 만족하십니까? [단일척도]

[제시 : 문32의 응답값]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0	1	2	3	4	5	6	7	8	9	10	

문34. 귀하는 평소 자신을 위한 배움(역량강화, 취미를 위한 교육수강 등)에 대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단일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0	1	2	3	4	5	6	7	8	9	10	

[카테고리(단독) :

다음은 여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가는 직업상의 일이나 필수적인 가사 활동을 하는 시간을 제외한 먹기, 자기, 일하러 가기, 수업에 출석하기, 숙제하기, 집안일, 육아 같은 의무적인 활동 전후에 남는 자유로운 시간을 말합니다.]

문35-1. 귀하는 **주중** 여가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주로 하는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복수] [rank : 2]

1. 동영상 콘텐츠 시청(텔레비전, 유선방송, 아이피티브이(IPTV), 유튜브, 넷플릭스 등 (※출퇴근시간 등 기타 목적을 위한 시간에 보는 동영상 시청 제외)
2. 문화 예술 관람(연극, 영화, 연주회, 전시회 관람 등)
3. 문화 예술 활동(독서, 음악듣기, 미술 활동, 악기연주, 사진 촬영 등)
4. 스포츠 경기 관람(야구, 축구, 농구 등 관람: 직접 관람)
5. 건강을 위한 운동 활동(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골프, 수영, 헬스, 요가 등)
6. 여행, 나들이 (국내외 여행, 근교 나들이, 캠핑 등)
7. 사회활동(봉사활동 종교활동, 사교활동 등)
8. 기타()
9. 여가 활동 없음 [중복선택불가] → 문36-1로 이동

문35-2. 귀하는 **누구와 함께 주중**에 [제시: 문35-1의 1순위 응답]을/를 하겠습니까? (조사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중**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단수]

1. 자녀 동반 가족 //선문4=2인 경우 제시하지 않음//
2. 자녀 외 가족
3. 친구, 지인, 동료, 동호회 등
4. 혼자서
5. 기타 ()

문35-3. 귀하는 **주중**에 [제시 : 문35-2]와/과 [제시: 문35-1의 1순위 응답]의 활동을 할 때 다음의 감정을 얼마나 느끼셨습니까? [최도]

	전혀 느끼지 않았다											매우 많이 느꼈다
	0	1	2	3	4	5	6	7	8	9	10	
1. 즐거움												
2. 긴장 혹은 스트레스												

문36-1. 귀하는 **주말 및 휴일** 여가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br>

주로 하는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복수] [rank : 2]

1. 동영상 콘텐츠 시청(텔레비전, 유선방송, 아이피티비(IPTV), 유튜브, 넷플릭스 등 (*출퇴근시간 등 기타 목적을 위한 시간에 보는 동영상 시청 제외)
2. 문화 예술 관람(연극, 영화, 연주회, 전시회 관람 등)
3. 문화 예술 활동(독서, 음악듣기, 미술 활동, 악기연주, 사진 촬영 등)
4. 스포츠 경기 관람(야구, 축구, 농구 등 관람: 직접 관람)
5. 건강을 위한 운동 활동(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골프, 수영, 헬스, 요가 등)
6. 여행, 나들이 (국내외 여행, 근교 나들이, 캠핑 등)
7. 사회활동(봉사활동 종교활동, 사교활동 등)
8. 기타()
9. 여가 활동 없음 [중복선택불가] → 문37로 이동

문36-2. 귀하는 **누구와 함께 주말 및 휴일**에 [제시: 문36-1의 1순위 응답]을/를 하셨습니까? (조사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말 및 휴일**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단수]

1. 자녀 동반 가족 //선문4=2인 경우 제시되지 않도록 구현 요청//
2. 자녀 외 가족
3. 친구, 지인, 동료, 동호회 등
4. 혼자서
5. 기타 ()

문36-3. 귀하는 **주말 및 휴일**에 [제시 : 문36-2]와/과 [제시: 문36-1의 1순위 응답]의 활동을 할 때 다음의 감정을 얼마나 느끼셨습니까? [척도]

	전혀 느끼지 않았다										매우 많이 느꼈다											
	0	1	2	3	4	5	6	7	8	9	10											
1. 즐거움																						
2. 긴장 혹은 스트레스																						

문37. 귀하는 평소 여가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단일척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문38. 귀하는 평소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일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0	1	2	3	4	5	6	7	8	9	10											

[로직 : 문38<4인 경우만 응답]

문38-1. 평소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

1. 육아로 인한 시간 부족
2. 일로 인한 시간부족
3. 집안일로 인한 시간부족
4. 기타 ()

[로직 : 문38<4인 경우만 응답]

문38-2. 귀하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면 여가시간에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주중, 주말에 하고 싶은 여가활동을 각각 응답해주시시오. [커스텀]

1. 주중	
2. 주말	

1. 동영상 콘텐츠 시청(텔레비전, 유선방송, 아이피티브이(IPTV), 유튜브, 넷플릭스 등 ※출퇴근시간 등 기타 목적을 위한 시간에 보는 동영상 시청 제외)
2. 문화 예술 관람(연극, 영화, 연주회, 전시회 관람 등)
3. 문화 예술 활동(독서, 음악듣기, 미술 활동, 악기연주, 사진 촬영 등)
4. 스포츠 경기 관람(야구, 축구, 농구 등 관람: 직접 관람)
5. 건강을 위한 운동 활동(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골프, 수영, 헬스, 요가 등)
6. 여행, 나들이(국내외 여행, 근교 나들이, 캠핑 등)
7. 사회활동(봉사활동 종교활동, 사교활동 등)
8. 기타()



V. 사회적 삶 - 가족, 공동체

[카테고리(문39) : 가족관계만족도]

문39. 귀하는 다음의 가족 간의 관계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각 항목의 해당되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척도][STEPBYSTEP]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해당 없음 99
	0	1	2	3	4	5	6	7	8	9	10		
1. 배우자와의 관계													
2. 자녀와의 관계													
3. 본인의 부모/형제와의 관계													
4. 배우자의 부모/형제와의 관계													

//문39-1, 2, 4 항목의 경우, 선문4, 선문5 응답에 따라 자동코딩//

//선문5=1 OR 3인 경우 문39-1=99 자동코딩//

//선문4=2인 경우 문39-2=99 자동코딩//

//선문5=1 OR 3인 경우 문39-4=99 자동코딩//

//문39-1, 2, 4의 경우 해당없음 자동코딩하고, 그 외의 경우는 0~10점만 출력
//

//문39-3의 경우, 0~10점과 99 해당없음 모두 출력//

[카테고리(문40~43) : 가사분담 실태]

[선문5=2인 경우만 응답]

문40. 부부의 가사 분담 정도는 어떠합니까? * 1주일 기준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사노동 전체를 100%로 생각하고 응답해 주세요. [오픈][커스텀]

구분	비율
1. 본인	()% [로직 : 0 TO 100]
2. 배우자	()% [로직 : 0 TO 100]
3. 부부 외 타인 ※ 본인 부모님, 배우자 부모님, 가사도우미 등	()% [로직 : 0 TO 100]
4. 총합	()% [자동합계]

[로직(총합) : 문40-4<100일 경우 경고창]

[경고창(총합) : 전체 합이 100%가 되도록 응답해주십시오.]

[선문5=2인 경우만 응답]

문41. 부부 간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단일척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문42. 귀하는 혼자 있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단일척도]

전혀 없다										매우 많다
0	1	2	3	4	5	6	7	8	9	10

문43. 귀하는 혼자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일척도]

전혀 충분하지 않다										매우 충분하다
0	1	2	3	4	5	6	7	8	9	10

[카테고리(문44) : 사회적 고립도]

문44. 다음 문항들은 평소에 귀하가 느끼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바에 표시해 주세요. [척도][STEPBYSTEP]

	전혀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1. 나는 외롭다고 느낀다				
2. 나는 소외되어 있다고 느낀다				
3. 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편하게 의지할 수 있다.				
4. 나의 일상적인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문44. 다음 문항들은 평소에 귀하가 느끼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바에 표시해 주세요. [척도]

	0명	1-2명	3-6명	7명 이상
	1	2	3	4
5. 월 1회 이상 사적으로 만나거나 주 1회 이상 연락을 할 정도로 친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가족, 친척, 친구 포함)				

문44. 다음 문항들은 평소에 귀하가 느끼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바에 표시해 주세요. [척도]

	전혀 안 함	15분 미만	15분 이상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1	2	3	4
6. 친구나 가족과 사적인 연락을 하는데 하루 중 평균 몇 분 정도를 사용하십니까?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 메시지)				

문45. 귀하는 다음의 인간관계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br> 각 항목의 해당되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척도][STEPBYSTEP]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해당 없음
	0	1	2	3	4	5	6	7	8	9	10		99
1. 나의 친구와의 관계													
2. 이웃과의 관계													
3. 직장 동료와의 관계 ※ 학업 중인 경우 학교 동료와의 관계 ※ 휴직중인 경우휴직 전을 기준으로													
4. 자녀 친구 부모와의 관계													

//선문6-1=4인 경우 문45-3=99. 해당없음 자동 코딩//

//선문4=2인 경우 문45-4=99. 해당없음 자동코딩//

[카테고리(문46~46-1) : 집단별 신뢰정도]

문46. 귀하는 우리사회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단일척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매우 신뢰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문46-1. 귀하는 다음 사회/집단들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척도][STEPBYSTEP]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매우 신뢰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1. 가족(친척 포함)												
2. 이웃												
3.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사람(친구, 동료 등)												
4. 처음 만난 낯선 사람												

[카테고리(문47) : 사회적 관계망]

문47. 귀하는 각각의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공공 서비스를 제외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응답해 주세요.**

[척도][STEPBYSTEP]

	전혀 없다	없는 편이다	있는 편이다	꽤 있다
	1	2	3	4
1.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2.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3.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				
4. 급하게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사람				



VI. 물질적 삶

[카테고리(문48~49) : 일자리 만족도]

[로직 : 선문6-1=1인 경우]

문48. 귀하는 전반적으로 귀하의 직업/일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단일척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로직 : 선문6-1=1인 경우]

문49. 귀하는 현재 자신의 일·가정(생활) 양립 정도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단일척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카테고리(문50-1~문50-3) : 기업의 육아친화적 환경]

[로직 : 선문6-1=1인 경우]

문50-1. 다음은 귀하의 직장 내 근로자가 자녀양육 지원 제도 및 문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단일척도]

나의 직장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등
자녀양육 지원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0	1	2	3	4	5	6	7	8	9	10

[로직 : 선문6-1=1인 경우]

문50-2. 다음은 귀하의 직장 내 근로자가 자녀양육 지원 제도 및 문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단일척도]

나의 직장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등
자녀양육 지원 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0	1	2	3	4	5	6	7	8	9	10

[로직 : 선문6-1=1인 경우]

문50-3. 다음은 귀하의 직장 내 근로자가 자녀양육 지원 제도 및 문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단일척도]

나의 직장은 직장 내 근로자가 자녀양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지적인 육아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0	1	2	3	4	5	6	7	8	9	10

[카테고리(문51) : 소득 만족도]

문51. 귀하는 현재 가구소득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소득에는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이전 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일척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카테고리(문52~53) : 소비생활만족도]

문52. 귀하는 현재 가구에서의 전반적인 소비 생활(모든 소비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단일척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문53. 귀하는 현재 자신을 위한 소비 생활(의식주, 여가를 위한 소비 등)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단일척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카테고리(문54) : 자녀 양육비 부담정도]

[로직:선문4=1인 경우]

문54. 귀댁의 자녀에게 지출되는 양육비(교육비 제외)가 가계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일척도]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매우 부담된다
0	1	2	3	4	5	6	7	8	9	10

[카테고리(문55) : 자녀 교육비 부담정도]

[로직:선문4=1인 경우]

문55. 귀댁의 자녀 교육비는 가정 경제에 얼마나 부담됩니까?
 ※교육비는 학교 납입금, 보충 교육비, 학원비, 기숙사비 등 교육을 위해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합니다. [단일척도]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매우 부담된다
0	1	2	3	4	5	6	7	8	9	10	

[카테고리(문56) : 주거비 부담도]

문56. 귀댁의 현재 지출하고 있는 주거비용(보증금, 월세, 관리비,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은 가정 경제에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단일척도]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매우 부담된다
0	1	2	3	4	5	6	7	8	9	10	

[카테고리(문57) : 계층의식]

문57. 귀하의 사회 경제적 지위(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1. 상-상
2. 상-하
3. 중-상
4. 중-하
5. 하-상
6. 하-하

[카테고리(문58) : 계층이동]

문58. 우리 사회에서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척도]

	개인의 노력으로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										개인의 노력으로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0	1	2	3	4	5	6	7	8	9	10
1. 본인 세대											
2. 자식 세대											



VII. 삶의 환경 - 주거, 환경, 안전

[카테고리(문59) : 거처의 점유형태]

문59. 귀댁의 점유형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단수]

1. 자가
2. 전세
3. 보증금 있는 월세
4. 보증금 없는 월세
5. 무상
6. 기타 ()

//안내문 :

※ 무상: 관사, 사택 또는 친척집 등에서 세 없이 살고 있는 경우(가구주나 가구원이 소유한 집이 아니고, 다른 가구를 이루고 있는 부모, 형제, 친지 등이 소유한 주택에서 임차료나 세 없이 살고 있는 경우에 해당함) //

[카테고리(문60~61) : 주거만족도]

문60. 귀댁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단일척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안내문 :

※ 주택의 상태란,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면적, 주택의 내구성, 노후상태, 주택 유형 등을 말합니다. //

문61. 귀댁이 **현재 살고 계신 주거환경**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척도][STEPBYSTEP]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1. 교통인프라												
2. 문화·체육시설												
3. 편의시설(상가, 마트 등)												
4. 의료시설(병·의원 등)												
5. 보육·교육 관련 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6. 전반적인 주거환경												

문61-1. 귀댁이 **현재 거주하는 생활환경**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척도][STEPBYSTEP]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1. 공기의 질												
2. 소음												
3. 주변 자연환경(녹지, 공원 등)												

[카테고리(문62) : 지역사회 내 양육환경 및 문화에 대한 인식]

[로직: 선문4=1인 경우]

문62. 귀하께서 살고 계신 동네는 아이를 키우기에 어떻습니까?

[척도][STEPBYSTEP]

우리 동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4
1. 우리 동네는 아이가 있는 가정을 반기는 분위기이다.				
2. 우리 동네는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 가치있는 일이라고 여긴다.				
3. 우리 동네는 아이의 '아이다움'에 대해 인정하고, 배려한다. (놀이터의 소음이나 층간 소음 등)				
4. 동네에 공원, 녹지, 놀이터 등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다.				
5. 우리 동네에 있는 놀이공간은 아이들이 놀기에 안전하다.				
6. 우리 동네에는 긴급한 돌봄을 요청할 곳이 있다. (돌봄 제공기관 또는 이웃)				
7. 우리 동네에는 양육 관련 정보를 얻거나 양육 관련 지원을 받을 곳이 있다.				
8. 양육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내 소통 공간(온라인 맘카페, 공동양육나눔터 등)이 있다.				
9. 우리 동네에는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 인프라(보육, 교육, 돌봄)가 잘 구성되어 있다.				
10. 지역 내 정부의 지원서비스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카테고리(문63~64) :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문63. 귀하는 귀하가 살고 있는 동네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일척도]

전혀 안전하지 않다											매우 안전하다
0	1	2	3	4	5	6	7	8	9	10	

문64. 귀하는 우리 사회가 자녀를 키우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일척도]

전혀 안전하지 않다											매우 안전하다
0	1	2	3	4	5	6	7	8	9	10	



배경질문

배문1.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단수]

1. 고등학교 졸업 이하
2. 전문대학(2·3년제) 졸업
3. 대학교(4년제) 졸업
4. 대학원 재학 이상

//문32 값으로 자동 코딩//

[로직 : 선문6-1=1 OR 3인 경우]

배문2.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단수]

1. 농림어업 종사자
2. 자영업/개인사업(상업, 종업원 9인 이하의 소규모 장사, 개인택시운전 등)
3. 판매/영업/서비스직(상점 점원, 세일즈맨 등)
4. 노무/기계조작/운송/기능원 및 기능 종사자(운전사, 선반, 목공 등)
5. 사무직(기업체 차장 이하, 5급 공무원 미만 등)
6. 경영 관리직(기업체 부장 이상, 5급 공무원 이상 등)
7. 전문직(의사, 법조인, 교수, 언론인 등)
8. 기타()

[로직 : 선문6-1=1 OR 3인 경우]

배문3. 귀하의 직장(일)에서의 지위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단수]

1. 임금근로자
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 무급가족 종사자

[로직 : 배문3=1인 경우]

배문3-1. 귀하의 현재 고용 형태는 무엇입니까? [단수]

1. 정규직
2. 비정규직

[로직 : 선문4=2인 경우]

배문4. 귀하는 앞으로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습니까? [단수]

1. 낳을 생각이 있다
2. 낳지 않을 생각이다
3. 잘 모르겠다

[로직 : 선문5=2인 경우]

배문5. 귀하는 언제 결혼하셨습니다? [오픈]
 ※사실혼관계의 경우 사실혼 관계 시작 시기로 응답해 주십시오.

1. 결혼 연도 ()년 [로직 : 1900 TO 2024]

부록 2. 심층면담 질문지

부모 심층면담

본 연구는 육아하는 가구가 육아, 일, 개인과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삶의 질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특히 부모가 되는 경험이 귀하의 삶의 영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질문합니다. 다음의 질문들에 대해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인의 삶의 질

1. 요즘 귀하의 삶의 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10점을 기준으로 몇 점을 주시겠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

행복과 관련하여 귀하는 어느 쪽에 더 동의하시나요?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할 수 있다. or
막연한 미래보다 현재의 행복이 중요하다
3. 성취감을 느끼는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실까요?
4. 어떤 상황에서 우울하거나 속상하다고 느끼셨나요?
5. 어제 하루 동안 했던 일들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6. 지난 2주일 동안을 떠올려 보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은 일은 무엇인가요?(가정생활/ 직장생활/ 전반적인 일상생활)

II. 자녀의 의미, 부모가 된다는 것

1. 귀하에게 자녀는 무엇입니까? 비유로 표현하여 볼까요?
2. 귀하에게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나요?
3.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 인가요?
4. 현재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5. 자녀가 생기고 귀하의 삶에 생긴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긍정적 측면 / 부정적 측면
5. 귀하는 만약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부모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III. 일/여가/사회적 관계 등에서의 경험

1. 귀하는 여가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나요?

 여가 시간에는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주중/ 주말)

 주로 누구와 여가를 보내십니까?
2. SNS를 어느 정도 활용하시나요?

 주로 어떤 상황에서 이용하시나요?
3. 현재 하시는 일에 대해 만족하시나요? 10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주세요.
 왜 그렇게 평가하시나요?

4. 자녀를 두고 부모가 되면서 일을 하는 태도나 상황에 변화를 경험하시나요?

IV. 육아를 하면서 확장/변화 된 삶의 영역과 삶의 질

1. 귀하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자녀가 생기고 삶의 질은 어떻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자녀로 인해 확장된 관계들이 있나요?
그로 인해 귀하의 삶의 질에 변화를 경험하시나요?
3. 자녀가 생기고 가족 간(확대가족 포함)에 나타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긍정적 부분/ 부정적 부분

V. 기타

1. (영아 자녀 부모)
 - 영아 자녀를 기르면서 경험하는 보람된 순간과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양육 부담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현재 귀하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유아 자녀 부모)
 - 유아 자녀를 기르면서 경험하는 보람된 순간과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자녀의 유치원/어린이집 적응, 또래 관계는 어떠한가요?
 - 현재 귀하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초등 저학년 부모)
 - 초등 저학년 자녀를 기르면서 경험하는 보람된 순간과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서 경험한 변화는 무엇인가요?
- 자녀의 방과후돌봄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현재 귀하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초등 고학년 부모)

- 초등 고학년 자녀를 기르면서 경험하는 보람된 순간과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자녀의 학업지원에 대해 이야기 하여 주십시오.
- 현재 귀하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육아가구의 삶의 질 제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9 791168 650916
ISBN 979-11-6865-091-6